



부천 근현대기업 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

50



2023년 부천 근현대기업 조사연구 [용역보고서]

2023. 12. 15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 부천 근현대기업 조사연구팀)

제출문

수신 : 부천문화재단 귀중

본 보고서를 귀 재단에서 의뢰한 『2023년 부천 근현대기업 조사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 12. 15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오형민

목 차

I	연구개요	4
II	부천의 산업 현황	12
III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민족기업 유한양행	29
IV	한국 기계산업의 근간 삼양중기(삼양홀딩스)	57
V	한국 반도체 산업의 요람 삼성반도체(온세미컨덕터)	80
VI	전후(戰後) 농촌근대화의 선봉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103
VII	결론(정책 제안)	142
	1. 부천 근현대기업 조사연구 수집자료	151
부록		
	2. 관계자 인터뷰 녹취록	234

I . 연구개요

1. 과업 내용

가. 부천의 산업 발전 과정 검토



- 4개 기업의 사례 연구를 통해 전통 농업사회에서 제약(경공업)·중공업·첨단 디지털 산업으로 이어지는 산업 발전사 측면 검토
- 부천지역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4대 기업이 미친 의미를 파악하고 부천의 정체성 정립, 시민의 자긍심 고취, 도시 브랜드 제고

나. 부천지역 산업환경 연구 및 기업지원 정책자료 활용

- 농업 훈련기관이 가지는 의미와 농촌근대화와 지역 농업사회에 미친 영향 조사연구
- 제약공업, 중공업, 반도체 공업 등 3개의 기업이 부천지역 산업 생태계에 미친 영향 연구
- 4대 기업이 부천에서의 정착, 운영, 성장, 쇠퇴, 매각, 이전 또는 폐쇄 등의 사유와 과정을 연구 기업 유치 등 정책자료 활용

다. 산업사 측면에서 아카이빙(Archiving)

- 부천의 산업화 과정에 대한 ‘도시의 기억’ 과 대표 기업에 대한 아카이브 작업(자료 및 기록보관)
- 부천 근현대기업의 유물, 건축물, 부지 등의 역사문화 공간 복원을 위한 선행 조사 및 콘텐츠 발굴

라. 대상기업 별 주요 과업 내용

① 삼성반도체(1974~1999)

- 한국반도체 설립부터 삼성반도체의 인수 그리고 페어차일드코리아(현 온세미컨덕터)로의 매각 등 삼성반도체 부천공장의 역사 조사 및 연구
- 삼성반도체가 부천의 한국반도체를 인수한 경위와 추후 매각하고 용인·화성·평택으로 옮겨간 원인 조사·분석 및 연구
- 삼성반도체가 부천의 근현대사에서 가지는 의미 도출

② 삼양홀딩스(1973~2018)

- ‘이천중기’ 설립 후 ‘삼양중기’에 인수, ‘삼양엔텍’으로 사명 변경 후 ‘삼양홀딩스’에 흡수 합병된 기업사 조사 및 연구
- ‘삼양중기’가 부천의 ‘이천중기’를 인수한 경위와 추후 공장용지를 매각한 원인 조사 및 연구
- 삼양홀딩스가 부천의 근현대사에서 가지는 의미 도출

③ 유한양행(1936~2006)

- 유한양행 소사공장의 건립과 운영 및 이후 소사회망원과 펄백 기념관으로 이어지는 기업사 조사 및 연구
- 유한양행 소사공장이 건립된 이유와 펄 백 여사에게 매각한 원인 조사·분석 및 연구
- 유한양행이 부천의 근현대사에서 가지는 의미 도출

④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1963~1979)

-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이 소사본동에 설립 후 해체되기까지의 역사 조사 및 연구
- 훈련농장이 설립된 배경과 운영현황 및 해체된 이유 조사·분석 및 연구
-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이 부천의 근현대사에서 가지는 의미 도출

마. 부천 근현대기업 주요 연표

구 분		유한양행	한미재단	삼양중기	삼성반도체
1920년대	일제강점기	유한양행 설립 ('26)			
1930년대		소상공장 준공 ('36), 증설('37)			
1940년대		소상공장으로 본사 이전('42)			
1950년대	한국전쟁 전후 복구	소상공장 재건('55), 증설('58)	한미재단 발족 ('52,美)		
1960년대		소상공장 연구실 준공('60) 본사 서울 이전, 유한학원설립('62) 펼벽재단에 매각, 소사회망원 개원('66~ '67)	훈련농장 설립 ('63)		
1970년대	오일쇼크 ('73) 부천시 증격 ('73)		훈련농장 해체('79)	이천물산('70) 이천중기('73) 주식상장('76) 삼양중기('77)	한국반도체 설립 ('74) 삼성반도체 인수 ('78)
1980년대				흑자전환('84)	삼성전자 인수 ('80) * 도쿄선언, 64KD램 개발('83)
1990년대	외환위기 ('97)		한미재단 철수('90)	* 매출 425억('95)	* 매출 4,500억, 1,500명 웨어차일드 인수('99)
2000년대					
2010년대	금융위기 ('08)			삼양엔텍 변경('09) 삼양홀딩스('14) 이전 매각('18)	
2020년대					온세미콘덕터 인수('16) *1.3조, 2,200명

2. 참여연구원

가. 연구 인력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전공 · 주요 경력	역할
1	책임연구원	오형민	부천대학교	교수	- 박사(경영학 전공) - 삼성그룹 제일기획 근무 - 경기도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 - 부천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연구 용역 총괄 운영
2	선임연구원	장정규	부천문화원 부천학연구소	연구위원	- 석사(한국 근대사 전공) - 경기도 광명시청 - 부천산업진흥원 전략사업본부장 - 부천문화원 사무국장	연구 용역 실무책임
3	참여연구원	박신영	한국국학진흥원	연구위원	- 석사(한국사 전공)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 한국여성사학회 편집간사 - 영월문화도시지원센터 팀장	연구 실무 자료 수집 자료 정리
4	참여연구원	양경직	계남역사문화 연구소	소장	- 향토사학 전문가 - 부천향토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부천시향토문화재지정위원회 위원	한미재단 연구 집필
5	참여연구원	양윤모	개항장연구소	연구위원	- 박사(한국 근대사 전공) -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연구위원 -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연구교수	삼성반도체 연구 집필
6	참여연구원	신재훈	부천문화원	역사기획 팀장	- 박사 수료(한국사 전공)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아카이브 전문가 - 독립기념관 독립인명사전 연구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삼양중기 연구 집필
7	참여연구원	권만용	부천문화원 부천학연구소	연구위원	- 박사(한국 근대사 전공) -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 부천대학교 겸임교수 - 부천시사 역사 부분 집필위원	유한양행 연구 집필
8	참여연구원	박 철	부천산업진흥원	팀장	- 석사(산업공학) - 경기도경제산업진흥원 전문위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평가위원 - 부천산업진흥원 전략사업팀장	부천 산업 현황 및 정책
9	참여연구원	정만태	산업연구원	명예 fellow	- 박사(경제학 전공)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서울대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겸임연구위원 - 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산업정책 자문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전공·주요 경력	역할
10	참여연구원	천우영	온세계유통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전자공학), 반도체 전문가 - 삼성반도체 부장 - 페어차일드 반도체 상무 - 온세미컨덕터 상무이사 	반도체 산업 및 역사 자문

나. 기타 참여 인력

연번	성명	소속	직	참여유형	비고
1	강기동	전) 한국반도체	설립자	한국반도체 관련 인터뷰	
2	우운제	주식회사 삼양사	부장	삼양홀딩스 자료 수집 지원	
3	김석현	유한양행	홍보팀	유한양행 자료 수집 지원	
4	이창호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동문 사무총장	한미재단 관련 인터뷰 진행 및 자료제공	
5	김육진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1978 교육생	한미재단 관련 인터뷰 진행	
6	박철은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1969 교육생	한미재단 관련 인터뷰 진행	
7	천우영	전) 삼성반도체	직원	삼성반도체 관련 인터뷰 및 자료제공	
8	신길용	전) 이천중기	직원	삼양중기 관련 인터뷰 및 자료제공	
9	유갑중	전) 삼양중기	직원	삼양중기 관련 인터뷰 및 자료제공	
10	최영화	전) 유한양행	직원	유한양행 관련 인터뷰 진행	
11	김병수	온세미컨덕터코리아	상무	한국반도체 삼성반도체 관련 자료제공	
12	노종호	경운대학교	겸임교수	한국반도체 관련 자료제공	
12	손은정	부천대학교	조교	연구 보조(행정 지원)	

3. 연구 수행 방법

① 분야별 전문가 섭외

- **부천대 산학협력단 내 T/F팀 구성**
 - 부천 근현대기업 조사연구팀(가칭)
 - 책임, 선임, 연구보조원 등(4명)
- **분야별 참여연구원 섭외**
 - 산업 분야 및 4대 기업 전문가
 - 지역산업, 역사, 향토사 전문가 등(5명)
- **분야별 자료 수집 및 자문위원 섭외**
 - 이전기업의 본사(서울) 총무 홍보부서 관계자 섭외(2명)
 - 반도체 및 산업정책 전문가 등(2명)
 - 4대 기업 장기근속자·교육생 등(인터뷰)

② 분야별 자료 수집

- **4개 기업 관련 직접 자료 수집**
 - 유한양행, 삼양중기 등 이전기업 본사 총무 홍보팀 협조 자료 수집
 - 부천 온세미컨덕터를 통한 삼성 및 한국반도체산업 발전사 자료 수집
 - 4-H훈련농장 교육 수료생 및 소사지역 선행연구자를 통한 자료 수집
- **부천사업장 근로자를 통한 자료 수집**
 - 근로자의 현장경험 사진 자료 등
- **공공기관 및 공신력 있는 자료 수집**
 -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등 자료
 - 경기도, 부천시 등 지자체 자료 수집

③ 4대 기업별 원고 집필

- **원고 집필을 위한 수집자료 공유**
 - 연구원, 자문위원, 집필자 수집자료, 부천사업장 근로자, 교육훈련생 제 공자료 등 내부 웹하드 공유
 - 4대 기업별 관계자 인터뷰 영상·녹취자료 공유
- **분야별 전문가 집필 의뢰**
 - 부천 산업·기업 전문가 및 4대 기업별 근대사·향토사 전공자 집필 의뢰 및 계약

④ 4대 기업별 관계자 인터뷰

- **인터뷰 대상자 선정**
 - 해당 기업의 추천을 통한 부천사업장 장기근속자(삼양, 삼성, 유한, 한미)
 - 선행연구자(소새마을기획단)의 추천을 통한 교육훈련 수료생(한미)
- **관계자 인터뷰 진행**
 - 4대 기업별 인터뷰 대상자, 해당 분야 집필자, 내부연구원 참여 인터뷰 진행
 - 녹취 및 영상자료 작성 연구진 공유

⑤ 자문 및 결과 보고

- **연구 결과물 취합**
 - 집필 원고, 수집 기록물, 사진 자료 등 조사연구 결과물 취합
- **연구 및 자문위원회 자문 (5회)**
 - 연구원, 집필자, 자문위원 연석회의 연구 과정 전반(방향, 내용, 결과) 검토
- **결과보고서 편집**
 - 중간보고 결과, 자문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 작성



4. 연구 수행 경과

구분	수행 명	수행 일정	수행 내용	비고																				
사업 기획	조직구성	2023.8.29	산학협력단 내 부천 근현대기업 조사연구 T/F팀(내부연구원) 구성	8.22 계약																				
	전문가 구성	2023.9.1.~ 9.20	내부연구원(3), 분야별 집필자(5), 자문위원(2), 참여인력(10) 총 20명 구성																					
	기획 회의	2023.9.20	연구 용역 사업 방향, 방법, 자료조사, 관계자 인터뷰, 결 과 도출 등 논의	1차 회의																				
사업 수행	자료 수집	2023.9.20~ 12.15	4대 기업 조사연구를 위한 기업협조 자료 수집 (총 374점) <table><tr><th>구 분</th><th>계</th><th>활용 동의 (사진 자료 등)</th><th>활용 비동의 (보도자료 등)</th></tr><tr><td>유한양행</td><td>106</td><td>66</td><td>40</td></tr><tr><td>삼양중기</td><td>124</td><td>111</td><td>13</td></tr><tr><td>삼성반도체</td><td>98</td><td>60</td><td>38</td></tr><tr><td>한미재단</td><td>86</td><td>76</td><td>10</td></tr></table>	구 분	계	활용 동의 (사진 자료 등)	활용 비동의 (보도자료 등)	유한양행	106	66	40	삼양중기	124	111	13	삼성반도체	98	60	38	한미재단	86	76	10	부록 1 참조
	구 분	계	활용 동의 (사진 자료 등)	활용 비동의 (보도자료 등)																				
	유한양행	106	66	40																				
	삼양중기	124	111	13																				
	삼성반도체	98	60	38																				
	한미재단	86	76	10																				
	중간 진도 회의	2023.10.13	원고 집필 일정 및 기업별 인터뷰 방법 / 인터뷰 대상자 선정	2차 회의																				
	관계자 인터뷰	2023.10.15~ 12.15	4대 기업별 부천사업장(훈련농장) 장기근속자와 한미재단 훈련농장 수료생) 1~2명 진행	3차 회의																				
	중간보고 회의	2023.10.30	중간보고 및 최종 결과 보고 내용 검토	3차 회의																				
원고 집필	2023.10.01~ 12.15	4대 기업별 조사연구 결과 원고 집필 (각 원고지 140매 분 량)																						
원고검토 회의	2023.11.17	4대 기업별 집필 원고·사진 자료 마감 및 내용 검토 중간 보고서 작성	4차 회의																					
중간보고	2023.11.24	연구 용역 중간보고																						
결과 도출	추가연구	2023.11.24~ 12.15	관계자 추가 인터뷰(유한양행, 한미재단) 및 자료조사(온세 미 등)																					
	결과검토 회의	2023.11.27	중간보고를 반영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한 편집회의	5차 회의																				
	보고서 편집	2023.11.28~ 12.15	부천 산업 현황, 4대 기업별 원고, 인터뷰 내용, 정책 제안, 사진 자료 편집																					
	최종보고	2023.12.15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제출																					

II. 부천의 산업 현황

부천의 산업 현황

박 철 (부천산업진흥원)

목 차

1. 근현대 공업의 태동과 부천
2. 시대별 부천의 산업 현황
3. 부천의 산업 성장 및 위기

1. 근현대 공업의 태동과 부천

우리나라 공업은 조선 중기 이후 개인 수공업 중심으로 시작하였으나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다 일제강점기 시기 일본 자본의 유입으로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1910년 12월 조선총독부는 조선에서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조선회사령』을 발표하였으며, 조선회사령의 명분은 난립한 각종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었으나, 회사의 설립을 제한함으로써 민족 공업의 발달 기회를 박탈하고 일본인 공업에 특권을 부여하였다.

결국 일본의 식민지 정책은 조선을 일본 공산품의 시장과 원료생산지의 역할을 담당

하도록 강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특히 이 회사령의 시행으로 일본 자본의 유입이 촉진되어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본 재벌의 한국 진출이 활발해졌다.

이 시기 조선의 공업은 직물업, 제지업, 양조업, 도자기업, 금속공업 등이었고 금속공업의 내용은 철과 황동으로 만든 농기구, 일용품과 금·은제 장식품 등이었고, 철주물의 주종은 솥, 농기구, 약탕관 등이었고 황동으로는 세숫대야, 장신구, 식기, 경첩 등 일용생활품에 지나지 않았다.

조선총독부는 1920년 4월 「조선회사령」을 철폐하였는데 이 조선회사령의 철폐는 상품시장과 원료공급처로서의 고전적 식민지 정책을 변경하고 조선에 대하여 근대공업 육성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일본 자본의 유입을 용이하게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조치로 인하여 일본 내의 기업들이 조선 내에서 특혜와 보호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변화는 한편으로 조선 내의 민족기업 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3·1 운동 이후 거세게 일어난 「조선물산장려운동」은 조선인들에게 민족기업을 창업하려는 열기를 일으켜 산업과 수공업에 적극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1910~1920년에는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였고, 화폐 금융제도를 확립시켰으며, 교통 및 통신 기관을 정비함으로써 경제적 지배 체계를 확립하였고, 1920년대에 이르러 조선으로 하여금 상품을 판매하고 공업원료와 식량을 획득하는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주요 정책을 정하였다. 우선 식량 증산 정책을 취하여 쌀 증산에 힘썼으며 1920년부터 시작된 산미증식(産米増殖)계획은 이 시기의 중심적 정책이었다.

일본의 자본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중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으나 전후 대외무역의 격감, 특히 미국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크게 침체되었으며, 1927년 금융공황으로 타격을 받은 일본경제는 1929년의 세계대공황으로 농업공황을 동반하게 되었는데 이 공황으로 조선의 식량 공급지로서의 식민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일본은 이런 농업공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외국미에 대해 수입제한 및 관세율 인상, 수입허가제를 단행하였으나 조선미에 대해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의 의회 및 농림성은 조선총독부에 대해 조선미 증산계획을 중단하도록 종용하는 등 일제의 조선식민정책은 농업 중심으로부터 공업 유치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이 조선을 식량, 원자재 등 일본이 필요로 하는 물자의 생산에 집중하던 식민지 경제정책을 탈피하고 조선에 중화학공업을 건설하기로 한 것은 일본제국주의의 팽창이 극에 달했던 1930년대 이후였다. 1930년대는 일제가 대륙침략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을 디딤돌로 하여 만주와 중국을 침략한 제국주의 최성기였다. 1931년부터 태평양 전쟁이 종료된 1945년까지 약 15년간이 조선의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시기이다.

1930년대 이후 당시의 부천지역은 일본 제국주의의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당시 부천군 관할인 부평지역은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거 공업지구로 설정된 이후 본격적인 중공업 공장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1941년에는 일본육군 조병창이 들어오면서 병참기지로서의 군수 산업화가 가속화되었다.¹⁾

1914년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침탈의 편리성을 위해 지방행정조직을 일본식으로 개편한 부군폐합(府郡廢合)으로 제물포항 지역(인천부 仁川府)을 제외한 인천의 대부분 지역이 부천군 영역이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대륙침략의 필요성에 의해 1936년과 1940년 두 차례에 걸쳐 옛 인천지역과 옛 부평지역 대부분을 인천부에 편입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부천군은 계양면, 소래면, 오정면, 소사읍과 서해 도서 6개 면으로 축소되어 부천군이 차지하였던 공업지역 역시 대부분을 인천에 넘겨주었다. 따라서 부천군의 공업지역은 경인선과 경인국도 주변의 소사읍 지역에 일부만 남겨지게 된다. 그 대표적인 공장이 부천군 소사읍 심곡리의 유한양행이다.

1) 이연경, 「1940년대 인천 일본 육군조병창의 설치와 군수 산업도시 부평의 탄생」, 도시사학회 도시연구 30, 2022.7, 165쪽

2. 시대별 부천의 산업 현황

일제강점기에 가장 전형적인 공업지대를 형성한 곳은 경인공업지대였다. 당시 인구 70여만의 수도 경성과 인구 10만의 항구도시 인천, 그리고 이 두 도시를 연결하는 약 30km 정도의 지대를 총칭하여 경인공업지대라고 하였다.

다음의 표는 1938년 경기도의 업종별 공업통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대부분이 경인 공업 지대의 현황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적 부문에 있어 112개 공장 중 82개 공장이 경성과 인천 시내에 있었고, 기계 기구공업의 경우에는 183개 공장 중 164개가 경인공업지대에 있었다. 이는 경인공업지대의 융성과 이곳에 위치한 공업 분야의 다양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경기도 업종별 공업 현황(1938)

(단위 : 천원)

업종 \ 구분	공장 수	생산량	종업원 수
방 적	112	70,526	18,412
금 속	116	5,652	2,325
기계 기구	183	15,113	6,073
요 업	91	3,753	2,706
화학	97	24,066	6,157
제재·목제품	140	5,800	2,047
인쇄·제본	129	12,460	4,114
식료품	410	124,261	8,261
연초	2	27,761	1,962
와사·전기	2	1,722	62
기타	221	9,281	6,633
총 계	1,503	300,405	58,752

※ 자료 : 부천시사(1988)

당시 경인공업지대는 경성과 인천을 두 축으로 하고 있었다. 교통 및 시장 견인형 입지 요인으로 인해 경인공업지대는 주로 방적 및 기계 기구공업이 번창하였다. 또한 배후에 커다란 소비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미업 등 소비자 지향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교육기관이 많아서 숙련공의 양성이 용이한 점도 경인공업지대의 장점이었다.

한편 일제강점기 부천지역에 위치한 기업체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주)유한양행을 들 수 있다. 이 회사는 의약품의 수입·판매 및 세조를 위해 1926년 6월에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민족기업으로, 1936년에는 주식회사로 등기하면서 소사에 대규모 공장을 건립하였다. 8.15해방 전까지 (주)유한양행의 사세는 확장되어 동남아 일대에 지사와 본 공장을 설치하였다. 한국전쟁 중에는 일시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으나, 1954년 정부 환도에 따라 서울로 복귀하여 회사자금과 ICA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시설자금으로 근대적 시설을 갖추었고, 1962년 8월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다. 1969년 10월



1940년대 유한양행 소사공장(부천시사 2002))

소사공장을 폐쇄하고 현재 본사 사옥이 있는 서울시 대방동으로 이전할 때까지 부천에서 의약품을 생산하여 국민건강 및 질병 치료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운영되던 기업체들이 해방과 함께 귀속사업체로 인수되었는데 당시 부천군 내 귀속사업체의 현황을 다음

의 표를 통해 살펴보면, 경기도 내 총 257개의 귀속사업체 중 부천군에 위치하였던 것은 겨우 14개 업체에 불과하였다.

부천군 귀속사업체 현황

업종	사업체명	주요 생산품	경영형태	자본구성	해방 전 기업형태
금속	오류동제염공작소	제연	관리	20,000주	주식회사
기계	경삼제작소 조선공장	기계제작	-	-	개인회사
기계	서울기계제작소	주물	-	3,000,000주	주식회사
기계	극동정공사	철공업	-	482,244주	주식회사
기계	조선순철회사	철공업	-	1,500,000주	주식회사
화학	조선아스베르회사	석면고무	-	1,000,000주	주식회사
요업	조선내열요업주식회사	요업	관리	3,900주	주식회사
요업	삼성요업회사	요업	-	-	
섬유	조선연마포공업사	연마포	관리	3,960주	주식회사
식품	마산정미소	정미	대표	-	개인회사
식품	부천정미소	정미	대표	-	개인회사
식품	주안정미소	정미	대표	-	개인회사
광업	조선연마지석주식회사	연마지석	관리	20,000주	주식회사
기타	한인쇄자제작소	쇄자	관리	8,900주	개인회사

※ 자료 : 부천시사(1988)

8.15 해방이후 한국전쟁으로 인해 경인공업지대 공업시설이 거의 파괴되었으며, 휴전 이후 국가적인 피해복구가 진행되어 1954년이후 점차 회복 되었다. 당시 부천군의 『통계년보』에 따르면 1959년에는 16개 기업체가 총 1,567명의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었는데, 업종별로는 섬유공업의 종사자가 830명으로 가장 많고, 화학공업 종사자 252명, 식료품공업 종사자 142명, 그리고 요업 종사자가 128명이었다. 그러던 것이 1961년에는 기업체 수가 39개로 증가하였다.

부천의 업종별 기업체 현황(1957~1961)

연도 \ 업종	섬유	금속	기계	요업	화학	음식료품	제지	기타	총계
1957	2	2	2	3	6	2	-	2	19
1959	4	4	2	1	2	-	1	2	16
1960	4	5	5	5	2	1	1	2	25
1961	6	5	9	7	2	2	1	7	39

※ 자료 : 부천시사(2002)

부천군 주요기업 현황(1957~1961)

업종	주요기업	주요생산품
섬유	대한항길직물, 근선연사공업, 경인직물공장, 에덴학원공장, 소사공과기술학교실습장, 소사경직공장	면직물, 면창주, 소창직, 나일론양단, 테이프 등
요업	조성내역요업(주), 조선여마지석(주), 월산산업(주), 부천토기공장, 소사토기공장, 조광토기공장, 금성연마공업사	내화연와, 연마지석, 내화벽돌, 토기, 풍로, 도자식기, 스테이트연통, 그라인더 등
화학	(주)유한양행, 경기화학공업(주), 태창화학공업, 김포화학공업, 삼성화학공업사, 에덴학원공장, 대한전기화학공업, 제일식품화학공업	의약품, 카바이드, 성냥, 화장비누, 포마드, 염소산칼리, 필름, 석회, 글루타민산소다 등
기계	대륙공업소, 경인철공소, 구일사, 신흥철공소, 중앙철공소, 서울기계제작(주), 협진공업사, 한국엔진, 유성기계공업사	농기구주물, 인젝터소화기, 탈골기, 쟁기, 철도차량부품, 양조식시, 재생엔진, 자동차용스프링 등
금속	동양금속공업사, 대한제철(주), 한국철강, 상양금속합명회사, 부국주물공장	주물, 철재, 박철판, 기계부속 등
기타	신흥제지공업사, 안성제지공업, 에덴학원포장공장, 태평산업건설(주)	선화지, 크라프트지, 계란포장지, 책상, 형광등, 전선 등

※ 자료 : 부천시사(2002)

1962년부터 공업화의 추진 및 자립경제의 기반 조성을 목표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으로 농업 중심 사회였던 부천에서도 공업 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천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대규모 소비지역과 인접해 있어 음식료품공업 및 섬유공업 등 소비재 중심의 경공업이 발달하였으며, 또한 경인고속도로, 경인국도 및 경인철도 등 편리한 교통 여건 등으로 원료 및 상품 물류 수송에 장점이 있었고 특히 인천항, 김포공항의 접근성이 좋아 수출·수입에 유리하였다.

1965년 부천군 기업체는 음식료품·섬유·기계·금속, 기타 업종 104개 사로 종업원은 5,832명 규모였으며, 경기도가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하나로 추진한 가내수공업센터가 설치되어 주로 가발을 생산하여 미국·일본·캐나 등에 수출하였다,

1970년대 정부는 경공업 제품 위주의 수출이 한계에 도달하게 됨에 따라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술·노동집약적 중화학공업 부문을 우선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부천지역도 음식료품공업·섬유공업·비금속광물공업은 별다른 성장 추세 없이 약간의 변동을 보이고 있는 반면, 화학공업은 1981년에는 1976년에 비해 업체 수에서는 207%, 종업원 수에서는 298% 증가하였고, 전자전기 공업의 경우는 1976년 대비, 1981년의 성장률이 각 339%, 257%에 달하였다.

업종별 기업체와 종업원 수(1972~1981)

구분 연도	계		음식료품		섬유		화학	
	업체 수	종업원 수	업체 수	종업원 수	업체 수	종업원 수	업체 수	종업원 수
1972	96	4,649	5	-	9	-	2	-
1976	364	22,302	13	479	38	3,009	74	2,342
1977	469	36,094	10	1,020	43	1,535	79	1,239
1978	566	42,225	19	835	58	5,008	92	5,053
1979	680	43,706	20	1,072	46	3,385	183	9,446
1980	776	43,527	17	813	40	3,201	169	7,381
1981	823	43,989	20	831	54	4,093	153	6,980

구분 연도	비금속광물		기계		금속		전기 전자		기타	
	업체 수	종업원 수	업체 수	종업원 수	업체 수	종업원 수	업체 수	종업원 수	업체 수	종업원 수
1972	-	-	29	-	-	-	7	-	34	-
1976	20	1,100	109	6,683	-	-	41	3,070	69	5,619
1977	22	2,302	57	3,922	129	12,726	38	4,218	91	9,132
1978	33	3,040	103	9,384	144	11,560	63	3,608	54	3,742
1979	20	1,350	288	7,694	86	4,643	89	7,371	128	8,850
1980	18	1,223	246	10,674	78	4,600	92	7,165	116	8,470
1981	18	1,324	263	10,994	64	4,025	139	7,880	112	7,862

※ 자료 : 부천시사(2002)

이 시기 화학공업 분야에서는 의약품 산업과 더불어 종업원 300명 이상의 기업인 한국화장품(주), 흥진화학공업(주)가 1970년대에 설립되어 부천 화학공업을 이끌었다. 또한 기계·금속공업 분야에서는 정부 지원 정책과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기술혁신 등으로 1960년대에 비해 비약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주요 기업으로 경원기계공업(주)·대흥기계공업(주)·반도기계(주)·동양에레베이터(주)·삼양중기(주)·서울주철공업(주)·신한주철(주) 등이 있다.

부천에서는 1970년대 전자·전기공업 분야 기업이 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삼성전자 모체인 한국반도체가 1974년 부천 도당동에 설립되었으며 1978년 삼성에 인수되었다.

1970년대 말 석유파동으로 부천지역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생산 및 수출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1980년대부터 회복하기 시작했으며 1986년에는 전체 기업체서는 1,853개 사로 업종별로 기계·금속 업종이 788개 사로 전체의 42.5%로 가장 비중이 크며, 전자·전기공업 분야가 353개 사, 화학공업 분야가 260개가 있었다.

이 시기 고용종업원 수 기준으로 1,000명 이상 기업은 아남산업(주)·경원기계공업(주)·삼성반도체통신(주) 3개 사가 있었으며, 종업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전체 82.9%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1980년대 말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제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었지만 건설 및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1990년대 석유화학·자동차·가전·반도체 등의 수출로 경제가 급성장하였지만 일본의 엔화약세, 고금리, 원자재 가

격상승 및 개방으로 인해 경쟁 격화 등의 요인으로 1997년 IMF 외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부천의 업종별 기업체 현황(1986)

업종	구분	업체 수		종업원 수	
		수	구성비(%)	수	구성비(%)
계		1,852	100.0	752,313	100.0
음식료품		45	2.4	1,674	2.3
섬유		155	8.4	9,372	13.0
목재·제지		109	5.9	2,592	3.6
화학		260	14.0	8,807	12.2
비금속광물		50	2.7	2,424	3.4
기계·금속		788	42.5	27,763	38.4
전자전기		352	19.0	16,119	22.3
기타		93	5.0	3,562	4.9

※ 자료 : 부천시사(2002)

부천의 대기업은 1989년 26개사에서 1993년 19개사로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1,534개사에서 2,887개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종업원 규모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규모별 기업체와 종업원 수(1989~1993)

연도	구분	합계		대기업		중소기업	
		업체 수	종업원 수	업체 수	종업원 수	업체 수	종업원 수
1989		1,560	78,501	23	19,794	1,534	58,707
1990		2,500	115,412	25	15,195	2,475	64,962
1991		3,387	93,231	23	15,418	3,364	77,813
1992		2,766	88,653	22	22,274	2,654	66,379
1993		2,906	91,156	19	13,395	2,887	77,761

※ 자료 : 부천시사(2002)

이 시기 주요 기업으로 섬유 분야에는 봉제모자를 생산하는 (주)영안모자상사가 있었으며, 목재공업 분야에 골판지 상자를 생산하는 삼보판지(주), 화학공업 분야에는 화장품 및 의약품 생산하는 한국화장품(주)·동신제약(주)·현대약품(주)·근화제약(주) 등과 복합비료를 생산하는 경기화학공업(주), 기계·금속공업 분야에는 유성기업(주)·동양에레베이터(주)·신한주철(주)·서울주철공업(주), 전자·전기 공업 분야에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주)와 아남산업(주), 냉방기를 생산하는 (주)경원세기 등이 있었다.

1990년대 말 부천 기업의 영세화가 진행되어 1995년 4,067개였던 기업이 IMF 이후인 1998년 3,026개사로 감소하였으며, 종업원 수 또한 24,423명 감소하였다. 1998년 기준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의 대기업은 전체기업의 0.26%인 8개로 감소하였으며,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전체의 95.6%로 증가하였다.

이 시기 각 업종 별로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1980~1990년대 급성장을 보였던 전자·전기 공업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기업으로는 종업원 1,000명 이상의

아남반도체(주)와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주)가 있으며 1,000명 미만 기업으로 신한일전(주)·(주)신흥정밀·(주)성신·(주)센추리·에이스테크놀로지(주) 등이 있었다.

업종별 기업체와 종업원 수(1995~1998)

구분 연도	계		음식료품		섬유		화학	
	업체 수	종업원 수	업체 수	종업원 수	업체 수	종업원 수	업체 수	종업원 수
1995	4,067	76,969	52	1,628	290	5,910	442	8,148
1996	3,994	72,217	51	1,598	276	5,045	464	8,224
1997	3,694	64,445	51	1,598	260	4,594	468	8,329
1998	3,026	52,546	42	1,331	214	3,691	424	7,891

구분 연도	비금속광물		기계		금속		전기·전자		기타	
	업체 수	종업원 수	업체 수	종업원 수	업체 수	종업원 수	업체 수	종업원 수	업체 수	종업원 수
1995	73	1,580	1,153	21,802	629	8,834	849	20,761	579	8,606
1996	70	1,639	1,123	19,723	611	8,491	840	19,663	599	7,834
1997	58	1,234	1,031	17,248	603	7,567	718	16,974	505	6,901
1998	39	739	835	13,301	519	6,743	597	14,062	356	4,798

※ 자료 : 부천시사(2002_부천통계연보)

종업원수별 업체 현황(1998)

구분	업체 수	구성비(%)
5명~9명	1,537	50.8
10명~19명	887	29.3
20명~49명	470	15.5
50명~99명	90	3.0
100명~199명	31	1.0
200명~299명	4	0.1
300명~499명	4	0.1
500명 이상	4	0.1
계	3,027	100.0

※ 자료 : 부천시사(2002)

부천은 1992년 중동신시가지의 성공적인 개발로 양질의 주택공급과 다양한 휴식 공간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자족도시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지만, 일반 제조업 중심의 낙후된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산업구조의 개편이 요구되었다.

2000년 총 3,928업체에 종업원 수 66,571명에서 점점 감소하여 2003년도에는 487개 업체가 감소한 3,441개 업체로 종업원 수도 5,888명이나 감소하였다.

일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구조로의 전환 및 지역기업의 지방 이전 방지를 위해 기존공업지역을 재개발을 추진하여 아파트형 공장 형태의 테크노파크 개발이 추진되었으며, 테크노파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R/D 기관 유치를 통해 R/D 기능 중심으로 집적화하는 한편, 우량 중소기업 (리딩 기업)을 유치하여 동종업종의 연관 기업들이 테크노파크에 입주될 수 있도록 산업을 특화하고 집적화하기 위한 민간 주도형 테크노파크를 지속적으로 건립하여 2001년부터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업체와 종업원 수가 급증하였다.

부천시 산업 종류별 구조변화

(단위 : 개, 명)

구분	2000		2002		2003	
	업체 수	종업원 수	업체 수	종업원 수	업체 수	종업원 수
제조업 전체	3,928	66,571	3,620	63,413	3,441	60,683
목재 및 나무제품	11	130	6	41	4	28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34	520	31	397	31	471
코르크,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1	-	1	-	1	9
화합물 및 화학제품	84	2,499	75	2,318	68	2,24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539	9,107	518	10,457	530	11,066
비금속광물 제품	42	1,027	42	1,121	38	1,026
제1차 금속	55	687	45	672	36	541
소계	766	13,970	718	15,006	681	15,388
조립금속제품(장비제외)	670	7,739	651	7,306	612	7,063
기타기계 및 장비	805	11,704	694	9,991	688	10,188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45	939	32	904	30	453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515	7,879	476	7,733	452	7,594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77	11,502	305	11,753	290	9,802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173	2,863	157	2,509	141	2,353
자동차 및 트레일러	44	912	31	369	37	443
기타운송장비	6	58	9	84	7	87
재생재료가공처리	4	64	-	-	-	-
소계	2,539	43,729	2,355	40,649	2,257	37,983
음식료품	58	1,074	63	1,288	63	1,254
섬유제품	90	1,242	76	1,006	76	1,200
의복 및 모피제품	129	2,420	113	2,031	103	1,721
가족, 가구, 가구류 및 신발	55	657	55	638	37	474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125	1,509	118	1,397	102	1,3216
가구 및 기타	166	2,039	122	1,398	122	1,347
소계	623	8,941	547	7,758	503	7,312

※ 자료 : 행정자치부(2001), 한국도시연감 2001 / 부천통계연보 2004

또한 지역산업을 IT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산업의 선택과 집중 정책을 수립하여, 금형·로봇·조명·패키징·부품소재 등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4대 권역별로 지정하여 오정권은 금형산업, 도당권은 조명산업, 테크노파크는 로봇산업, 삼정권은 부품소재 및 패키징 산업을 중심으로 집적화시켜 육성을 추진하였다.

부천시 지식산업센터 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연도별			부지면적 (㎡)	유치(입주) 업체 수	종업원 수
	1995~2000	2001~2012	2013~2023			
계	4	18	25	280,994	2,973	32,850
시	1	3	5	206,972	1,838	21,100
민간	3	15	20	74,022	1,135	11,750

※ 자료 : 부천시 2024 장기발전계획(2017)

2011년도 부천시 산업에서 생산 유발효과는 기존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100억원 투입시 전기기계 및 장치, 전자기기 및 부품품 제조업

의 생산유발효과는 407억원 규모에 달하고, 다음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 유기화학 및 무기화학제품, 비철금속제품, 펄프 및 종이제품, 사업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일반목적 기계 및 장비, 특수목적 기계 및 장비제조업 순이었다.

100억원 투입시 부천지역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추산

산업부문	생산유발효과(억원)
전기기계 및 장치, 전자기기 및 부분품 제조	407
석탄 및 석유제품	286
유기화학 및 무기화학제품	276
비철금속제품	263
펄프 및 종이제품	238
사업서비스업	237
금융 및 보험업	212
도소매업	194
부동산임대업	193
일반목적 기계 및 장비, 특수목적 기계 및 장비	181

※ 자료 : 2021 부천시 장기발전계획(2011)

부천시 상품별 수출 현황에서도 전기·전자 분야 상품이 전체 수출액의 4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기계·섬유·화학 순으로 수출이 이루어졌다.

부천시 상품별 수출 현황(2002~2008)

(단위:백만불)

연도별	전자전자	기계류	섬유류	화학 공업	철강 금속	플라스틱 고무·가죽	생활 용품	잡제품	농림 수산물	광산물
2008	1,305	357	100	71	50	85	59	4	10	12
2007	1,305	315	51	59	64	70	80	6	10	12
2006	1,222	300	47	63	58	65	70	8	20	8
2005	1,055	278	52	58	59	60	69	9	16	5
2004	1,100	317	54	48	55	57	75	8	9	3
2003	1,135	214	56	38	35	46	61	5	5	5
2002	1,105	161	55	31	31	50	68	4	3	1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우리나라 경제는 2010년대 초반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이후 몇 년 동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다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성장률이 더욱 둔화되었고, 특히 2019년에는 성장률이 2% 미만으로 떨어졌다.

부천 기업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역내 아파트형 공장형태의 지식산업센터 설립 증가 및 전자전기 업종 기업의 증가로 2010년 9,277개 업체수가 2015년 10,881개로 증가하고 2010년 종업원수 68,498명에서 2015년 73,380명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 이후 업체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 급증한 이유는 물리적 장소가 없는 업체를 통계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또한 종업원수도 감소세를 보이는데 이는 기업의 타지역 이전 및 생산공정 자동화에 따른 결과이다.

부천시 사업체 현황(2010~2021)

(단위 : 개사, 명)

	2010	2011	2012	2013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업체 수	9,277	9,415	10,101	10,120	10,881	10,780	10,657	10,501	10,229	13,472
종업원 수	68,498	68,516	71,856	71,209	73,380	72,470	71,475	70,185	68,426	69,655

※ 자료 : 부천시 사업체 조사보고서

2020년 기준 부천의 업체 수는 13,472개로 공장등록업체는 3,351개이며, 전체기업 중 종업원 50인 이하는 전체기업의 99.8% 규모로 영세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종업원 500명 이상의 대기업은 2개에 불과한 상황이며, 업종별 기업규모는 전기 전자 분야 기업이 24%, 금속 분야가 22%, 소비재 관련 기업이 전체 18% 규모이다.

부천시 업종별 사업체 현황(2020)

(단위 : 개사)

업종 \ 종업원 수	계	1-4	5-9	10-19	20-49	50-99	100-299	300-499	500인 이상	비율 (%)
계(업체 수)	13,472	9,781	2,352	806	421	89	18	3	2	100
비율(%)	100	72.60	17.46	6.98	3.13	0.66	0.13	0.02	0.02	100
음식료품	711	598	60	28	13	12				5.3
섬유, 의류, 가죽제품	1,011	800	169	28	12	2				7.5
가구, 목재, 종이 제품	300	246	31	17	6					2.2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663	523	103	26	11					4.9
화학, 석유정제품	227	140	48	15	14	7	3			1.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18	7	8		2	1				0.1
고무, 플라스틱제품	1,159	700	270	109	67	10	3			8.6
비금속광물제품	80	50	14	3	7	4	2			0.6
금속제조, 가공제품	2,631	1,964	463	141	56	7				19.5
전자부품, 전기장비, 통신	2,629	1,761	526	209	104	20	6	1	2	19.5
의료, 광학기기제조업	638	415	140	42	30	9	2			4.7
기타 기계 및 장비	2,496	1,829	410	157	87	11	2			18.5
자동차 및 기타운송장비	139	90	29	11	6	2		1		1.0
기타제품제조업	603	500	73	20	6	4				4.5
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167	158	8					1		1.2

※ 자료 : 부천시 사업체 조사보고서

3. 부천의 산업 성장 및 위기

부천시는 수도권 서북권에 위치해 있으며 공항, 항만, 도로 등 국내·외적 교통의 요충지로 유리한 공업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인구 밀도가 높고 타 지역과 비교하여 젊은 연령층 비율이 높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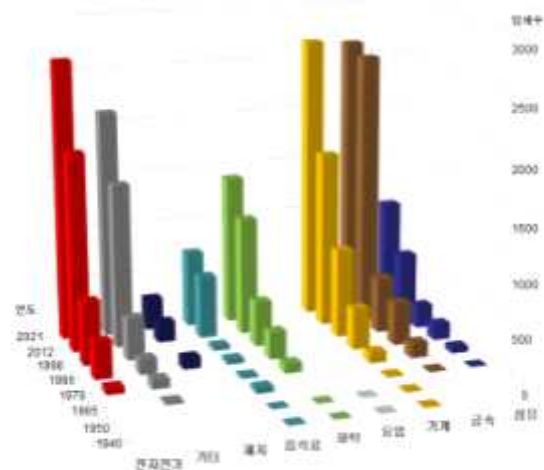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경인공업지역의 시작과 더불어 부천지역은 지리적 이점, 노동력 확보 수월성 등의 요인으로 노동집약적 화학제품 산업·제약산업·기계·전기기계 산업 위주로 공장들이 설립되었다.

1960~1980년대 부천은 도시화와 공업화가 급진전되었으며 또한 공업 교외화가 가속화되면서 서울에 입지해 있던 공장들이 부천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전체 종업원 수 7만여명 이르는 수준으로 부천시의 경제발전 기반을 확립하였다.

1990~2000년대 중·상·동신도시 건설 및 소사구 일원의 공업지역이 주변 주거지역과의 상충 등으로 인해 점차 주거화가 진행되었으나, 일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아파트형 공장형태의 지식산업센터가 꾸준히 조성되며 공업화가 꾸준히 지속 발전하였다.



부천시 연도별 기업체 및 종업원 현황



부천시 연도별 기업분포 현황



부천시 준공업지역 주거화 현황(산업입지확보 및 공업지역 기반시설확충방안 기업지원과(2016))

현재, 부천의 공업지역 산업입지 환경은 대개 30년 이상의 노후화로 기반 시설 낙후, 주차 및 차량 통행 불편 등으로 생산·고용 등의 저감 현상 확산 및 산업 집적화 악화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산업입지는 오정일반 산업단지, 온수일반산업단지 등의 계획 입지가 일부 조성되어 있으나 대다수 삼정동, 춘의동, 송내동 등 분산적인 개별입지로 조성되어 있다.

	공업지역현황		용도 지역
	위치	면적(m²)	
계	6개소	4,542,100	
①	오정산단	290,883	준공업지역
②	내동, 삼정동, 도당동, 오정동 일원	3,012,458	일반공업지역
③	춘의동 일원	493,749	준공업지역
④	송내동 일원	470,629	준공업지역
⑤	소사본동 일원	195,148	준공업지역
⑥	역곡동 일원	79,233	준공업지역



부천시 공업지역 현황(부천시기업지원백서(2022))>

또한, 부천은 1990년대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어 공장 부지의 신축 및 확장 불가 등 여러 제약을 받아 제조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환경이 구축되어 부천 기반의 중견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제조업체의 영세 소규모화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중국 등 신흥 제조 강국의 출현, 4차 산업혁명의 확산에 따른 신산업 부상

등으로 우리 시의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환경은 한계에 봉착하여 활력을 점차 상실중으로 지역 산업환경이 지속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천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영세한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속 가능한 신산업 기반의 구조로 개편하고자 기존 제조업의 ICT 결합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경기거점벤처센터 조성, 노후 산업단지 재생, 노후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산업입지 개발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58만 8천㎡를 개발 추진 중에 있다. 대장 도시첨단산업 단지는 인천계양-부평산단-마곡MV를 잇는 신경인산업축상에 위치하여 수도권 서남부의 신·중심지로 발전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천 주력산업 고도화 부지 조성 및 미래 신성장동력 기업 유치 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이다.

부천시의 주요 강점은 서울과의 접근성, 5대 특화산업 관련 R&D 기관 존재, 산업단지 개발 및 R&D 종합센터 건립 등의 첨단산업 인프라 기반 등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반면, 주요 약점은 좁은 면적과 높은 인구 밀도, 타지자체로의 기업 이탈과 영세 기업 중심의 산업 기반 등이다,

부천시 시대별 주요 기업 현황

연도	주요 기업
1930~1940	(주)유한양행(1926.6), 일흥사(1939)
1950	서울기계제작소, 조선순철회사, 극동정공사, (주)유한양행 조선아스베르회사
1965	(주)세기, 영안모자상사, 현대약품공업(주), 삼양금속
1978	경원기계공업(주), 삼양중기(주), 신한주철(주), 삼성반도체(주), 신한일전기(주), (주)진로, (주)미광핸드백, 파크상사, 한국화학제품공업(주), (주)낫소
1986	아남산업(주), 경원기계공업(주), 삼성반도체통신(주), (주)비제바노, (주)주일, 한국화학제품공업(주), (주)서흥캡셀, 동양에레베이터(주), 신한주철(주), 신한일전기(주), 반도스포츠공업(주)
1998	아남반도체(주) 부천공장,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주), 금강제화(주) 부천공장, 대양랜드로바(주), 풍정산업(주), (주)서흥캡셀, (주)한국화학제품, (주)대한항공, 유성기업(주), 신한주철(주), 신한일전기(주), (주)신홍정밀, (주)성신, (주)센추리
2012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주), (주)DB하이텍, 한성식품, (주)피제이전자, 센서텍(주), (주)지지엠, 삼일테크(주), 동아정밀공업, (주)모텍스, (주)동신메탈텍
2021	(주)온세미컨덕터코리아, (주)DB하이텍, 에스피반도체통신(주), 신한일전기(주), (주)피제이전자, (주)한성식품, 대아기아이(주), (주)금빛, 동하코퍼레이션(주), 은성산업(주), (주)신광엠애펜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재정력 확충이 큰 화두가

되었으며, 부천은 중·상동신도시 개발로 인해 재정여건이 좋은 지역이었다. 그러나 신도시 조성이 완료 되고, 지역기업의 타지역 이전, 중소기업의 영세화 등으로 지방소득세 규모가 점점 감소되는 상황이며 2022년 기준 부천시 기업 중 지방소득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기업은 DB하이텍으로 50억원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예산 및 최고납부액 비교(2022, 단위:억원)

Ⅲ.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민족기업 유한양행

요약문(SUMMARY)

1. 유한양행의 창립자, 유일한 박사와 민족기업의 탄생

- 1895년 1월 15일 평양에서 출생. 아버지 유기연과 어머니 김기복, 9남매 중 장남.
- 1904년 대한제국 순회공사 박장현을 따라 미국 유학길. 미국 네브래스카주 커니 정착. 1909년 박용만이 세운 한인소년병학교에 입학, 군사훈련과 민족교육 수료.
- 1919년 미시간대학교 상과 졸업. 한중학생회 창설 후 회장 역임.
1925년 미시간대학교 의학 전공 중국인 호미리 여사와 결혼.
- 1919년 4월 미국 필라델피아 개최 제1차 한인 회의에 참여. 결의문 작성, 낭독.
- 1942년 한민국방경위대(맹호군) 설립, 8월 29일 LA시청에서 태극기 게양 행사 참석.
- 미국 전략첩보기관인 OSS(CIA의 전신)의 냅코작전에 참가.
- 1926년 12월 10일 서울 종로2가 덕원빌딩에 한국인 최초 제약회사 유한양행 창업.
- 1929년 본사를 종로 YMCA회관으로 이전. 조선총독부의 비호로 일본인 제약업자 독점 상황에서 기독교 관련 외국인 계통의 병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판로 개척.
- 1932년 서대문구 신문로에 본사 이전. 이후 중국 및 유럽 지역으로 판로 확대.

2. 유일한 박사와 부천, 부천 교육의 선구자가 되다.

- 민족교육 중시 및 특별한 관심. 한국전쟁 이후 청소년 교육에 헌신.
→ 1952년 소사공장 내 임시교실 조성. 고려공과기술학교 설립. 학비와 숙식비 제공.
→ 1964년에 유한공업고등학교 개교. 1979년 유한공업전문대학 개편.
- 1991년 유한전문대학, 1998년 유한대학, 2011년 유한대학교로 교명 변경.
- 민족 기업 창립 후 거액의 재산을 학교 설립과 청소년 교육에 회사. 근대 발전에 기여.
- 현재 유한대학교는 부천시 직업교육거점대학으로 구심점 역할 수행.
부천시와 함께 다양한 교육사업 및 사회적 기여를 위해 적극 협력.

3. 부천을 본사로 하는 민족기업, 유한양행의 전성기

- 유한양행은 민족자본과 기술을 통한 제약품 생산을 위해 1935년 제약업체 전환 시도.
- 1936년 8월 2일 경기도 부천군 소사면 심곡리 25의 대지 2만여 평 매입, 공장 건설 착수, 제약실험 연구소와 공장 건설에 착수, 1936년 12월 10일 준공.
- 유한양행의 주요 제약품은 'CU사이드'로 알려진 프론토질 설파제. 동양 최초 수입 제약품.
- 1936년 주식회사로 전환, 자본금 75만원. 해방 당시 30여 회사 중 최대 제약회사.
- 소사공장이 원료 비축기지 역할 수행, 소사역 등 교통의 요지에 입지로 이전한 것 추정.
- 설립자 유일한의 독립운동 감시로 인한 조선총독부의 유한양행 감시와 탄압 심화.
→ 1942년 본사를 서울의 한복판에서 부천의 소사공장으로 이전했을 가능성.

- 1950년대 부천 소사공장의 주요 의약품 : 네오톤 · 코푸시럽 · 안티푸라민 등 수십 종.
- 1955년부터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공장 건물 복구, 생산 재개.
 - 미 원조자금 25만 달러로 파괴된 소사공장 재건. 미국과 독일의 선진 시설과 기자재 도입.
- 1958년 소사공장 용지에 초자(硝子) 공장 건립.
- 1960년 최신식 설비의 한국 제약업계 최초 연구실 준공. 연구 기술 강화, 제품개발 촉진.
- 1958년 임직원 복지를 위해 국내 최초 회사주제 시행.
- 1961년 소사공장 내 유일한 회장 사택에 의료시설 갖추어 응급치료.
 - 중환자는 시내 지정병원인 김낙원병원에서 치료. 사원 주택, 식당, 장학금, 경조금 지급.
- 1972년부터 사내 종합체육대회 부활.

4. 유한양행의 본사 이전의 원인과 변화

- 1962년 본사를 소사공장에서 대방동으로 이전. 가장 큰 원인은 공업용수 부족.
 - 부천의 소사공장은 이전부터 용수 곤란을 겪은 사실 인터뷰를 통해 확인.
- 용수 공급을 위해 상수도공사 필요. 그 비용을 유한양행에 과중하게 부담 요구.
 - 공업용수 공급이 수월한 대방동으로 이전하는 계기 마련.
- 1969년 소사공장에서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의 신사옥으로 공장 일부 이전.
- 유일한 박사는 펄백 여사를 알게 된 인연으로 소사공장 부지를 1967년 펄백재단에 매도. 소사희망원 건립 후 1973년까지 운영. 부천에서 유한양행의 모습은 보기 어려워짐.

5. 유한양행은 떠났지만, 부천에 남은 유일한 정신(펄백기념관)

- 설립자 유일한 박사, 1971년 3월 11일 향년 77세 영면.
- 유언장 통해 유일한 소유 주식 전부를 재단법인 ‘한국사회 및 교육신탁기금’에 기증.
- 한국 최초의 제약회사 창업, 독립운동가이자 부천의 최고 기업가, 교육자로 존경받게 됨.
- 유한양행 소사공장에 건립된 연구실험실은 1967년부터 펄백재단 건물로 사용.
- 유한양행 소사공장 부지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펄백재단에 제공. 소사희망원 건립.
- 1936년 지어진 유한양행 일부 건물, 2001년 경기도문화재로 등록되었다가 이후에 해제되었고, 2015년 철거. 현재 소사공장이 있던 자리에 펄백기념관 수립. 주변은 공원으로 조성.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민족기업 유한양행

권만용(부천학연구소 연구위원)

목 차

1. 유한양행의 창립자, 유일한 박사와 민족기업의 탄생
2. 유일한 박사와 부천, 부천 교육의 선구자가 되다.
3. 부천을 본사로 하는 민족 기업, 유한양행의 전성기
4. 유한양행의 본사 이전 원인과 변화
5. 유한양행은 떠났지만, 부천에 남은 유일한 정신(필벽기념관)

1. 유한양행의 창립자, 유일한 박사와 민족기업의 탄생

1) 재미교포 유일한 박사의 출생과 성장

1895년 1월 15일 평양에서 아버지 유기연과 어머니 김기복 사이에서 9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유기연은 경북 예천이 고향이었는데, 전국 여러 지방 도시를 다니면서 장사를 한 상인이었다. 평양에 정착하여 점포를 마련하였다. 이때 농산물과 건어물상으로 장사를 시작하였으나, 점차 서구의 수입 상품을 취급하는 잡화상으로 성장하였으며 싱거미싱 등 고급 외제품의 도매상도 겸하고 있었다. 또한 기독교 세례를 받으면서 서구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당시 평양에는 서양 선교사들과 안창호, 조만식 등 많은 애국지사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또한 이때는 독립협회 등 애국계몽운동 단체가 중심이 되어 민족교육 운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승만, 정순만, 박용만 등 지식인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화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강연을 하고 있었다. 이에 감명을 받은

아버지 유기연은 어린 아들 유일한을 미국 유학을 보내기로 마음을 정하였다. 당시 9살이었던 유일한은 당시 대한제국 순회공사였던 박장현을 따라 1904년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게 된다.



소년 시절의 유일한
제공 : 유한양행

미국 유학을 떠난 이후 대한제국의 운명은 점차 어두워져만 갔다. 마침내 1910년 8월 29일 일제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이후 아버지 유기연은 가족을 데리고 북간도로 이주하였다. 이곳에서도 장사에 남다른 소질이 있는 특성을 발휘하여 냉면집 등 여러 가지 장사를 하였고, 독립운동 자금을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많은 자금을 보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유일한의 아버지는 애국심이 남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애국가를 부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전하기 때문이다. 일제의 탄압과 감시로 애국가를 큰 소리로 부를 수 없을 때에도 유기연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애국가를 부를 정도였다고 한다. 이러한 아버지의 나라를 생각하는 정신과

마음을 물려받은 유일한도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북간도 용정의 국자가에 거주하던 유일한의 가족은 1925년 유일한이 잠시 귀국한 다음 다시 평양으로 이사를 하였고, 1934년 8월, 아버지는 향년 73세로 사망하였다. 기독교 신자였던 그는 평양의 예수교 묘지에 안장되었다.

아버지의 남다른 기백을 물려받은 유일한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미국에서 혼자 힘으로 공부하면서 대학까지 마칠 수 있었다. 유일한은 네브래스카주 커니시에서 두 자매가 살고 있는 침례교 신자의 집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미국 유학 생활을 시작하였다. 어릴 때부터 늘 부지런했던 유일한은 두 자매의 집안 살림을 도우면서 근면 성실의 습성을 키우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유일한은 남의 도움을 받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보답해야 한다는 생활신조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도 유일한은 조국의 독립을 위한 교육을 받고 활동하기도 하였다. 14살 무렵에는 당시 미국에서 독립운동하고 있던 박용만이 설립한 ‘한인소년병학교’(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독립군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3년간 군사훈련 및 민족교육을 수료하였다. 16세 되던 해에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이때부터 신문 판매, 구두닦이, 식당 종업원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더불어 수입도 좋고 달

리기를 좋아하는 그의 체력과 성품에도 맞다고 생각하여 신문배달원을 하는 등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는 공부도 잘했지만, 운동도 잘해서 학교 미식축구 대표선수가 되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장학금도 받으면서 열심히 학업 생활을 하였다. 유일한은 고교 시절부터 준수하고 체격이 좋은 학생이었으며, 동양인이 적었던 가운데 눈에 띄게 주위의 관심을 끌 정도의 능력과 품위를 갖춘 청년으로 성장하였다.

그의 리더십 또한 남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중학생회를 창설한 후에는 회장을 맡기도 할 정도로 통솔력이 강했고 대인관계 활동도 활발하게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그런 중에 미시간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한 중국인 호미리를 알게 되었고, 결국 1925년 두 사람은 결혼을 했다. 그때 유일한은 30세, 호미리는 29세였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당시 북간도로 이주해서 살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형편이 어려워지자, 유일한은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고 담임교사와 상담하였다. 이에 담임교사는 유일한이 은행에서 100달러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었다. 이때 융자받은 돈을 집으로 보낸 유일한은 디트로이트 변전소에서 일하며 1년 만에 돈을 전부 갚았다.

한편, 1916년 21살 때 유일한은 미시간대학교 상과에 들어가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는데 피고용인이 아닌 경영인이 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유일한은 직접 중국에서 수입되는 비단, 손수건, 양탄자 등을 보부상처럼 등에 지고 손에 들고 다니면서 팔았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장사 수완을 발휘해서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었다. 그의 상인 자질은 대학 졸업 후에도 본격적으로 발휘되었다.

2) 유한양행 설립이 있기까지(유일한 박사의 유학 생활과 독립운동가의 삶)

유일한은 어릴 때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에 대한 열망이 강하였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으면서 근대의식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고 이에 따라 1905년



1909년 미국에서 설립된 한인소년병학교 재학시절
생도들의 모습(제공 : 유한양행)

미국 유학길에 오르기도 하였다. 이에 16세 때부터 재미 독립운동가 박용만이 설립한 한인소년병학교를 통해서 자주독립 정신을 배양하기도 한 것이다, 1909년 재미 한인인 박용만은 헤이스팅스대학에 최초의 군사학교인 한인소년병학교를 개설해 여름방학을 이용해 한인 청년들에게 군사훈련과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때 유일한은 이곳에서 3년 동안 군사훈련과 민족교육을 받으면서 조국의 자주독립에 대한 열망을 키워

나간 것이다. 이로써 유일한은 민족 독립을 위해 민족 경제의 자강과 자립을 실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가로 선정하게 되었다.



1919년 한인자유대회 시가행진 모습
(제공 : 유한양행)

1919년 4월 서재필, 이승만, 정한경 등이 한국 독립의 열망과 독립 국가 건설의 의지를 알리기 위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한 제1차 한인 회의에 참여하였다. 유일한은 한국민이 자신의 정부를 가지게 될 경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세계만방에 알리기 위한 ‘한국민의 목적과 열망을 석명하는 결의문’

기초 작성 위원으로 헨리 김, 조운우 등과 대의원으로서 선출되어 결의문을 작성하고 한인회의 장소에서 낭독하였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제를 모델로 삼아 국민 주권의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나타낸 것이다.

유일한은 미국에서 해방 직후까지 한국 독립을 위하여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였다. 1942년 한민국방경위대(맹호군)를 설립하는 데 앞장섰고, 동년 8월 29일 LA시청에 마련한 태극기를 게양하는 현기식 행사에 참석해서 중경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무부장 조소앙,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회장 이승만,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켈벗 올손의 축사를 대독하였다.

또한 독립을 쟁취한 이후 새로운 국가건설을 준비하기 위해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만든 전후 계획연구부의 책임자가 되어 1943년 11월 『Korea and the Pacific War』을 발간하였다. 해방 이후 새로운 국가건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해 12월 뉴욕에서 고려경제회를 설립하고 잡지 『Korea Economy Digest』를 발간했다. 특히 그는 미국 전략첩보기관인 OSS(CIA의 전신)의 냅코작전에 참가했다. 이때 OSS 자문단 회의에 중국 전문가인 펄벅 여사와 국내 담당인 유일한이 참석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다.

이후 펄벅 여사와는 전쟁이 끝나고 1960년에 한국에서 다시 만났는데 그는 미국 전략첩보기관인 OSS(CIA의 전신)의 냅코작전에 참가했다. 이때 OSS 자문단 회의에 중국 전문가인 펄벅 여사와 국내 담당인 유일한이 참석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다. 이후 펄벅 여사와는 전쟁이 끝나고 1960년에 한국에서 다시 만났다.

냅코작전에 참가한 한국인은 당시 유일한을 비롯해 12명뿐이었다. 이때 이기·차진주·변일서 등 5명과 함께 훈련 1조의 조장이 되어 정보를 수집하고, 후방을 교란하는데 필요한 선전·무전·무기 취급 등 각종 군사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일본의 항복 선언으로 군사작전을 실행할 기회는 놓치고 말았다.

3) 유일한의 유한양행 설립과 민족기업 유한양행의 초기 역사

유일한은 1919년 대학을 졸업하고 제너럴일렉트릭사의 회계사로 취업하였다. 잠시 제너럴일렉트릭에서 회계 업무를 하면서 글로벌 경영 실무를 익혔는데 이는 그의 첫 회사경영의 기반이 되었다. 이후 퇴사 후인 1922년 27살 때부터 중화요리를 선호하는 미국인 가정에 만두의 재료인 숙주나물 통조림을 배달하는 생산공장인 라초이식품회사(La Choy Co.)를 설립하였다. 첫 사업인 숙주나물 장사는 크게 성공하였고 수요가 늘어나자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대학 동창 왈리스 스미스와 동업을 하였다. 그 결과 점차 회사는 더욱 번창하고 제품은 디트로이트, 시카고, 펜실베이니아, 뉴욕에까지 알려져 주문이 몰려들 정도였다. 그래서 4년 만에 5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려 미국의 교민사회에서 유일한은 콩나물 장사로 성공한 사업가로 소문이 날 정도였다.

한편, 1924년 유일한은 뉴일한주식회사(New Li Han & Company)를 세우면서 더욱 사세를 늘려나갔다. 이때 유일한은 서재필을 사장으로 초빙하였다. 귀국할 때 서재필은 미술을 전공한 딸에게 ‘버드나무가 그려진 목각품’을 선물했는데, 이것이 훗날 ‘버들표 유한양행’의 상징이 되었다. 이후 1925년 유일한은 중국 광둥 출신으로 미시간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동양 여성 최초로 코넬대학에서 소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호미리(戶尾利)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기도 하였다.

사업을 확장하던 중에도 유일한은 민족의 자주독립에 대한 열망도 잊지 않았다. 그래서 북간도와 국내 방문을 계기로 식민지 조국의 암울하고 참담한 현실을 보고 귀국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때 연희전문학교 예비승 학장으로부터 유일한은 상과 강의를 제안받았고, 부인 호미리 여사는 세브란스병원 소아과 과장을 맡아주기를 부탁하는 초청장을 받았다. 그러나 조국 의학계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약회사 설립을 결심한 유일한은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1925년에 부인과 함께 귀국했다.

마침내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아내 호미리 여사와 함께 귀국한 유일한은 1926년 12월 10일 서울 종로2가 덕원빌딩에 자본금 50만 달러를 가지고 한국인이 경영하는 최초의 제약회사를 창업하였다. 이때 유한양행의 이름은 자신의 성을 따서 ‘유(柳)’자를 쓰고, 한국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한(韓)’자를 써서 회사 이름을 ‘유한양행’으로 지었다. 회사 마크는 앞서 언



유한양행이 설립된 덕원빌딩
제공 : 유한양행

급한 대로 서재필 박사가 선물한 목각품에 그려진 ‘버드나무’를 상징으로 정했다. 이 버드나무의 의미는 유일한이 귀국 인사차 서재필 박사를 방문했을 때 서재필 박사가 선물로 준 무성한 버드나무 한 그루를 조각한 목각화 한 점에 담긴 의미가 컸다. 그 의미는 바로 “한국인임을 잊지 말라는 당부”가 담긴 것이었다.



유한양행의 상징 버드나무
출처 : 유한양행 홈페이지

그래서 유일한은 덕원빌딩에 유한양행을 설립하였고, 아내는 빌딩 2층에 소아과를 개원하였다. 이로써 한국에서 최초로 민족자본을 갖고 설립된 제약회사인 유한양행이 창립되었고, 부인인 호미리 여사의 병원이 함께 하면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유한양행은 초기에는 수입품을 유통하는 ‘양행(洋行)’으로서 의약품은 물론이고 다양한 상품을 유통하면서 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초기의 유한양행이 취급하는 상품은 주로 의약품, 위생화장품, 껌,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생활용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

유통하였다. 그리고 점차 농기구와 염료, 페인트 등 농업과 공업에도 사용되는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때 주로 취급한 약품의 상품명은 구충제인 헤노톨, 결핵치료제인 네오톤토닉, 피부병 치료제 연고인 안도린, 유행성 학질(말라리아 등 열병)의 치료제인 금계랍 등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유한양행 초기의 수입 약품이자 판매 제품인 헤노톨·네오톤토닉·안도린·금계랍 등은, 유일한이 추구한 조국의 백성들이 보다 쉽게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애국애족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한양행은 이로부터 사업을 점차 확대하였고, 1929년에는 사무실을 종로 YMCA회관으로 옮기면서 제약업을 주요 사업 분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내의 제약시장은 조선총독부의 비호 아래 일본인 제약업자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유일한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당시 외국인 계통의 병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판로를 확대하였다. 그 결과 서울의 세브란스병원, 평양의 가을병원, 전주의 예수병원, 순천의 미동병원 등 전국의 선교사병원을 거래선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래서 수입 제약품에 대한 판로를 개척해 나가는 데 성공하였다.

2. 유일한 박사와 부천, 부천 교육의 선구자가 되다.

1) 유한양행 설립과 부천의 교육 환경

유일한 박사는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교육은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해 주는 것이기에 소홀히 할 수 없으며, 교육을 받은 사람은 능력이 개발되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나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 능력이 빛을 보지 못하고 시들어 버린다. 우리 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에도 뒤지지 않는 자질을 갖고 있으나 이를 개발해 주는 교육이 부실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라는 수모를 겪었다는 것이 유일한의 교육에 대한 지론이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그는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대학에서 경영학을 배웠고, 스탠퍼드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것이었다. 그러던 중에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조국의 청소년들이 교육 기반을 잃어버리고 조국 발전이 요원해지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유일한은 사내에 임시교실을 마련하는 등 교육자로서의 행보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유일한 박사의 교육가로서의 모습은 현재의 부천지역의 교육 환경 마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된 상황에서 유일한은 유한양행 소사공장의 재건 가운데에서도 교육 터전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을 위하여 1952년에 소사공장 내에 임시교실을 만들어 교육을 중시하는 모습을 다시금 보여준다. 이에 부천지역의 청소년들을 모집하여 학비와 숙식비를 제공하면서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백년지대계를 준비하였다.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최초의 교육기관인 고려공과기술학교였다.



1952년 설립된 소사공장의 고려공과기술학교
제공 : 유한양행

고려공과기술학교는 1954년 5월에 고려공과기술학원으로 처음 설립되었다. 이후 한국직업학원, 고려공과기술학교로 명칭을 바꾸면서 발전하였다. 이 학교는 유일한의 교육가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유한대학 설립과 교육가로서의 삶

고려공과기술학교는 1954년에 처음 서울의 대방동에서 고려공과학원으로 개교하였다. 고려공과학원은 당시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진 기술교육과 기술자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가난한 청소년에게 교육할 방법을 찾던 유일한 박사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경제 사정이 어려워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학습과 실기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역할을 하였다. 비록 정부에서 인가받은 정규고등학교는 아니었지만, 교육 연한이나 수업 내용은 정규공업학교와 다를 것이 없었다.

1960년 3월 첫 졸업생 8명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1961년부터는 학교명을 한국직업학원으로 바꾸게 된다. 그리고 유일한 박사가 기부한 1,200평의 대지에 유한양행 임원 일동이 벽돌교사 2층 건물과 목재건조실, 보일러실 등을 기부하여 12월 30일에 신축공사 개원식을 거행하였다. 이때까지도 학생 전원에게 기숙사를 주고 무료 교육을 실시하는 혜택을 지속하였다.

1962년에 유일한 박사는 사재를 털어 재단법인 유한학원을 설립하고 이사장에 당시 세브란스의과대학의 교수인 김명선 박사를 모시고 학교 설립을 준비하여 1964년에 유



유일한 가족사진 1964년경, 왼쪽부터 유일한, 딸 유재라, 아들 유일선, 부인 호미리(제공 : 유한양행)

한공업고등학교를 개교하였다. 이때에도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시설이 좋고 교육 내용도 충실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였다고 한다. 학교 소재지는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동으로 변동되었고, 기증한 야산은 당시로는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에 양쪽으로 나뉘어져, 그때까지는 경기도교육위원회가 감독관청으로 되었었는데, 지금은 서울로 편입되었다.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는 전적으로 사재를 사용하였고, 1966년에는 유한중학교를 병설했으며 1969년 2월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분리되었다.

교가 분리되었다.

이후 교사의 증축 등 교육 설비의 확충을 통해 1969년에는 총 560평의 교사가 증축되어 실습장 및 교실로 사용되었고, 1970년에는 7,000평의 운동장이 만들어졌다. 유한공업고등학교는 1967년 1월 제1회 졸업생 42명이 배출되어 1977년 11회 졸업생이 배출될 때까지 수업료 전액 면제의 혜택을 본 졸업생 수는 1,679명이나 되었다.

또한 유일한은 다른 교육기관에도 금전적인 기부를 하였고, 사회사업에도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래서 유한공업고등학교와 사회사업의 운영은 유한양행의 운영과 관계없이 독립된 재단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재단을 설립할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었다. 마침내 1970년에 ‘재단법인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신탁기금’을 설립하였다. 재단의 기금은 전적으로 사재로 하였고, 그의 딸 유재라 여사도 개인소유의 주식과 토지를 기증하였다. 만년에 건강이 나빠졌음에도 자주 학교에 들러 세부 사항까지 직접 지시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정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자주 목격되었다고 한다.

3) 유한대학교의 연혁과 변화상, 부천에서의 역할

유일한 박사가 사망한 이후인 1977년 재단법인 유한학원은 유한공업전문학교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고등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유일한은 민족기업을 창립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한 데 이어 거액의 재산을 내놓아 당시로서는 절실하게 필요한 기술교육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무상으로 교육받고 조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백년지대계를 마련한 인물이었다.

특히, 유일한 박사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 기회를 모두 상실한 한국의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교육받을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자신이 어렵게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느낀 교육의 중요성을 조국과 민족에게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였고, 부천지역의 교육 환경의 근대화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 1965년 연세대학교에서는 유일한 박사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높이 사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도 하였다.

그가 설립한 유한 재단은 유한공업고등학교에 이어 1977년 유한공업전문학교를 설립하게 된다. 유일한 박사는 1977년 세상을 떠났지만, 유일한 박사의 교육 이념은 그대로 남아 1977년에는 고등교육기관까지 설립되고 1979년에는 유한공업전문대학으로 개편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유한공업전



유한공업고등학교 내 유한동산 초기모습
제공 : 유한양행

문대학은 1991년에 유한전문대학으로 개칭하고 1998년 유한대학으로 개명하였다. 이후 2011년 유한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22년 기준 유한대학교는 전문학사과정 총 26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유한대학교는 부천의 직업교육거점대학으로 부천 교육에 있어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부천시와 함께 부천인생학교 운영, 사회문제 해결 소셜리빙랩 운영뿐만 아니라 대학일자리플러센터, 부천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도시재생대학과 사회혁신 시민대학, 부천시 어린이와 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 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 부천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3. 부천을 본사로 하는 민족기업, 유한양행의 전성기

1) 유한양행의 부천 본사 이전 배경과 원인



1936년 유한양행 소사공장 준공기념 사진

(제공 : 유한양행)

유한양행은 1920년대 후반부터 돛자리, 화문석, 도자기, 죽세공품과 어간유, 연어 등의 수출 사업도 개시하였다. 유럽과 미국의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유통하는 데에서 나아가 국내의 특산품과 상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유한양행은 서울의 종로 지역에서 날로 사업이 번창하게 되면서 서대문구 신문로에 2층 양옥을 지은 후 1932년에는 본사를 이전하였다. 이후 1933년에는 미국 제약업체 애벗의 협조를 얻어 중국으로 진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에는 유럽 지역으로 수출 판로를 확대하는데 이르렀다.

한편, 유일한은 우리 약은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염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1935년부터 모든 사업 분야를 제약업체로 전환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래서 본사 내에 생산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었고, 앞에서 언급한 초기의 대표 제약품인 네오톤토닉, 안도린과 안티푸라민, 헤노톨 등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유한양행은 본격적으로 약품 제조업을 시작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종로구의 한복판에 공장을 세우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량의 제약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공장부지와 공장 시설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부천의 소사공장을 건설하게 되었고, 추후에는 본사도 이전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1936년 8월 2일 경기도 부천군 소사면 심곡리 25번지의 대지 2만여 평을 매입한 유한양행은 제약실험연구소와 공장 건설에 착수하여 12월 10일에 준공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1936년부터 유한양행 소사공장은 증축과 확장, 보충 공사 등을 통하여 전시 경제 체제하에서도 성장을 지속하였다. 당시 일제는 한국을 식민지 전초기지로 삼고 대륙 진출을 시도하면서 중일전쟁이 한창 진행되었다. 그래서 한국의 농작물은 물론이고 생산물, 자본과 노동력에 대한 착취가 이어져 한국경제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유한양행은 부천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생산 기반을 확

충해 나갔고 발전을 이어갈 수 있었다. 특히, 유한양행은 당시로서는 이례적으로 공장 건설과 병행하여 직원 복지시설을 갖추면서 선진적인 면모를 보였다. 이때 설립된 복지시설은 종업원의 기숙사, 집회소, 운동장, 화원, 양어장, 수영장 등이었는데 이로써 유한양행 소사공장이 부천의 지역경제와 사회에 미친 영향력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유한양행은 사세의 확장과 제약품의 대량 생산설비를 위해 서울을 벗어나 수출과 수입에 용이한 지역인 부천지역에 생산공장과 설비를 갖춘 후 본사까지 이전하게 되었다. 이는 유한양행이 화문석, 돛자리, 도자기 등의 특산품을 중국과 유럽 등에 수출하기 위해 인천항과 가까운 곳으로 이전이 필요한 이유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에 의존하는 초기 유한양행의 사업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수출과 수입이 용이한 서울과 인천 사이의 부천이 갖는 교통의 장점은 본사 이전이라는 결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더욱이 서울 한복판에 위치하면서 판로를 개척해 나가던 유한양행의 입지는 창립자인 유일한 박사가 독립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사라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하였다. 조선총독부는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당시 유일한 제약회사인 유한양행을 감시하고 탄압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전술했듯이 유일한은 미국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교민들에게 자주독립정신을 강조하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총독부는 서울 한복판에서 일본인이 주도하는 제약업계의 독과점시장을 저해하는 눈엣가시이자 독립운동가가 운영하는 유한양행을 탐탁치 않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조선총독부는 유일한 박사를 요시찰 인물로 선정하여 감시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유일한 사장은 1941년에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유명학 사장이 2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여기에 조선총독부는 유한양행에 대한 탄압을 더욱 심화하고자 세금을 대폭 인상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더하였다. 이에 유한양행은 사세 확장과 일제 감시의 피하고, 세금 탄압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부천으로의 본사 이전을 결정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결국 1942년에 유한양행은 본사를 소사공장으로 옮기는 과단성을 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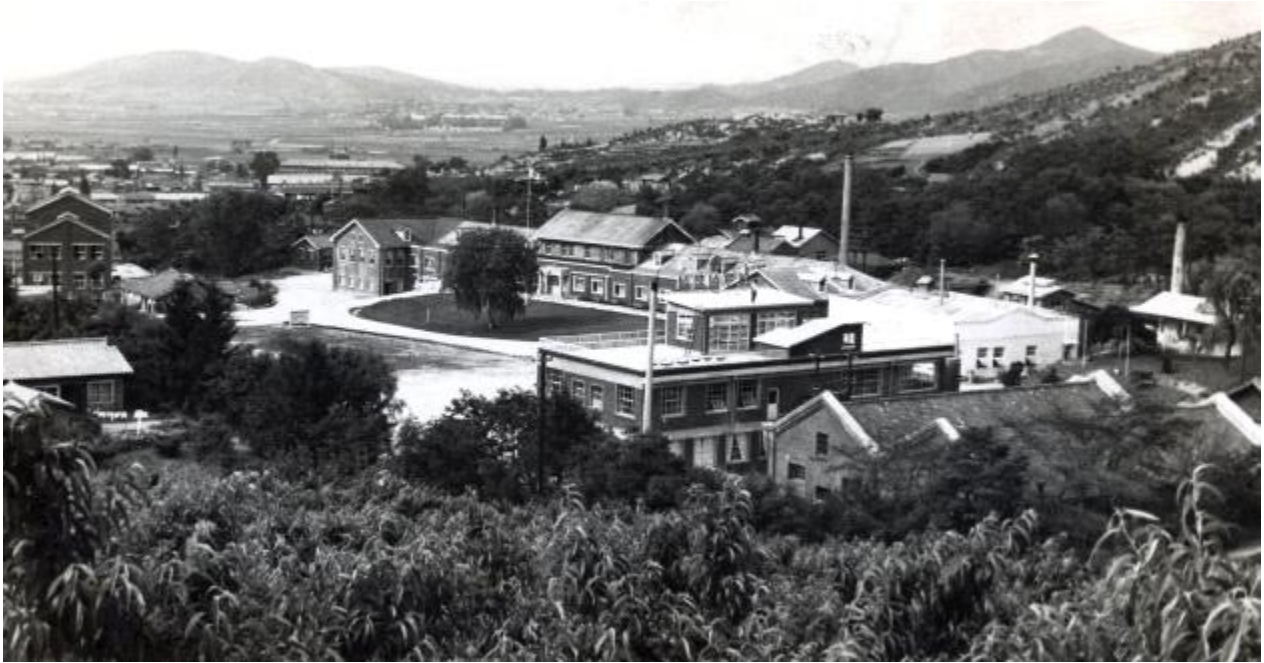
2) 유한양행의 전성기와 주력 상품의 생산

1930년대 유한양행의 성장과 발전 요인은 다양했지만, 기록적인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CU사이드’라는 상품명을 가지고 판매되었던 프론토질(Prontosil) 설과제이다. 이것은 유한양행에 의해 동양 최초로 수입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상품이었다. 당시 망국병이라 치부되던 임질 치료제이자 포도상구균, 폐렴구균, 골수막염균, 이질균, 대장균, 파상풍균, 나병균 등에도 효과가 탁월한 제품이었다. 이로써 유한양행은 날로 인지도가 성장하였다. 특히, 부천의 소사공장 설립 후에 유한양행의 영업실적은 기록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전시체제가 무색하게 하였다.

당시의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1937년 상반기에는 영업실적이 전기에 비해 20%가 증

가하였는데, 이것은 유한양행의 인지도가 상승함으로써 판매가 확대되고, 해외시장의 개척에 힘입은 것이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 영업실적이 4%가 신장되고 전년도에 비해 28%가 증가하였다. 1938년에는 전시통제로 수입 억제가 강화되어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기에 비해 33%의 영업실적이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생산 촉진, 재고 처분, 판매조직의 강화, 재정계획, 신발매품의 연구, 판로개척, 수출증진, 북만주와 대륙 북구 지방의 시장개척 등이 그 주요한 원인이었다.

당시 부천공장 이전과 이후의 영업수익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를 비교해 보면 1936년 제1기 영업기의 수입금은 88,442원 3전이었는데, 1941년 제10기에는 797,347원 40전에 이를 정도로 놀랄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는 유한양행이 1937년을 전후하여 생산력이 급증한 데에다 수출에도 주력하면서 그 성장세가 가파르게 올라간 덕택이었다. 실제 유한양행은 1937년 이후부터 수출에 주력하기 위해 미국의 L.A에 출장소를 설치하였고 1938년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 12%의 영업실적이 상승하였다.



1936년부터 1968년까지 유한의약품 생산에 총본산이었던 유한양행 소사공장
(제공 : 유한양행)

1939년 상반기는 전반기에 비해 60%가 증가하여 최대 성장률을 보였다. 하지만 1940년에 이르게 되면 일제의 전시통제가 날로 극심해지면서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더욱이 일본과 미국의 국제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으로부터 원료 수입이 어려움에 겪게 되면서 성장세는 꺾이고 말았다. 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유한양행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징후가 보이는 전시체제 하에서도 발전을 지속하게 되었고, 당대 최고의 민족기업 중 하나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유한양행의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의 선진 경영과 민족의 건강을 생각한 자주 경영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유한양행은 1936년부터 주식회사로 전환한 후에도 비약적인 발전을 지속하였다. 1940년대에 전 세계는 전쟁으로 인해 불황에 시달리고 있었고,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점차 악화되면서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의 경제 역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더욱이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전쟁이 확대되면서 물자 결핍이 가중되어 제약업계도 원자재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불황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유한양행은 이미 부천의 소사공장에 막대한 양의 원료를 비축하였기에 불황을 피할 수 있었다. 이는 유일한 유한양행 이전이 얼마나 큰 선견지명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당시 유한양행 소사공장의 원료 비축량은 향후 2년간 계속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이로써 유한양행이 수입을 통한 소비재 무역에 그치지 않고 규모를 키워 대규모 생산공장을 짓고 본사까지 이전한 선택은 결과론적으로 유한양행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유한양행 소사공장의 건설로 인해 공장이 원료 비축기지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인천항과 인접한 소사역을 통해 수출과 수입이 용이한 교통환경을 갖춘 부천의 입지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로써 유한양행의 전성기는 전 세계가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어질 수 있었고, 부천으로의 본사이전은 전성기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결국, 유한양행은 매년 비약적으로 성장해서 임직원 수도 1936년의 77명에서 1940년에는 155명으로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한편, 유한양행은 해방 이후에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약업계에서는 독보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유한양행의 자본금 규모는 75만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최대의 민족계 단일 기업인 경성방직의 자본금이 1백만원인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대단한 것이었다. 특히, 1945년 해방 당시의 민족계 제약회사 중 자본금 10만원 이상의 회사는 30여 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을 때 유한양행의 규모가 가장 컸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당시 유한양행 외에 민족계 제약회사는 금강제약, 삼성제약, 천일제약, 신흥제약, 동화약방, 동양제약 등이었지만 유한양행의 규모와 생산력은 단연 독보적이었다.

3) 유한양행의 주력 사업과 제약 연구를 통한 주요 생산품

해방 이후 1950년대에 부천에 있던 소사공장에서 생산된 의약품은 네오톤·코푸시럽·안티푸라민·유톤·이드렌·안도린·트라카볼·비타나인·유한팩사비타민·비네몬·미네비·코데나·스리나·하이파스·항생제로는 PVP(대용혈액·로우스틴(혈압강화제)·데카비타민·네오하이파스·페나두라·유피라진과 유한치약 등, 수십 종의 제약 제품들이 생산 판매되었다.

이처럼 수많은 제약품이 유한양행에 의해 생산되는 배경에는 활발한 제약 연구를 통한 신제품의 개발과 지속적인 연구의 성과가 있었다. 특히, 유한양행은 1950년 발생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주요 건물과 설비를 상실하였음에도 빠른 복구는 물론이고, 시설의 현대화를 추구한 결과였다. 실제 유한양행은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공장 건물을 복구하



안티푸라민 (제공 - 유한양행)



네오톤(제공 - 유한양행)

유한양행 제품종합 광고(1960년대 약업신문)
출처 : news@yakup.co.kr

여 생산을 재개하고 확대시키기 위하여 1955년부터 소사공장의 복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먼저 유한양행은 ICA자금(미국원조자금 - 25만 달러)으로 파괴된 소사공장시설을 재건하였다. 또한 생산시설도 미국이나 독일에서 소분제제 시설

을 비롯하여 주사약 시설, 제습과 건조 시설, 세병 및 무균 시설, 공기조절 시설 등 각종 최신식 기자재를 도입하고 설치하여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57년 이후 수제과립·타정·당의 등, 정제, 주사제·항생제·연고제, 원료합성, 제품 포장 등 기본적 제조 공정에서의 기계화와 설비 현대화를 실현하거나 새로운 생산 체제를 정비하였다.

1958년 소사공장 부지에 초자(硝子) 공장을 건립하였고, 최신식 설비를 갖춘 200평의 '실험연구실(한국 제약업계 최초의 연구실)'도 1960년에 준공하였다. 새로 건립한 실험실에 새로운 실험기기를 설치하였다. 예를 들어 1960년 Spectrophotometer, 61년에 Polarimeter 및 Subsieve Sizer, 62년 자동제시험기, 67년 Atomizer, 68년 마손도 측정기 Friabiliator 및 Balance Analytical, 69년 Rotary Evaporator 및 Polarographic Analyzer, 무균조작대 Aseptic Table laminare, 70년 Pilot Test Peactor 및 Karl Fisher 수분측정기를 도입하여 설치하였다. 이후 연구실험실의 제제 합성 및 분석 기술은 크게 향상되고, 유한양행 제품의 고품질, 다양화의 기초가 되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이 되었다.

또한 연구 기술진도 강화되어 많은 연구실험이 수행되었고, 그 결과 제품개발이 축

진되었다. 1962년부터 1970년의 주요 연구실험 실적을 보면, 제제 분야에서는 안티푸라민, 리포탄정 등 기존 제품의 품질개선(6건), 리포탄 주사제, 비타민 B Complex 정, 아미노산 주사액, , Pas-Ca과립 경고제 및 연질캡셀제제, 중항소화효소제, 구형과립, 인삼제제, 제산제 등 신제품개발(26건), 안전성 검토(3건) 및 기타 검사(6건) 등 42건의 실적을 올렸다. 합성 분야에서는 21건의 각종 제제의 효능 및 성분 정량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60년대 초에도 유한양행은 신규 제약품을 생산하였고, 최대 제약회사로서의 이미지를 굳혀나갔다. 그 결과 소하민, 안진, 스리나, 리포탄, 트라카불, 스위터, 안티푸라민 등을 대표적으로 생산하였다. 아울러 신제품으로는 चु비타, 리포탄주사액, 고려삼계정, 헤마킹(빈혈 치료제), 뼈콕(영양제), 유코틴내복액, 오레오마이신 외용연고, 레더마이신, 코푸시럽, 코데나, 푸레론연고(피부병 치료제), 아토민(장내살균, 지사제) 등을 생산, 판매하였다.

4) 부천지역 유한양행의 시설과 종업원들에 대한 선진복지 및 처우 개선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유한양행 재건 후 사진
(제공 : 유한양행)

유한양행은 창업 이래 종업원의 복지와 후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36년 유한양행은 한국의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전사원 주주제를 실시했다. 이때 유일한은 당시 자신이 갖고 있던 주식의 52%를 사원들에게 무상으로 나눠 준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선진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는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가 미국에서 선진 경영을 배우고, 이를 조국에도 이식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결과였다. 전술했듯이 유일한 박사는 직원들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에도 힘을 기울이는 등 직원들의 복지와 자기 계발에도 열을 올리는 선각자적 인물이었다. 따라서 유한양행의 복지혜택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점차 증가되는 추세를 보인다.

유한양행은 1936년 이후 주식회사가 된 데 이어 부천에 공장을 설립한 후 150명이 넘는 종업원을 거느리게 되었다. 특히, 1958년부터 유한양행은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 국

내 최초로 우리사주제를 실시하여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주주제를 실시하였고, 직원들에 대한 호칭과 대우도 선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그래서 사원들 중 희망자가 자사주를 매입하면 그 대금을 상여금에서 공제하고 간부사원들에게는 공로주로 지급했다. 모든 종업원을 ‘사원’으로 호칭하도록 하였고, 사원은 1~7등급으로 구분하고 종전의 주임을 계장으로 바꾸기도 하였다.

특히, 유한양행의 복지정책은 부천지역에 소사공장을 건립하면서 본격화되었고 한국 전쟁 후에 새롭게 재건되고 확충된 공장의 주요 건물과 설비에서 더 크게 발현되었다. 실제 1961년에 소사공장 내의 유일한 회장 사택에 의료시설을 갖추어 응급치료를 할 수 있게 하고, 중환자의 경우에는 시내의 지정병원인 김낙원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의료복지를 실현하였다. 또한 사원들에게는 사원주택, 식당, 장학금, 경조금 지급 등 각종 복지혜택이 주어졌다. 사원주택의 건설은 사우공제회에 의해서 1969년에 시작되었으며, 사원장학금은 1957년부터 지급되었고, 사원자녀장학금 제도는 1966년부터 제도화되었다. 사원경조금 지급도 1966년부터 제도화되었다.

이 외에도 후생복지가 더해지면서 유한양행 소사공장의 종업원들에 대한 복지는 날로 성장해 갔다. 실제로 1960년대 들어서 소사공장 부지 내에 직원들을 위한 농구장, 배구장, 정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갖추어 사원의 건강과 체력향상을 증진할 수 있게 하는 등 시대를 앞서는 행보를 보였다. 또한 1962년부터 사우공제회가 주관하여 문예부, 사진부 등 각종 문화서클이 조직되어 문화적인 복지도 갖추는 등 차원이 다른 복지혜택을 제공하였다.

한편, 사원들의 자녀들에게 입학금 중 50%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등 자녀 교육에도 복지혜택을 부가하는 선진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유한양행은 1975년부터는 직원 자녀들의 입학금을 전액 지급하는 등 선진적인 복지혜택을 이어 나갔다. 이와 같은 유한양행의 사원 복지와 각종 혜택은 부천지역의 근로자는 물론이고, 부천의 지역경제와 사회적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특히, 교육 분야에 있어 유한양행 소사공장 내에 세워진 교실에서 시작된 유한대학교의 건립은 유한양행의 복지에 대한 투자가 기반이 된 것이었다.

4. 유한양행의 본사 이전 원인과 변화

1) 유한양행이 본사를 서울 대방동으로 옮기게 되는 내부 요인과 배경

유한양행은 1962년 제약업계 최초로 주식을 상장한 후 서울시 영등포구 대방동에 사옥을 준공하였다. 이후 같은 해에 본사 이전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한양행 소사공장의 이전은 공식적으로 1969년 대방동의 본사 사옥을 준축한 후 이뤄졌다고 한다. 이로 보아 1962년 유한양행은 본사를 대방동으로 옮긴 후



한국 최초의 독립된 소사공장 연구실험실
제공 : 유한양행

소사공장의 공장 시설을 1969년에 이전, 완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유한양행은 1942년에 부천에 본사를 이전한 후로 발전을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 서울의 대방동으로 사옥을 이전하고, 공장까지 이전하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숨어있을 것이다. 먼저 내부적인 요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숨어있다고 할 수 있다. 1976년 발간된 『유한 50년사』에 따르면 1960년대는 한국 제약업계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시기이고, 유한양행 역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시기였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유한양행은 50년대 재건기를 거쳐 60년대 비약적인 제약업계의 성장을 타고 사세를 확장시키고 사업 분야를 다각화하기 위해 새로운 곳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공장까지 옮긴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황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엿볼 수 있다. 먼저, 유한양행의 신제품 개발과 연구를 통한 제약 제품의 국산화 성공이다. 유한양행은 50년대 소사공장의 재건 과정에서 현대화된 연구소를 설립한 결과 수입 제약품에 의존하던 영양제, 치료제, 항생제, 백신제 등을 국내공장에서 생산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 결과 한국 제약업계의 판도가 변하고, 수많은 제약회사가 새롭게 발돋움하게 되었다.

한편, 유한양행은 크게 성장하는 제약업 외에도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과정에서 유일한 회장의 세계 일주가 이뤄졌고, 유일한

회장이 세계 일주를 마친 후에 본사 이전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세 확장이 또 다른 요인이 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실제 1960년대 초부터 유한양행은 지속적인 자본금 증가를 배경으로 하여 경영의 다각화를 모색하였다. 그래서 이 무렵인 1962년 11월 주식상장을 진행하여 기업 역사의 신기원을 열었고, 1959년 이후 방치되다시피 한 소사 초자공장의 시설 보수와 정비도 모색되기도 하였다.

또한 유한양행은 또 다른 사업 분야의 진출을 활발하게 모색하였다. 대표적인 것은 화장품 분야와 치약분야, 제지사업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소사공장에서는 먼저 유한치약이 생산되어 판매되기도 하였고, 화장품 분야는 유한양행이 새롭게 시장조사를 진행한 후 야심차게 진행한 사업 분야였다. 이를 위해 유한양행은 미국의 저명한 화장품 제조회사인 맥스팩토와 제휴하여 화장품 제작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 그런데 당시 부천에는 한국화장품 등의 수많은 화장품 생산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경도 유한양행의 화장품 사업 분야 진출에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유한양행의 화장품 생산은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 외에도 유한양행은 1960년대 후반 유한김벌리와 합자하여 제지업 분야로 진출하는 데 성공하기도 하였다.

2) 유한양행 본사 이전의 외부 요인과 변화상

한편으로 유한양행 본사와 소사공장이 서울의 대방동으로 이전하게 된 외부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유한양행의 이전에 어떤 외부 요인이 있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1962년 본사 이전 이후로 소사공장의 이전은 예정된 수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962년에 새로 옮긴 본사 옆에 대규모 공장이 이후에 증축되었기 때문이다. 1962년 1월에 유한양행은 대방동 종합신사옥의 신축공사를 마친 데 이어 서대문구의 신문로사옥을 5천5백만원에 매도하고 5월 13일에 신사옥 이전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유한양행은 흩어져있는 사무실을 대방동에 모두 모아 본사와 공장을 집중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유한양행이 심혈을 기울인 PAS 제작을 위한 원료합성공장이 설립되었는데 이때 원료합성공장이 설립될 곳은 안양지역으로 정해졌고, 유한양행은 PAS 시장의 80%를 장악을 목표로 하여 새로운 원료합성공장 설립을 가속화하였다. 반면, 1967년에 이르면 판로 확대와 시장 확대를 위해 서울 지역에 수백여개의 특약점을 설치하고 영업에 공을 들이는 한편, 제약시설의 대규모 현대화를 위해 부천의 소사공장을 매도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부천의 소사공장은 유한양행의 판로 확대와 사업 분야의 다각화, 본사의 이전 등으로 인해 서울의 대방동 종합사옥으로 서서히 이전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흥미로운 견해도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사를 부천의 소사공장에서 서울 대방동으로 이전한 가장 큰 원인은 공업용수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한양행에 1970년 입사해서 18년 동안 재직하고 1988년에 정년퇴직을 한 최영화 님의

인터뷰에 의하면 소사공장의 이전 이유가 비교적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제약회사의 특성상 약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물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되는데, 당시 부천의 심곡동 일대에서는 용수가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 소사공장에는 물을 가득 채운 급수차가 다니면서 부족한 용수를 공급하는 일을 종종 목격했다는 것이다. 이에 유한양행은 부천시에 용수 공급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부천군의 입장은 용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부터 부천까지 물을 끌어오는 수도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그 비용을 상당히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 부천군은 유한양행에게 너무 많은 비용을 요구하였는지 유한양행이 크게 부담을 느껴 본사를 대방동으로 옮긴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인터뷰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본사를 용수 공급이 수월한 대방동 쪽으로 이전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유한양행은 1950년대 소사공장을 재건, 증축하면서 제약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였고, 1960년대 수요의 증가와 제약업계의 폭발적인 발전에 힘입어 사업의 확대와 다각화를 모색하였다. 그런데, 유한양행의 소사공장은 약품의 대량 생산을 할 때 필요한 공업용수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 판로가 뚫리고 영업점이 대규모로 형성되면서 상대적으로 서울에 본사와 공장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영진이 본사와 공장을 옮긴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3) 유한양행이 서울 대방동으로 옮긴 후의 변화상과 발전

부천의 소사공장에서도 본사를 서울의 대방동으로 옮긴 후 유한양행의 주력 사업은 여전히 제약품이었지만 다른 분야의 사업도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방동 사옥으로 본사를 이전한 후 현재의 안양시 일대에 PAS의 원료가 되는 원료합성공장을 세웠고, 1970년에는 미국 김벌리클라크와 합작해 유한김벌리를 계열사로 세워 제지분야에 뛰어들었던 상황도 알 수 있다.

이어서 1976년에는 경기도 군포시에 군포종합공장을 착공하였고, 1977년에는 유한코락스, 1982년에는 유한사이나미드 및 유한스미스클라인, 유한에스피, 한국에섹스를 설립하였다. 이후 1983년에 한국얀센, 1985년에 유경메디카를 세운 뒤 1997년에 대방동 구 사옥을 별관으로 정리하고 옆쪽에 신사옥으로 이전하였다.

2006년에는 군포공장의 설비를 충북의 오창공장으로 이전하고, 2019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군포공장을 매각하기에 이르렀다.

5. 유한양행은 떠났지만, 부천에 남은 유일한 정신(필벽기념관)

1) 유한양행이 떠나면서 남긴 유산, 유일한의 기업가 정신과 교육가 정신

유일한 박사는 1969년 11월 30일 제11대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장직을 사임한 이후 1971년 3월 11일 향년 77세에 영면에 들었다. 그런데 사후 1개월 뒤에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한 일이 일어났다.

유언장에는 유일한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140, 941주(당시 시가 2억 2천만원) 전부를 재단법인 ‘한국사회 및 교육신탁기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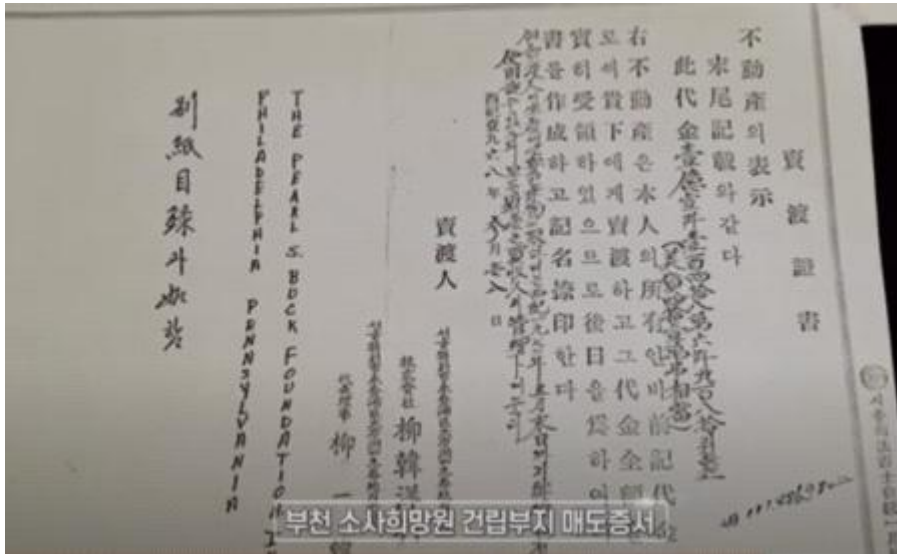
유한공업고등학교에서 유일한 박사 장례식
제공 : 유한양행

기증해 사회사업과 교육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손녀 유일링에게 대학 졸업시까지 학자금으로 1만 달러를 주고, 딸 유재라에게는 유한공고 안에 있는 묘소 및 주변 땅 5천 평을 상속하되 그 땅을 유한동산으로 꾸며주기를 당부했다. 유한동산에는 결코 울타리를 치지 말고 유한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게 하라는 하였다. 그리고 아들 유일선에게는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 자립해서 살아가라고 언급했다.

유일한은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기업가였다. 일제강점기인 1926년 국내 약품시장에 진출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합리적인 정신과 경영으로 유한양행을 성장 발전시켰다. 또한 부정과 불의를 배격하고 오직 나라 사랑의 대의를 실천했다. 유한양행이라는 기업경영을 통해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가이자 한국 최초의 제약회사를 창업 하였으며 선구적인 교육자였으며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이었다.

이와 같이 유일한은 유한양행의 발전과 번영을 민족의 번영과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심하여 유한교육신탁기금을 설립해 유한재단을 만들어 인재 양성과 사회 공익을 위해 헌신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 정신은 여전히 부천지역에 유한대학교와 함께 남아 있으며, 유한양행의 부지가 소사회망원의 부지로 사용되면서 계승되기도 하였다.

2) 유한양행 소사공장 터가 부천에 남긴 펄벅재단과 소사회망원



소사회망원 건립 부지 매도증서
(출처 : 다큐멘터리 펄벅과 나, 유일한 편)

1957년에 건립된 유한양행 소사공장의 연구실험실은 1967년부터 펄벅재단 건물로 사용되었다. 이 건물이 펄벅재단으로 매도된 데에는 유일한과 펄벅의 인연이 크게 작용하였다. 해방전에 유일한은 미국 전략첩보기관인 OSS(CIA의 전신)의 냅코작전에 참가했는데, 이때 OSS 자문단 회의에 중국전문

가인 펄벅 여사와 처음 만나게 되었다. 이때 유일한은 펄벅 여사를 처음 만났지만 그 인연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해방 후 유일한은 1960년에 펄벅 여사와 한국에서 다시 만났는데 전쟁고아와 혼혈인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펄벅 여사가 도움을 청하자 유일한은 마침 유한양행 소사공장의 부지가 서울의 대방동으로 이전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 부지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게 된다. 당시 유한양행 소사공장 부지는 111, 486, 980원(약 41만 달러 상당)으로 펄벅재단에 양도되었다.

그 결과 전쟁고아와 혼혈인을 수용하는 시설인 소사회망원이 이 부지에 세워지게 되었다. 1967년 6월 유일한 박사는 펄벅 여사와 함께 소사회망원의



부천중앙공원에 설치된 부천을 빛낸 인물 유일한 박사 동상(사진 : 부천시청)

개원식에 참석하였다. 소사회망원은 1973년까지 이곳에서 운영되었는데, 전쟁고아와 혼혈아동 2,000여 명을 돌보며 복지 활동을 펼친 기관으로 기억되고 있다. 소사회망원은 비록 유일한 박사가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니었지만 부천지역에 처음 설립된 복지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유일한 정신을 이어나간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떠난 공간에서 유일한 정신이 이어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유한양행 소사공장 일부의 건물, 즉 1936년에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 남아있었는데, 이 건물은 근대적 공장건축의 초기 양식으로 인정되어 2001년도 경기도문화재자료로 등록되었던 것이 소유주가 재산권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해제를 시켜서 결국 2015년 2월에 철거되었다. 현재는 소사공장이 있던 자리에 펄벅기념관이 세워져 있고, 그 주변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곳에서나마 부천 최초의 근대적 제약공장인 유한양행의 옛 정취를 조금이나마 생각하고 느껴볼 수 있는 곳이다.

6. 결론



유일한 박사가 부지를 내도한 펠벅기념관
(사진 : 부천시청)

유일한은 1895년 1월 15일 평양에서 아버지 유기연과 어머니 김기복 사이에서 9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904년 9살에 대한제국 순회공사 박장현을 따라 미국 유학길에 올라 미국 중부 네브래스카주 커니에 정착하였고, 1909년 박용만이 세운 한인소년병학교에 입학하여 군사훈련과 민족 교육을 수료하였다.

미국에서 헤스팅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19년 미시간대학교 상과를 졸업하였다. 한 중학생회를 창설한 후에는 회장을 맡기도 할 정도로 통솔력이 강했고 대인관계 활동도 활발하게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그런 중에 미시간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한 중국 여인 호미리와 1925년 결혼했다.

졸업 후에 잠시 제너럴일렉트릭에서 회계 업무를 하면서 글로벌 경영 실무를 익히고 시작한 숙주나물 장사로 성공하였고, 수요가 늘자, 대학 동창 왈리스 스미스와 동업을 하여 1922년 생산공장을 건설하면서 라이초이식품회사(La Choy Co.)를 세우기도 하였다. 이후 한국 독립의 열망과 독립국가 건설의 의지를 알리기 위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한 제1차 한인회의에 참여하고 해방 직후까지 한국 독립을 위하여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참여하는가 하면 미국 전략첩보기관인 OSS(CIA의 전신)의 냅코작전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마침내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아내 호미리 여사와 함께 귀국하여 1926년 12월 10일 서울 종로2가 덕원빌딩에 자본금 50만 달러를 가지고 유한양행을 창업하였고 초기에는 의약품, 위생화장품 등과 생활용품 등을 수입하였으며, 1929년에는 사업을 확장해 사무실을 종로 YMCA회관으로 옮겼다. 당시 국내 일본인 제약업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제약업계 상황에서 유일한은 기독교 관련 병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판로를 개척해 나가 사업이 번창하여 서대문구 신문로에 1932년 본사를 이전하였다.

한편,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 유일한 박사는 한국전쟁 이후 청소년들을 위하여

1952년에 소사공장 내에 임시교실을 만들어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고려공과기술학교를 설립하였다. 1964년에 유한공업고등학교를 개교한데 이어 1979년에 유한공업전문대학교 설립하였다. 이 학교는 2011년 유한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부천지역의 교육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아 유일한 박사의 교육 정신을 대표하고 있다.

1935년부터 제약업체로 전환을 시도한 유한양행은 조선총독부의 감시와 세금을 피하고, 판로 다변화와 수출·수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부천지역에 소사공장을 건설하였다. 이후 1942년에는 본사도 이전하고, 기록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여기에는 GU 사이드와 같은 동양 최초의 수입 약품과 안티프라민 등의 생산이 배경이 되었다. 유한양행은 부천에 정착한 뒤로 중일전쟁과 미-일 관계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해방 후에는 제약회사 중 최대 규모의 회사가 되었다.

1950년대 부천의 소사공장에서 생산된 의약품은 네오톤·코푸시럽·안티푸라민·유톤·이드렌·안도린·트라카볼·비타나인·유한펙사비타민 등, 수많은 제품들이 생산 판매되었고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공장건물을 복구한 후에도 발전을 거듭하였다. 특히, 1955년부터 소사공장의 복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1958년 소사공장 부지에 초자(硝子) 공장의 건립, 최신식 설비를 갖춘 200평의 ‘실험연구실(한국 제약업계 최초의 연구실)’ 까지 갖추게 되었다. 이때 유한양행의 직원들에 대한 복지와 후생을 위한 노력은 매우 특별하다. 이 중 1958년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 국내 최초로 실시된 우리사주제와 사원주택, 식당, 장학금, 경조금 지급 등은 한국 최초의 복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유한양행이 1962년 본사를 서울의 대방동으로 옮기고, 1969년에는 소사공장에서 서울 대방동으로 공장까지 이전한 가장 큰 원인은 공업용수 부족 때문인 듯하다. 유한양행이 공업용수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1969년 본사를 소사공장에서 서울 대방동으로 이전하게 되었다는 증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외에도 경영의 다각화, 생산설비의 대량화를 위해 부천 소사공장은 펄백재단에 매도되고, 서울의 대방동으로 모두 옮겨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부천의 소사공장 터는 펄백 여사가 지은 소사회망원에 인계되었고, 이는 유일한 박사와 펄백 여사의 정신유산으로 남게 되었다. 비록 소사회망원은 1973년에 문을 닫고 부지에 남아있던 소사공장 건물은 문화재에서 해제되면서 사라졌지만, 그 정신만큼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부천시에는 유일한 박사와 유한대학교, 펄백 재단에 대한 시설과 기념물만 조성되어 있어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향후에는 부천에 있었던 민족 제일의 제약공장인 유한양행 소사공장에 관한 이야기가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IV. 한국 기계산업의 근간 삼양중기(삼양홀딩스)

요약문(SUMMARY)

1. 이천중기에서 삼양중기로

- 제일교포이자 프레스 기술자로 일본 이천공업(주)의 설립자인 서상록 회장이 1970년 경기도 부천에 이천물산(주) 소사공장 설립.
- 1973년 중화학공업 육성 시책에 발맞춰 종합기계 제작업체인 (주)이천중기 설립 후 서상록 회장 대표이사 취임.
- 1977년 소비재 주력 회사인 삼양에서 인수, 1979년 삼양중기 전환.

2. 중화학공업의 선두 주자 삼양중기의 전성기

- 13,000평 부지 위에 기계·주조·제관 등 3개 공장, 실험실 설립.
- 1983년 기준 기계·주물 24%, 프레스 24%, 제지 및 산업기계 36%.
- 이천중기의 기술력과 삼양사의 자본, 부천의 공업화 → 흑자전환.
※ 부천시를 대표하는 부천 유일의 기계제조 기업으로 정착.
- 1980년대 설비 증설 및 현대화로 100만 불, 500만 불 수출탑 수상.
- 국내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기계설비 수요 증가 → 전성기 맞이.
- 신제품 개발과 제지기계의 국산화 성공.
 - 선박 실린더 프레임 및 대형 톨, 공작기계 생산. 삼양사 공장설비.
 - 신문인쇄용 윤전기 국산화 성공 후 제지기계 드라이어 국산화 성공.
 - 일명 ‘양키-드라이어’ 국산화 성공 후 전 세계 시장에 수출.
- ➡ 국내 제지기업에 제지기계 납품. 삼양중기의 전성기 이끌어.

3. 1990년대 중공업의 쇠퇴와 경영구조 개편, 소사장제로의 전환

- 영업이익 200억 원대 진입, 기계설비 수요 감소로 내실 경영 본격화.
 - 1995년 400억 원대 매출, 1997년 IMF 이후 수익·경영구조 붕괴.
- 2000년 이후 기계산업 부문 구조조정·경영합리화 ‘MTP’ 구조.
 - 2001년 10월 가공·조립·제작·보전 등 4개 회사로 소사장제 출범.
 - 주물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LS전선·두산중공업 합자 CASCO 설립.
- 2009년 3월 환경시설 제작업체인 삼양엔텍으로 전환.
※ 순수설비와 폐수 설비 분야 사업화. 엔지니어링 기반 제지기계 주력.

4.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한국 중공업의 선두 주자 삼양중기

- 2014년 삼양사의 삼양홀딩스 합병, 삼양홀딩스 부천사업소 존치.
 - ※중공업·제지기계 수요 쇠퇴, 부천의 도시화로 주민들 공장 이전 요구.
 - 2018년 8월 28일 ‘삼양홀딩스 공장용지 이전’ 계획 수립, 이전 협의.
 - ➡부천의 중공업-한국 중화학공업 선두 주자 삼양중기의 쓸쓸한 퇴장.
- 흥물인가? 근대문화 유산인가? 삼양중기 공장에 대한 고민.
 - 근대 산업도시 부천의 기억을 공유하는 아카이브·전시관 활용 필요.

한국 기계산업의 근간 삼양중기(삼양홀딩스)

신재훈(부천문화원 역사기획팀장)

목 차

1. 이천중기 설립 과정과 부천의 대표 중공업 공장의 탄생
2. 1973년 부천시의 승격과 삼양중기 입지 조건의 변화
3. 삼양중기의 탄생과 성장, 부천을 대표하는 기계공장으로 거듭나다.
4. 중공업의 쇠퇴와 IMF, 소사장제와 삼양엔텍으로의 전환
5. 부천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삼양중기, 역사 보전과 개발의 사이에서
6. 결론

1. 이천중기 설립 과정과 부천의 대표 중공업 공장의 탄생

부천(富川)은 1914년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식민지 통치를 위한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 탄생한 근대 도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천’이란 이름만 일제강점기에 탄생했을 뿐 실제 ‘부천’의 역사는 고대로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인천과 서울 사이에 위치하면서도 인천과 서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부천’만의 특성을 지닌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천은 서울과 한강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굴포천을 경계로 하여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인천과 문학산, 계양산 등을 공유하면서도 성주산과 소래산 등을 중심으로 나름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천은 서울과 인천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부천 특유의 역사적 특성은 물론이고 사회적, 경제적, 인문지리적 특성을 지닌 지역으로 성장해 왔음은 여러 가지 사실을 통

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인천과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일제강점기의 통치 방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천군’의 광역과 특성을 잃지 않고 교통의 요지이자 물류의 요충지 역할을 하면서 근대 산업의 요람 역할을 해 온 것 또한 그 근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부천에는 일제강점기를 전후한 시기에 이른바 강소(強小, 내실이 강하지만 규모는 작은 기업) 기업이 자리잡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 그 중 해방 이후에 두각을 드러낸 기업은 유한양행·경기화학·한국화장품·한일전기 등 여러 기업이 있겠지만 중공업 분야를 선도한 ‘삼양중기’가 기계제조 분야에서는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삼양중기는 처음 설립될 때에는 ‘이천물산’으로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이천중기’로 사명을 바꾼 후 삼양사에 의해 흡수 합병되면서 ‘삼양중기’가 되었다. 이후에도 삼양중기는 변화를 거듭하여 중공업이 쇠퇴한 이후부터 환경시설 관련 기계를 제작하는 ‘삼양엔텍’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이후 삼양사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의 부천사업소로 그 위상이 완전히 축소된 뒤 최근에는 영업을 중단하고 이전하기에 이르렀다.



삼양중기 인수 당시 이천중기 공장 전경(사진 : 삼양사 제공)

그런데 이 회사의 모체인 이천물산이나 이천중기는 금세 잊혀지고 가장 왕성한 생산활동을 보인 삼양중기라는 이름으로 대체로 기억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 중 가장 중요한 이름은 삼양중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삼양중기’를 대표 이름으로 해서 이 글을 작성하고자 한다.

먼저, 잊혀진 이름이지만 삼양중기의 전신은 재일교포(在日僑胞)로서 입지전적인 일생을 살아 간 서상록 회장이 최초 설립한 이천물산, 이후 이천중기였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설립자인 금하(錦下) 서상록(徐相錄) 회장은 매우 흥미로운 일생을 살아 간 인물이다. 그는 1910년 전남 나주의 봉황면 철천리에서 태어나 청소년기인 17세에 단돈 2원 50전을 들고 일본 오사카로 넘어가 일본에서도 알아주는 기업을 창업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서상록 회장이 일본에서 성공을 거둔 후 해방 후에 조국으로 돌아와 세운 회사가 바로 이천물산, 이천중기였다. 그는 자신의 집안인 이천 서씨(徐氏)에서 이름을 따 일본

오사카에서 최초로 ‘이천공업(주)’을 설립하였기 때문에 조국에도 이천물산과 이천중기를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실제 대기업인 ‘이천그룹’의 총수가 된 인물로 일본에서도 전설적인 인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서상록 회장은 무일푼으로 일본에 넘어간 후 양말공장·봉제공장·프레스공장 등에서 기술자로 일하면서 직접 공장을 세우고 운영, 발전시킨 인물로 해방 후에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조국에 철강과 주조·방직·제조업을 이식한 인물이었다. 여기에 일본에 자신의 모기업을 두고 인천 지역에 ‘이천전기’를 설립한 후 부천에 ‘이천물산’과 ‘이천중기’를 세운 후, 이천제강과 알프스스틸회사 등을 세워 전쟁으로 산업시설이 사라진 조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때 부천에 세워진 이천물산과 이천중기가 바로 삼양중기의 전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보아 **1969년 부천지역에 처음 이천물산이 설립**된 것은 일본을 근거지로 하는 서상록 회장이 일본 모기업과의 물자 교역과 교류를 위해 인천에 처음 자리를 잡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서상록 회장은 1949년 1월 금의환향한 후 12월에는 인천시 동구 화수동 5-5번지의 도시바공장을 인수하여 ‘이천전기옥업(주식회사)’를 처음 설립하였다. 이후 일본의 이천공업(주)을 모체로 하여 1950년대부터 여러 자회사를 거느리게 되었고, 1963년에는 이천산업을 설립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천지역에 이천물산이 설립된 것이다.

이후 **1973년 이천물산은 기계 주물과 제지기계, 롤러 생산 등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이천중기(주)로** 탈바꿈하고 서상록 회장이 사장에 취임하게 된다. 이는 서상록 회장이 일본에 설립한 이천제강과 협력하여 주물과 기계를 생산하는 베이스캠프로 삼고자 이천중기를 설립한 것이 그 이유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 이천중기에서 생산한 기계와 롤러, 주물 등은 일본으로 수출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정부의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수립되면서 중화학공업의 기계 제작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 시대적 흐름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특히, 부천은 1973년 7월 1일부터 부천시로 승격되는데, 이 또한 이천중기(주)의 업종 전환, 시설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이천중기는 대지 3백평, 5톤 짜리 주조 5대를 기반으로 하는 공장을 세워 점차 그 능력을 키워 나갔다.

2. 1973년 부천시의 승격과 삼양중기 입지 조건의 변화

부천지역은 지리적으로 경인(京仁) 지역의 중간에 위치하면서도 오랜 역사적 배경을 지닌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국 근대공업의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특히, 일제강점기부터 발전한 면직(綿織)·생사(生絲) 등을 이용한 방직공업(紡織工業)과 ‘목재(木材)’를 활용하는 목재공업이 발달하였고, 일제의 수탈이 가속화되는 1930년대에는 인근에 위치한 인천항으로 군수품이 빠져나가는 첩경(捷徑) 역할을 하면서 소비재(消費財) 공업이 육성되는 등 공업적 토대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해방 전까지 부천의 주요 산업은 농업과 상업이었고, 서해(西海)를 배경으로 하는 염전업(鹽田業) 등 1차 산업이 주를 이루다가 점차 운수업(運輸業)과 소비재 공업이 움트기 시작한 정도였다.

그러다가 1950년대 말에는 부천지역에 섬유공장(4곳), 금속공장(4곳), 기계공장(2곳), 요업공장(2곳), 식료품공장(2곳), 화학공장(1곳) 등 16개의 공장에 1,550명 정도의 종업원이 종사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때 주목할 것은 면방직공업 중심의 경공업(輕工業)이 발전하던 시기에 부천지역에는 이미 금속공장과 기계공장이 6곳이나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공업 발전은 주지하듯이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화학공업 등이 발전하고 1970년대에 중공업이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미 부천에는 50년대부터 기계공업, 화학공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 인해 경인(京仁)공업지대의 육성이 계획되었고, 국도변에 크고 작은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후 경인고속도로 개통 후에 공장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밀집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부천의 공업화는 부천군이 1973년 7월 1일 부천시로 승격되면서 보다 활기를 띠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부천군의 시 승격은 중앙정부의 서울로 몰리는 인구와 공업의 과밀을 억제하고 주변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자 전국적으로 단행된 행정구역의 개편이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때 4가지 원칙이 있는데 먼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조정과 주변 위성도시의 승격 확장. 둘째 농촌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자율적 성장 촉진. 셋째, 변화된 주변환경과 도로 및 시설 변화로 인한 경계선의 재조정. 넷째,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 향상을 위해 부천지역도 소사읍에서 부천시로 승격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부천지역의 공업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역시 부천시로의 승격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실제 부천군 소사읍의 경우 1960년에는 인구 5만이 채 되지 못하였으나 시 승격 이전의 준비 단계인 1971년에 인구가 6만으로 급증하여 시 승격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한다. 더불어 인구가 늘어나고 서울과 인천을 배후(背後)로 한 주거지로서의 역할과 공업적 기능을 담당할 도시로 인식되면서 부천의 공업화 역시 가속화될 수 있었다.

시 승격 당시 130여개소의 크고 작은 공장이 입지하고 있던 부천 지역에는 생활필수품의 생산은 물론 기계·금속·화학 등의 중화학공업도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삼양중기의 전신인 이천중기가 부천에 자리잡기까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맞물려 부천은 여러 모로 기계제조업체가 자리잡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외부적 요인으로 먼저 교통이 편리하고, 도시가 성장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 중 하나는 당시 경인가도와 국도가 확장 추세에 있었고, 경인고속도로가 입지하게 될 것이라는 교통여건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다는 점이 그것이다. 여기에 부천시로 승격하면서 전철 등의 대중교통이 갖춰지고 주거 여건이 향상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력 제공 여건도 향상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여러 모로 부천은 좋은 조건을 갖춘 공업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도시였다.

특히 1973년 당시에 부천에 입지한 공장을 살펴 보면 가장 많은 업체와 종업원 수를 자랑하고 있는 곳이 바로 기계제조업이었다. 총 146개의 기업 중 가장 많은 기업은 화학제조업으로 32곳이었지만 가장 많은 종업원이 종사하는 업체는 기계제조업으로 총 1,693명이 28개의 업체에서 종사하고 있을 정도였다. 여기에 금속재료 제조업,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기구 및 장치품 제조업 등의 공장이 50여개가 넘게 자리하고 있어 기계제작이나 철강, 주물 등의 중장비 기업 발전에 있어 기반사업이 튼튼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일교포 출신의 유력한 기업총수인 서상록 회장은 부천의 내외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천중기를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1970년대 이후 부천의 인구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20%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고, 서울의 공업단지 분산정책으로 인해 부천에도 화학·석탄·석유·플라스틱 제조업 등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부천은 종이와 관련된 지류(紙類)·지제품(紙製品) 및 인쇄출판업의 중요한 집적지(集積地)로 변해갔고, 비금속광물(非金屬礦物)·조립(組立) 금속(金屬)·기계 및 장비(裝備) 제조업에 있어 두각을 나타내는 공업도시로 변해갔다.



이천중기의 주물사업부 용광로(사진 : 삼양사 제공)

여기에서 이천중기의 역할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천중기는 주로 기계 및 장비제조업과 관련된 기계 및 장비, 주물, 프레스 등을 생산하고, 제지기계 등을 생산하는 기계업을 주력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천중기는 1973년 무렵에 국내 주물시장의 60%를 장악하기에 이르렀고, 일본의 이천공업(주)

과의 기술제휴로 점차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1973년 이천중기는 이천물산의 자본 출자로 계열사가 분리되면서 독자적인 기업이 되었고, 이천제강의 철제 설비와 재료 지원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듯 보였다. 특히, 서상록 회장이 대표이사가 되면서 일본 기업과의 제휴, 판로 개척이 용이해졌고, 국내에서 보기 드문 프레스·중전기·제지기계를 생산하면서 독보적인 기계제조업체가 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이천중기는 이천그룹의 경영난으로 인해 점차 재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때마침 불어닥친 중동전쟁으로 인한 오일쇼크로 인해 재정경영난에 봉착하고 말았다. 이때 이천중기의 기술력과 독보적인 기반시설을 보고 투자에 뛰어난 기업은 대표적인 소비재 기업으로 1974년에 창업한 삼양사였다.

3. 삼양중기의 탄생과 성장, 부천을 대표하는 기계공장으로 거듭나다.

삼양사는 1970년대에 전개된 중앙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계획에 발맞추기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종합기계 메이커로 성장한 이천중기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시작하였다. 1975년 5천만원 출자에 이어 이듬해 4월에는 본격적인 투자에 뛰어들어 주식의 43.5%를 매입하고, 이천중기의 경영에 참여하였다. 이 무렵 이천중기는 기업공개를 단행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나 뜻밖에도 재정경영의 어려움에 봉착하여 점차 대주주인 삼양사의 지원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1977년 8월 1일자로 삼양사는 지분을 56.7%로 끌어올리고, 이천중기의 경영권을 인수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서상록 대표이사는 사임하였고, 이제 이천중기는 막을 내리고, 삼양중기의 시대가 개막하기에 이르렀다.



1980년대 삼양중기 부천공장 전경 (사진 삼양사 제공)

한편, 삼양사는 처음으로 중화학공업에 발을 내딛는 기업으로서 수익을 크게 내지는 못하더라도 관련 산업으로의 진출, 삼양그룹의 공장 설비 등과 연계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인수를 결정하였다. 그래서 인지 삼양사는 이천중기를 인수한 후 오히려 사세를 확장하고 수출에 주력하면서 정

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책에 발맞춰가는 경영전략을 내세웠다. 그 결과 금형 공작기계·파워크레스의 제조업체로 지정받고 파워프레스를 중동시장에 판매하는 등 수출 다변화를 꾀하기도 하였다. 특히, 제지기계인 드라이어를 개발하여 엄격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성능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삼양사는 특히 공장설비의 현대화와 기계화에 주력하여 낙후된 주물사 처리공정을 기계화하고 조형 및 후처리 설비도 현대화하는 등 생산 여건을 개선하여 매출액을 크게 신장시키기도 하였다. 여기에 수출지역의 다변화를 이루어 주물제품을 일본에, 파워프레스는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동 등으로 수출하는 한편, 제지기계는 콜롬비아로 수출해 판로의 다변화에도 성공하였다. 이후 1979년 2월 드디

어 삼양사는 이천중기를 삼양중기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삼양 계열사에 편입되었다. 그 결과 삼양중기는 모기업인 삼양사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중동전쟁으로 인해 일어난 에너지 파동을 견뎌내고 성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삼양중기는 1만3천평 부지 위에 기계·구조·제관 부문 등 3개 공장을 설립하고 실험실을 구비하여 새로운 기계제작업체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연간 1만5천톤 규모의 주물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기계류를 7천톤, 철구조물을 2500톤 생산할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춘 공장으로서 대우중공업 등에

1980년대의 삼양중기(우측), 신한주철(좌측) 사진 : 부천문화원 제공 출하하는 중견 기계제조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로써 삼양중기는 1983년에는 기계주물 24%, 파워프레스 24%, 제지기계 21%, 산업기계 15%, 롤 15%의 판매구성비를 보이면서 균형잡힌 기계제조업체로 자리매김하였고 흑자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1984년 삼양중기는 삼양사의 인수 5년차를 맞이하여 비로소 2억 3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면서 흑자시대를 처음 맞이했다. 이후 삼양중기는 1990년에 이르면 순이익 9억원으로 흑자를 증가시키고, 수출에서도 호조를 보이면서 착실하게 내실을 닦아가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결과 1987년 삼양중기는 24회 무역의 날에 “100만달러 수출탑”을 수상한 데 이어 1991년에는 “500만달러 수출탑”을 수상할 정도로 수출을 기반으로 점차 안정감을 찾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성장하는 와중에도 삼양중기는 설비 증설과 시설 확충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국내산업 설비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해외수출 판로가 확대됨에 따라 노후시설의 개체 및 증설,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고 경영진이 판단한 결과였다.

년 월 일	내 용
1970. 10. 02	주물공장 준공
1976. 06. 30	기계공장 준공
1996. 11. 01	프레스 조립장 증축

그래서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 초 사이에 용해 설비와 사처리 설비 등을 교체하여 작업 시 발생하는 분진과 매연, 소음 등을 최소화하고 생산되는 주철이 고급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목형창고를 3층 규모로 증축하여 귀중한 목형을 보다 효율적으

로 보관하고 관리하였다. 이로써 주조공장에서 수주한 기종에 대한 정밀설계 목형을 잘 관리하게 되어 보다 효과적인 주물 생산을 도모하였다.

이처럼 1980년대 삼양중기의 성장과 설비의 현대화는 부천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돋보이는 기계제조업체로서의 성장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삼양사 80년사』에서도 “삼양중기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설비의 증설 및 현대화, 기술·신제품 개발이었다. 이로 인한 품질 및 생산성이 높아지고 기술개발이 활발해져 삼양중기의 기계제품 품질과 성능에 대한 국제시장의 좋은 평가에 힘입어 1980년대 후반부터는 수출도 호조를 보여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 많은 기계 및 부품 수출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정도이다.

이 중에서도 삼양중기가 역점을 둔 것은 신제품 개발과 제지기계의 국산화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면 삼양중기는 대형선박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실린더 프레임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한 후 한국중공업에 이를 납품하였고, 대형 롤(Roll)과 공작 기계 주물품을 국내 굴지의 기업인 대우중공업과 포항제철에 생산, 납품할 정도로 그 품질이 뛰어났다. 더욱이 이와 같은 기계제조는 같은 삼양사의 제당공장, 섬유공장, 사료공장 등의 설비교체와 시설공사 자체 수급에도 활용되면서 삼양중기는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아울러 삼양중기는 미래 먹거리가 될 만한 제지기계의 국산화에도 성공하여 다른 기계제조업체와 차별성을 보였다. 전술하였듯이 부천에는 종이와 관련된 기반산업이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많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삼양중기는 이천중기 시절부터 제지기계 제작에 공을 들이면서 준비를 해 나갔다. 여기에 1980년대 후반에는 신문 인쇄용 오프셋 운전기를 개발하여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1986년 한국일보와 처음 오프셋 운전기를 개발한 삼양중기는 이듬해 10월에 개발을 성공하였고, 16대를 추가 납품하였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1991년에는 시간당 12만부를 생산해 낼 수 있는 B-B타입을 최초로 개발하는가 하면 오프셋 운전기 51대를 국내 7대 일간지에 납품하기도 하였다.

한편, 삼양중기는 까다롭기로 이름난 제지기계의 국산화에도 국내 최초로 성공하는 개가를 올렸다. 이천중기 때부터 제지기계 국산화에 주력한 결과 이른바 ‘양키-드라이어’라고 하는 초지(抄紙) 플랜트를 국산화하는데 최초로 성공한 것이다. 양키-드라이어는 직경 2m 이상의 큰 직경의 원통을 가진 건조기를 뜻한다. 건조기는 큰 원통의 형태로 원통에 증기를 넣어 젖은 종이를 건조하는 것이 양키-드라이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치는 종이, 특히 종이를 공예 및 육실용 얇은 티슈 페이퍼(화장지)로 건조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이때 제지기계에서 양키-드라이어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삼양중기가 바로 제지기계의 핵심기술인 국내산 초지 드라이어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하고 중남미에 수출하는데까지 성공한 것이다. 삼양중기는 1988년에는 이 기계를 대만으로 수출하는데도 성공하였다. 이후 1989년 제지 드라이어 자격인정표시인 ‘U’Stamp(미국기계기술자협회)를 획득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가 하면, 제지기계의

원조격인 미국에도 제지 드라이어를 수출하는데 성공하는 등 기업을 토하였다.



삼양중기의 제지 드라이어 제작 장면 (사진 : 삼양사 제공)

특히, 삼양중기의 제지 드라이어는 점차 수요가 장폭·고속화됨에 따라 1991년 자체기술로 장폭 고속화에 성공하여 드라이어세트를 개발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제지드라이어 제작업체가 되었다. 이와 같은 기술력을 토대로 국내의 전주제지(한솔) 및 유한킴벌리·대한펄프 등 유수의 기업에 제지드라이어 기계를 납

품할 수 있었다. 이로써 국내 유일의 제지기계 생산설비 제작 및 공급업체로 부상한 삼양중기는 총 5,000억원의 제지기계 시장의 70% 이상을 일본 등에게 독식당하던 의존적인 산업생태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1992년 국내 최초로 세계적 제지기계 메이커인 미국 BCK사와 초지설비 원천기술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제지기계 제작에 필요한 설계, 조립, 설치, 운전 등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국내 제지기계 공급의 1인자로 우뚝서게 되었다.

이로써 삼양중기는 선진국에 의존하기만 하던 제지기계의 핵심기술인 제지 드라이어의 기술을 국산화하고 최고의 품질로 만드는 데 1등공신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국내 최고의 제지기계 생산설비 제작 및 공급업체가 되어 제지기계의 수입대체자 역할을 하여 국내 제지기계 제작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였다. 그래서 삼양중기는 1980년대 주물과 프레스, 기계제작으로 성장한 데 이어 1990년대에는 제지기계의 최고 공급업체로 성장하여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삼양중기의 영업성과는 1997년 조일제지, 1999년 삼화제지 1·2호기, 한솔제지 베트남 프로젝트, 2001년 한국제지 3호기 증설 등에 이르는 수주를 완료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국내외 제지업계에 고품질의 양키드라이어(Y/Dryer)를 제작 공급한 바 있으며, 1999년에는 일본 Sanei사의 주문을 받아 국내 최초로 화장지건조설비인 14자 크기의 양키드라이어를 제작하고 2000년에는 열전도 효율을 향상시킨 Ribbed Y/Dryer를 개발 완료함으로써 제지 드라이어의 최강자로 군림하였다.

4. 중공업의 쇠퇴와 IMF, 소사장제와 삼양엔텍으로의 전환

그러나 삼양중기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지나면서 국내 산업의 생태계가 크게 변화하였다. 특히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던 분위기에서 중화학공업이 내뿜는 환경오염과 공해, 폐수 등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중화학공업으로 얻는 경제적 이득도 점차 감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삼양중기는 서울에 인접한 부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에 대표적인 거주지 역할을 하는 도시에서 더 이상 환대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더해졌다. 그 결과 삼양중기의 전성기는 어느 덧 저물고 점차 중공업의 쇠퇴와 맞물리면서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년 월 일	내 용
1969.04.10	외국인 투자인가를 득하여 이천물산(주) 설립
1970.10.02	이천물산(주) 소사공장 준공
1972.12.10	주조공장 증설 확장
1973.05.01	이천중기(주) 설립(이천물산에서 분리 독립)
1973.12.27	외국인투자업체 등록
1975.10.10	산업기계 및 기계부품 철구조물 제조 목적사업 추가
1975.11.21	중전기계 제조 목적사업 추가
1976.06.26	기압공개 주식상장
1976.06.30	기계공장 준공
1979.02.27	삼양중기(주)로 상호 변경

사실상 삼양중기의 전성기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60년대부터 시작된 중공업 육성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산업 생태계에는 크고 작은 공장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들어서게 되었고, 20여년이 훌쩍 지난 90년대에 이르면 더 이상의 공장 설비와 기계설비는 수요가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삼양사의 공장 설비로 어느 정도의 경영합리화에 성공하는 기간도 있었지만 그 기간이 오래 갈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삼양중기는 1990년대부터 성장 드라이브를 전개함으로써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고 수출의 비중을 늘려 나가는 한편, 내실경영을 본격화하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였다.

사실상 삼양중기는 1980년대의 호황과 1990년대의 제지기계 기술로 인해 흑자 경영을 누릴 수 있었고, 모기업인 삼양그룹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생각보다 오랫동안 호황기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대기업인 삼양그룹의 지원 없이는 더 이상 흑자 기

업으로 경영을 지탱해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경영진은 이른바 성장 드라이브를 걸어 1990년대 말까지 매출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산업기계, 제지기계, 기계주물, 파워프레스 순으로 매출 이익을 올리고 수출비중을 18%로 올려 모기업 지원도를 낮추고 새로운 판로를 뚫는 결과도 만들어냈다. 그런데 1997년 찾아 온 IMF와 한국의 중공업 쇠퇴, 저성장 등의 외부요인으로 인해 삼양중기의 성장 드라이브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다.

1994년부터 삼양중기는 이정희 사장이 취임한 후 외연 확장보다는 내실 경영을 위주로 하는 소극적인 경영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른바 삼양그룹의 관리혁신계획은 ‘NEW-3’ 운동이라고 하는데 1990년대 전반기부터 시작되었다. 이때 경영을 일러서 수익성 위주로의 경영 개선이라고 하는데 이를 본격화 한 것은 1994년 이정희 사장의 취임 이후부터였다. 이정희 사장은 삼양그룹 창립 70주년을 맞아 회사 조직을 사업부체제로 재편하여 경영을 효율화하고 내부의 역량을 집중하는 경영 전략을 전개하였다. 한편, 제지기계 플랜트 수주에 집중하고 각종 공사를 진행함과 아울러 Steve Cooler 등 각종 신제품 개발을 상품화하여 새로운 사업 진출도 모색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동차 부품사업도 추진하여 중공업 위주의 기계제조 사업에서 탈피하여 산업변화에 발맞춰 삼양중기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93년에는 200억 돌파, 1994년에는 270억(30% 증가) 돌파, 1995년에는 425억원을 기록하여 최대 호황기를 맞이하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호황의 이면에는 위기에 취약한 기업 내 그림자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환란인 IMF 사태가 발생하면서 삼양중기의 리스크는 외부요인과 결합하면서 폭발하고 말았다. 실제 IMF 이전인 1996년에도 매출이 줄어들어 401억원을 기록하였다가 1997년까지는 400억원대를 겨우 유지하는 매출 상황을 보였다. 그러던 중 미증유의 IMF 환란사태가 일어나자 1998년에는 곧바로 매출이 222억원으로 급락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의 45%가 급락하는 상황이었고, 이는 삼양중기가 지니고 있는 수익구조의 급속한 붕괴로 이어져 경영구조의 허약성도 노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래서 2000년에 들어서면서 삼양중기의 누적적자의 규모는 70~8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는 조직 개편과 구조조정을 초래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로부터 2~3년 동안 삼양중기의 경영진은 경영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조직 개편과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 극복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로부터 대기업인 삼양사의 계열사로서 부천의 대표기업으로 인정받던 삼양중기의 위상은 흔들리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제 70년대부터 삼양중기를 다니고 정년퇴직을 한 신길룡 선생의 증언 등에 따르면 “(이천중기에서 삼양중기로 전환되면서)대우 좋았죠. 지금 내가 뭐 이런 얘기(하자면) 나는 우리 어디 가서 삼양이라고는 욕 안 한다고 내가 맨날 그래. 나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 또 직원들이 퇴사하는 사람들 좀 홀대받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회사가 월급 제때 주지.” 라고 하여 삼양중기의 직원으로서 갖는 자부심이 남달랐음을 회상하

고 있다.

또 유갑중 씨의 증언에 의하면 “(삼양중기는)40년 동안 한번도 (월급을)안 밀렸습니다. 전산 처리로 금요일날 줘야 되는데 못 줘서 하루 늦은 적이 있어. 정산이 잘못돼서 한 번 딱 넣어줬어요. 그리고 맨날 일요일날 그러면 금요일날 주고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고 하였다. 이처럼 삼양중기는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장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갖는 자부심과 지역에서의 위상도 어느 기업보다 높았다고 여겨진다.



이천중기, 삼양중기 근로자 인터뷰(사진 : 연구진 촬영)

그런데 2000년대부터 그 위상이 흔들리고 점차 노사문제도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직원들의 불만도 어느 정도 생겨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00년 8월 송창기 사장이 부임한 후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노사간의 갈등도 깊어지고 사업구조의 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전면 파업과 직장 폐쇄 등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특히 경영진은 삼양중기의 조직 개편과 구조조정을 위해 기계사업 부문의 사업구조 조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생겨나는 노사관계의 갈등을 적당히 봉합하는 것이 주요 현안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경영진은 조직을 팀제로 개편하고 책임경영 체제로 전환하여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계사업 구조의 재편과 안정을 추구하는 구조조정 계획이 확정되자 직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1년 7월 23일 노조는 전면 파업을 단행하였고, 회사측은 직장 폐쇄를 시행하면서 갈등이 정면충돌하였다. 이후 9월까지 두 차례의 파업과 한 차례의 직장폐쇄가 이어졌으나 가까스로 타협에 이르게 되었다. 그 결과 노사가 도출한 결론은 기계부문은 2001년 10월 11일부터 가공·조립·제작·보전 등 4개 회사로 분사화, 즉 소사장제로 출범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분사화(分社化)를 일러 일반 직원들은 소사장제라고 하는데 신길룡 선생과 유갑중 선생 등의 증언에 의하면 이것은 삼양중기의 기존 설비를 활용해 직원들이 작은 공장을 차려서 물건을 납품하는 형식이라고 하였다. 즉, 삼양중기와 같은 거대한 기계설비를 가진 업체에서 기계를 임대해 주고, 영업을 대신 해주는 대신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사장이 되어 물건을 납품하여 이윤을 얻는 사업체를 꾸린다는 것이다. 이는 삼양중기와 같은 거대 기계제조업체가 할 수 있는 일종의 경영합리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두고 경영진은 경영합리화, 즉 ‘MTP’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

책에 노사가 타협한 후 기계부문의 직원 40여명은 각각의 분사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기계부문의 소사장제 전환은 4개 회사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이때 직원 40여명은 4개의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는데, 가공 분야는 광명기계, 조립 분야는 제일엔지니어링, 제작분야는 동양플랜트, 보전분야는 흥덕테크가 첫 분사 회사였다. 그런데 이 소사장제로의 전환은 삼양중기의 적자 누적과 영업 부진을 극복하고 경영합리화를 실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소사장제의 기계부문 전환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현장의 작업효율성이 증대되고 생산성이 30~40% 이상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그 결과 삼양중기의 기계부문 상품은 가격 경쟁력이 다시 살아나고 분사 1년여 만에 기계공장이 정상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삼양중기는 중공업의 쇠퇴와 기계제작의 수요 감소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의 변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관리 및 경영비용을 최소화하는 아웃소싱을 추구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소사장제, 즉 분사화를 통한 삼양중기 회생을 위해 2002년 10월 다시 2차 MTP를 시행하였다. 이때 2차 MTP의 대상은 가공부문의 핵심장비인 보링기계 사업이었다. 즉, 삼양중기는 기계분야 뿐만 아니라 가공부문에다 아웃소싱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경영개선 혹은 경영합리화가 삼양중기의 살 길이라고 본 것이다.

이렇게 삼양중기는 노사간의 상생을 목표로 하여 나름대로 협의점을 찾아 회사도 살고 직원의 희생도 최소화하는 현명한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삼양중기의 노사 협력으로 경영개선계획(MTP)이 시행된 결과 190억원까지 떨어진 매출이 280억원까지 회복되기도 하였다.

한편, 삼양중기 경영진은 쇠퇴해 버린 중공업 분야의 일부 사업은 아예 외부 회사와의 합자를 통해 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삼양중기의 주력사업이었던 주물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LS전선과 두산중공업과 합자한 회사인 CASCO가 정읍에 설립된 것이었다. 그러나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이뤄낸 소사장제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삼양중기의 주력사업인 기계제조와 제지기계 등의 사업은 더 이상 활기를 되찾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신길룡 선생과 유갑중 선생 등은 2000년대 후반까지 간간히 중국이나 동구권의 일부 국가에 제지기계를 주조해 납품하긴 했으나 점차 수요가 줄어들어 더 이상 기계설비가 영업이익을 내지 못했다고 회상하였다. 즉, 아무리 좋은 제지기계나 제지 드라이어 제작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도 국내에서의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기술력 추격과 염가공급 등으로 인해 활력을 찾기 힘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신길용씨의 증언에 의하면 “2005년도인가 2006년도부터 그냥 그 공장을 다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해서 임대 업체가 23개가 됐어요.” 라고 하여 사실상 삼양중기의 주력사업은 거의 멈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삼양중기는 2000년대 중반부터 아

에 업종을 전환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2009년에는 삼양엔텍으로 사명을 바꾸고 환경시설 제작업체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 대해 알아보면 2007년 삼양사로부터 환경부문 사업을 양도받은 삼양중기는 순수설비와 폐수설비 분야를 사업화하였다. 이후 2009년 3월에는 중화학공업의 쇠퇴로 인해 더 이상 중공업 분야를 주력사업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영진이 삼양엔텍으로 사명을 변경했다고 한다. 그러나 삼양엔텍으로 업종을 전환한 후에도 삼양중기의 기술력과 설비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한 제지기계 제작 등은 유지하였다. 삼양중기의 기업 핵심역량은 포기할 수 없는 자산이었기 때문이다.

5. 부천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삼양중기, 역사 보전과 개발의 사이에서

이처럼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전성기를 누린 삼양중기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공업이 쇠퇴하고 IMF사태 등이 겹쳐 쇠락기에 접어들고 말았다. 그럼에도 삼양중기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이뤄내고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상생의 방법을 도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계제조업의宿命은 더 이상 버텨내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삼양중기는 업종전환을 도모하여 환경부문 사업을 양도받아 주력사업은 거의 남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 노력이 무색하게도 삼양엔텍으로의 전환 역시 오래되지 않아 그 효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2014년 12월 삼양사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에 합병되는 운명**을 맞이하고 말았다. 이제 삼양중기는 역사 속으로 물러나고 한때 대한민국의 제지기업과 주물공장을 선도하던 삼양중기 부천공장은 삼양홀딩스의 부천사업소로 그 위상이 격하되고 말았다. 삼양홀딩스는 삼양사, 삼양패키징 등의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로 삼양사의 계열사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사업체이다. 주로 무역사업과 임대사업도 하고 있지만 실상 생산적인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삼양홀딩스 부천사업소는 사실상 아무 사업도 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 삼양홀딩스 부천사업소를 2023년 9월까지 지키고 정년퇴직을 하신 유갑중씨의 증언에 의하면 “저 있을 때는 완전히 다 건물이 다 철거되고 바닥까지 다 공사 끝나고 삼양중기 이전이 롯데로 넘어가면서 없어지면서 그만 둔거죠.” 라고 하여 사실상 삼양중기의 공장과 설비들은 2023년에는 완전히 멈춰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일까? 최근의 삼양중기나 삼양홀딩스에 대한 기사는 공장을 폐허 상태로 묘사하거나 “홍물스럽다” 고까지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옛 영광은 사라지고 홍물스럽게 남아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 대상으로 몰락한 모습으로 남아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한편, 부천에서 가장 큰 공장 중 하나로 손꼽히던 삼양중기를 그대로 사라지게 하기에는 아쉽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부천은 1973년 시승격 이후 인구가 급증하여 14만 이 약간 넘는 인구에서 80만에 육박하는 인구 과밀지역이 되었다. 하지만 부천의 시민들을 먹여살린 수많은 공장들은 높은 지가(地價)와 거주민들의 거센 민원으로 인해 이전하고 사라져서 이제 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고 말았다. 그래서 과거 산업도시이자 공업도시인 부천의 위상은 점차 사라지고 이른바 ‘베드타운’으로 그 위상이 하락하는 것 같다는 인식도 공존하게 되었다. 부천시민들의 부천에 대한 인식은 ‘삼양중기’와 같은 부천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기업이 문화유산으로 남게 된다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현재 사람도 없고 기계들도 모두 고철로 넘어간 삼양중기의 모습은 쓸쓸하고 황폐해져서 과거의 영광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를 두고 혹자는 홍물스럽다고도 하고 유령도시 같은 모습이라고도 하지만,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곳이 얼마나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곳이었는지 기억해 낼 것이다. 아직도 기계설계를 하던 사무동, 거꾸집을 만드는 목형공장, 거꾸집에 씻물을 부어 부품을 만들던 주물공장, 가공된 부품으로 기계를 조립하던 기계공장 등은 아직도 남아 있다.

과거에 삼양중기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아직도 이곳을 지나면서 덩그러니 건물과 부지만 남아있는 모습에 가슴이 아프다고 한다. 그렇기에 삼양중기의 남은 부지와 건물은 누군가에게는 흙물이고 거추장스러운 곳에 불과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청춘을 바친 직장이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보낸 고향 같은 곳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른 곳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이 남아있는 공간이자 앞으로도 ‘기억’해야 할 곳은 아닐까?

부천은 시 승격 이후 급증하는 인구와 빠른 도시개발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온 성장하는 도시이자 발전하는 도시였다. 그러나 저출산, 저성장으로 인해 인구가 급감하고 산업시설이 낙후되는 상황에서 부천시도 점차 늙어가는 도시로 변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특히, 부천은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공업지대이자 산업화의 역군 역할을 하던 공장지대에서 이제 서울의 배후 지역으로 거주지 역할을 하는 이른바 베드타운이 되고 말았다.

그런 점에서 떠나가는 공장과 기업, 철거되는 공장부지와 노후된 건물 등은 부천의 노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부천시민 입장에서든 서글픈 일은 아닐까? 비록, 거주지가 대부분인 부천에서 공해와 폐수를 양산하는 중공업 공장의 철거와 이전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삼양중기와 같은 부천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해 온 의미있는 기업의 이전과 철거는 생각해 볼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부천과 부천시민의 기억을 주제로 하는 공간이 작게나마 보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8년 이후 삼양중기의 공장은 멈췄고, 부지는 일부나마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부지를 개발하려면 약 2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삼양중기의 부지는 흙물스럽게 여겨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향후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삼양중기와 같은 중요한 산업유산은 이러한 비용문제와 부지 철거 등의 문제를 떠나 ‘아카이브’ (무형과 유형의 기록물 전체를 통칭) 측면에서 보전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 삼양중기의 일부 시설이 보전될 수 있다면 부천의 사라져가는 산업시설과 공업 기반에 대한 ‘라키비움’으로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키비움’은 도서관(Library)과 기록관(Archive center), 박물관(Museum)을 합친 신조어이다. 즉 도서관처럼 많은 책을 소장하고 읽을 수 있는 곳이면서 기록관처럼 기록물을 소장하고 기록물을 교육하고 만드는 공간, 박물관처럼 작품이나 기록유산을 전시하고 소장하는 기능을 합친 공간을 뜻한다. 이를테면 시민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도서를 찾을 수 있으면서 삼양중기의 목형이나 설계도 같은 기록유산이 소장되어 있어 전시도 하고 기록물도 교육, 제작하는 복합공간인 셈이다.

결론으로는 차가워 보이고 황폐한 공간일 수도 있는 삼양중기의 시설과 부지는 이러한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해 보인다. 왜냐하면 그 차가운 건물과 부지 안에는 부천시민들의 기억과 추억이 온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돈을 들여 부천시민의 기억이 서려 있는 공간을 철거하기보다는 그대로 살려 주민들의 편의공간이자 기록물을 남기고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혹은 남아있는 목형이나 설계도, 산업시설 등을 통해 아이들을 교육하고 체험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된다.

6. 결론

이처럼 삼양중기는 부천시 승격과 세월을 함께 해오며 성장하고 쇠락한 부천을 대표하는 기업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부천시가 승격될 때 부천의 산업화를 대표하는 기계제작산업과 제지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부천에는 1970년대 이전부터 금속기계업, 제지 관련 산업이 준비되어 있었고, 경인가도 주변에는 점차 많은 공장이 생겨나고 많은 노동력까지 더해지면서 부천의 산업화가 동반되면서 삼양중기의 전신인 이천중기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이천중기는 당시 한국에서 보기 드문 주조 기술력과 철강재료의 기반, 제일교포 서상록 회장의 자본이 결합된 탄탄한 기반을 갖춘 공장이었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중공업 육성 정책이 더해지면서 이천중기의 발전과 성장 가능성은 꽤나 커 보였다. 그런데 중동전쟁과 오일쇼크로 인해 이천중기가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때 탄탄한 자금력으로 무장한 삼양사가 이천중기를 인수하면서 삼양중기가 되고, 삼양중기는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때부터 삼양중기는 부천을 대표하는 기업이 되었고, 부천 제일의 기계공장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제지기계 제작업체로 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 전성기를 구가하던 삼양중기는 IMF를 계기로 하여 점차 생산력이 떨어지고 중공업이 쇠퇴하면서 기업의 가치도 하향세로 접어들게 되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삼양중기는 노사간에 타협안을 끌어내 소사장제 전환을 시도하고 모기업의 지원을 받아 주력사업도 바꾸고 삼양엔텍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끝내 중공업 분야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고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삼양중기의 기술력과 노하우, 전성기의 기억과 영광은 멈춰있는 삼양중기의 설비와 공장 부지에 그대로 살아남아 있다.

특히, 삼양중기는 국내유일 제지기계의 제작 능력을 지닌 기업이자 부천을 대표하는 기계제작 업체라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



부천 40년 기업 인증패 (사진 : 삼양사 제공)

에 부천 사람이라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부천의 토착기업이란 사실, 해외 유수의 기계제작 및 수출의 이력을 지닌 영향력 있는 기업이란 사실은 적어도 삼양중기에서 일한 직원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과거 소사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이자 공장으로 잊혀지지 않도록 부지와 시설을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v . 한국 반도체산업의 요람 삼성반도체(온세미컨덕터)

요약문(SUMMARY)

1. 한국반도체주식회사 부천에 설립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반도체 부품의 단순 조립 생산 단계에 있었다. 1974년 당시로서는 첨단 반도체라 평가받는 CMOS라는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한국반도체주식회사가 강기동 박사에 의해 부천에 설립되었다. 한국반도체(주)가 부천에 설립된 이유는 당시 한국 측 동업자인 켄코(KEMCO)의 김규한 사장이 미국에 있던 강기동 박사의 조건을 받아들여 서울에서 가까운 부천에 부지를 준비했으며, 강기동 박사가 현장(도당동)을 방문하여 확인 후 설립한 것이다. 그러나, 대외적인 문제 즉 1973년 발생한 오일쇼크로 인해 반도체 설비 가격이 인상되는 등, (주)한국반도체는 자금 문제로 부도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2. 삼성반도체 - 삼성전자

이때 삼성이 자금난에 빠진 한국반도체를 전격적으로 인수하게 되었고 비로소 (주)한국반도체는 삼성의 관리를 받으며 정상적인 반도체 생산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주)한국반도체는 한국반도체(1974~1978), 삼성반도체(1978~1980), 삼성전자(1980~1982), 한국전자통신(1982), 삼성반도체통신(1982~1988), 삼성전자(1988 이후)의 순으로 변천해 가면서, 한국의 반도체산업을 몇 단계나 높여왔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서 부천 반도체공장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사건은 바로 메모리칩의 개발이었다. 강기동이 정력적으로 생산하고자 하였던 보다 진보된 반도체 칩 생산과 개발은, 삼성반도체로 인수된 이후 1982년 부천 반도체공장에 부천 반도체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본격화되었다.

3. 64KD램 개발

삼성그룹의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반도체 생산 및 연구도 가속화되었다. 결국 1983년 삼성반도체 부천공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 국내 최초로 64KD램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어 1984년 부천 반도체공장에서는 반도체 생산의 중간 공정인 웨이퍼를 가공하였다. 비교적 최신식 5인치 웨이퍼를 생산하였는데, 5인치 웨이퍼는 64KD램을 장당 7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한국 최초로 본격적인 반도체를 생산하였던 부천 한국반도체는 삼성반도체로 또 한국전자통신으로 변화하면서 한국반도체의 선구적 위치를 존속하였다.

4. 페어차일드코리아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상황에서 수많은 기업이 파산하거나 매각되었다. 삼성은 당시 기흥공장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집중하였고 비메모리 분야인 부천공장을 외국계 기업에 매각하게 된다. IMF에 의한 이 결정은 결국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게 되었다.

1998년 부천지역의 삼성반도체 공장은 전력용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는 미국의

페어차일드코리아에 인수되었고, 수준 높은 반도체를 생산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6년 페어차일드코리아의 부천 반도체공장은 다시 미국의 온세미컨덕터 회사에 인수되었다. 온세미컨덕터는 2023년 현재 부천지역 반도체를 대표하는 회사로 파괴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전력 및 아날로그 반도체 공급업체라고 소개되어 있다.

5. 온세미컨덕터

그러니까 온세미의 부천공장은, 1974년 국내 최초의 반도체회사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한국 반도체 역사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기반으로 진화한 것이다. 특히 온세미의 부천공장은 차세대 반도체 실리콘카바이드 제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대규모 증설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부천은 한국 반도체주식회사로부터 현재의 온세미컨덕터까지, 한국 반도체의 역사를 간직한 의미 있는 지역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어야 한다.

온세미는 휴대전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모토로라사의 반도체 사업부에 모체를 둔 회사이다. 1999년 모토로라로부터 분사하였으며, 이후 성공적인 인수합병을 거듭하여 현재 총매출 10조 8천억 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보통주 500종목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지수)에 편입된 세계 20위권 내에 드는 반도체 회사이자 포춘지 500대 기업에 속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6. 부천지역 반도체산업의 현재와 미래

부천지역 반도체의 과거와 미래가 한국 반도체의 선구자 강기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강기동이 박사학위를 마치고 들어간 회사가 바로 모토로라이다. 결국 1974년 한국반도체주식회사에 의해 한국반도체 산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던 부천지역은, 2023년에 들어 온세미코리아에 의해 또 다른 형태의 반도체산업 기지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메모리 반도체산업이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1973년 부천시 탄생 이후 한때 공업도시라는 지위를 가진 적도 있지만, 이제는 서울과 인천의 베드타운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산업적 기능이 축소되었다. 비록 부천시가 문화도시 혹은 첨단 로봇 도시라는 이미지로 주목받기도 하지만, 도시 발전의 기본은 아직도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생산력에 좌우된다는 것을 수원시와 용인시가 증명하고 있다. 이 반대의 경우는 포항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부천지역의 산업적 기반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는 일일 것이다. 이 보고서는 그런 과정에 대한 아주 작은 조각의 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런 조각의 부분이 모여서 보다 큰 조각이 되고, 그런 큰 조각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현재 부천산업의 본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한국 반도체산업의 요람 삼성반도체(온세미컨덕터)

양윤모 (개항장연구소 연구위원)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강기동과 부천의 ‘한국반도체주식회사’
 3. ‘한국반도체 주식회사’와 삼성전자 그리고 페어차일드
 4. 나오는 말---부천지역 반도체산업의 현재와 미래
- <참고문헌>

1. 들어가는 말

2022년 기준 국내 반도체 총수출은 1,292억 달러이며, 이 중 메모리반도체가 738억 달러로서 전체 반도체 수출액의 57.46%를 차지한다. 또한 반도체는 한국 최대 수출 품목이기도 하다. 반도체는 2022년 기준 한국 전체 수출의 18.9% 비중을 차지하여 한국 경제와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²⁾ 그러니까 한국 전체 수출액 중 거의 1/5을 반도체라는 품목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한국의 반도체산업이 성장해 온 과정은 매우 극적이어서 기적이라고까지 언급되곤 한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반도체산업을 견인한 기업은 삼성이며, 삼성의 반도체산업의 뿌리는 바로 부천지역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반도체 부품의 단순 조립 생산 단계에 있었다. 1974년 당시로서는 첨단 반도체라 평가받는 CMOS라는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한국반도체주식회사가 부천에 설립되었다. 비록 국외의 문제 즉 1973년 발

2) 인베스트코리아 홈페이지, 반도체 부문을 참조. 미국의 정보 기술 연구 및 자문 회사인 가트너(Gartner Inc.)에 의하면, 한국은 2021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 19.3% 차지하였다고 한다(『스마트피씨사랑』, 2022년 4월 15일 자).

생한 오일쇼크로 인해 반도체 설비 가격이 인상되는 등, 한국반도체는 자금 문제로 부도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이때 삼성이 자금난에 빠진 한국반도체를 전격적으로 인수하게 되었고 비로소 (주)한국반도체는 삼성의 관리를 받으며 정상적인 반도체 생산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주)한국반도체는 한국반도체(1974~1978), 삼성반도체(1978~1980), 삼성전자(1980~1982), 한국전자통신(1982), 삼성반도체통신(1982~1988), 삼성전자(1988 이후)의 순으로 변천해 가면서, 한국의 반도체산업을 몇 단계나 높여왔다.

1998년 부천지역의 삼성반도체 공장은 전력용반도체³⁾를 주로 생산하는 미국의 페어차일드코리아에 인수되었고, 수준 높은 반도체를 생산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6년 페어차일드코리아의 부천 반도체공장은 다시 미국의 온세미컨덕터에 인수되었다. 온세미컨덕터는 2023년 현재 부천지역 반도체를 대표하는 회사로 파괴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전력 및 아날로그 반도체 공급업체라고 소개되어 있다.

그러니까 온세미의 부천공장은, 1974년 국내 최초의 반도체회사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한국 반도체 역사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기반으로 진화한 것이다. 특히 온세미의 부천공장은 차세대 반도체 실리콘카바이드 제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대규모 증설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부천은 한국반도체주식회사로부터 현재의 온세미컨덕터까지, 한국 반도체의 역사를 간직한 의미 있는 지역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글에서는 부천이 본격적인 반도체 생산지의 역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한국반도체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강기동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부천의 한국반도체주식회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설립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술될 것이다. 이어 한국반도체주식회사가 삼성반도체로 인수되는 과정을 알아보고, 다시 페어차일드코리아 부천공장으로 전환되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도록 한다. 그래서 부천지역의 반도체 역사를 대충이라도 확립하게 되기를 바란다.

3) 전력용 반도체는 각종의 전자기기에서 전력 변화와 전류분배, 제어 등의 역할을 하는 시스템반도체를 말한다. 가전 제품뿐만 아니라 각종 모바일기기와 통신인프라,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응용처에 사용된다.

2. 강기동⁴⁾과 부천의 ‘한국반도체주식회사’



2023.12.13 부천 근현대기업 조사연구 연구진과 인터뷰하는 강기동 박사 (사진 : 연구진 촬영)

강기동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한국에서 반도체라는 종목으로 치면, 최초로 ‘진짜’ 반도체를 생산했던 인물이라 할 만하다. 그리고 강기동이 최초의 반도체를 생산했던 곳이 바로 여기 부천 지역이었다.

많은 신문기사나 토크에서 강기동과 한국의 반도체 생산의 역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렇지만 단순하고 노동 집약적인 조립이라는 형태의 산업과 반도체 그 자체를 생산하는 산업을 비중 있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물론 한국의 반도체산업 성장사를 언급하는 글들에서, 반도체의 조립 단계와 설계 및 총체적인 생산 단계를 구분하고 있기는 하다. 이를테면 <1974년 한국의 반도체 사업은 단순한 포장 및 조립 기술을 탈피하여 미국 ICII사(Integrated Circuye International Inc)가 설립한 ‘한국반도체’라는 회사에 의해 시계용 CMOS 반도체 칩 생산을 위한 웨이퍼 가공이 시작되었다>라는 식의 언급이 그런 식의 인식이다.⁵⁾

후일 강기동의 회고에서도 1960-70년대 초 한국반도체 산업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⁶⁾

4) 서울대 총동창회에서 발행하는 『총동창신문』(488호, 2018년 11월)에 게재된 강기동의 이력은 다음과 같다 : 강기동은 1934년 12월 9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 경기도를 거쳐 모교 전기공학과에 진학했다. 고교 시절부터 관심을 가졌던 아마추어 무선통신(HAM)에 남다른 애착을 품고 대한민국 1호 아마추어무선통신사 면허증을 취득했으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KARL)의 창립을 주도했다. 대학 졸업 후 1958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오하이오주립대 반도체연구소에서 본격적으로 반도체 연구에 뛰어들었고 연구 성과를 인정받으며 석·박사 학위를 2년 반 만에 받았다. 이후 1962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위치한 모토로라에 입사, 반도체연구소를 직접 꾸리고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술을 연구해 당시의 반도체 분야를 선도했다. 1969년에는 실리콘밸리의 스투어트 워너 사로 자리를 옮겼으며, 한국에 반도체 제조 기술을 이식하겠다는 오랜 꿈을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준비했다. 1973년, 마침내 미국 내에 ICII사를 설립하는 동시에 경기도 부천에 한국 최초의 반도체 소자 생산 공장인 한국반도체주식회사를 세웠다. 이후 제4차 중동전쟁으로 인한 오일쇼크를 이겨내고 C-MOS/LSI KS-5001 전자손목시계용 칩을 개발해 큰 성공을 거뒀다. 한국반도체주식회사가 삼성그룹에 인수되면서 좌절을 맛보았지만,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반도체 사업에 뜻을 품은 한국 대기업들의 자문요청에 응하여 원진전자와 현대전자 등의 설립에 관여했다. 현재 미국 네바다주 리노에 거주하고 있다.

5) 최양규, 「세계 반도체 역사를 다시 쓴다.」, 『과학과기술』, 2008, 02, 71쪽.

6) 강기동, 『강기동과 한국반도체』, 아모르문디, 2018, 240~241쪽.

“한국반도체 공업진흥을 위한 모임이 있었다(---중략---) 반도체 사업을 하는 회사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한국에서 반도체 회사를 하는 사람은 나 하나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반도체는 내가 아는 반도체가 아니었다. 이 사람들에게 반도체란 조립과 같은 의미였다. 당시에는 아남산업이 한국 최대의 반도체 회사로 수출 실적이 어마어마했다. 알고 보니 이것도 요지경이었다. 원재료를 모두 수입했으며, 주 부품은 반도체 칩 또는 다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헤더, 금선 등과 함께 수입했다. 수입 가격이 1,000이라고 하면 여기에 10이라는 인건비와 비용이익을 합쳐서 1,010을 수출액으로 쳐서 수출 실적을 따졌다. 반도체 사업 관련 규정은 수출 실적이 큰 회사 위주로 만들어져 있었다. 진짜 반도체 사업은 바로 내가 하는 일인데, 반도체 관련 규정은 비슷하지도 않은 조립업을 대상으로 만들었다.”

1974년 부천지역에 본격적인 반도체공장이 설립되기까지 한국 반도체산업의 실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최초의 반도체 관련 기업은 고미반도체이다. 1965년 12월 미국의 코미(Komy)가 합작투자자로 최초의 외국계 전자업체인 고미전자산업(주)을 설립하였다. 내·외자 75:25의 비율로 7만 6천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 조립 생산이 핵심 업무였다.

1966년 4월, 미국의 페어차일드(Fairchild)는 214만 5천 달러를 투자하여 실리콘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를 조립 생산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에는 시그네틱스(Signetics)가 167만 9천 달러를 투자하여 IC와 다이오드를 조립했고, 이후 12월에 한구마이크로전자(주)가 내·외자 51:49의 비율로 22만 4천 달러를 투자하여 트랜지스터, IC, 다이오드, 메모리 등 반도체 부품의 조립 생산에 들어갔다.

또한 1966년에는 시그네틱스, 1967년 모토로라, 1968년 아남산업, 1969년 한국전자와 금성전자 등이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 조립 생산 사업에 참여하면서 한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외국기업들의 조립 하도급 시대가 시작되었다.⁷⁾

그러니까 196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을 필두로 한 반도체 선진국들은 한국업체에 반도체 하청을 본격적으로 맡기기 시작한 것이다. 반도체 선진국들이 한국업체들에 기대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반도체 칩을 잘 패키징해서 정해진 시일 안에 납품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업체들은 막대한 물량의 주문을 소화해 내면서 반도체 시장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1960년대 한국업체들이 미국에서 생산한 반도체 패키징의 거의 대부분을 도맡아서

7) 김수연 외, 「한국 반도체산업의 성장사 :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영사학』 제30집 제3호(통권 75호), (사)한국경영사학회, 2015.9, 151쪽.

조립했다. 특히 아남전자는 그 당시 반도체 패키징으로 3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반도체 패키징은 한때 세계 반도체 시장의 40%를 점유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⁸⁾

강기동은 자신이 미국에서 배우고 이론 진보된 반도체 사업을 한국에서 시행하기로 하였다. 강기동이 미국에서 박사 졸업을 할 당시에 미국은 3개의 반도체 대기업이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사업을 본격 확대하고 있었다.

미국 애리조나에선 모토로라, 텍사스에는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캘리포니아에선 페어차일드가 위세를 떨쳤다. TI는 집적회로(IC)를 처음 개발한 잭 킬비, 페어차일드는 쇼클리트랜지스터랩에서 자리를 옮긴 로버트 노이스와 고든 무어 등이 각각 기술을 이끌었다. 노이스와 무어는 인텔의 창업주이기도 하다.⁹⁾

강기동은 모토로라 연구소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며, 이들 쟁쟁한 반도체 선구자들과 경쟁하면서도 한국에 첨단 반도체 설계와 전 공정 생산 기술을 들여오고 싶었다. 특히 당시 최신 반도체로 알려진 CMOS(Complementary MetalOxide-Semiconductor, 상보성 금속 산화막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만도 가보고 또 실제로 쌍용회사와 ‘쌍룡프로젝트’라는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수립하였다. 하지만 시행 단계에서 쌍용의 사주가 한국 국내의 정치적인 문제에 걸려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1970년대 초, 강기동은 귀국하여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내던 김규한 켐코(KEMCO) 사장을 만났다. 무역 중계상 업을 하는 김규한은 강기동이 대학 시절 취미활동인 무선아마추어 연맹을 창설할 때 이사로 함께 참여했던 인물이다.

강기동은 김규한과 함께 한국에 반도체공장을 짓고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미국에 강기동의 반도체 기술 회사를 세워야 했다. 반도체 기



술은 미국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재였다. 산업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방 분야에도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강기동은 미국에 ICII(Integrated Circuit Internat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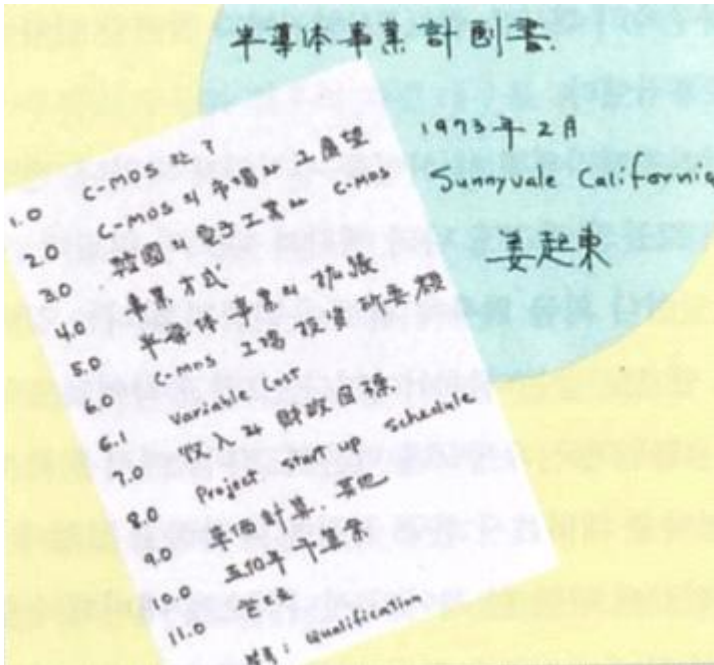
미국 서니베일에 위치한 ICII건물. 1976년 ICII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주동혁 박사가 2005년에 찍은 것이다 (사진 : 강기동과 한국반도체)

8) 이세철,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는 계속된다!」,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2012.

9) 『전자신문』 2016년 7월 20일 자.

Inc)라는 반도체기술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켈코(KEMCO : Korea Engineering & Manufacturing Co.)와 친분이 있던 조서더스(Joe Suduth)를 사장으로 하였다. 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남쪽에 있는 쉰니베일이라는 곳에 두었다. 자본금은 조서더스가 투자하고 강기동 몫으로 50%를 주기로 하였다. 물론 조서더스가 투자한 자본은 한국 켈코의 투자자 이상규가 마련한 것이었다.

한국에는 ICII와 켈코가 50대 50으로 투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곳으로 정리가 되



1973년 2월 강기동 박사가 직접 작성한 한국반도체 설립계획서 (사진 : 강기동과 한국반도체)

었다. ICII 명의로 반도체공장의 시설재 신용장을 열었다. 미국에서의 작업, 이를테면 반도체 제조 공정 일반을 관리하는 코디네이션 일체는 테리마틴이 맡고 반도체 테스트와 디자인은 베트남인 안응우옌이 맡고 반도체 칩 디자인은 밥랍이 맡는 등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일체의 작업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한국에 설립될 반도체공장의 배관과 통풍 설비와 보수 유지는 웨스널에게 부탁하였다.¹⁰⁾

이 모든 준비는 물론 강기동의 몫이었으며 설비와 자재 그리고 인건비 등이 제4차 중동전쟁으로 폭등하

였다. 따라서 차관 도입이 절실하였다. 강기동은 우여곡절 끝에 한국 경제기획원의 승인을 받아 200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할 수 있었다.

강기동 필생의 사업인 한국반도체주식회사(KSI : Korea Semiconductor Inc)는 부천시 도당동¹¹⁾ 지역에 1974년 1월 26일 설립되었다. 부천에 한국반도체주식회사가 설립된 이유는 당시 한국 측 동업자인 켈코(KEMCO)의 김규한 사장이 미국에 있던 강기동 박사의 조건을 받아들여 서울에서 가까운 부천에 부지를 준비했으며, 강기동 박사가 현장(도당동)을 방문하여 확인 후 설립한 것이라고 강기동 박사는 증언하고 있다.(부록 2. 강기동 박사와 인터뷰 참고) 한편, 반도체공장이 준공된 것은 1974년 10월 4일이다.¹²⁾ 그런데 한국반도체공장 준공과 관련해서, 삼성 측 기록에는 10월 7일로 되어있다.¹³⁾ 언

10) 강기동, 「증언-반도체산업」, 『내를 이뤄 바다로 가다.』(『내를 이뤄 바다로 가다』, 송태욱 외, 2011, 403~404쪽) : 강기동, 앞의 책, 221~222쪽.

11) 『부천시향토문화전자대전』에는 도당동의 연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914년 부천군이 신설되면서 오정면 도당리가 되었고, 1973년 부천군이 부천시로 승격하면서 김포군 오정면에 편입되었다. 1975년 10월 1일 김포군 오정면에서 부천시 신흥동으로 개편되었고, 1982년 10월 1일 신흥동이 신흥1동과 신흥2동으로 분동되었다. 1990년 1월 1일 신흥1동에서 도당동으로 분동되었다. 1993년 2월 1일 원미구 도당동이 되었다가 2016년 7월 4일 일반구를 폐지하는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부천시 도당동이 되었다>. 이에 따르면, 한국반도체주식회사 공장이 착공되고 완공된 시점은, 도당동지역이 김포군에 소속된 시기였다.

12) 강기동, 앞의 책, 256쪽.

론인 소종섭은 1974년 10월 4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¹⁴⁾ 물론 이때 공장 준공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원을 알 수 있는 기록이 거의 없다. 다만 강기동의 증언에 의하면, 부천에 대지 4,000평 건평 561평 규모로 공장이 들어섰다는 것이다.¹⁵⁾



부천 한국반도체 공장 전경, 신축 건물이 들어선 것으로 보아 1976년 이후 사진으로 보인다. (사진 : 온세미컨덕터 제공)

다만 한국반도체 공장 준공 날짜는 강기동과 삼성 측의 반도체 사업과 관련한 갈등 관계를 표현하는 어떤 상징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3장에서 삼성의 한국반도체주식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언급될 것이다.

13) 삼성반도체통신, 『삼성반도체통신십년사』, 1987, 92쪽. 그런데 삼성의 반도체 사업과 관련된 『호암의 마지막 꿈』이라는 책에서는 한국반도체 공장의 준공 날짜를 10월 4일로 기록하고 있다.

14) 소종섭, 「소종섭의 속터뷰」, 『아시아경제』, 2023년, 1월 22일. 소종섭은 강기동 박사가 최근(2023년 1월 17일) 귀국하였을 때, 인터뷰한 인물이다. 따라서 소종섭은 강기동 박사의 기억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15) 강기동, 「증언-반도체산업」, 『내를 이뤄 바다로 가다.』(『내를 이뤄 바다로 가다』, 송태욱 외, 2011, 407쪽).

3. ‘한국반도체 주식회사’와 삼성전자 그리고 페어차일드

한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디지털기업인박물관>에는, 삼성전자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삼성그룹 회장 이병철의 활동 내역이 게재되어 있다. 「1983년 삼성 이병철 반도체 진출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산업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와 성장에 대한 기록이다.¹⁶⁾

이 기록에 의하면, 이병철은 1983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반도체산업 진출을 공언하였다. 이른바 <2·8 도쿄선언>으로 알려진 것인데, ‘오늘을 기해 삼성은 VLSI(초고밀도집적회로)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다’라는 공언은, 삼성이라는 기업의 ‘변곡점’이라고까지 평가되었다. 사실 이병철의 반도체 사업 진출은 당시 매우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한다.



1984년 10월 8일 호암 이병철 회장에 의해 부천공장에 건립된
‘반도체 기술의 산실’ 표지석 (사진 : 온세미컨덕터 제공)

이를테면, 도쿄선언 발표 직후 인텔은 삼성을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비웃었고, 일본 미쓰비시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냈을 정도라는 것이었다. 사실 당시 삼성은 가전제품용 고밀도 집적회로(LSI)도 겨우 만들던 때였다. 그리고 국내 여론도, 사업이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병철의 결정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삼성이라는 기업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전체를 진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산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대한민국이 최첨단 산업군을 영위하게 하는 큰 기반이 되었다.

16) 이 내용은 대부분 삼성전자에서 제공한 사진과 글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삼성의 반도체산업에 관한 관심은 이미 1974년 12월 6일 부천에 있던 (주)한국반도체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반도체는 1974년 미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하던 강기동 박사와 당시 통신장비 전문 수입상이었던 켈코(KEMCO)의 김규한 사장이 설립한 한국 최초의 전(全) 공정 반도체 제조공장이었다. 2장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켈코의 실질적인 자금줄은 이상규였다.

(주)한국반도체는 국내 최초로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가공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1973년 제1차 오일쇼크의 여파로 곧바로 부도 위기를 맞았다. (주)한국반도체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제대로 된 공장 시설도 완벽하게 준공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가동을 위한 자재 구입 역시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¹⁷⁾ 결국 삼성의 반도체 사업은 (주)한국반도체의 위기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평가해도 무방할 것이다.



1970년대 한국반도체 부천공장, 삼성반도체의 전신
(사진 : 온세미컨덕터 제공)

사실 삼성이 반도체 중요성에 주목하게 되었던 계기는 1969년 (주)삼성전자의 설립이었다. 반도체의 일종인 트랜지스터를 핵심으로 하는 전자공업이 삼성그룹의 주력사업으로 결정된 것이다.¹⁸⁾ 1969년 12월 삼성산요전기(삼성전자부품의 전신) 설립, 1970년 1월 삼성 NEC(삼성전관의 전신) 설립 등, 삼성은 전자사업의 계열화를 추진하면서 궁

극적으로는 부품의 자립을 동시에 모색하였다.

그렇지만 1973년부터 1974년까지 벌어졌던 1차 오일쇼크는 한국 산업계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 오일 크라이시스(oil crisis)라고도 하는데, 제4차 중동전쟁이¹⁹⁾ 시작되면서 OPEC의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리비아 아랍공화국, 이라크, 이란제국, 시리아, 튀니지가 손잡고 석유를 감산하는 동시에 원유 가격을 인상했다. 당시 1배럴당 2.9달러였던 원유가는 한 달 만에 12달러가 되었다. 지금으로 치면(2013년 11월

17) (주)한국반도체의 자금난에 관한 한, 삼성 측의 기록과 강기동 박사의 회고는 거의 일치한다(강기동, 「증언, 반도체 산업」, 『내를 이뤄 바다로 가다-한국전자정보산업개척사』, 신산업경영원, 2011 : 유귀훈, 『호암의 마지막 꿈』, 블루페가수스, 2018을 참조.

18) 삼성반도체통신, 『삼성반도체통신십년사』, 1987, 91쪽.

19) 제3차 중동전쟁은, 욀 키푸르(속죄일)라는 이스라엘의 대규모 휴일 기간에 돌입하고 욀 키푸르 당일인 1973년 10월 6일에, 이스라엘에서 많은 군인들이 휴가를 떠나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이집트, 시리아 연합군에 의한 동시다발적인 전면적인 기습이 시작되었다.

13일 기준), 1배럴당 약 84달러가 한 달 만에 약 320달러가 된 것이다.

강기동의 회고에 따르면, ‘재정 상태 악화를 기회로 여긴 삼성이 풍전등화 상태인 한국반도체주식회사를 치밀한 작전 하에 무혈점령하다시피 한 것’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강기동 회고록의 이 부분에 대한 제목은 「나의 회사, 삼성에 팔리다」이다.²⁰⁾

그리고 자신은 기술자 역할과 실무자 역할 그리고 공장 설립에 필요한 설비 구입 및 배송과 차관 문제까지 공장 설립과 반도체 관련 기술적 운영(반도체 생산) 등 모든 부분에 관여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차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도체공장 설립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출자자이자 동업자 격인 이상규 측과 재정적인 측면에서 갈등도 있었다.

이 과정은 강기동의 회고록에 정황적인 측면에서만 기록되어 있다. 다만 회고록보다 이전 2011년에 간행된 한 책자에서, 강기동은 이상규에게 ‘내가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나에게 오는 50%의 ICII 주식 모두를 되돌려 드리고 돈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떼겠습니다’ 라고 회고하였다.²¹⁾

그러니까 강기동은 한국반도체주식회사의 재정 문제를 방기한 것이다. 한국반도체주식회사 설립이 아이씨아이아이(ICII)와 한국 투자자인 켄코(KEMCO)가 50%대 50%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ICII 역시 실질적으로 이상규가 켄코를 통해 출자한 것으로 본다면, 강기동은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왜냐하면, ICII와 켄코의 실질적인 투자자 앞에서 반도체공장의 준공과 생산설비 구비를 위한 차관 문제 등등에 대해 마치 강기동 자신은 이제 손을 떼겠다는 것처럼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2018년에 출간된 강기동의 회고록에도 나오고, 2011년 간행된 증언에도 기록되어 있다. 다만 2011년의 증언에서는 한국반도체주식회사 공동대표인 이상규와 강기동 사이에 오해가 있었다는 식으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²²⁾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강기동과 이상규는 한국반도체주식회사의 공동대표였다. 여기에 이상규의 아들이 최고재무책임자 격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반도체는 미국 법인인 ICII와 한국 쪽 법인인 KEMCO가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이며, ICII와 KEMCO의 실질적 주인은 이상규이다.

강기동은 한국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미국에 ICII를 세웠으며 대표로 KEMCO와 한때 사업을 같이했던 조서더스를 내세웠다(이 인물 역시 KEMCO 측 사람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상규는 한국에서 반도체 사업의 성

20) 강기동, 앞의 책, 246쪽.

21) 강기동, 「증언-반도체산업」, (『내를 이뤄 바다로 가다』, 송태욱 외, 2011, 411쪽). 여기서 ICII(Integrated Circuit International, Inc.)는 강기동이 미국에 설립한 반도체 회사이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회사는 강기동이 한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하기 위한 미국 현지 법인 정도의 역할이라 하였다.

22) 위의 글, 411쪽.

공을 위해, 모든 과정을 책임져 줄 강기동에게 ICII가 갖고있는 지분 중 50%를 공로주로 주었다.

또한 현 단계에서 정확한 실상을 모두 알 수 없지만 한국반도체가 삼성에 매각된 이유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제3차 중동전쟁으로 인한 오일쇼크라는 외부적인 요인이 설비 및 자재값 상승을 초래하였고, 공장 건설비용 조달에 문제가 있었다.

둘째, 조립식 트랜지스터 생산 단계에 머물던 한국의 실상에서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반도체 회로디자인과 실리콘웨이퍼 제조와 나아가서 CMOS 생산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기술적으로 너무 앞섰기 때문에, 신용장이라든지 차관 교섭 등 자금 조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한국 정부나 관련 기업들은, 강기동이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세우고 한국에서 차관을 받아(신용장) 자금을 미국으로 빼돌리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정도였다는 것이다.²³⁾

사실 모든 문제는 아마도 한국반도체주식회사가 자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일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다. 2장에서 자세하게 언급하였지만, 강기동은 이미 미국 실리콘밸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지점이 한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시도하였던 강기동 실책의 출발점인 것이다. 그러니까 강기동은 그 당시 자신이 사업을 하는 곳이 1970년대 초 한국이었지 미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다.

삼성이 한국반도체를 인수한 시점은 1974년 12월 6일이다. 이날의 광경을 강기동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²⁴⁾

“1974년이 저물어 갈 무렵 어느 날, 이상규 회장이 KEMCO CFO(재무 책임자-필자)인 유창용 전무와 함께 어디에 가자고 했다. 중앙일보 빌딩으로 가는 차 속에서 이 회장은 회사가 어려워 KSI(한국반도체주식회사-필자)를 삼성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오늘 지분을 모두 매각기로 계약하는데, 강 박사께서 계속 남아 일을 봐주셔야겠습니다』라고 말하는게 아닌가. 아무리 샐러리맨 사장이라고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다. 이회장은 강 박사가 제품 양산과 판매(전량 수출) 성공을 보장하고, 그 대가로 10% 지분을 드리기로 삼성과 합의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지금 가서 계약서에 서명하자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짚을 게 있다. 한국반도체 인수와 관련해서, 삼성 측 기록에

23) 유귀훈, 『호암의 마지막 꿈』, 도서출판 블루페가수스, 2018, 29쪽을 참조. 이 책에서는 1970년대 초중반, 전자공업 육성을 국책사업으로 육성하려는 한국 정부가 반도체산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24) 강기동, 「증언-반도체산업」, 앞의 책, 411~412쪽.

는, 초기 무리한 설비투자와 제품개발의 지연으로 인한 자금 회전의 부진 그리고 오일 쇼크에 의한 자금 유입이 안 되었던 점 등이 한국반도체주식회사가 경영권을 포기하게 된 원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반도체가 매각을 결정하였음에도 한국 유수의 업체에서는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을 모르고 전자업계에서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자산업 후발주자인 삼성전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영진의 재가를 얻어 한국반도체를 인수하였다는 것이다.²⁵⁾

이러한 삼성 측의 기록은 사실 여러 측면에서 의문이 있다. 우선 한국반도체 인수는 삼성전자 경영진(회장 이병철 포함)에 의한 결정이 아니다. 한국반도체 지분 중 켄코의 지분을 인수한 것은 이견희였다. 이때 이견희는 중앙일보 이사직을 맡고 있었다.²⁶⁾

그러니까 법인(삼성전자)이 아닌 개인(이견희)이 인수한 것인데, 사실 이 당시 삼성의 전자파트(삼성전기, 삼성NEC 등)는 모두 심한 적자 상태였다. 이견희가 한국반도체 주식을 인수한 것에 대해 강기동은 당시 재벌 기업들은 상징성이 높은 신규 회사에 2세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하나의 관례라고 이해하였다.²⁷⁾

또한, 달리 매각처를 찾지 못한 한국반도체 측에서 먼저 삼성에게 인수를 타진하였다고 하는 기록도 있는데,²⁸⁾ 이 역시 강기동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증언하였다.²⁹⁾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한국반도체주식회사를 대하는 강진구와 이상규의 입장 차이라고 보인다.

한국반도체 공장 준공식이 열렸을 때(1974년 10월 4일) 삼성전자의 강진구 상무가 참석하였다. 이 사실은 10월 이전에 이미 한국반도체 사업주인 이상규는 삼성전자 측과 모든 매각 협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1974년 10월 4일, 사정이 급했던 한국반도체는 서둘러 준공식을 열었다. 생산을 위한 준공식이 아니라 매각을 위한 준공식이었다’ 라고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³⁰⁾

어쨌든 한국반도체주식회사는 결과적으로 강기동의 의지와는 다르게 삼성의 이견희에게 팔렸다. 그리고 (주)한국반도체는 강기동의 반도체 기술과 손으로 만든 회사이다. 강기동의 증언과 같이, 공장 건물부터 시설 등 뭐 하나 그의 손이 안 간 곳이 없다. 그리고 회사가 팔리는 날조차도, 아침에 나가서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물건들이 들어오는데 차질이 없나를 점검하고 있었다.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저녁 비행기로 미국으로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³¹⁾

삼성이 한국반도체를 인수한 이후, 계약대로 강기동은 한국반도체주식회사의 공동대

25) 삼성반도체통신, 『삼성반도체통신십년사』, 1987, 92쪽.

26) 유귀훈, 앞의 책, 31쪽.

27) 강기동, 「증언-반도체산업」, 앞의 책, 413쪽.

28) 유귀훈, 앞의 책, 30쪽을 참조.

29) 강기동, 「증언-반도체산업」, 앞의 책, 410~412쪽을 참조.

30) 유귀훈, 앞의 책, 30쪽.

31) 강기동, 『강기동과 한국반도체』, 아모르문디, 2018, 414쪽.

표로 남아있게 되었다. 공동대표이사 강기동과 강진구 사장, 관리 담당 이사에는 이충수가 선임되었다. 구성상 강기동보다는 삼성 측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주도권을 갖게 된 것은 명백하였다.

그럼에도 그동안 강기동을 괴롭히던 자금 문제는 일단 해결되었다. 다만 삼성에서 파견된 이충수를 비롯한 중간관리자와의 갈등은 부담되었다. 삼성의 관리주의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벤처기업식의 체질에 익숙한 강기동과 양립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강기동의 전공인 CMOS(Complementary MetalOxide-Semiconductor, 상보성 금속 산화막 반도체) 기술은 당시로는 상당히 진보적인 기술이다. 이를 유의미하게 잘 생산하면 전자 손목시계나 탁상 계산기 성능을 탁월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시계 칩이 양산되고 판매 또한 성공된다면, 삼성이 회사 인수 때 제공하기로 했던 주식 10%를 받는 것도 무난할 것으로 강기동은 확신하였다. 그렇지만 강기동은 삼성의 경영 원칙인 관리경영에 적응하지 못하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한국반도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것이다. 삼성 측에서는 삼성 전자 등 전자 계열사들이 사용할 다양한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것이 한국반도체 회사를 인수하는 목적이었다.³²⁾ 그러니까 삼성 측은 예컨대, 일본에서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하는 흑백 티브이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라든가 집적회로인 IC(Integrated Circuit)만 만들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국내 최초의 반도체 칩이 내장된 삼성전자의 전자시계 광고
(1976.3.26. 매일경제신문 광고)

반면 강기동은 실리콘밸리의 경험을 살려 한두 개의 반도체 칩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일종의 벤처기업을 구상하였다. 이를테면 자신이 강점을 갖고 있는 CMOS의 집중적인 생산을 통해 판매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우수한 반도체 디자이너

너들을 영입하여 CMOS 디자인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면 반도체다운 반도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 속에서도 부천 반도체공장에서는 LED 전자손목시계용 반도체

32) 유귀훈, 『호암의 마지막 꿈』, 31쪽.

칩(KS-5001)을 개발하였다. 다만 기술적인 한계와 기계식 시계의 유행으로 오래가지는 못하였다. LED 전자손목시계용 반도체 칩(KS-5001)을 개발하였으나, 기술적인 한계와 기계식 시계의 유행으로 오래가지는 못하였다.³³⁾

그렇지만 부천 반도체공장에서 생산된 이 반도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생산된 전자 시계용 CMOS칩이며 국내에서 최초로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역사적 업적을 이룬 것이다.³⁴⁾ 그리고 이 역사적 업적에 대해 『삼성반도체통신10년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의의를 기술하고 있다.³⁵⁾

“단순 조립 생산에 머물고 있던 국내 반도체 업계 수준으로는 미·일 등 선진 반도체 국가들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LED 전자 손목시계용 CMOS LSI 제품을 개발하기로 한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CMOS 기술의 권위자인 강기동 사장을 중심으로 기술진의 피나는 노력과 ICII의 적극적인 기술 지원에 힘입어 마침내 1975년 9월 1일, 6개 기능의 LED 전자 손목시계용 반도체 KS-5001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KS-5001 개발은 현재의(1987년-필자) 1메가 D램 개발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일약 세계 4번째의 CMOS LSI 생산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삼성은 CMOS 시계 칩이 일정 부분 성공하자 부천 한국반도체회사에서 시계사업부를 독립시켰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흑백 티브이용 트랜지스터와 IC칩 생산을 고집하였다. 게다가 한국반도체의 미국 법인이자 강기동이 설립한 미국 ICII로부터 두 명의 엔지니어를 데려왔는데, 이들은 모두 CMOS 전문가가 아니었다.

삼성 측의 집요한 낙후 반도체 생산 요구와 강진구를 비롯한 삼성 측 인사와의 갈등 등으로 강기동은 결국 한국반도체를 사직하였다. 1975년 말이었다.³⁶⁾

강기동은 이후에도 1977년 원진그룹과 웨이퍼 파운드리 생산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역시 반도체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회사와 신용장 개설 문제로 원진과의 합작은 물거품이 되었다. 한국에서 강기동의 두 번째 반도체 사업 실패였다. 물론 부천의 한국반도체 회사에서는 일정한 결과물을 도출하였지만, 원진과의 합작은 거의 시작 단계에서 틀어지고 말았다. 원진의 반도체공장은 서울과 수원 중간쯤 되는 곳의 야산을 깎아 지었는데, 나중에 삼성에서 인수하였다.

강기동이 사직한 이후, 1976년 한국반도체주식회사는 부천시 도당동 공장 부지에 공

33) 김수연외, 「한국 반도체산업의 성장사 :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영사학』 제30집 제3호(통권 75호), (사)한국경영사학회, 2015.9, 152쪽.

34) 이세철,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는 계속된다!」,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2012, 22쪽.

35) 삼성반도체통신, 『삼성반도체통신십년사』, 1987, 172쪽.

36) 유귀훈, 앞의 책, 31쪽.

장사무실을 신축하였다. 도당동 76-14 필지 12,449㎡ 대지에 지상 2층 연건평 3,039㎡ 규모, 철근콘크리트조 1층 986㎡ 지하 929㎡ 그리고 옥탑으로 구성된 건물이다.³⁷⁾

이어 삼성은 1977년 미국의 ICII가 갖고 있던 한국반도체 지분 50%를 인수하고 리드 프레임 생산설비와 패키지 생산설비를 도입하였다. 이후 트랜지스터 본격 생산을 시작하면서 일괄생산체계를 갖추게 된다.

게다가 1977년에는 부천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되는 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중앙개발에서 지하 120m에서 지하수를 취수해 하루 130톤을 공급하는 등 반듯 생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도 하였다.³⁸⁾ 이어 1978년 3월 한국반도체는 사명을 삼성반도체로 변경하였다.

그렇지만 낙후된 반도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부천의 반도체공장의 생산물들은 더 이상 진화하지 못하였다. 삼성반도체는 원진레이온 공장을 인수하고, 페어차일드 회사의 서울 대방동 조립공장을 인수하여 실리콘웨이퍼 조립까지 그럴듯한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한국반도체(삼성반도체) 사장인 강진구는 삼성전자와 삼성전관 사장도 겸임하였다. 그래서 부천 삼성반도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부품들을 삼성전자와 삼성전관에 공급하였지만, 많은 하자가 발생하였다. 삼성반도체는 삼성그룹에서도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다.³⁹⁾



1982년 부천 반도체연구소 기공식
(사진 : 온세미컨덕터 제공)

그리하여 1980년 3월 삼성전자로 흡수 합병되었으며, 1982년에는 한국전자통신으로 흡수되었다. 삼성그룹 내 반도체 사업과 컴퓨터 사업을 일원화하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자교환 회사인 한국전자통신에 이관시킨 것으로 보도가 되었다.⁴⁰⁾

그럼에도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서 부천 반도체공장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사건은 바로 메모리칩의 개발이었다. 강기동이 정력적으로 생산하고자 하였던

37) 『매일경제신문』, 1976년, 9월 6일 자.

38) 『매일경제신문』, 1977년 1월 31일 자.

39) 유귀훈, 앞의 책, 34쪽.

40) 『매일경제신문』, 1982년 12월 11일 자.



국내 최초 개발된 64KD램
(사진 : 온세미컨덕터 제공)

보다 진보된 반도체 칩 생산과 개발은, 삼성반도체로 인수된 이후 1982년 부천반도체공장에 부천반도체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삼성그룹의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반도체 생산 및 연구도 가속화되었다. 결국 1983년 삼성반도체 부천공장에서는 국내 최초로 64KD램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어 1984년 부천반도체공장에서는 반도체 생산의 중간 공정인 웨이퍼를 가

공하였다. 비교적 최신식 5인치 웨이퍼를 생산하였는데, 5인치 웨이퍼는 64KD램을 장당 7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다.⁴¹⁾ 이렇게 한국 최초로 본격적인 반도체를 생산하였던 부천 한국반도체는 삼성반도체로 또 한국전자통신으로 변화하면서 한국반도체의 선구적 위치를 존속하였다.

그렇지만 삼성반도체가 기흥공장에 집중하면서, 결국 1998년 12월 22일 삼성전자는 부천 도당동의 반도체공장을 미국 비메모리 반도체회사인 페어차일드에 매각하였다. 매각 대금은 4억 5,500만 달러이며, 1999년 1월 1일 자로 경영권을 완전 이관하고, 종업원 1,500명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조건이다.

당시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상황에서 수많은 기업이 파산하거나 매각되었다. 30대 재벌 중 11개 기업이 워크아웃 또는 부도 처리되었다. 삼성은 당시 기흥공장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집중하면서 비메모리 분야인 부천공장을 외국계 기업에 매각하게 된다. IMF에 의한 이 결정은 결국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게 되었다.⁴²⁾

당시 삼성전자 - 페어차일드코리아 - 온세미컨덕터에 계속 근무했던 천우영 상무의 증언⁴³⁾은 삼성전자가 부천반도체공장을 매각하게 된 이유를 외환위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다.

부천의 반도체공장에서는 주로 전력용 반도체를 생산하였는데, 매각 이유는 ‘알파

41) 『매일경제신문』, 1984년 12월 11일 자.

42) 김두열 외 『한국의 경제위기와 극복』,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107, 199~211쪽

43) “그때 IMF 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금 모으기도 했고, 달러가 굉장히 많이 부족했었죠. 그래서 그때 정부에서도 많은 기업들을 외국에 많이 팔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중에서도 삼성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 부천에 있는 도당동 공장이 굉장히 알짜 공장인데, 그때 사실은 파워 제품을 매각했어요. 페어차일드 반도체 미국인 미국 회사에 반도체 회사를 매각했는데, 조건은 좋으니까, 인수했겠죠. 페어차일드에서도. 그래서 그 인원 그대로 기술 인력 그대로, 어떻게 보면 큰 재산을 가져간 거죠.” (부록 2, 삼성전자 천우영 인터뷰 내용 중)

칩 생산과 통신용 반도체 그리고 복합 칩 등 비메모리 부분의 비중을 지금의 30%에서 2001년까지 80%로 늘리기 위해서’ 라는 것이다.⁴⁴⁾ 매각 당시 부천 반도체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공장의 매출액은 4,500억 원이며 순이익은 196억 원을 기록했다.

부천 반도체공장을 인수한 페어차일드와 세미컨덕터는 당시 전 세계 5곳에 전력용 반도체 생산기지를 두고 있었다. 이제 부천 반도체공장 인수로 6번째 전력용 반도체 생산기지를 갖게 된 것이다. 페어차일드가 생산하는 전력용 반도체는 모니터·티브이·오디오 등 각종의 전자제품과 산업 생산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반도체이다. 페어차일드는 바로 이러한 반도체의 세계 최대 생산기지인 것이다.⁴⁵⁾

부천 반도체공장을 인수한 페어차일드는 1999년 4월 16일 페어차일드코리아 회사를 공식적으로 출발시켰다. 미국에 본사를 둔 페어차일드 회장의 언급에 따르면, 부천 반도체공장을 4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였으며, 종업원 14,000명과 반도체 사업권 그리고 관련 지식재산권을 일괄적으로 인수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천지역은 1974년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반도체 생산기지에서, 1999년부터는 전세계에 전력용 반도체를 공급하는 중요한 기지가 된 셈이다. 2014년 부천의 페어차일드 반도체공장은 페어차일드 전체 반도체 생산량 중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부천 페어차일드 반도체공장은 2016년 다시 온세미코리아에 인수되었다.

44) 『조선일보』, 1998년 12월 23일 자 : 『동아일보』, 1998년 12월 23일 자.

45) 『동아일보』, 1999년 4월 16일 자.

4. 나오는 말 - 부천지역 반도체산업의 현재와 미래

2022년 온세미는 한국 내 생산 거점인 온세미코리아 부천사업장에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2022년 7월 7일에는 반도체 공정 라인을 증설하기 위한 착공식을 거행하였다.⁴⁶⁾

온세미는 휴대전화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모토로라사의 반도체 사업부에 모체를 둔 회사이다. 1999년 모토로라로부터 분사하였으며, 이후 성공적인 인수합병을 거듭하여 현재 총매출 10조 8천억 원,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500지수(보통주 500종목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지수)에 편입된 세계 20위권 내에 드는 반도체회사이자 포춘지 500대 기업에 속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부천지역 반도체의 과거와 미래가 한국 반도체의 선구자 강기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강기동이 박사학위를 마치고 들어간 회사가 바로 모토로라이다. 강기동은 그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 동부와 서부의 반도체 체인 지역에서 쟁쟁한 반도체 선구자들과 경쟁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런 경력을 바탕으로 부천 지역에 (주)한국반도체를 세우고,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조용익 부천시장(왼쪽), 김동연 경기도지사(가운데), 온세미 최고운영책임자(오른쪽) 왕 웨이 청(Wei-Chung Wang)의 투자 양해각서 기념사진 (사진 : 천우영 제공)

온세미의 한국지사는 2022년 현재 1조 3천억의 연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3 현재 2,2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어(이 중에서 이른바 MZ세대가 무려 62.5%에 달한다), 부천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⁴⁷⁾

온세미코리아는 부천과 분당 그리고 서울 양재동에 1만 4천 평에 달하는 실리콘웨이퍼

라인이 있으며, 연구개발센터와 디자인센터를 갖추고 있다. 그리하여 2023년에는 한국의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가족 친화적이며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46) 『천포커스』, 2022년 7월 7일 자

47) 온세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2023년 7월 7일 거행된 착공식에서는 부천시를 비롯한 3개 기관(경기도-부천시-온세미)이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차세대 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산업생태계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을 체결하였다. 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는 전기차 속 배터리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 기존 실리콘 기반 반도체보다 열이나 압력에 잘 견디는 반도체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극한의 환경에서도 작동해야 하는 차량용 반도체로 적합하다고 알려진 첨단 반도체의 일종이다.

이어 온세미코리아는 2023년 10월 24일 부천 온세미 공장에서 실리콘카바이드 연구소와 제조시설인 S5 라인 준공식을 열었다.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를 연구개발하고 생산이 가능한 제조시설을 준공, 2027년까지 매년 100만 개의 실리콘카바이드(SiC) 웨이퍼를 생산, 현재 생산량의 두 배까지 제조 능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였다.⁴⁸⁾

결국 1974년 한국반도체주식회사에 의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던 부천지역은, 2023년에 들어 온세미코리아에 의해 또 다른 형태의 반도체산업 기지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메모리 반도체산업이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산업의 중심지가 된 것이다.

1973년 부천시 탄생 이후 한때 공업도시라는 지위를 가진 적도 있지만, 이제는 서울과 인천의 베드타운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산업적 기능이 축소되었다. 비록 부천시가 문화도시 혹은 첨단 로봇 도시라는 이미지로 각광받기도 하지만, 도시 발전의 기본은 아직도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생산력에 좌우된다는 것을 수원시와 용인시가 증명하고 있다. 이 반대의 경우는 포항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부천지역의 산업적 기반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는 일일 것이다. 이 보고서는 그런 과정에 대한 아주 작은 조각의 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런 조각의 부분이 모여서 보다 큰 조각이 되고, 그런 큰 조각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현재 부천산업의 본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하자면 우선적으로 이러한 보고서가 많이 쌓이고, 1914년(혹은 그 이전부터라도) 이후 현재까지 변화된 부천지역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부천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공조직이 체계적으로 작동을 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8) 『뉴시스』, 2023년 10월 24일 자.

〈참고문헌〉

1. 왕용준, 『반도체인문학』, 북스타, 2022(‘wangane’ 라는 필명으로 <브런치스토리>에 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행됨. 이글에서는 브런치스토리를 참고함).
2. 이세철,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는 계속된다.』,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2012.
3. 최양규, 「세계 반도체 역사를 다시 쓴다.」, 『과학과기술』, 2008,
4. 송태욱 외 공저, 『내를 이뤄 바다로 가다-증언:한국전자정보산업개척사』, 신산업경영원, 2011.
5. 유귀훈, 『호암의 마지막 꿈』, 블루페가수스, 2018.
6. 김수연 외, 「한국 반도체산업의 성장사: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영사학』 제30집 제3호(통권 75호), 2015.9.
7. 이강봉, 「1979년 한국의 반도체 신화가 시작된다.」, 『사이언스더타임즈』, 2006.11.12.
8. 삼성반도체통신, 『삼성반도체통신십년사』, 1987.
9. 『경향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뉴시스』, 『전자신문』 『부천시향토문화대전』,
10. 경제인연합회, 디지털기업인박물관
(<https://www.fki-emuseum.or.kr/main/history/1980.do>)

VI. 전후(戰後) 농촌근대화의 선봉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요약문(SUMMARY)

1. 1952년 8월, 한미재단의 설립 배경과 사업 활동

- 1952년 8월, 미국 백악관에서 비영리 · 비종교 · 비정치 사설 단체로 발족 되었다. 곧이어 1953년부터 1979년까지 26년간 5천만 달러의 막대한 원조금으로 전쟁 중인 한국의 재건을 위해 보건 의료 · 도로 건설 · 주택 건설 · 식량 · 교육 · 4-H 운동 등을 통해 한국을 원조했다. 전후(戰後) 한국이 재건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어준 단체가 한미재단(韓美財團)이었다
- 1953년 4월 13일, 한미재단 이사회에서 한국 부흥원조금으로 5천만 달러를 원조하기로 결의하고, 500백만 달러를 목표로 모금을 시작하였다. 이후 박차를 가하기 위해 1953년 6월 6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 원조 주간’을 선포하면서 1953년 11월 12일까지 총 모금액은 2,927,807달러였다.
- 1953년 8월, 한국에 한미재단 한국출장소를 설치하였다. 1953년 8월 20일 2차 한미재단 사절단은 원조금 50만 달러를 가지고 와서, 86개 세부 종목을 하나하나 명시하고 8월 27일 한국을 떠났다. 명시한 곳에 반드시 돈을 쓰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미재단 한국출장소를 설치하였다.

2. 1963년 11월,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의 설립 배경과 사업 활동

- 1963년 11월, 부천군 소사리 산 36번지 일대 21,568평의 대규모 면적에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을 설립하였다. 소사리에 설립한 배경에는 상호 관계상 밀접한 경기도농촌진흥원이 3km 인근인 별운동(역곡동)에 있어,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받기가 용이했기 때문에 소사리에 설립한 것으로 여겨진다.
- 또 다른 설립 배경은 초창기 1953년부터 한미재단의 사업 활동은 다방면의 무상원조, 곧 고기를 잡아다 주었지만, 1963년부터는 고기 잡는 방법을 교육하였다. 교양교육을 통하여 훌륭한 지도자를 양성하였고, 농사 교육을 통하여 농촌을 근대화하고자 했다.
- 1964년 2월부터 공무원 419명, 군인 50명에게 계단식 개간을 시범적으로 교육하였다. 이후 1965년부터 농촌지도소의 추천을 받은 전국의 4-H 회원들을 상대로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교육생들은 3주간의 강의와 실습으로 단기 훈련을 실시 하였는데, 비용은 전액을 한미재단에서 부담하였고 기숙사는 모두 침대로 6시 반 기상하여 밤 10시 반에 취침하였다. 교육과정은 4-H 과제 · 젓소 · 돼지 · 닭 · 토끼 사육하는 방법을 교육하였고 파수재배 · 식품 가공 · 재봉 · 새끼꼬기 · 계단식 개간 · 흙벽돌 만들기 · 견학 등이었다.

3. 1979년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의 해체 배경

1979년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이 해체된 배경에는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이 가장 큰 영향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칠레 · 콜롬비아 ·

필리핀·태국·북한보다도 더 가난했던 최빈국이었다. 그러나, 1977년 10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는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한국은 이제 자립경제가 가능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소사4-H훈련농장을 해체한 것으로 여겨진다.

4.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이 부천에 끼친 영향

-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이 부천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은 무엇보다도 젓소목장의 성행이었다. 특히 서재진 씨는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출신으로, 한미재단의 지원으로 호주에 유학을 갔다 와서 신상리(현, 상동)에 대규모 젓소농장을 경영하면서 부(富)를 축적하였다. 이외에도 소사동의 부천목장과 백성목장, 여월동의 양평목장, 상동의 삼능목장, 원미동의 서울목장, 춘의동의 에덴목장과 대성목장 등이,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설립 직후부터 1990년대까지 경영하였다. 이 목장들은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에서 축산 교육 및 송아지를 불하(拂下)받은 것을 밑바탕으로 하여 목장을 경영하면서 부(富)를 축적하게 되었다. 이렇듯 부천 관내에 국가기관이 있다 보니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진 것이다.

5.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사일로’가 경기도등록문화재 제6호로 지정

- 2018년 부천향토문화연구소 양경직 수석연구위원이 『마을 해설사 교본-소새마을 해설 한 권으로 끝내기』(2018.12)에 최초로 책에 발표.
- 2019년 9월 20일 양정숙 시의원이 양경직에게 자문을 받아 시정 질의를 통하여 수면 위로 급부상하는 계기가 되었고,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사일로’가 2021년 10월 27일 경기도등록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6.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을 보존하려는 노력

-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에는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물 사료 저장고인 ‘사일로’만 지정되었다. 이에 근·현대사에서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건물들이, 철거되는 것에 대단히 안타까워하는 여러분들이 나서서 보존하고자 노력 중이고 또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7.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이 근·현대사에서 가지는 역사적 의의

-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은 농촌의 근대화와 새마을운동의 주요한 역군(役軍)을 배출한 의미가 큰 단체였다. 부천에 국가기관으로 경기도농사시험장·경기도잡업시험장·소사연초시험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사라지고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만 그 터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 소사4-H훈련농장은 국가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건물들이다. 대통령이 나

서는 것도 모자란다. 전 국민이 나서서 보존해야 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막대한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다. 따라서 우리 부천만의 역사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세계 속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건물들이다. 모두 보존하여 세계적인 역사공원이 되기를 바란다.

- ① 238호 근린공원 명칭을 한미재단4-H역사공원으로 명명하기 바란다.
- ②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한미재단 건물 보존과 세계적인 역사공원으로 만들어, 후세에게 부천의 문화 먹거리로 남겨줄 필요가 있다.
- ③ K-새마을운동의 연수 코스 개발로 세계적인 농촌운동의 본거지로 만들기 바란다.

전후 농촌근대화의 선봉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계남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양정직

목 차

1.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은 어떤 곳인가?
2.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의 현재 건물 상황
3. 한미재단의 설립 배경과 사업 활동
4. 1963년,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의 설립 배경 및 사업 활동
5.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의 발굴 및 등록문화재 지정 과정
6.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을 보존하려는 노력
7.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이 근·현대사에서 가지는 역사적 의의

1.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은 어떤 곳인가?



사진 1-1) 소사본동 364-21번지 일대의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위성 사진이다.

다만 사진 하단의 1번 건물과 2번 건물은 238호 근린공원 지정 밖에 있다.

한미재단(韓美財團)은 1952년 08월, 미국 백악관에서 비영리 · 비정치 · 비종교 사



사진 1-2)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전경.

出典 - 『자유의벚』(1971년 6월호)

*자료제공 : 1978년 장기교육생 27기 이창호

설 단체로 발족 되었다. 곧이어 1953년부터 1979년까지 26년간 5천만 달러의 막대한 원조금으로 전쟁 중인 한국의 재건을 위해 보건 의료 · 도로 건설 · 주택 건설 · 식량 · 교육 · 4-H 클럽 등을 통해 한국을 원조했던 단체이다.

한미재단 하나만 놓고 본다면 하늘에서 대한민국에 똑! 떨어진 보물단지 같은 존재였다. 이후 한국은 한미재단의 원조를 밑거름으로 나날이 경제 및 문화 그리고 각 분야의 기술이 초고속으로 성장하여

이제는 한류문화(韓流文化), 곧 K-문화가 세계를 뒤덮을 정도가 되었다.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서 잘살고 보니 한미재단의 이야기가 마치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처럼 느껴지기는 한다. 어쨌든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이 여우고개(如牛峴) 원편 골짜기인 소사본동 364-2번지 일대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영어로 American Korean Foundation이라 쓰고 약자로 'AKF'로 쓴다. 모든 건물 벽마다 한미재단 표식이 새겨 있다.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은 1963년 11월에 부천군 소사읍 소사리에 설립하여, 이듬해인 1964년 02월부터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계단식 농법 및 영농교육을 하였고, 1965년부터는 전국 4-H 회원 중에서 선발된 교육생들에게, 교양교육(정신교육)과 농사교육(축산·과수·원예·전작)을 교육하였다.

당시 한국인 강사가 6명이 있었고 관리인과 가축 책임자 있었고, 훈련농장에서 침식하면서 1년간 교육을 받는 장기교육생 7명이 있었다. 산언덕에는 계단식으로 개간한 4,500평에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였고 복숭아 과수원과 채소밭, 목초 시험장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곳 교육생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농촌 계몽 및 근대화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곧 4-H 운동 및 새마을운동의 역군(役軍)을 길러내던 전진기지가 바로 소사4-H훈련농장이었다. 4-H는 아래 단어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다.

교양교육에서 받은 4-H 교육은 미국적 가치의 민주주의를 퍼트리는 씨앗이 되었는데, 이는 훗날 새마을운동의 모태가 되기도 한다. 새마을운동의 로고를 보면 4-H 운동의 로고와 색깔도 똑같고 지향하는 바도 비슷하다. 4-H 운동은 '지·덕·노·체' 네



Head(머리) : 지(知) - 명석한 머리(知育)
 Heart(마음) : 덕(德) - 성실한 마음(德育)
 Hand(손) : 노(勞) - 부지런한 손(枝育)
 Health(건강) : 체(體) - 튼튼한 몸(體育)

사진 1-3) 4-H 로고



사진 1-4) 여우고개(如牛峴)에 설치한
‘근면·자주·협동’의 새마을운동 로고

가치를 지향하는데,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주·협동’ 세 가치를 지향한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지면 관계상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을 위주로 기술하도록 하겠다



사진 1-5) ‘지·덕·노·체’의 4-H 로고.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입구에 설치한 부천시4-H연합회 안내판

2.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의 현재 건물 상황

- 본래는 건물이 더 있었는데 현재는 많이 헐린 상태이다.-



사진 2-1) 여우고개(如牛峴)의 한미재단 입구

사진 2-2)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본 교육관



사진 2-3)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본 교육관 1층 내 목욕탕

사진 2-4)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실습장. 다만 사진 속의 두 건물은 238호 근린공원 밖인 소사본동 364-4번지에 있다.



사진 2-5)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실습장

사진 2-6)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실습장



사진 2-7)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실습장



사진 2-8)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실습장



사진 2-9)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계단식 밭 흔적



사진 2-10)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계단식 밭 흔적



사진 2-11)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건물



사진 2-12)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건물



사진 2-13)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측사



사진 2-14)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실습장



사진 2-15) 경기도등록문화재 제6호 부천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사일로' 뒷면



사진 2-16) 경기도등록문화재 제6호 부천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사일로' 앞면



사진 2-17)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사일로' 앞의 경기도 등록문화재 제6호 지정 안내판



사진 2-18)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사일로' 벽에 새겨진 1964년 한미재단 표식



사진 2-19)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본 교육장 벽에 새겨진 1967년 한미재단 표식



사진 2-20)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실습장 벽에 새겨진 1968년 한미재단 표식



사진 2-21)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실습장 벽에 새겨진 1968년 한미재단 표식



사진 2-22)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실습장 벽에 새겨진 1968년 한미재단 표식

3. 한미재단의 설립 배경 및 사업 활동

1) 1952년 08월, 미국 백악관에서 설립

한미재단은 6.25 전쟁을 겪고 있는 한국의 재건을 돕기 위하여 1952년 당시 한국구제협회 홍보국장 팔머 베비스(Palmer Bevis)가 주도하여 1952년 5월 구상되었다...이후 1952년 7월 17일 당시 국무장관 덜레스는 한국에 대한 즉각적인 민간 원조를 장려하기 위해 한미재단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냈다.⁴⁹⁾ 그리고 당시 아이젠하워(1890-1969)의 권유로 1952년 8월, 백악관에서 비정치적 · 비영리적 · 비종교적으로 발족한 사설 원조 기관이다. 이에 아이젠하워는 회의실에 수많은 사회 인사를 초청한 자리에서 아래와 같이 호소하였다.

“지금 우리의 맹방(盟邦)인 한국은 공산주의의 마수에 의해 깊은 상처를 받았읍니다. 우리 전국민의 적극적이고도 헌신적인 참여로 한국의 실질적인 재건을 지원합시다.” 격하지 않으면서도 강한 그의 호소는 드디어 참석인의 마음을 움직였다. 우정의 사자(使者) 한미재단(韓美財團)이 탄생되는, 한국 속의 미국이 심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재단 발기인으로는故 양유찬 씨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 대통령의 주치의이며 의회 로비스트인 하워드 A 러스크 박사, 전 흰치대 총장 로렌드 R 디마코 박사, 변호사 에밀로저 씨 등 4명. 이들은 이 재단은 비정치, 비종교, 비영리 사업기관이며 한국이 국제사회의 훌륭한 일원이 되기 위해 보건 교육 농촌 근대화와 농업 개발을 돕고 양국의 우의를 돈독히 할 것을 결의했다. 첫 모금은 2백만 달러. 운영 기금은 미 국민은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하기로 했다. 모금 운동은 1953년 8월부터 시작했는데 미국 내 최대 여성단체인 재향군인회부인회와, 재외참전동지회부인회가 앞장을 섰다.”

出典 : 조선일보 1976년 8월 5일

이후 1952년 12월 15일 주립펜실베이니아대학교 총장인 밀튼·S· 아이젠하워를 한미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하였다.⁵⁰⁾ 그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동생이었다. 이듬해 1953년 2월부터 “한국 국민이 자유와 경제적 곤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필요한 간호원 교사 및 공업학교 및 시설 · 문학 및 서적 · 농구(農具) 등, 공업 기계 등이 시급한 원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다녔다.⁵¹⁾

곧이어 4월에는 한국에 5백만 달러 원조를 가결하고 모금에 들어갔다. 그는 이러

49) 出典 : 권영훈, 『1953-1955년 한미재단의 보건 의료부문 활동과 그 영향』(2017.6.20).

50) 出典 : 동아일보 1952년 12월 17일.

51) 出典 : 경향신문 1953년 02월 19일.

한 공로로 1956년 3월 1일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수여 받았다.⁵²⁾ 이렇듯 한미재단 총재 및 이사장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훈장을 수여 받았다.

2) 1953년 04월 13일, 한미재단에서 5천만 달러 원조 발표

“전재(戰災)로 피해를 한국의 부흥 원조 자금 조달을 위하여 설립을 본 한미재단에서는 지난달 10일 단장 러스크 박사를 비롯한 이사진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 실정 파악에 노력한 바 있는데, 4월 13일부로 김태선(金泰善) 서울시장에게 서한을 띄워, 동 재단 이사회에서는 한국 부흥원조금으로 우선 5,000만 달러를 조달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명랑한 소식을 보내왔다. 즉 지난 주일 최초로 열린 동 재단 이사회에서는 한국 전재(戰災) 부흥 원조 자금으로 5,000만 달러를 조달하기로 결정하였다. 금번 동 재단의 이사의 한 사람으로 前 미제8군사령관 뱀플리트 장군도 선출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동 재단의 한국방문 보고 조사에 의하여 뉴욕타임즈지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 한국전쟁으로 집을 잃고 방황하는 전재 한국인의 총수는 9백만 명으로 계상하였다.”

出典 : 경향신문 1953년 4월 28일

관련하여 아래 권영훈의 연세대학교 석사 논문인 『1953-1955년 한미재단의 보건 의료부문 활동과 그 영향』(2017.6.20)에 의하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500만 달러 원조를 목표로 한국 원조(援助) 주간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모금에 들어갔다. 아래에서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한미재단 지지로 인해 각계각층의 유력한 인사들이 한미재단의 이사진에 포진하게 되었다. 또한 한미재단은 전국 캠페인을 1953-54년간 매년 1회씩, 총 2회를 실시했고, 1953년 한미재단 캠페인 개막식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캠페인을 “강력하게 지지” 했다. 특히 1953년 6월 6일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 원조 주간”을 선포하였고, 6월 7일부터 6월 14일의 기간 동안 한미재단은 500백만 달러 모금을 목표로 했다. 대통령의 선포는 상원과 하원의 만장일치의 표결을 통해 “요청되고 승인” 되었다. 미국 모든 48개주의 주지사들과 많은 시장들의 유사한 선포가 잇달았다. 이에 따라 1953년 11월 12일자 한미재단의 캠페인 보고서에 따르면 캠페인은 1953년 5월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되었고, 총 금액액은 2,927,807달러였다.”

出典 : 권영훈, 『1953-1955년 한미재단의 보건 의료부문 활동과 그 영향』(2017.6.20)

3) 1953년 08월, 한국에 한미재단출장소 설치

52) 出典 : 경향신문 1953년 03월 03일.

1차 한미재단 사절단은 1953년 3월 11일에 방문하여 피폐한 우리의 참상을 잘 살피고 돌아가서 한국의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은 정상을 미국 국민들에게 호소하여 많은 이해와 동정을 구하고⁵³⁾, 1953년 8월 20일 2차 한미재단 사절단은 원조금 50만 달러를 가지고 와서, 86개 세부 종목을 하나하나 명시하고 8월 27일 한국을 떠났다. 명시한 곳에 반드시 돈을 쓰라는 것이었다.⁵⁴⁾ 그리고 한국에 출장소를 설치하고 이기붕 전 국방장관을 한미재단 초대 한국출장소 소장으로 임명하였다.⁵⁵⁾

4) 1963년,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설립⁵⁶⁾

5) 1990년, 한미재단 한국에서 철수



사진 3-1) 1959년 이승만 대통령 내외분 한미재단 부의장 Ronald R.De Marco박사 접견. 출처 : 국가기록원

다만 여기에서 다 다를 수는 없다. 석사 밑 박사 학위 논문으로 다를 정도로 역사성이 깊고도 폭이 넓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개략적으로 다루기로 하겠다. 한마디로 한미재단을 말하면 1953년부터 1979년까지 5천만 달러의 재정적 · 기술적 · 교육적 등 다양한 분야에 막대한 원조를 해주었다. 이로써 전후(戰後) 한국이 재건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 무엇보다도 1963년 부천군 소사읍 소사리에 설립한 소사4-H훈련농장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곧 4-H 클럽을 지원하면서 교양교육과 농사교육을 통하여 농촌을 근대화하는 기수(旗手)로 만들었다.

이들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초창기에 매우 중요한 인적

53) 出典 : 조선일보 1953년 08월 22일.

54) 出典 : 조선일보 1953년 08월 27일.

55) 出典 : 동아일보 1953년 09월 03일.

56) 이하 자료에서 상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

기반이 되었음이고, 또한 이곳에서 교육을 통하여 미국식 민주주의 전파자 역할을 자신들조차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였다. 이리하여 1970년대 초반, 전국에 4-H 클럽이 약 30만 개가 있었을 정도로 발전하였다. 대단한 성과라고 하겠다. 이하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사진을 통하여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그들을 어떻게 극진히 대접했는지 참고하기 바란다.



사진 3-2) 1956년 이승만 대통령 내외분 러스크 한미재단 이사장 부부 접견. 출처 : 국가기록원



사진 3-3) 1965년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 한미재단 주최 만찬 참석 내빈과 함께. 출처 : 국가기록원



사진 3-4) 1955년 이승만 대통령 한미재단 총재 크리스 렌베리 장군 일행. 출처 : 국가기록원



사진 3-5) 1953년 밴플리트(James Award Van Fleet) 장군 등 한미재단 사절단 환영식 출처 : 국가기록원



사진 3-5) 1953년 밴플리트(James Award Van Fleet) 장군 등 한미재단 사절단 환영식. 출처 : 국가기록원



사진 3-7) 1964년 박정희 대통령 한미재단 이사장에게 대한민국 국민장 수여. 출처 : 국가기록원



사진 3-8) 1964년 도로시M.프로스트 한미재단 사무총장 연희동 희망학원 개원식 참석 출처 : 국가기록원



사진 3-9) 1954년 한미재단 교통부에 차량 인수식 관계자 기념 촬영. 출처 : 국가기록원



사진 3-10) 1965년 박정희 대통령 한미재단 사무차장 접견 담화. 출처 : 국가기록원



사진 3-11) 1960년 한미재단 의약품 기증. 출처 : 국가기록원



사진 3-12) 1956년 한미재단서적 인수 후 관계자 기념 촬영, 출처 : 국가기록원



사진 3-13) 1956년 한미재단서적 인수 후 관계자 기념 촬영, 출처 : 국가기록원

4. 1963년, 한미재단소사4-H훈련농장의 설립 배경 및 사업 활동

1961년 시흥군 동면 신림리(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골짜기에 6,600㎡(1,996평)를 임대해 축산과 계단식 개간 및 단기 농사 훈련을 교육하는 한미재단 4-H훈련 시범농장을 개설하고 교육하였다.

이후 1963년 11월, 부천군 소사읍 소사리 산 36번지 일대 7만1300㎡(21,568평)의 대규모 면적에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을 확장하여 설립하였다. 엄격히 분류하자면 초창기 1953년부터 한미재단의 사업 활동은 말 그대로 다방면의 무상원조, 곧 고기를 잡아다 주었지만 1963년부터는 고기 잡는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한미재단에서 4-H구락부를 지원해주기 위해 설립한 단체가 바로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이다.

물론 이전에도 교육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4-H 클럽의 회원들에게 교양교육을 통하여 훌륭한 지도자를 양성하고, 농사 교육을 통하여 농촌을 근대화하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부천군 소사읍 소사리에 4-H훈련농장을 설립한 배경에는 경기도농촌진흥원(京畿道農村振興院)이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경기도농촌진흥원은 본래 명칭이 경기도농사시험장이었다. 곧 경기도농사시험장을 1938년 4월 1일 부천군 소사면 벌웅절리(현, 역곡동) 산 2번지로 이전하였다. 이후 1949년 1월 6일 경기도농사기술원(京畿道農事技術院)으로 개칭하였고, 1957년 2월 2일 경기도농사원(京畿道農事院)으로 개칭하였고, 1962년 4월 1일 경기도농촌진흥원(京畿道農村振興院)으로 개칭하였다가 1978년 11월 1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기산리 315번지로 이전하였다.

당시 경기도농촌진흥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농업과 관련한 벌씨 및 여러 곡식 종자를 연구하는 국가기관이었다. 그런 한편으로 4-H구락부 · 농사개량구락부 · 생활개선구락부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분야에 걸쳐 지도자를 육성하였는데, 이곳에서 교육받으려면 전국 시군의 면마다 1개소씩 있었던 농촌지도소의 추천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농촌지도소는 바로 농촌진흥원의 산하 기관이었는데,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역시 농촌지도소의 추천을 받은 4-H구락부 회원들을 상대로 교육하였다. 따라서 상호관계상 밀접한 경기도농촌진흥원이 3km 인근인 벌웅절리(역곡동)에 있어, 시설과 장비 등의 지원을 받기가 용이했기 때문에 소사리에 설립한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출신들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되지만,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인근의 경기도농촌진흥원까지 걸어가서 시설 및 장비를 이용했다고 한다.

관련해서 부천에서는 그동안 사진 한 장 달랑 있었을 뿐이다. 다만 『한미재단 4-H』(1969) 「韓美財團 4-H훈련농장 탐방기」에, 1963년부터 1969년까지의 기록이 비교적 자세하게 실려 있다. 『한미재단 4-H훈련교본』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훈련농장

을 직접 탐방하고 남긴 생생한 이 기록이야말로 금방울, 옥방울보다 더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당시 교육생들은 어떻게 생활했으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좋은 자료이다. 그러면 아래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다.

1) 「韓美財團 4-H훈련농장 탐방기」 57)

지면 관계상 전제할 수가 없어 간추려 보도록 하겠다. 1963년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을 설립하고 지도자 양성에 나섰다. 1964년에 2월부터 공무원 및 군인들에게 계단식 개간을 시범적으로 교육하였다. 이때 공무원 419명, 군인 50명이 교육을 받았다.

이후 1965년부터는 전국의 4-H 회원 중에서 선발하여 1968년까지 34회에 걸쳐 교육생 881명을 배출하였다. 1969년 당시 소사4-H훈련농장에는 찻소(홀스타인) 9마리 · 돼지(듀록 · 요크셔이어) 20마리 · 닭(레그혼) 1,500마리를 기르고 있었고, 장기교육생 7명이 있었다.

산언덕에 계단식으로 개간한 4,500평에는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되고 있으며, 복숭아 과수원 · 채소원 · 목초 시험장 · 축사가 여러 채 있었다. 교육생들은 3주간의 강의와 실습으로 단기 훈련을 실시하는데, 비용은 전액을 한미재단에서 부담하고 있다. 기숙사는 모두 침대로 6시 반 기상하여 밤 10시 반에 취침한다.

1969년 당시 훈련을 위한 과정은 공민 · 4-H 과제 · 토양 · 비료 · 우유 사육 · 양계 · 양돈 · 과수재배 · 식품 가공 · 재봉 · 새끼꼬기 · 계단식 개간 · 흙벽돌 만들기 · 견학 · 밤에는 영화 · 토의 등을 가지고, 휴식 시간에는 배구 · 탁구 등을 즐기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다.

2) 1967년, 국가기록원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사진

그동안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의 교육이 활성화되어 1966년부터 교육을 확장하고 1967년 교육관을 신축하였다. 아래 사진은 국가기록원에서 발췌한 1967년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입소식 사진이다.

57) 『한미재단 4-H』(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969) 「韓美財團 4-H훈련농장 탐방기」(이화여대 의예과장 김현규).



사진 4-1) 1967년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확장 및 교육생 입소식



사진 4-2) 1967년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확장 및 교육생 입소식



사진 4-3) 1967년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확장
및 교육생 입소식



사진 4-4) 1967년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확장
및 교육생 입소식

3) 『농촌청년 제2집』(1973)에 실린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⁵⁸⁾

사진 4-6) 『농촌청년 제2집』(1973) 표지.
한미재단4-H동문회 및 회원들을 위한 소식지로
한미재단4-H동문회에 발행한 책이다. 아래에서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과 관련한 내용만
발췌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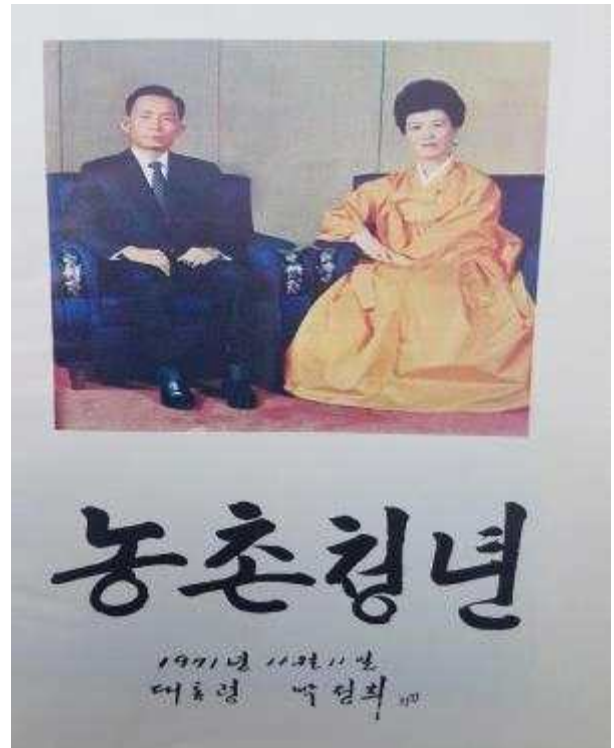


사진 4-7) 『농촌청년 제4집』(1973) 표지 박정희
대통령의 휘호이다. 대통령이 직접
한미재단4-H동문회에서 발간하는 책 표지의 휘호를
직접 써줄 정도로,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이로 보면 박 대통령은
이들을 새마을운동의 기수 역할을 많이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4) 『자유의 벼』(1971년 6월호)에 실린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⁵⁹⁾

사진 4-8) 소사의 4-H훈련농장에는 홀슈타인 젖소 16마리가 있어 1년간의 교육생들이 낙농을 배운다.

충북 보은군 마로면 세중리에 사는 이대봉(23) 씨의 이야기를 아래에서 간추려 신도록 하겠다.

이대봉 씨는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에서 4주일간 훈련을 받고 한미재단으로부터

58) 자료제공 : 現 한미재단4-H동문회 이창호 사무총장.

59) 자료제공 : 現 한미재단4-H동문회 이창호 사무총장.

송아지 한 마리를 받아 열 달 후에 59,000원으로 팔았다. 그 돈으로 26,000원 하는 송아지 두 마리를 샀다. 농촌 사람들에게 4-H 클럽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이대봉 씨의 말이다.

당시 6월 말까지 교육생은 근 1,600명에 달하였고, 교육생들의 연령은 대개 18~23세였다. 지도자 양성에 관한 교양 강의 이외에 계단식 밭둑 짓기 · 과수재배 및 과수원 관리 · 발농사 · 가축 등 농업의 대부분을 가르치며, 여자들에게는 요리 · 식품보존 · 재봉 · 생활 개선 등 가정과 과목을 가르친다. 이 훈련은 4월부터 11월까지 4주일간 실시된다.

이 밖에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1년 동안 강습을 받을 수 있다. 1969년에 시작된 이래 장기 훈련을 받은 사람은 12명이다. 이 1년간의 훈련에 있어서는 각각 2명으로 구성된 세팀이 양계 · 양돈 · 낙농에 관해 4개월씩 번갈아 교실에서의 강의와 실지 훈련을 받는다. 1년간의 장기 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자격은 4주일의 훈련을 받을 때와 같다.



사진 4-9) 가정과 실습에서는 영양 있고 균형 잡힌 음식 만드는 법도 가르친다.

소사농장에서 하는 모든 훈련의 비용은 한미재단에서 부담한다. 장기 훈련을 마친 젊은이들은 농장에서 일한 보수로서 36,500원을 받고, 사업에 대한 원조로서 30,000원을 받을 수 있다. 1966년 말부터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에서 훈련받은 회원이 있는 4-H 클럽에 대해 단체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단기교육생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있다. 이 모든 교육 훈련은 결국 4-H 클럽의 훌륭한 지도자를 양성하고 강력한 4-H 클럽을 만드는 데 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점은 소사4-H훈련농장에서 훈련받은 사람과, 장학금을 받은 사람을 일일이 방문하여 조언도 해주고 격려해준다고 있다는 점이다.

5) 1975년, 한미재단 마일즈 케이렌 부총재 소사4-H훈련농장 방문

한미재단 마일즈 케이렌 부총재 겸 사무총장은 당시 43세의 나이였다. 그는 한미재단의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부총재로 임명되자마자 6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곧바로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을 시찰하고는 아래와 같은 소감을 남겼다.

“참으로 감명 깊었습니다. 부천군 소사리에 있는 한미재단 4-H훈련농장을 가 보았더니, 매달 전국 각 시군에서 뽑혀온 40여 명의 청소년들이 열심히 농업 기술을 익히고 있더군요. 한미재단은 얼른 생각하면 일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시 그 청소년들에게 맞는 일을 개발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出典 : 동아일보 1975년 9월 22일

6) 『농촌청년 제4집』(1976)에 실린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⁶⁰⁾

한미재단4-H동문회 회장 정문철은 권두언으로 「새마을운동 실천에 시멘트 역할을 하자」 제하에 “우리 농촌 청년운동은 그 시멘트와 물의 역할을 하여 보자는데 그 목적과 의의를 가진 운동이다.” 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였다.

또한 한미재단 주한단장 캐롤비·하지스는 격려사에서

사진 4-10) 한미재단4-H훈련농장 전경. 경기도 소사읍 농장 전면 「새마을운동의 기수」 제하에 “여러분 향토에 대한 애착과 사랑 협력해서 일하겠다는 굳은 의지는 다른 아세아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커다란 성공을 가져올 것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농촌이나 도시 개발에 있어서 외국의 생산 기술을 단순히 모방만 하지 말고, 그것을 한국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는데 역점을 둘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의 말이 놀랍기만 하다. 마치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을 예언이라도 한듯하다. 그가 말한 대로 새마을운동도 성공하였고, 기술을 개발하여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없이 높였다.

60) 자료제공 이창호 : 現 한미재단4-H동문회 사무총장.

7) 『한미재단 4-H훈련교본』(1977) (한우·유우·목야지 조성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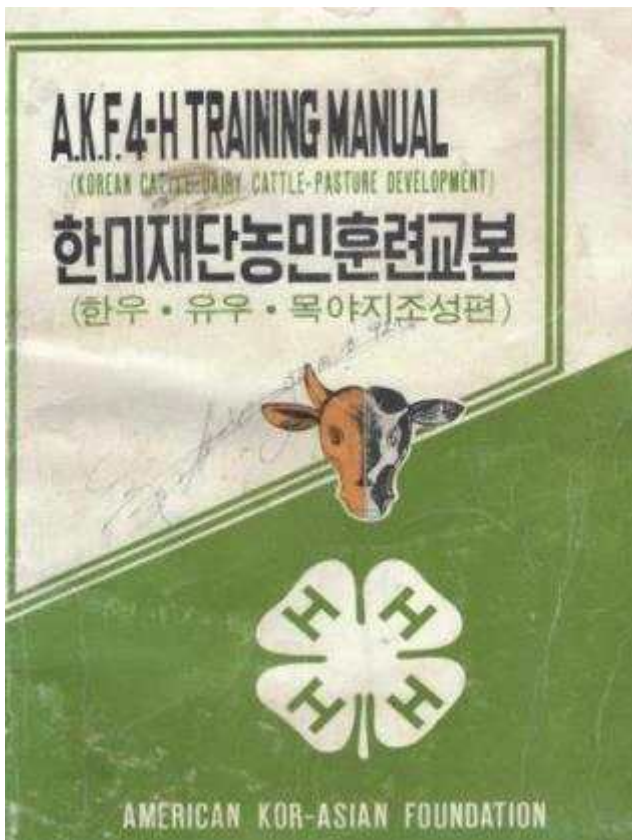


사진 4-11) 『한미재단 농민훈련교본』
(1977.2.1) 표지



사진4-12) 『한미재단 4-H훈련교본』에 실린
한미재단 주한단장 캐롤 비· 하지스의 글

이 책은 필자가 고서점에서 구입한 책으로 뒤표지에 ‘경북 김해군 이북면 장방리 최해식. 1978년 10월 18일 92기’ 라고 자필로 쓰여 있다. 아마도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에서 거의 막바지 교육생으로 보인다.

앞표지는 『한미재단 농민훈련교본』이지만 본래 제목은 『한미재단 4-H훈련교본』으로 초판본은 1970년 4월 1일이다. 첫장에 “이 교본은 농촌 청소년과 대한민국의 농촌 사회 발전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에게 바친다.” 고 쓰여 있다. 목차는 제1장 한우 사육 및 비육법편, 제2장 우유 사양편, 제3장 목야지 조성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8)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1978년 장기교육생 이창호 씨 제공 사진



사진 4-13) 1978년 5월 8일 제2회 한미재단 새마을 부락 간담회(소사4-H훈련농장)



사진 4-14) 뒷줄은 여자 교육생, 가운데줄 농업진흥청과 한미재단 관계자, 앞줄은 장기교육생



사진 4-15) 시흥군 포리새마을회관 준공식 기념



사진 4-16) 새마을 소득 사업교육 간담회 수료식(소사4-H훈련농장)



사진 4-17) 새마을부녀회 교육생 국기 상기식(소사4-H훈련농장)



사진 4-18) 소사4-H훈련농장에서. 좌측이 당시 장기교육생 이창호 씨이다.



사진 4-19) 소사4-H훈련농장 입구에서. 우측이 당시 장기교육생 이창호 씨이다.



사진 4-20) 1964년 8월 18일 소사4-H훈련농장 단기훈련 제11기 수료기념. 뒤쪽에 '한미합동 계단식 개간 전시 및 훈련소'라 쓰여 있다. 64년이면 공무원과 군인들을 상대로 교육하였다.



사진 4-21) 사진 제공자 이창호 씨의 1978년 10월 6일 한미재단 4-H훈련농장 수료증. 수료증 내용은 주소와 성명과 소속 4-H 명칭을 쓰고 그 아래에 "위에 적은 사람은 한미재단 4-H 소년 지도자 장기 제27기 소정의 훈련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에 본 증서를 수여함."이라 쓰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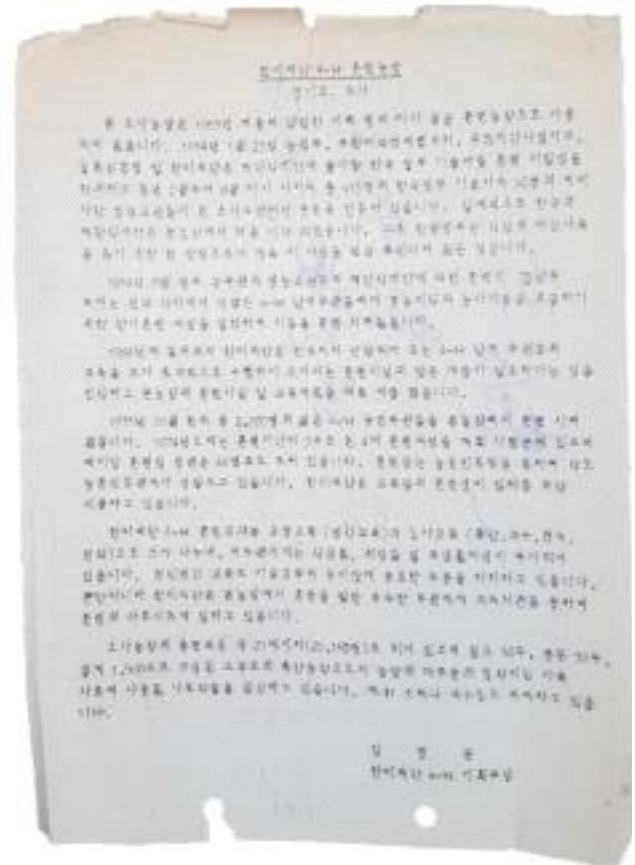


사진 4-22) 한미재단 4-H 기획부장 임경곤이 쓴 당시의 현황이다.

9) 1979년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의 해체 배경

1979년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이 해체된 이유는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이 가장 큰 영향이었다. 전후(戰後) 수출 1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데 서독은 11년이 걸렸고, 일본은 16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불과 7년 만에 달성하였다. 1953년 한미재단에서 원조를 시작할 즈음부터 1960년대까지 한국은 방글라데시 · 나이지리아 · 파키스탄 · 칠레 · 콜롬비아 · 필리핀 · 태국 · 북한보다도 더 가난했던 최빈국이었다.

곧 자립경제를 목표로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시작한 이후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 곧 경제개발의 신화가 일어난 것이다. 해방 후 혼란과 빈곤의 시대였던 1964년도 수출이 겨우 1억 달러였다. 이후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통해 1977년 10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는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한국은 이제 자립경제가 가능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한미재단은 소사4-H훈련농장을 해체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한국은 1980년대 첨단경제산업 육성으로 단군 이래 최대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 중진국 대열에 합류하자 한미재단은 1990년 한국에서 철수하였다.

10)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이 부천에 끼친 영향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이 부천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은 무엇보다도 젓소 목장의 성행이었다. 특히 서재진 씨는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출신으로 한미재단의 지원으로 호주에 5년간 유학을 갔다 와서 신상리(현, 상동)에 대규모 젓소농장을 경영하면서 부(富)를 축적하였다. 이외에도 소사동의 부천목장과 백성목장 · 여월동의 양평목장 · 상동의 삼능목장 · 원미동의 서울목장 · 춘의동의 에텐목장과 대성목장 등이,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설립 직후부터 1990년대까지 경영하였다.

이들 목장들은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에서 축산 교육 및 송아지를 불하(拂下) 받은 것을 밑바탕으로 하여 목장을 경영하면서 부(富)를 축적하게 되었다. 이렇듯 부천 관내에 국가기관이 있다 보니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진 것이다

5.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의 발굴 및 등록문화재 지정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사일로’가 경기도등록문화재 제6호로 지정된 과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일대는 이미 ‘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2017년 12월까지 1단계 토지 보상으로 105억 원이 집행되었고, 2021년 3월에는 공원 조성 계획 변경 및 실시 설계 용역 중이었고, 2022년 6월까지 실시 계획 고시 및 토지 보상, 시설비(공사비) 예산을 확보하고, 2023년 6월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다.⁶¹⁾

그런데 차에 2019년에 양정숙 시의원이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양경직 수석연구위원 (본인)에게 자문을 받아 ‘한미재단의 건물을 활용하여 역사적 가치 보존 및 관광명소로 조성하기를 바란다.’는 시정 질의를 통하여 수면 위로 급부상하였다.

이후 문화예술과에서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을 2021년 2월 등록문화재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21년 4월에 경기도등록문화재 심의위원들이 현지 조사를 하였고, 2021년 10월 27일 ‘사일로’가 경기도등록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었다. 이 시점인 2021년 10월 현재 238호 근린공원 부지 내, 토지 보상을 88% 정도 끝낸 상태였다.

그래서 극적이라고 말한 것이다. 계획대로 진행되었더라면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은 역사책 속에서나 만나게 되었을 것이다. 어쨌든 아래에서 발굴을 및 등록문화재 지정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2008년까지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의 부천 기록

(1) 최현수, 『부천사연구』(1992)

최현수는 “한미농원 자리(현, 한미재단 사육시험장) : 여우고개 좌측에 위치하고 있던 계단식 농법을 사용하던 농원이다.” 이라고 하였다. 이 기록이 아직까지 발견된 부천에서의 첫번째 기록이다.

(2) 최현수, 『부천의 어제와 오늘 사진집』(1998)

사진집에는 사진 두 장이 실려 있는데 ‘지금은 없어진 한미농원 : 계단식 농법으로 다수확을 꾀했었다’는 설명과 ‘여우고개 옆 한미농원 자리’라고만 설명이 붙어 있다.

(3) 한도훈, 『부천의 땅이름』(2001.12)

“한미농원 : 한미농원은 소사동 360번지 일대로 계단식 농업을 사용하였던 농장을 가리킨다. 계단식이란 산 중턱을 계단식으로 깎아서 농사를 짓는 것이다. 이곳에는 작은 골짜기가 있어 그 골짜기를 중심으로 계단식 농장을 만들었다. 현재는 한미재단 사육시험장으로 그 이름을 바꾼 농장이 있다.”

61) 2021년 10월 28일 부천시청 문화예술과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사일로’ 경기도등록문화재지정 보고서」.

(4) 백수현, 『부천시사』(2002.2)

한도훈의 『부천의 땅이름』(2001.12)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5) 2008년, 디지털부천문화대전

2008년 디지털부천문화대전 역시도 한도훈의 『부천의 땅이름』(2001.12)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약간 살만 붙였다. 이처럼 부천에서는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의 실체를 모르고 일반 농원처럼 그저 ‘한미농원’ 또는 ‘한미농장’ 정도로 불리고 있었다.

2) 2014년, 양경직이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을 최초 소개

부천에서는 상기처럼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2009년 본인(양경직)이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에 들어가고 나서 현장을 답사하고 나서야, 비로소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의 실체를 확인하였다.

다만 연구소 사업으로 2011년부터 범박동 및 역곡3동을 시작으로 연이어 마을지를 발행하느라,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을 책에 게재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다가 2014년 ‘소사본동 마을만들기기획단’에서 강의 요청이 왔다. 이때 비로소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을 외부에 알리기 시작하였다.

곧 2014년 11월 6일 소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부천향토문화연구소 양경직 수석연구위원이 소사동의 역사와 문화를 강의하면서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을 최초로 소개한 것이다. 필자에게 강의를 요청한 단체는 ‘소사본동 마을만들기기획단’이었다. 이 단체는 신승직 단장과 소사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권민혁 씨가 이끌었는데, 마을분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자 만든 단체로서 줄여서 ‘소마단’이라 부른다. 現, 소새마을기획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전신이다.

3) 2018년 11월 23일에 개관한 소새마을역사관에 상설 전시

2014년 이후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할 때마다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을 널리 알렸다. 다만 신문이나 잡지 등의 책에 게재한 적은 없었다. 그러다가 한미재단이 외부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2018년 11월 23일 소사본동 167-9번지에 부천 최초의 마을 역사관인 소새마을역사관의 개관이였다. 역사관에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사진과 아울러 자세한 내용을 상설 전시를 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은 1979년에 해체하였고, 동시에 한미재단4-H동문회도 해체되었다. 그런 만큼 한미재단 출신들을 만나기가 매우 어려웠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출신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은, 열 장 남짓의 사진을 보고 연락하여 사진 사용 허락을 받고 소새마을역사관에 상설 전시할 수 있었다.

개관 이후 ‘소마단’에서는 역사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은 ‘소마단’이 키운 자식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꾸준하게 홍보하였다. 마을에 이렇게 중요한 국기 기관이 있었던 줄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만큼 마을 분들의 자부심은 대단하였다.

2018년 소재마을역사관 개관 이후 언론 매체를 통해 외부로 알려지면서,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역시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소마단’이 2019년 9월 27일 경기도 도시재생 주민참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연이어 10월 25일에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주민참여 경진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하여 ‘대상’을 받은 이후, 소재마을역사관으로 단체 및 개인이 견학을 많이 오기 시작하였다.

이때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장기교육생 27기인 이창호 씨가 찾아왔다. 이후 이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친목 단체로 있던 한미재단4-H동문회가 재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4) 2018년, 양경직이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을 책에 최초 발표

부천향토문화연구소 양경직 수석연구위원이 『마을 해설사 교본-소재마을 해설 한 권으로 끝내기』(2018.12)에 「미래를 설계하던 한미재단 소사4-H 훈련농장」 제목으로 최초로 책에 발표하였다. 각종 문헌을 참고하여 상세한 내용과 소사4-H훈련농장 교육생의 사진을 실었다. 이 책에 부천에서는 한미재단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게재하였다.

이듬해 2019년 양정숙 부천시의회이 상기 책을 보고, 당시 부천향토문화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던 본인(양경직)을 찾아왔다. 이에 양 의원은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으로 시정 질의를 하고 싶다고 하여, 자료를 주었더니 아래와 같이 시정 질의하였다.

5)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에 관한 시정 질의

(1) 2019년 9월 20일, 양정숙 시의원 최초 질의

2019년 9월 20일 제2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⁶²⁾

이날 양정숙 시의원은 “1952년 한국의 재건을 위하여 미국에서 5000만 달러를 원조하여 설립한 비영리 원조 기관인 한미재단은 25년간 한국에 경제·농업·주택·보건 등을 지원하였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 238호 근린공원 조성 시 역사적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여 시민의 휴식기능은 물론 전국의 관광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설계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질의를 하였다. 이 질의를 통하여 수면 위로 급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2) 2019년 9월 30일, 양정숙 시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2019년 9월 30일 제2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⁶³⁾

62) 출처 :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63) 출처 :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공원부지 내에는 한미재단의 영농교육장, 곡물저장소, 축사, 사일로 등으로 쓰였던 기존 건축물 일부에 대해서는 소사지역의 역사성을 감안하여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시설에 한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휴게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공원조성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였다.

(3) 2020년 11월 27일, 양정숙 시의원 질의

2020년 11월,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⁶⁴⁾

일시 : 2020년 11월 27일 (금)

장소 :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이날 양정숙 의원은 “구호 활동으로 전후에 젊은이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던 곳인데, 그곳이 지금 묻혀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고요.” 라는 정도로 질의를 하였다.

6) 2021년 2월, 경기도등록문화재 지정신청서 제출

부천시청 문화예술과에서 경기도에 근대문화유산 등록지정 신청을 하였다.

7) 2021년 4월,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위원 3명이 현장 실사

2021년 4월,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위원 3명이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에 대하여 현장 실사를 나왔다. 당시 계남역사문화연구소 양경직 소장은 한미재단은 1952년 전쟁 중인 한국의 재건을 위해, 한국을 원조하기 위해 발족한 비영리 사설 단체로, 한국의 경제 발전에 밑거름 역할을 했고 특히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은 새마을운동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단체였다. 그런 만큼 한미재단은 부천만의 역사가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세계의 역사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부천시청 문화예술과와 공원조성과에서도 나왔는데 특히, 공원조성과에서는 부지가 이미 238호 근린공원으로 선정되어 공원 용역 설계도 끝났고, 건축물들이 불법이라고 하면서 극구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에 심의위원들은 공원조성과 담당에게 ‘우리의 소중한 근대역사 건축물이 불법이라고 해서 사라지게 두는 것은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문화재로 등록해 주면 나중에 부천시에서 후속 조치로 활용하면, 부천도 여러모로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오히려 반문을 했다.

8) 2021년 5월 20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제1차 등록문화재분과 회의록⁶⁵⁾

- 2021년도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제1차 등록문화재분과 회의록
- 회의일시 : 2021. 5. 20.(목), 14:00 ~ 20:20

64) 출처 :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65)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2021년 5월 20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제1차 등록문화재분과 회의에서 “한국전쟁 이후 전재복구와 농촌부흥, 농업개선 등에 이바지한 한미재단의 4-H 훈련장의 가축 사료 저장을 위하여 축조된 본 사일로는 전재 복구 역사의 산물임은 물론이며, 근·현대기 영농업 분야의 시설물로서도 흔치 않게 현존하고 있는 유구로서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됨.” 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가결하였다. 그리고 맨 밑에 권고 사항으로 “주변 부속건물 등에 대한 추가 등록신청 필요’를 권고함” 이라고 써넣었다. 이 말은 곧 나머지 건물도 추가로 등록문화재로 신청하면 지정을 해주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2021년 5월 28일, 등록문화재 예고를 공고하였다.

9) 2021년 10월,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제2차 등록문화재분과 회의록⁶⁶⁾

- 2021년도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등록문화재분과 회의록
- 회의일시 : 2021. 10. 21.(목), 14:00 ~ 17:50

2021년 10월 21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제2차 등록문화재분과 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내용은 1차 회의 내용과 동일하다. 그리고 10월 26일 부천시에 통보하였다.

10) 2021년 10월 27일, 경기도등록문화재 제6호로 ‘사일로’ 지정

2021년 10월 27일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사일로(silo)’가 경기도등록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었다. 심의위원 실사 당시 부천시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모든 건물이 등록되었을 것이다.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후로 만나는 사람마다 또는 강의할 때마다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의 역사성과 보존 대책을 모색하였다.

66)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6.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을 보존하려는 노력

1) 2021년 10월 21일,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전시회

‘한미재단 - 격동의 흔적-오래된 미래의 재건전’은 만화가 겸 글도 쓰는 엄효진 작가가 필자의 은근한 압박(?)으로 계획한 프로젝트이다. 필자가 엄효진 작가를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으로 안내하여 답사하면서 그 역사성의 실체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제 곧 238호 근린공원이 완공되면 사라질 것이라는 시급성을 알려주면서, 여러모로 생각 좀 해보라고 하였던니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전시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부천시청 앞 중앙공원에서 2021년 10월 21일~22일 이틀간 전시를 하면서,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을 소개하고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 한미재단과 관련한 사진을 전시하고 관련한 인물들과의 인터뷰를 방영하였고, 전시회에 장기교육생 27기인 이창호(1956) 씨와 37기생 이삼준(1950) 씨 그리고 47기생으로 前 한미재단4-H중앙회 박경원(1949) 조직부장이 찾아와서 격려해 주었다.

2) 2022년 07월 18일, 최의열 시의원 질의67)

제261회부천시의회(임시회)

일 시 : 2022년 7월 18일 (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최의열 의원은 “그런데 본인의 생각에는 ‘사일로’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건물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경기도문화재 심의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나머지 건물도 지정을 요청해 달라고 했던 의견 아닙니까?” 하면서 ‘사일로’ 외의 나머지 건물들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서 공원조성과 과장이 잘 알겠다고 답변하였다.

3) 2022년 07월 19일, 최의열 시의원 질의68)

제261회부천시의회(임시회)

일 시 : 2022년 7월 19일 (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이날 최의열 의원은 소사본동 동장에게 “한미재단이 우리 대한민국 근대화의 산실이니 ... 공원조성과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동장님께서 보존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소사본동장은 “건축물이 8개 남아 있는데요. 공원조성과와 적극 협업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67)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68)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4) 2022년 11월 29일 최옥순 시의원 질의⁶⁹⁾

일 시 : 2022년 11월 29일 (화)

장 소 :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 문화경제국(문화예술과 · 문화산업전략과 · 관광진흥과)

이날 최옥순 의원은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에 대해서 긴 시간을 통해 아주 꼼꼼하게 조사하여 질의를 하였다. 전 내용을 다 실었으면 좋는데 지면 관계상 간추리기로 하겠다.

“소사4-H훈련농장 같은 경우는 … 새마을운동의 근간이 된 장소이기도 한데요 … 그 이후에 한미재단이 문화재 등록이 일부 됐고요. 그런데 권고 사항에 부속 건물에 대한 추가 등록이, 신청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현존하는 건물을 다시 존재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나서 이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 이거는 역사적이고 훌륭한 자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후세에 남겨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 도시개발을 명분으로 문화재들이 지금 많이 멸실되고 파손되고 있습니다. … 경기도등록문화재에서 지정할 때도 주변에 있는 거를 점검하고 검토해서 다시 올리라고 했습니다?”

라고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의 역사성과 보존 대책을 명확하게 짚어가면서, 부천시장에게 보존 대책을 강력하게 질의를 하였다.

5) 2022년 12월 06일, 최옥순 시의원 질의⁷⁰⁾

제263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시 : 2022년 12월 6일 (화) 10시

이날 최옥순 시의원은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에 대해서 “238호 근린공원 조성 시 역사적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여 시민의 휴식 기능은 물론 전국의 관광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에 답변 바랍니다.” 이라고 재차 질의를 하면서 부천시장에게 답변을 바란다고 하였다.

○ 2022년 12월 06일, 최옥순 시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⁷¹⁾

2022년 12월 6일 제263회 본회에 최옥순 시의원이 질의에 대해서 “일반 건축물대장이 있는 나머지 2개동 중 기숙사로 사용되었던 건축물(현, 근린생활시설)은 존치시 기존 건물 소유자의 이촉권 관련 손실보상 문제가 예상되어 철거가 불가피하며, 건축물

69)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70)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71)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대장이 있는 나머지 건축물(축사·우사·계사) 1개동은 불법 증축건축물이나 관계법령 및 자료들을 추가 조사하여 경기도 등록문화재 등록신청을 하겠으며 향후 활용 방향 등에 대하여는 공원 조성과의 병행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을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및 정책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라고 답변을 하였다.

6) 2022년 12월 08일, 최옥순 시의원 질의⁷²⁾

제263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시 : 2022년 12월 8일 (목)

장소 :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최옥순 의원은 (재)부천문화재단대표 이사에게 “지금 삼양중기보다 한미재단이 역사가 더 깊고 오래된 건데 이거를 기증받았다고 해서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라는 정도로만 질의를 하였다.

○ 2022년 12월 20일, 최옥순 시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⁷³⁾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일시 : 2022년 12월 20일 (화) 10시

2022년 12월 8일 최옥순 시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문화경제국장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한미재단 4-H훈련농장 내 건축물은 총 10개 동으로 이 중 개인 사유지 또는 국유지 내 건축물 3개 동을 포함하여 7개 동은 건축대장이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입니다. 1개 동은 한미재단 해체 이후 2008년 건축 허가된 건축물로써 한미재단과는 무관한 건축물입니다. 문화재 등록신청 또는 활용을 위해서는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용도 지역 및 「건축법」 등 관계법령 저촉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현행 허가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나 해당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최근 강화된 건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바 양성화는 현실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반 건축물대장이 있는 나머지 2개 동 중 기숙사로 사용되었던 건축물은 존치 시 기존건물 소유자의 이촉권과 관련하여 손실보상 문제가 예상되어 철거는 불가피합니다. 건축물대장이 있는 나머지 건축물 1개 동은 불법 건축물이나 관계 법령 및 자료들을 추가 조사하여 경기도 등록문화재 등록신청을 하겠으며 향후 활용 방향 등에 대하여는 공원조성과 병행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및 정책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의 답변은 건축물이 불법이라 양성화는 현실적으로 불가할 것이라고 하면서 원론적인 답변뿐이었다.

72)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73)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7) 2023년 01월 11일, 최옥순 시의원 질의⁷⁴⁾

제2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일시 : 2023년 1월 11일 (수)

장소 :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이날 최옥순 의원은 문화예술과장에게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의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였다. 이에 문화예술과장은 “기존의 약간 불법 건축물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잘 다듬어서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한 후에 한미재단 4-H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록을 그곳에 기억의 공간이라는 그런 콘셉트로 시민들에게 한미재단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계획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라고 답변하였다.

8) 2023년 06월 01일, 최옥순 시의원 질의⁷⁵⁾

제268회 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일시 : 2023년 6월 1일 (목) 10시

이날 최옥순 의원은 문화예술과장에게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의 문화재 등록건에 대하여 “238호 근린공원 내에 이축권 및 불법 건축물 해결을 위해 시에서는 무슨 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 어떤 방안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답변 바람.” 이라고 질의를 하였다.

이상과 같이 부천시의회 최의열 · 최옥순 시의원이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의 역사성과 보존 및 활용대책을 지속적으로 질의하였다. 이 두분의 시의원이 아니었으면 은근슬쩍 공원 추진을 강행했을 것이다. 두 분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9) 2023년 06월 01일, 한미재단 4-H훈련농장 보존 의의와 발전 방안

일시 : 2023년 6월 1일 오후 4시

주최/주관 : 소재마을기획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신승직 및 이사 권민혁

발제 : 소재마을 향토역사 심포지엄

한미재단 4-H훈련농장 보존 의의와 발전방안

발제자 : 이상호 · 양경직

이날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사)더불어사는사람들 이창호 대표는 현재 재결성한 한미재단4-H동문화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아울러 그는 소사4-H훈련농장 장기교육생 27기로 1978년 11월까지 근 1년 가까이 교육을 받았던 교육생이었다.

따라서 이분의 생생한 경험담이야말로 귀담아들을 것이 많았고, 모든 건물들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창호 씨는 교육생 당시의 사진이며 교재 등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날도 이분을 통해 한미재단 소사4-H훈련

74)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75)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농장 출신인 1969년 36기 교육생인 김육진 · 1978년 교육생인 심연자 씨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사진 6-1) 좌로부터 계남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양경직, 한미재단4-H동문회 사무총장 이창호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계남역사문화연구소 양경직 소장은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은 부천 만의 역사가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세계의 역사임을 강조하면서, 보존하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이 건물들이 온전히 보존되지 못하고 사라지게 두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10) 2023년 11월 03일, 한미재단4-H역사공원추진위원회 결의

부천향토회 회장 이흥기

부천시의원 최옥순

한미재단4-H동문회 사무총장 이창호

계남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양경직

네 명이 2023년 11월 3일 한미재단4-H역사공원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차후 부천시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의 존재를 알리고, 국비 및 미국 정부의 비용까지 끌어낼 담대한 포부를 가지고 결의를 한 것이다. 향후 미국 정부 고위급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미재단4-H역사공원에 반드시 들렀다가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이자 목표였다.

11) 2023년 12월 08일, 한미재단4-H역사공원추진위원회 발족식

2023년 12월 8일 부천향토회 사무실에서 한미재단4-H역사공원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위원장에 부천향토회 이흥기 회장을 추대하여 선임하였다. 한미재단 4-H역사공원을 추진하려면 하루빨리 발족해서 분야별로 활동하기 위해 발족식 겸 창립총회를 가진 것이다.

7.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이 근·현대사에서 가지는 역사적 의의

‘향토사가 세계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 부천시에 이 말에 꼭 어울리는 국가기관이 있었다. 바로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이다. 이외에도 경기도농사시험장 · 경기도잡업시험장 · 소사연초시험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사라지고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도 이미 말했지만,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은 전국에서 선발된 4-H 회원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농촌의 근대화, 특히 새마을운동의 주요한 역군(役軍)으로서의 건인차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도 지금 K-새마을운동을 세계 74개국 개발도상국에 심어주고 있는데 그들에게 교육하는 게, 다 우리 부천의 소사4-H훈련농장에서 했던 것들이다. 곧 K-새마을운동의 본 교육의 생생한 역사 현장이 바로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이 되는 것이니, 우리가 한미재단 옛 건물과 부지를 잘 활용하면 세계 속의 역사공원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2021년 4월,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위원들이 현지실사 왔을 때, 당시 필자는 심의위원들에게 한미재단은 전후(戰後) 한국의 재건을 위해 1953년부터 1979년까지 5천만 달러를 원조한 비영리 사설 단체였다. 특히 이곳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은 새마을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고, 4-H 운동의 산실인 만큼 부천 만의 역사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세계 속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건물들이다.

따라서 모든 건물을 보존하여 세계적인 역사공원이 될 수 있도록 등록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시종일관 건축물이 불법이라고 대변하였다. 하여 필자는 한미재단 건축물들이 불법이라고 해서 철거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재차 역사성을 강조했다.

이에 심의위원들조차도 부천시 담당에게 우리의 소중한 근대역사 건축물이 불법이라고 해서 사라지게 두는 것은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문화재로 등록해주고 부천시에서 후속 조치로 활용하면, 부천도 여러모로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오히려 반문을 했었다. 아닌 게 아니라 2021년 10월 21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제2차 등록문화재분과 최종 예심 결과에도,

“도문화재로 등록하여 보호하도록 함. 다만 ‘주변 부속건물 등에 대한 추가 등록 신청 필요’를 권고함.”

이라고 계속하여 권고한다는 말을 특별히 명시했다. 이 말은 추가로 등록신청을 하면 지정을 해주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서 최옥순 시의원은 2022년 11월 29일 문화경제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현존하는 건물을 다시 존재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

고 나서 이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라고 했다. 이 말은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위원들도 했던 말이고 필자가 바라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당시의 건축물들이 썩은 듯 부신 듯 다 사라지고 나면 소용이 없다. 일단은 건축물들을 존속시켜놓아야 한다.

그렇다.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은 부천의 자산이자, 대한민국의 자산이고 세계의 자산이다. 곧 한미재단은 부천 미래의 문화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역사적인 건물이다. 이런 천혜의 문화 먹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다. 하여 부천시에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 ① 238호 근린공원 명칭을 한미재단4-H역사공원으로 명명하기 바란다.
- ②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한미재단 모든 건물을 보존하여 세계적인 역사공원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 ③ K-새마을운동의 연수 코스로 조성하기 바란다.

이렇게 하면 최근 50년 이래 부천에서 벌인 치적(治績) 중 가장 위대한 치적이 될 것이다. 문화특별시(文化特別市)를 지향했던 부천이다. 더욱이나 부천은 면적이 워낙 작아서 역사도 문화도 별로 없는데, 하늘이 내려준 이러한 자산을 내버릴 수는 없다. 참고로 필자는 238호 근린공원 명칭을 ‘한미재단4-H공원’ 으로 제안할 생각이었는데, 부천향토회 이흥기 회장께서 거기에 역사가 들어가면 의미가 확실하여 좋을 것 같다고 하여 ‘한미재단4-H역사공원’ 이라 하였다.

사실 지난 2023년 11월 3일 부천향토회 회장 이흥기·한미재단4-H동문회 사무총장이창호·부천시 시의원 최옥순 그리고 필자를 포함하여 네 명이 만나서 ‘한미재단4-H역사공원추진위원회’ 를 결성을 결의하고, 12월 8일 부천향토회 사무실에서 발기식 겸 창립총회를 거행하고 이흥기·이창호 씨를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다만 이날 명칭을 ‘한미재단4-H역사대공원’ 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부천시 ⇨ 대한민국 정부 ⇨ 미국 정부로 확대하여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미재단4-H역사공원에 반드시 들렀다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이자 목표이다.

관련하여 1969년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36기생인 김육진(1953) 씨는 “우리나라 농촌 근대화에서 큰 역할을 한, 농촌의 혁명이라고. 농촌의 혁명이거든. 이걸 갖다가 없는 것도 찾아서 국가에서 해야될 일을, 우리가 밑에서 하고 있다고. 이걸 우리가 할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서서 이걸 정말로 이 전통과 이 좋은 이런 관습들, 모든 것들을 다 우리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할 유산이라구. 이걸 대통령이 나서는 것도 모자라지. 온 국민이 다 나서야지.” 라고 하였다.

또한 1975년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71기생인 박철은(1957) 씨는 “새마을운동의 근간도 한미재단의 교육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되었다 치더라도 근간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아쉽다. 그런 점에서 본

다면 역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봐도 존치 여부 내지는 교육적 프로그램을 같이 수반하는 그런 개발 계획이 되어야겠다는 바램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렇다. 문화(文化)는 동사(動詞)다. 역사는 지우는 게 아니다. 활용하는 것이다. 안동의 하회탈놀이는 지금 안동의 알뜰살뜰한 효자 문화 먹거리가 되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회탈놀이는 안동 별신굿 중에 하나의 탈놀이에 불과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심심하니까 자기네들이 대대로 전해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를 재미나게 꾸미다 보니 어느새 국가무형문화재가 되었고 이제는 세계적인 탈놀이가 되었다.

거기에 비하면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은 이미 말속에 한국·미국·새마을운동·4-H 운동 그리고 세계가 들어가 있다. 필자는 가끔씩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을 조금만 더 늦게 발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러나 다행히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이제는 부천시 당국에서도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가로 등록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다시 또 말하지만 등록문화재 지정 권고 사항에도 “주변 부속건물 등에 대한 추가 등록신청 필요를 권고함.” 이라고 명시를 해놓았다. 참고해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추진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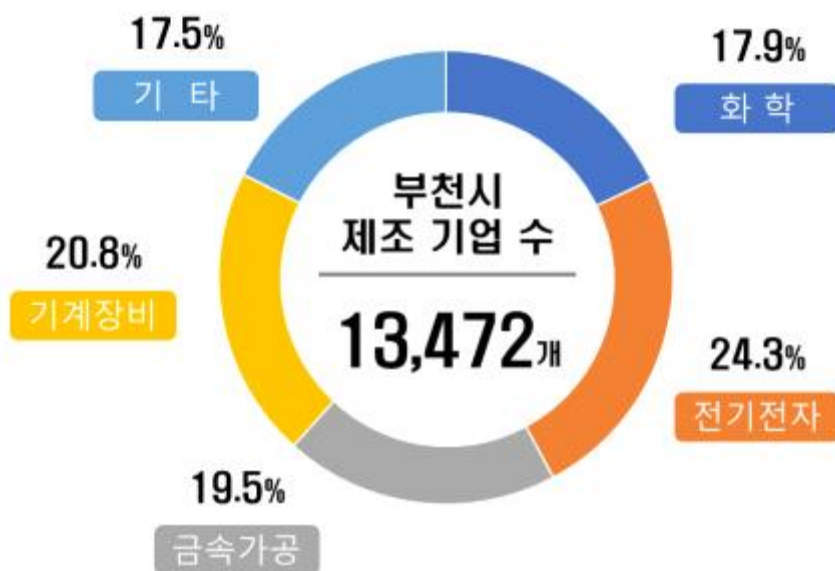
다만 소사본동 364-4번지에 있는 두 개의 건물 역시도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실습장인데 이번 238호 근린공원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관계 당국은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철거될 경우 모든 건물마다 한미재단 표식이 새겨 있으니, 표식만이라도 별도로 떼어내서 보존하기를 바란다.

Ⅶ. 결론(정책 제안)

1. 부천 산업 생태계에 미친 영향

□ 현재 부천의 산업 구조 형성의 선구자

- 전통적인 농업 중심 사회에서 근현대 공업 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
- 근현대 산업의 태동기에 분야별 선두기업으로서 지역 내 협력기업 및 전·후방 기업군 형성 등 부천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
- 오늘날의 전기·전자, 금속·기계, 화학 분야 중심의 부천시 주력 산업 구조 형성



부천시 제조기업 현황(2020)

- 삼성반도체 : 전기·전자, 반도체 분야 생태계 조성에 영향
- 유한양행 : 화학, 의약품, 화장품, 분야 생태계 조성에 영향
- 삼양중기 : 기계, 장비, 금속, 금형 분야 생태계 조성에 영향

□ 사업 영위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 창출 및 지역 내 배분

-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지역사회나 국가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 영위 과정에서 시설투자, 원재료 및 부품 구입, 인건비, 세금, 사회 공헌 비용 등 활동으로 지역 내 경제적 가치 낙수효과 창출
- 기업의 직접적인 생산과 고용효과뿐만 아니라 협력기업의 생산과 고용의 확대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 내 인구 증가 및 인프라 확충 등으로 도시 성장에 기여
- 기업 성장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이를 위해 지역 내 교육 및 공익사업 등의 추진으로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지속

2. 근현대 기업의 타 지역 진출 요인과 대책

□ 유한양행

- 유한양행 소사공장 건립
 - 1926년 유한양행 창설(자본금 50만 달러, 종로 2가 덕원빌딩)
 - 1936년 경기도 부천군 소사면 심곡리 25번지에 한국 최초 근대적 제약공장인 소사공장 준공(제조판매)
 - * 민족자본과 기술을 통한 제약 제품 생산을 위해 제약업체 전환을 시도(1935), 대량의 제약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부지와 시설구축을 위해 소사공장 건설
- 유한양행 연구동 - 소사회망원(1967) - 펄벅기념관으로 당사 연구소 건물 활용(현재 펄벅기념관 존치)
- 1967년 초자 공장 시설매도, 시설 낙후로(33년 공장으로 사용) 1969년 공장 신사옥인 대방동으로 이전
 - * 1950년대 한국전쟁 재건기를 거쳐 60년대 비약적인 제약업계의 성장을 타고 사세를 확장시키고 사업 분야를 다각화하기 위해 본사를 이전(추정)
 - * 제약회사 특성상 약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물이 필요한데 당시 심곡동 일대는 용수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용수확보를 위해 본사를 이전(추정)
- (대책)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기 위한 물리적 인프라 개선 등 지자체 관심 필요
 - 기업 성장을 위한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며 도로, 용수 등 산업 인프라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개선이 필요

□ 삼성반도체

- 한국반도체 - 삼성반도체 - 페어차일드 - 온세미코리아에 이르기까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유지
- 한국반도체(주)가 부천에 설립된 이유는 당시 한국 측 동업자인 켐코(KEMCO)의 김규한 사장이 미국에 있던 강기동 박사의 조건을 받아들여 서울에서 가까운 부천에 부지를 준비했으며, 강기동 박사가 현장(도당동)을 방문하여 확인 후 설립
 - * (주)한국반도체는 국내 최초로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가공을 목적으로 1974년 사업을 시작했지만, 제1차 오일쇼크의 여파로 공장 시설도 완벽하게 준공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삼성반도체에 매각
 - * 1999년 외환위기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상황에서 삼성은 당시 기흥공장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집중하면서 비메모리 분야인 부천공장을 페어차일드에 매각

* 부천 페어차일드 반도체공장은 2016년 다시 온세미코리아에 인수

○ 삼성반도체의 매각

(외적 요인) IMF 이후 외환위기에 따른 대기업의 구조조정 - 외국계 기업에 매각 정책
(내적 요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 사업 확장으로 반도체 제조의 필요한 용수와 공간의 부족으로 기흥, 용인, 평택 등으로 기반 시설 확장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집중, 부천은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집중

○ (대책) 한국반도체에서 온세미코리아에 이르는 반도체 산업의 부천지역 특성화 유지 및 차별화 필요

- 반도체 도시 브랜드를 살려 IoT, AI, 로봇 등 반도체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필요
- 온세미코리아가 주도하는 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산업 활성화 및 특화지원을 위한 산업 생태계 정책 수립 필요(부천지역 중심 정책)

□ 삼양중기

○ 이천중기(1973) - 삼양중기(1979) - 삼양엔텍(2009) - 삼양홀딩스 부천사업소(2014)
- 중기분야 사업 폐업(2023)

* 재일교포 설립자가 일본과 인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기계 주물과 제지기계, 롤러 생산 등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이천중기(주) 설립

* 재정경영의 어려움으로 소비재 주력 회사인 삼양사에 인수되며 삼양중기로 변경

* 1980년대의 호황과 1990년대의 제지기계 기술로 인해 흑자 경영을 누릴 수 있었으나 신규 수요 감소 및 IMF와 한국의 중공업 쇠퇴 등으로 쇠퇴

○ 삼양홀딩스 부천사업소 부지 매각 이유

- (내적 요인) 제지기계 기술의 신규 수요 감소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조 설비기계 분야의 사업성 부진으로 삼양사 그룹 차원의 폐업
- (외적 요인) 소사공업단지 주변의 주거지 확대에 따른 굴뚝 산업의 환경문제 민원 증가

○ (대책) 굴뚝 산업이 아닌, 오정(금형)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디지털 금형, 첨단기계, 로봇 산업 등 전략적 육성

- 기계, 금속 분야 뿌리산업 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 고도화 지원 및 사업구조의 다각화 지원
- 기계, 금속 관련 중소기업의 이탈 방지를 위한 구도심 공업지역 공간구조 개편 등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 필요

□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 1952(미) 한미재단 발족→1953년 8월 50만 달러 원조, 한미재단 출장소 설치→1963년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설치→1979년 해체
- * 한미재단은 당시 경기도농업진흥원(역곡동)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 받기가 용이한 소사리에 소사4-H훈련농장을 설치
- 한미재단 및 훈련농장 해체 이유
 - 한국전쟁의 재건이 완료되고 농업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정책이 전환됨에 따른 농업 기반 소사4-H훈련농장 해체(1979)
 - 1990년 한국의 후진국 탈피 개도국 진입으로 원조 필요성 소멸로 한미재단 철수
- (대체)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부지 238호 근린공원(예정지)의 미래 농업 및 생태환경 관련 활용 방안 모색
 -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은 농촌의 근대화와 새마을운동의 주요한 역군(役軍)을 배출한 의미가 큰 기업으로 역사적 가치 활용
 - K-새마을운동의 연수 코스 개발로 세계적인 농촌운동의 본거지 의미 부여 등

3. 근현대 기업의 역사 문화적 활용

□ 소사권 기업의 근대역사 문화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 유한양행 소사공장(현존 펄벅기념관) - 한미재단 4-H훈련농장을 연결한 문화관광코스
 - 펄벅기념관에 유한양행 소사공장 특별관(상설 운영)
 - 소재마을 역사관에 한미재단 훈련 농장 특별전 연계
 - 훈련농장 사일로 및 훈련시설 활용 - 농업 및 가축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훈련시설 공간 활용 - ‘라키비움(도서관·박물관·기록관)’ 설립 추진
 - 부천 시티투어 프로그램에 근현대 산업기관 체험 추가
- 삼양홀딩스 기증 산업 관련 자료 활용
 - 삼양중기 기증 유산(도면·목형 등) 활용 전시 시설 설치(한미재단 훈련농장 공간)
 - 삼양중기 부지 내 설치 예정인 주거단지(아파트)의 공원 등에 삼양중기 아카이브 센터 설립 추진

□ 반도체 관련 활용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 1974년 한국반도체 설립 이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50주년” 기념 사업 추진
 - 부천시 주도 반도체 기업, 중앙부처 연계 (붙임)
- 강기동 박사 및 한국반도체 관련 콘텐츠 개발 및 활용
 - 부천을 빛낸 인물로 지정, 영상 및 애니메이션 등 제작
 - 부천중앙공원에 강기동 박사 동상 건립
 - 부천시장과 강기동 박사 면담 추진(2023.12월 중)
- 반도체 관련 체험 및 학습 가능한 콘텐츠 개발
 - 부천시 관내 초등학교 교재에 부천의 산업과 인물 관련 소재 수록
 - 국립반도체과학관 건립 유치
 - 가상 체험 공간을 부천시립박물관에 별도 공간 지정

(붙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50주년 기념행사(안)

-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발상지인 부천에서 반도체 산업이 시작된 5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 개최로
- 한국반도체 - 삼성반도체(삼성전자) - 페어차일드코리아 - 온세미컨덕터로 이어지는 한국 반도체 기술의 산실인 부천을 널리 알리고 그 의미를 되짚어 봄

□ 행사 개요

- 주 최 : 부천시, 온세미컨덕터
- 주 관 : 부천산업진흥원, 부천문화재단(공동 혹은 단독)
- 후 원 :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 참여기업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 국내 반도체 기업
- 일 시 : 2024년 10월 4일(50년 전 한국반도체 부천공장 준공일)
- 장 소 : 온세미컨덕터 부천공장(기념식), 부천대학교(컨퍼런스)
- 예 산 : 5,000만 원 ~ 1억 원(행사 규모에 따라 변동)

□ 행사 내용

① 50주년 기념식

- 장 소 : 온세미컨덕터 부천공장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강기동 박사(한국반도체 설립자) 반도체 기업대표 등 참석
- 내 용 : 50주년 기념행사 및 한국반도체 100년 비전 선포식 등

② 50주년 학술 컨퍼런스

- 장 소 : 부천대학교
- 참석자 : 강기동 박사 외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 등
- 내 용 : 한국반도체 산업 역사, 세계시장에서 한국 반도체 기술의 위상, 부천 반도체 산업의 발전 방향 등

4. 근현대 산업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

□ 부천 역사에 대한 정체성 정립, 근현대 산업사의 브랜드 가치 활용

- 근현대 산업의 태동기에 국가산업을 선도했던 부천기업에 대한 역사적 정체성 정립으로 지역에 대한 자긍심 제고
 - 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역자산 발굴 및 지역자산이 지닌 역사적 의미 연구
 - 다양한 매체 연계(방송, 신문, SNS 등)를 통한 근현대 산업사 브랜드 홍보
 - 도시의 역사를 시민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 또는 디지털 체험 공간(VR, 메타버스 등) 조성
- 부천시정에 근현대 산업사의 정체성 반영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부서별 검토 필요)
 - 시민 스스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형성시키는 계기 마련 및 도시발전을 위한 참여 의지 제고

□ 부천 근현대 산업사에서 연구 대상 이외 기업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관한 후속 연구 필요

- 정부 또는 경기도 지원사업 유치 및 근현대 기업 추가 조사를 위한 정책적 지원 (담당 부서 지정 등)
- 향후 부천 지리, 부천산업, 부천문화, 부천역사 등 다학제적 관점에서 연구 필요
 - 근현대 기업이 가진 역사 문화와 감성, 지식 등의 유·무형 자산 확보

□ 부천을 떠나거나 소멸되는 기업의 사례 조사 및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역사 문화 관리 조례 필요

- 부천에서 사라지는 기업의 원인 분석 및 부천시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
- 기업이 보유한 역사적 콘텐츠 확보 및 시민보유 자료 수집을 통해 부천의 아카이브 구축

5. 부천 근현대기업 브랜드 활용

□ 대한민국 근현대 산업의 태동기에 국가산업을 선도했던 부천기업의 역사적 정체성을 부천시 브랜드로 활용

- 차별화된 그 도시만의 역사·사회·문화적 특징과 연관될 때 도시 브랜드가 강해지며, 특히 역사적 정체성 가질수록 세계적으로 명성을 갖는 도시가 될 수 있음
- 의료·기계·전자·농업 분야 선도기업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산업도시뿐만 아니라 영화·만화 등 문화적 다양성을 보유한 도시의 브랜드 활용 필요

【 근현대 기업의 역사적 정체성 】

 <p>“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민족 기업” 유 한 양 행</p>	 <p>“한국 기계산업의 근간” 삼양중기(삼양홀딩스)</p>
 <p>“한국 반도체 산업의 요람” 삼성반도체(온세미컨덕터)</p>	 <p>“전후(戰後) 농촌근대화의 선봉”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p>

부록 1. 조사연구 수집자료

수집자료 목록					
번호	기호	자료명	유형분류	제작연도	형식
1	유-001	유한양행 소사공장 건립 기념	사진	1936년	jpg
2	유-002	유한양행 소사공장 건립 기념 운동회	사진	1943년	jpg
3	유-003	고려공과기술학교 소사 교사	사진	1952년	jpg
4	유-004	유한양행 소사공장 원료창고	사진	1960년대	jpg
5	유-005	유한양행 소사공장 제품 검수 및 포장	사진	1960년대	jpg
6	유-006	유한양행 소사공장 제품 검수 및 포장	사진	1960년대	jpg
7	유-007	유한양행 소사공장 제품 검수 및 포장	사진	1960년대	jpg
8	유-008	유한양행 소사공장 직원 기념	사진	1960년대	jpg
9	유-009	유한양행 소사공장 식당 내부	사진	1960년대	jpg
10	유-010	유한양행 소사공장 식당 내부	사진	1960년대	jpg
11	유-011	유한양행 소사공장 식당 내부	사진	1960년대	jpg
12	유-012	유한양행 소사공장 실내 조희	사진	1960년대	jpg
13	유-013	유한양행 소사공장 실내 조희	사진	1960년대	jpg
14	유-014	유한양행 소사공장 제품 검수 및 포장	사진	1960년대	jpg
15	유-015	유한양행 소사공장 제품 검수 및 포장	사진	1960년대	jpg
16	유-016	유한양행 소사공장 전경	사진	1960년대	jpg
17	유-017	유한양행 소사공장 제1생산과 건물	사진	1960년대	jpg
18	유-018	유한양행 소사공장 제1생산과 및 제2생산과 건물	사진	1960년대	jpg
19	유-019	유한양행 소사공장 제1생산과 및 제2생산과 건물	사진	1960년대	jpg
20	유-020	유한양행 소사공장 제1생산과 건물	사진	1960년대	jpg
21	유-021	유한양행 소사공장 제1생산과 및 제2생산과 건물	사진	1960년대	jpg
22	유-022	유한양행 소사공장 초자공장	사진	1960년대	jpg
23	유-023	유한양행 소사공장 연구실험실	사진	1960년대	jpg
24	유-024	유한양행 소사공장 연구실험실	사진	1960년대	jpg
25	유-025	유한양행 소사공장 연구실험실	사진	1960년대	jpg
26	유-026	유한양행 소사공장 연구실험실	사진	1960년대	jpg
27	유-027	유한양행 소사공장 연구실험실	사진	1960년대	jpg
28	유-028	유한양행 소사공장 연구실험실	사진	1960년대	jpg
29	유-029	유한양행 소사공장 연구실험실	사진	1960년대	jpg
30	유-030	유한양행 소사공장 연구실험실	사진	1960년대	jpg
31	유-031	유한양행 소사공장 연구실험실	사진	1960년대	jpg
32	유-032	유한양행 소사공장 전경	사진	1960년대	jpg
33	유-033	유한양행 소사공장 전경	사진	1960년대	jpg
34	유-034	유한양행 소사공장 전경	사진	1960년대	jpg
35	유-035	유한양행 소사공장 제1생산과 및 제2생산과 건물	사진	1960년대	jpg
36	유-036	유한양행 소사공장 연구진	사진	1960년대	jpg
37	유-037	유한양행 소사공장 연구진	사진	1960년대	jpg
38	유-038	유한양행 소사공장 연구진	사진	1960년대	jpg
39	유-039	유한양행 소사공장 연구진	사진	1960년대	jpg
40	유-040	유한양행 소사공장 연구진	사진	1960년대	jpg
41	유-041	유한양행 소사공장 생산 장비	사진	1960년대	jpg
42	유-042	유한양행 소사공장 제품 검수 및 포장	사진	1960년대	jpg
43	유-043	유한양행 소사공장 연구진	사진	1960년대	jpg

44	유-044	유한양행 소사공장 연구진	사진	1960년대	jpg
45	유-045	유한양행 소사공장 연구진	사진	1960년대	jpg
46	유-046	유한양행 소사공장 제품 생산	사진	1960년대	jpg
47	유-047	유한양행 소사공장 제1생산과 건물	사진	1960년대	jpg
48	유-048	유한양행 소사공장 제품 실험	사진	1960년대	jpg
49	유-049	유한양행 소사공장 제품 생산	사진	1960년대	jpg
50	유-050	유한양행 소사공장 제품 실험	사진	1960년대	jpg
51	유-051	유한양행 소사공장 제품 실험	사진	1960년대	jpg
52	유-052	유한양행 소사공장 제품 검수 및 포장	사진	1960년대	jpg
53	유-053	유한양행 소사공장 제품 생산	사진	1960년대	jpg
54	유-054	유한양행 소사공장 제품 검수 및 포장	사진	1960년대	jpg
55	유-055	유한양행 소사공장 제품 검수 및 포장	사진	1960년대	jpg
56	유-056	유한양행 소사공장 초자공장	사진	1960년대	jpg
57	유-057	유한양행 소사공장 제품 생산	사진	1960년대	jpg
58	유-058	유한양행 소사공장 제품 포장	사진	1960년대	jpg
59	유-059	유한양행 소사공장 생산 장비	사진	1960년대	jpg
60	유-060	유한양행 소사공장 연구실험실	사진	1960년대	jpg
61	유-061	유한양행 소사공장 버드나무	사진	1960년대	jpg
62	유-062	유일한 박사와 펄벅 여사 간 서신 전시물 (부천시립박물관 특별전)	사진	2023년	jpg
63	유-063	유일한 박사와 펄벅 여사 간 서신 전시물 (부천시립박물관 특별전)	사진	2023년	jpg
64	유-064	유일한 박사와 펄벅 여사 간 서신 전시 설명문 (부천시립박물관 특별전)	사진	2023년	jpg
65	유-065	유한양행 신문 광고	사진	1927년	jpg
66	유-066	유한양행 신문 광고	사진	1927년	jpg
67	유-067	유한양행 신문 광고	사진	1927년	jpg
68	유-068	유한양행 신문 광고	사진	1931년	jpg
69	유-069	유한양행 제품 신문 광고	사진	1936년	jpg
70	유-070	유한양행 제품 신문 광고	사진	1937년	jpg
71	유-071	유한양행 제품 신문 광고	사진	1948년	jpg
72	유-072	유한양행 제품 신문 광고	사진	1949년	jpg
73	유-073	유한 부속 실비의원 신문 광고	사진	1949년	jpg
74	유-074	유한양행 제품 신문 광고	사진	1959년	jpg
75	유-075	유한양행 상징 관련 신문 기사	사진	1966년	jpg
76	유-076	펄벅 여사	사진	1967년	jpg
77	유-077	유한양행 제품 신문 광고	사진	1967년	jpg
78	유-078	유일한 박사 글	사진	1968년	jpg
79	유-079	유한양행 생산 장비	사진	1969년	jpg
80	유-080	기회센터 혼혈아 시위	사진	1969년	jpg
81	유-081	유한양행 생산 장비	사진	1970년	jpg
82	유-082	유한양행 조권순 사장	사진	1970년	jpg
83	유-083	유한양행 수출 관련 신문 광고	사진	1970년	jpg
84	유-084	유일한 박사 부부	사진	1971년	jpg
85	유-085	유한양행 소사공장 건립 기념	사진	1973년	jpg
86	유-086	유한연구실 내 연구	사진	1974년	jpg

87	유-087	유한양행 생산 장비	사진	1977년	jpg
88	유-088	유일한 박사 딸 유재라 여사	사진	1978년	jpg
89	유-089	유한양행 본사 전경	사진	1980년	jpg
90	유-090	유한양행 원료 발효 시험기	사진	1981년	jpg
91	유-091	유한양행 중앙연구소 준공	사진	1984년	jpg
92	유-092	유한재단 장학금 수여	사진	1989년	jpg
93	유-093	고등학교 미식축구선수로 활동한 유일한 박사	사진	1991년	jpg
94	유-094	유일한 박사와 딸 유재라 여사	사진	1991년	jpg
95	유-095	유일한 박사와 조권순 사장	사진	1992년	jpg
96	유-096	유한양행 연구소 내 연구	사진	1992년	jpg
97	유-097	유한양행 안티푸라민	사진	1993년	jpg
98	유-098	유한양행 안티푸라민	사진	1994년	jpg
99	유-099	유일한 박사 탄생 백주년 기념식	사진	1995년	jpg
100	유-100	유한양행 일본 회사와 계약 기념	사진	1995년	jpg
101	유-101	유일한 기념관 개관 및 사옥 준공식	사진	1997년	jpg
102	유-102	유한양행 산소표백제	사진	1997년	jpg
103	유-103	유한양행 중앙연구소 연구원	사진	1998년	jpg
104	유-104	유일한 박사 표지석 제막식	사진	1999년	jpg
105	유-105	유한양행 소사공장 근무자 인터뷰	사진	2023년	jpg
106	유-106	유한양행 소사공장 근무자 인터뷰	사진	2023년	jpg
107	삼-001	이천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0년	jpg
108	삼-002	이천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0년	jpg
109	삼-003	이천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0년	jpg
110	삼-004	이천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0년	jpg
111	삼-005	이천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0년	jpg
112	삼-006	이천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0년	jpg
113	삼-007	이천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0년	jpg
114	삼-008	이천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0년	jpg
115	삼-009	이천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0년	jpg
116	삼-010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5년	jpg
117	삼-011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5년	jpg
118	삼-012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기계	사진	1985년	jpg
119	삼-013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5년	jpg
120	삼-014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기계	사진	1985년	jpg
121	삼-015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5년	jpg
122	삼-016	삼양중기 부천공장 실험실 내부	사진	1985년	jpg
123	삼-017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도면 작업	사진	1985년	jpg
124	삼-018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5년	jpg
125	삼-019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5년	jpg
126	삼-020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5년	jpg
127	삼-021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5년	jpg
128	삼-022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5년	jpg
129	삼-023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5년	jpg
130	삼-024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도면 작업	사진	1989년	jpg
131	삼-025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도면 작업	사진	1989년	jpg
132	삼-026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9년	jpg

133	삼-027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9년	jpg
134	삼-028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9년	jpg
135	삼-029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9년	jpg
136	삼-030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9년	jpg
137	삼-031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9년	jpg
138	삼-032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9년	jpg
139	삼-033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9년	jpg
140	삼-034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9년	jpg
141	삼-035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9년	jpg
142	삼-036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9년	jpg
143	삼-037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9년	jpg
144	삼-038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9년	jpg
145	삼-039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9년	jpg
146	삼-040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9년	jpg
147	삼-041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9년	jpg
148	삼-042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9년	jpg
149	삼-043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9년	jpg
150	삼-044	삼양중기 서울국제공작기계전	사진	1990년	jpg
151	삼-045	삼양중기 서울국제공작기계전	사진	1990년	jpg
152	삼-046	삼양중기 서울국제공작기계전	사진	1990년	jpg
153	삼-047	삼양중기 서울국제공작기계전	사진	1990년	jpg
154	삼-048	삼양중기 서울국제공작기계전	사진	1990년	jpg
155	삼-049	삼양중기 서울국제공작기계전	사진	1990년	jpg
156	삼-050	삼양중기 서울국제공작기계전	사진	1990년	jpg
157	삼-051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92년	jpg
158	삼-052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92년	jpg
159	삼-053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92년	jpg
160	삼-054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92년	jpg
161	삼-055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기계	사진	1992년	jpg
162	삼-056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기계	사진	1992년	jpg
163	삼-057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92년	jpg
164	삼-058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92년	jpg
165	삼-059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부	사진	1996년	jpg
166	삼-060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부	사진	1996년	jpg
167	삼-061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96년	jpg
168	삼-062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96년	jpg
169	삼-063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96년	jpg
170	삼-064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96년	jpg
171	삼-065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96년	jpg
172	삼-066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96년	jpg
173	삼-067	삼양중기 부천공장 사무실 내 작업	사진	1996년	jpg
174	삼-068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96년	jpg
175	삼-069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96년	jpg
176	삼-070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96년	jpg
177	삼-071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96년	jpg
178	삼-072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96년	jpg

179	삼-073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96년	jpg
180	삼-074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96년	jpg
181	삼-075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96년	jpg
182	삼-076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96년	jpg
183	삼-077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96년	jpg
184	삼-078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96년	jpg
185	삼-079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96년	jpg
186	삼-080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96년	jpg
187	삼-081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96년	jpg
188	삼-082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96년	jpg
189	삼-083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부	사진	미상	jpg
190	삼-084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부	사진	미상	jpg
191	삼-085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부	사진	미상	jpg
192	삼-086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부	사진	미상	jpg
193	삼-087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부	사진	미상	jpg
194	삼-088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부	사진	미상	jpg
195	삼-089	삼양중기 부천공장 내부	사진	미상	jpg
196	삼-090	삼양중기 현판	사진	미상	jpg
197	삼-091	삼양엔텍 부천 40년 기업 인증패	사진	2013년	jpg
198	삼-092	삼양엔텍 부천 40년 기업 인증패	사진	2013년	jpg
199	삼-093	삼양중기 프레스 브로슈어	문서	미상	pdf
200	삼-094	삼양중기 프레스 브로슈어	문서	미상	pdf
201	삼-095	삼양중기 식품기계 브로슈어	문서	미상	pdf
202	삼-096	삼양중기 화학기계 브로슈어	문서	미상	pdf
203	삼-097	삼양중기 섬유기계 브로슈어	문서	미상	pdf
204	삼-098	삼양중기 주철기계 브로슈어	문서	미상	pdf
205	삼-099	삼양중기 영문 브로슈어	문서	1990년대	pdf
206	삼-100	삼양사 80주년 사사	문서	2004년	pdf
207	삼-101	삼양사 80주년 사사	문서	2004년	pdf
208	삼-102	삼양사 80주년 사사	문서	2004년	pdf
209	삼-103	삼양사 90주년 사사	문서	2014년	pdf
210	삼-104	삼양중기 1990년대 신문 기사	문서	2003년	pdf
211	삼-105	삼양중기 1990년대 신문 기사	문서	1998년	pdf
212	삼-106	삼양중기 1996년 신문 기사	문서	1996년	pdf
213	삼-107	삼양엔텍 사업보고서	문서	2003년	pdf
214	삼-108	삼양엔텍 사업보고서	문서	2007년	pdf
215	삼-109	삼양엔텍 사업보고서	문서	2013년	pdf
216	삼-110	이천중기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75년	jpg
217	삼-111	이천중기 김영태 사장	사진	1975년	jpg
218	삼-112	이천중기 이규동 부사장	사진	1976년	jpg
219	삼-113	이천중기 브러시레스 발전기	사진	1976년	jpg
220	삼-114	이천중기 제지플랜트	사진	1976년	jpg
221	삼-115	이천중기 부천공장 내부	사진	1976년	jpg
222	삼-116	이천중기 부천공장 내부	사진	1977년	jpg
223	삼-117	이천중기 부천공장 내부	사진	1977년	jpg
224	삼-118	이천중기 부천공장 내부	사진	1978년	jpg

225	삼-119	삼양중기 파워프레스	사진	1981년	jpg
226	삼-120	삼양중기 연신기	사진	1993년	jpg
227	삼-121	삼양중기 ISO 9001 인증서 획득	사진	1996년	jpg
228	삼-122	부천시-삼양홀딩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공공기여 협약식	사진	2018년	jpg
229	삼-123	삼양엔텍 근무자 인터뷰 사진	사진	2023년	jpg
230	삼-124	삼양엔텍 근무자 인터뷰 사진	사진	2023년	jpg
231	반-001	삼성반도체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70년대	jpg
232	반-002	삼성반도체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70년대	jpg
233	반-003	삼성반도체 부천공장 건물	사진	1978년	jpg
234	반-004	삼성반도체 부천공장 전경	사진	1980년대	jpg
235	반-005	부천반도체연구소 기공식	사진	1982년	jpg
236	반-006	삼성반도체 64K D램	사진	1983년	jpg
237	반-007	전두환대통령 삼성반도체 부천공장 방문	사진	1983년	jpg
238	반-008	전두환대통령 삼성반도체 부천공장 방문	사진	1983년	jpg
239	반-009	1984년 건립된 반도체 기술의 산실 기념비	사진	미상	jpg
240	반-010	삼성반도체 부천공장 정보시스템 무사고 기원제	사진	1994년	jpg
241	반-011	삼성반도체 부천공장 잔디운동장 LNG 점화식	사진	1994년	jpg
242	반-012	삼성반도체 MICRO 사업연구개발전략 워크숍	사진	1995년	jpg
243	반-013	삼성반도체 부천공장 C라인 뒤편 C라인 설비반입식	사진	1996년	jpg
244	반-014	삼성반도체 부천공장 환경친화기업 지정 기념	사진	1996년	jpg
245	반-015	페어차일드코리아 부천공장 전경	사진	2014년	jpg
246	반-016	온세미컨덕터코리아 전경	사진	2022년	jpg
247	반-017	삼성 신입사원 기념	사진	1985년	jpg
248	반-018	삼성 모범사원 일본 견학 기념	사진	1990년대	jpg
249	반-019	삼성반도체 직원 단체 체조	사진	1990년대	jpg
250	반-020	삼성반도체 직원 단체 체조	사진	1990년대	jpg
251	반-021	삼성반도체 직원 단체 체조	사진	1990년대	jpg
252	반-022	삼성반도체 직원 단체 체조	사진	1990년대	jpg
253	반-023	삼성반도체 직원 단체 체조 후	사진	1990년대	jpg
254	반-024	삼성반도체 벚꽃축제 기념	사진	1990년대	jpg
255	반-025	삼성반도체 어린이날 행사	사진	1990년대	jpg
256	반-026	삼성반도체 어린이날 행사	사진	1990년대	jpg
257	반-027	삼성반도체 어린이날 행사	사진	1990년대	jpg
258	반-028	삼성반도체 어린이날 행사	사진	1990년대	jpg
259	반-029	삼성반도체 워크숍	사진	1990년대	jpg
260	반-030	삼성반도체 워크숍	사진	1990년대	jpg
261	반-031	삼성반도체 정문	사진	1990년대	jpg
262	반-032	삼성반도체 제33과 송년 행사	사진	1992년	jpg
263	반-033	삼성반도체 사원자녀 백일장 및 사생대회	사진	1993년	jpg
264	반-034	삼성반도체 사원부모 효도 관광	사진	1994년	jpg
265	반-035	삼성반도체 사원자녀 백일장 및 사생대회	사진	1994년	jpg
266	반-036	페어차일드코리아 농구대회	사진	2000년	jpg
267	반-037	페어차일드코리아 환경친화기업 현판식	사진	2001년	jpg
268	반-038	페어차일드코리아 실리콘축제	사진	2005년	jpg
269	반-039	온세미컨덕터 입구	사진	2023년	jpg

270	반-040	온세미컨덕터 입구	사진	2023년	jpg
271	반-041	온세미컨덕터 건물	사진	2023년	jpg
272	반-042	온세미컨덕터 건물	사진	2023년	jpg
273	반-043	1984년 건립된 반도체 기술의 산실 기념비	사진	2023년	jpg
274	반-044	온세미컨덕터 연혁	사진	2023년	jpg
275	반-045	온세미컨덕터 근무자 근속 기념	사진	2023년	jpg
276	반-046	온세미컨덕터 근무자 근속 기념	사진	2023년	jpg
277	반-047	온세미컨덕터 근무자 근속 기념	사진	2023년	jpg
278	반-048	온세미컨덕터 근무자 근속 기념	사진	2023년	jpg
279	반-049	온세미컨덕터 근무자 근속 기념	사진	2023년	jpg
280	반-050	온세미컨덕터 근무자 근속 기념	사진	2023년	jpg
281	반-051	온세미컨덕터 교류 행사	사진	2023년	jpg
282	반-052	온세미컨덕터 교류 행사	사진	2023년	jpg
283	반-053	온세미컨덕터 교류 행사	사진	2023년	jpg
284	반-054	온세미컨덕터 교류 행사	사진	2023년	jpg
285	반-055	온세미컨덕터 교류 행사	사진	2023년	jpg
286	반-056	온세미반도체 SIC 자동차부품 S5뉴공장 오픈식	사진	2023년	jpg
287	반-057	온세미반도체 SIC 자동차부품 S5뉴공장 오픈식	사진	2023년	jpg
288	반-058	온세미반도체 SIC 자동차부품 S5뉴공장 오픈식	사진	2023년	jpg
289	반-059	삼성반도체통신주식회사 관련 문서	문서	미상	pdf
290	반-060	<과학과 기술> 기고문-한국반도체의 역사	문서	2008년	pdf
291	반-061	비평논문-삼성반도체의 기술발전 고정	문서	2009년	pdf
292	반-062	논문-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사	문서	2015년	pdf
293	반-063	강기동과 한국반도체	문서	2018년	pdf
294	반-064	<국민희망저널> 기고문 -한국반도체 영웅의 귀환 재도약의 기회	문서	2023년	pdf
295	반-065	한국반도체 웨이퍼 생산	사진	1975년	jpg
296	반-066	전자자동전화교환기에 대한 국제 세미나	사진	1975년	jpg
297	반-067	한국반도체의 CMOS칩으로 만든 삼성 전자시계	사진	1975년	jpg
298	반-068	한국반도체 반도체 생산 작업	사진	1975년	jpg
299	반-069	삼성 디지털론 시계 뉴모델콘테스트 최우수상 수상	사진	1975년	jpg
300	반-070	한국반도체의 CMOS칩으로 만든 삼성 전자시계	사진	1975년	jpg
301	반-071	한국반도체의 CMOS칩으로 만든 삼성 전자시계	사진	1976년	jpg
302	반-072	한국반도체 반도체 생산 작업	사진	1976년	jpg
303	반-073	한국반도체 반도체소자 실물크기 및 확대 촬영	사진	1977년	jpg
304	반-074	한국반도체 반도체 생산 작업	사진	1977년	jpg
305	반-075	한국반도체 신문 광고	사진	1977년	jpg
306	반-076	삼성반도체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78년	jpg
307	반-077	삼성반도체 반도체 생산 작업	사진	1980년	jpg
308	반-078	삼성반도체 전자식 구내교환기	사진	1980년	jpg
309	반-079	삼성반도체 전자식 구내교환기	사진	1983년	jpg
310	반-080	삼성반도체 광섬유 뽑아내는 작업	사진	1983년	jpg
311	반-081	삼성반도체 16비트마이크로컴퓨터	사진	1983년	jpg
312	반-082	삼성반도체 제품 신문 광고	사진	1983년	jpg
313	반-083	삼성반도체 디지털방식의 CBX교환기	사진	1983년	jpg
314	반-084	전두환대통령 삼성반도체 부천공장 방문	사진	1983년	jpg

315	반-085	삼성반도체 64K D램 반도체	사진	1983년	jpg
316	반-086	삼성반도체 64K D램 반도체	사진	1983년	jpg
317	반-087	삼성반도체 64K D램 반도체 개발생산행사	사진	1983년	jpg
318	반-088	삼성반도체 직원	사진	1984년	jpg
319	반-089	삼성반도체 16비트마이크로컴퓨터	사진	1984년	jpg
320	반-090	삼성반도체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4년	jpg
321	반-091	삼성반도체 부천 광섬유생산공장 준공	사진	1984년	jpg
322	반-092	삼성반도체 전화기용 스피치IC	사진	1984년	jpg
323	반-093	삼성반도체 부천 웨이퍼처리공장 준공	사진	1985년	jpg
324	반-094	삼성반도체 소형 트랜지스터	사진	1986년	jpg
325	반-095	삼성반도체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87년	jpg
326	반-096	삼성반도체 부천공장 내 작업	사진	1993년	jpg
327	반-097	삼성반도체 근무자 인터뷰 사진	사진	2023년	jpg
328	반-098	삼성반도체 근무자 인터뷰 사진	사진	2023년	jpg
329	한-001	한미재단 관련 위성 지도	사진	미상	jpg
330	한-002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전경	사진	1971년	jpg
331	한-003	4-H 상징	사진	미상	jpg
332	한-004	여우고개에 있는 새마을운동 표지석	사진	2023년	jpg
333	한-005	부천시 4-H 연합회 안내판	사진	2023년	jpg
334	한-006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입구	사진	2023년	jpg
335	한-007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교육관	사진	2023년	jpg
336	한-008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교육관 내 목욕탕	사진	2023년	jpg
337	한-009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실습장	사진	2023년	jpg
338	한-010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실습장	사진	2023년	jpg
339	한-011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실습장	사진	2023년	jpg
340	한-012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실습장	사진	2023년	jpg
341	한-013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실습장	사진	2023년	jpg
342	한-014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계단식 밭 흔적	사진	2023년	jpg
343	한-015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계단식 밭 흔적	사진	2023년	jpg
344	한-016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건물	사진	2023년	jpg
345	한-017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건물	사진	2023년	jpg
346	한-018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축사	사진	2023년	jpg
347	한-019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실습장	사진	2023년	jpg
348	한-020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사일로	사진	2023년	jpg
349	한-021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사일로	사진	2023년	jpg
350	한-022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사일로 안내판	사진	2023년	jpg
351	한-023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사일로 벽에 새겨진 표식	사진	2023년	jpg
352	한-024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교육관 벽에 새겨진 표식	사진	2023년	jpg
353	한-025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실습장 벽에 새겨진 표식	사진	2023년	jpg
354	한-026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실습장 벽에 새겨진 표식	사진	2023년	jpg
355	한-027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실습장 벽에 새겨진 표식	사진	2023년	jpg
356	한-028	밴플리트 장군 등 한미재단 사절단 방한 환영식	사진	1953년	jpg
357	한-029	한미재단 차량 인수식	사진	1954년	jpg
358	한-030	이승만대통령 한미재단 총재 일행 접견	사진	1955년	jpg
359	한-031	이승만대통령 한미재단 이사장에 훈장 수여 기념	사진	1956년	jpg
360	한-032	이승만대통령 내외 한미재단 이사장 부부 접견	사진	1959년	jpg

361	한-033	이승만대통령 내외와 한미재단 부회장	사진	1959년	jpg
362	한-034	한미재단 의료품 기증	사진	1960년	jpg
363	한-035	연희동 희망학원 개원식	사진	1964년	jpg
364	한-036	박정희대통령 한미재단 이사장에게 대한민국국민장 수여	사진	1964년	jpg
365	한-037	박정희대통령 한미재단 사무차장 접견	사진	1965년	jpg
366	한-038	한미재단 주최 만찬 기념	사진	1965년	jpg
367	한-039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교육생	사진	1978년	jpg
368	한-040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단기 훈련 교육생 수료 기념	사진	미상	jpg
369	한-041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수료증	사진	1978년	jpg
370	한-042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관련 문서	사진	1973년	jpg
371	한-043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확장 및 입소식	사진	1967년	jpg
372	한-044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확장 및 입소식	사진	1967년	jpg
373	한-045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확장 및 입소식	사진	1967년	jpg
374	한-046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숙소 내부	사진	1967년	jpg
375	한-047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확장 및 입소식 테이프 컷팅	사진	1967년	jpg
376	한-048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교육생	사진	미상	jpg
377	한-049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교육생	사진	미상	jpg
378	한-050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교육생	사진	미상	jpg
379	한-051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교육생	사진	미상	jpg
380	한-052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교육생	사진	미상	jpg
381	한-053	한미재단 소식지 『농촌청년』 제2집	사진	1973년	jpg
382	한-054	한미재단 소식지 『농촌청년』 제4집	사진	1973년	jpg
383	한-055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교육생	사진	미상	jpg
384	한-056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가정과 실습 교육생	사진	미상	jpg
385	한-057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전경	사진	미상	jpg
386	한-058	『한미재단농민훈련교본』	사진	1977년	jpg
387	한-059	『한미재단농민훈련교본』 내지	사진	1977년	jpg
388	한-060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새마을 부락 간담회 기념	사진	1978년	jpg
389	한-061	한미재단 여자 교육생 수료 기념	사진	미상	jpg
390	한-062	시흥군 포1리 새마을회관 준공식	사진	미상	jpg
391	한-063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새마을 소득 사업교육 간담회 수료 기념	사진	미상	jpg
392	한-064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새마을부녀회 교육생 국기 상기식	사진	미상	jpg
393	한-065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교육생	사진	미상	jpg
394	한-066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심포지엄	사진	2023년	jpg
395	한-067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관련 문서	문서	미상	pdf
396	한-068	『한미재단농민훈련교본』	문서	1977년	pdf
397	한-069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입소식	사진	1967년	pdf
398	한-070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숙소 내부	사진	1967년	pdf
399	한-071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입소식	사진	1967년	pdf
400	한-072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입소식	사진	1967년	pdf
401	한-073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입소식	사진	1967년	pdf

402	한-074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입소식 및 농장 전경	사진	1967년	pdf
403	한-075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입소식 테이프 컷팅	사진	1967년	pdf
404	한-076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입소식	사진	1967년	pdf
405	한-077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신문 기사	문서	1975년	pdf
406	한-078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관련 문서	문서	1969년	pdf
407	한-079	『부천문화』 제92호	문서	2018년	pdf
408	한-080	『부천문화』 제93호	문서	2020년	pdf
409	한-081	프로스트 한미재단 사무총장	사진	1969년	jpg
410	한-082	디마코 한미재단 명예회장	사진	1971년	jpg
411	한-083	펼벽 여사	사진	1972년	jpg
412	한-084	미국에서 영농기술을 배우는 농업연수생	사진	1972년	jpg
413	한-085	펼벽 여사	사진	1973년	jpg
414	한-086	미국 뉴욕타임광장에서 열린 한미재단 모금 운동	사진	1876년	jpg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유한양행 소사공장 사진		
자료 번호	유-001~006	저 장 형 태	jpg
자료 제공	유한양행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01	제작 연도	1936년
			
번호	002	제작 연도	1943년
			
번호	003	제작 연도	1952년
			
번호	004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05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06	제작 연도	1960년대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유한양행 소사공장 사진		
자료 번호	유-007~012	저 장 형 태	jpg
자료 제공	유한양행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07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08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09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10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11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12	제작 연도	1960년대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유한양행 소사공장 사진		
자료 번호	유-013~018	저 장 형 태	jpg
자료 제공	유한양행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13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14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15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16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17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18	제작 연도	1960년대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유한양행 소사공장 사진		
자료 번호	유-019~024	저 장 형 태	jpg
자료 제공	유한양행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19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20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21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22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23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24	제작 연도	1960년대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유한양행 소사공장 사진		
자료 번호	유-025~030	저 장 형 태	jpg
자료 제공	유한양행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25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27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29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30	제작 연도	1960년대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유한양행 소사공장 사진		
자료 번호	유-031~036	저 장 형 태	jpg
자료 제공	유한양행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31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32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33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34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35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36	제작 연도	1960년대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유한양행 소사공장 사진		
자료 번호	유-037~042	저 장 형 태	jpg
자료 제공	유한양행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37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39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40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41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42	제작 연도	1960년대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유한양행 소사공장 사진		
자료 번호	유-043~048	저 장 형 태	jpg
자료 제공	유한양행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43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45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47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48	제작 연도	1960년대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유한양행 소사공장 사진													
자료 번호		유-049~054			저 장 형 태		jpg								
자료 제공		유한양행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49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50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51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52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53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54		제작 연도		1960년대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유한양행 소사공장 사진		
자료 번호	유-055~060	저 장 형 태	jpg
자료 제공	유한양행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55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56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57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58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59	제작 연도	1960년대
			
번호	060	제작 연도	1960년대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유한양행 소사공장 사진						
자료번호	유-061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유한양행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61	제작 연도	1960년대				
제 목	유일한 박사와 필벽 여사의 간 서신 사진 (부천시립박물관 특별전)						
자료번호	유-062~064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개인 제공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62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063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064	제작 연도	2023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유한양행 신문 기사 사진						
자료번호	유-065~070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활용 동의 여부	비동의		
							
번호	065	제작 연도	1927년	번호	066	제작 연도	1927년
							
번호	067	제작 연도	1927년	번호	068	제작 연도	1931년
							
번호	069	제작 연도	1936년	번호	070	제작 연도	1937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유한양행 신문 기사 사진			저 장 형 태	jpg		
자료번호	유-071~076			활용 동의 여부	비동의		
자료제공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번호	071	제작 연도	1948년	번호	072	제작 연도	1949년
번호	073	제작 연도	1949년	번호	074	제작 연도	1959년
번호	075	제작 연도	1966년	번호	076	제작 연도	1967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유한양행 신문 기사 사진		
자료번호	유-077~082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활용 동의 여부	비동의
			
번호	077	제작 연도	1967년
			
번호	078	제작 연도	1968년
			
번호	079	제작 연도	1969년
			
번호	080	제작 연도	1969년
			
번호	081	제작 연도	1970년
			
번호	082	제작 연도	1970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유한양행 신문 기사 사진						
자료번호	유-083~088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활용 동의 여부	비동의		
				 <p>美國에 건너가 크게 돈을 벌어서 금의환향하던때의 柳씨夫婦 (1927年3月27日 宇本紙2면에 게재)</p>			
번호	083	제작 연도	1970년	번호	084	제작 연도	1971년
 <p>1971年 柳氏夫婦의 柳韓工專에 5억내 柳韓工專에 5억내</p>				 <p>柳韓工專에 5억내</p>			
번호	085	제작 연도	1973년	번호	086	제작 연도	1974년
				 <p>柳韓工專에 5억내</p>			
번호	087	제작 연도	1977년	번호	088	제작 연도	1978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유한양행 신문 기사 사진		
자료번호	유-095~100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활용 동의 여부	비동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번호	095	제작 연도	1992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번호	097	제작 연도	1993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번호	099	제작 연도	1995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유한양행 신문 기사 사진		
자료번호	유-101~104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활용 동의 여부	비동의
 <p>유일한 기념관 개관·사옥준공식 유한양행(대표 김태훈)은 5일 서울 대방동 신사옥에서 유일한 기념관 개관과 신사옥 준공식을 가졌다. 왼쪽 네번째부터 김사장, 연만희 유한재단 이사장, 서형원 신한국당 원내총무.</p>		 <p>유한양행 산소표백제 내놔 유한양행이 액제형 산소표백제를 표백제 '유한 칼라모아'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기존 분말형 산소표백제의 단점인 세탁 후 세제찌꺼기가 남는 점이나 찬물에 잘 녹지 않고 빨랫감이 탈색되는 문제를 해결했다. 1.3ℓ 일회용 제품의 시중가격은 4,000원.</p>	
번호	101	제작 연도	1997년
 <p>신약개발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유한양행 중앙연구소 팀장과 연구원들과 이복종 신약물연구실장 왼쪽에서 네번째 10 연구소 앞 잔디밭에서 개발 중인 신물질에 관해 담소하고 있다. <김정호 기자></p>		 <p>故 柳一韓박사 표지석 제막식</p>	
번호	103	제작 연도	1998년
번호	104	제작 연도	1999년
제 목	유한양행 소사공장 근무자 인터뷰 사진		
자료번호	유-105~106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내부 자료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105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106	제작 연도	2023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이천중기 사진		
자료 번호	삼-001~006	저 장 형 태	jpg
자료 제공	삼양사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01	제작 연도	1980년
			
번호	002	제작 연도	1980년
			
번호	003	제작 연도	1980년
			
번호	004	제작 연도	1980년
			
번호	005	제작 연도	1980년
			
번호	006	제작 연도	1980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이천중기 사진		
자료번호	삼-007~009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삼양사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07	제작 연도	1980년
			
번호	009	제작 연도	1980년
제 목	삼양중기 사진		
자료번호	삼-010~011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삼양사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10	제작 연도	1985년
번호	011	제작 연도	1985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삼양중기 사진			저 장 형 태	jpg		
자료 번호	삼-012~017			활용 동의 여부	동의		
자료 제공	삼양사						
							
번호	012	제작 연도	1985년	번호	013	제작 연도	1985년
							
번호	014	제작 연도	1985년	번호	015	제작 연도	1985년
							
번호	016	제작 연도	1985년	번호	017	제작 연도	1985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삼양중기 사진			저 장 형 태	jpg		
자료 번호	삼-018~023			활용 동의 여부	동의		
자료 제공	삼양사						
							
번호	018	제작 연도	1985년	번호	019	제작 연도	1985년
							
번호	020	제작 연도	1985년	번호	021	제작 연도	1985년
							
번호	022	제작 연도	1985년	번호	023	제작 연도	1985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삼양중기 사진			저 장 형 태	jpg		
자료 번호	삼-024~029			활용 동의 여부	동의		
자료 제공	삼양사						
							
번호	024	제작 연도	1989년	번호	025	제작 연도	1989년
							
번호	026	제작 연도	1989년	번호	027	제작 연도	1989년
							
번호	028	제작 연도	1989년	번호	029	제작 연도	1989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삼양중기 사진							
자료 번호	삼-030~035				저 장 형 태	jpg		
자료 제공	삼양사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30	제작 연도	1989년		번호	031	제작 연도	1989년
								
번호	032	제작 연도	1989년		번호	033	제작 연도	1989년
								
번호	034	제작 연도	1989년		번호	035	제작 연도	1989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삼양중기 사진		
자료 번호	삼-036~041	저 장 형 태	jpg
자료 제공	삼양사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36	제작 연도	1989년
			
번호	037	제작 연도	1989년
			
번호	038	제작 연도	1989년
			
번호	039	제작 연도	1989년
			
번호	040	제작 연도	1989년
			
번호	041	제작 연도	1989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삼양중기 사진		
자료번호	삼-042~043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삼양사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42	제작 연도	1989년
			
번호	043	제작 연도	1989년
제 목	삼양중기 서울국제공작기계전 사진		
자료번호	삼-044~047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삼양사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44	제작 연도	1990년
			
번호	045	제작 연도	1990년
			
번호	046	제작 연도	1990년
			
번호	047	제작 연도	1990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삼양중기 서울국제공작기계전 사진						
자료 번호	삼-048~050				저 장 형 태	jpg	
자료 제공	삼양사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48	제작 연도	1990년	번호	049	제작 연도	1990년
							
번호	050	제작 연도	1990년				
제 목	삼양중기 사진						
자료 번호	삼-051~052				저 장 형 태	jpg	
자료 제공	삼양사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51	제작 연도	1992년	번호	052	제작 연도	1992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삼양중기 사진			저 장 형 태	jpg		
자료 번호	삼-053~058			활용 동의 여부	동의		
자료 제공	삼양사						
							
번호	053	제작 연도	1992년	번호	054	제작 연도	1992년
							
번호	055	제작 연도	1992년	번호	056	제작 연도	1992년
							
번호	057	제작 연도	1992년	번호	058	제작 연도	1992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삼양중기 사진		
자료 번호	삼-059~064	저 장 형 태	jpg
자료 제공	삼양사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59	제작 연도	1996년
			
번호	060	제작 연도	1996년
			
번호	061	제작 연도	1996년
			
번호	062	제작 연도	1996년
			
번호	063	제작 연도	1996년
			
번호	064	제작 연도	1996년
비 고			
관련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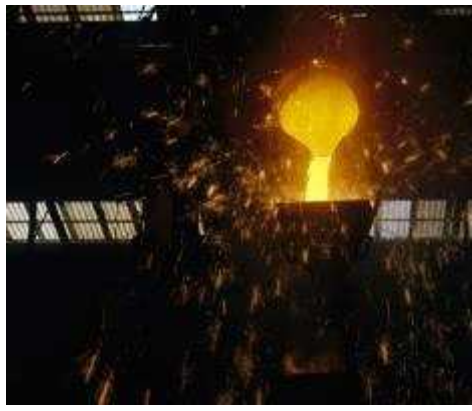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삼양중기 사진		
자료번호	삼-065~070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삼양사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65	제작 연도	1996년
			
번호	066	제작 연도	1996년
			
번호	067	제작 연도	1996년
			
번호	068	제작 연도	1996년
			
번호	069	제작 연도	1996년
			
번호	070	제작 연도	1996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삼양중기 사진						
자료 번호	삼-071~076			저 장 형 태	jpg		
자료 제공	삼양사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71	제작 연도	1996년	번호	072	제작 연도	1996년
							
번호	073	제작 연도	1996년	번호	074	제작 연도	1996년
							
번호	075	제작 연도	1996년	번호	076	제작 연도	1996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삼양중기 사진						
자료 번호	삼-077~082				저 장 형 태	jpg	
자료 제공	삼양사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77	제작 연도	1996년	번호	078	제작 연도	1996년
							
번호	079	제작 연도	1996년	번호	080	제작 연도	1996년
							
번호	081	제작 연도	1996년	번호	082	제작 연도	1996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삼양중기 사진		
자료번호	삼-083~088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삼양사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83	제작 연도	미상
			
번호	084	제작 연도	미상
			
번호	085	제작 연도	미상
			
번호	086	제작 연도	미상
			
번호	087	제작 연도	미상
			
번호	088	제작 연도	미상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삼양중기 및 삼양엔텍 사진		
자료번호	삼-089~092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삼양사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89	제작 연도	미상
 			
번호	091	제작 연도	2013
번호	092	제작 연도	2013
제 목	삼양중기 브로슈어		
자료번호	삼-093~094	저 장 형 태	pdf
자료제공	삼양사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93	제작 연도	미상
번호	094	제작 연도	미상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삼양중기 브로슈어						
자 료 번 호	삼-095~099			저 장 형 태	pdf		
자 료 제 공	삼양사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95	제작 연도	미상	번호	096	제작 연도	미상
							
번호	097	제작 연도	미상	번호	098	제작 연도	미상
							
번호	099	제작 연도	1990년대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삼양사 사사			저 장 형 태	pdf		
자료번호	삼-100~103			활용 동의 여부	동의		
자료제공	삼양사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100	제작 연도	2004년	번호	101	제작 연도	2004년
							
번호	102	제작 연도	2004년	번호	103	제작 연도	2014년
제 목	삼양중기 신문 기사			저 장 형 태	pdf		
자료번호	삼-104~105			활용 동의 여부	동의		
자료제공	삼양사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104	제작 연도	2003년	번호	105	제작 연도	1998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부천시/부천문화재단/부천시립박물관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삼양홀딩스 신문 기사 사진		
자료번호	삼-110~115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활용 동의 여부	비동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경쟁의 다각화와 기기간 경쟁에 시달리던 삼양중기 추진하고 있다</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고급주철을 도출하기 위해 %밖에 안돼 안타깝다고 말하는 송永泰사장 "25서</p> </div> </div>			
번호	110	제작 연도	1975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말하는 개발하는 주철부사장 ◇현장기술자의 잠재력을 개발, 자력으로 신체 하는 개발하는 주철부사장</p> <p>李奎東씨 〈利川重機부사장〉</p> <p>브러시리스發電機개발의 主役</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利川重機기술진이 개발한 30kw짜리 브러시리스 發電機.</p> </div> </div>			
번호	112	제작 연도	1976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利川重機가 77년6월까지 완전國産化를 추진중인 製紙용 랜트. 현재의 國産化率은 85%.</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利川重機는 대용량 鑄造기를 國産화하여 내년부터 本 격생산에 착수하기로 했다.</p> </div> </div>			
번호	114	제작 연도	1976년
번호	115	제작 연도	1976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삼양홀딩스 신문 기사 사진						
자료번호	삼-116~121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활용 동의 여부	비동의		
							
<p>◇利川重機는 製新機部門에서 15여원어치의 賣出 実績을 올렸 목표86%를 달성했다. <사진은 利川 重機공장내부></p>				<p>◇利川重機는 製新機部門에서 15여원어치의 賣出 実績을 올렸 목표86%를 달성했다. <사진은 利川 重機공장내부></p>			
번호	116	제작 연도	1977년	번호	117	제작 연도	1977년
							
<p>◇利川重機는 6억 5천만원에 鐵 道 및 機械시설을 대폭확충, 주철공장과 鑄造工場 6월말까지대입자를 개폐이다.</p>							
번호	118	제작 연도	1978년	번호	119	제작 연도	1981년
							
				<p>◇삼양중기 ISO 9001 인증서 획득 李政熙 삼양중기 사장(오른쪽)은 최근 영국 LRQA의 千政基 심사원으로 부터 ISO 9001인증서를 받았다.</p>			
번호	120	제작 연도	1993년	번호	121	제작 연도	1996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삼양홀딩스 신문 기사 사진						
자료번호	삼-122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활용 동의 여부	비동의		
							
번호	122	제작 연도	2018년				
제 목	삼양엔텍 근무자 인터뷰 사진						
자료번호	삼-123~124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내부 자료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123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124	제작 연도	2023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삼성반도체 부천공장 사진			저 장 형 태	jpg		
자료 번호	반-001~006			활용 동의 여부	동의		
자료 제공	온세미컨덕터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01	제작 연도	1970년대	번호	002	제작 연도	1970년대
							
번호	003	제작 연도	1978년	번호	004	제작 연도	1980년대
							
번호	005	제작 연도	1982년	번호	006	제작 연도	1983년
비 고							
관련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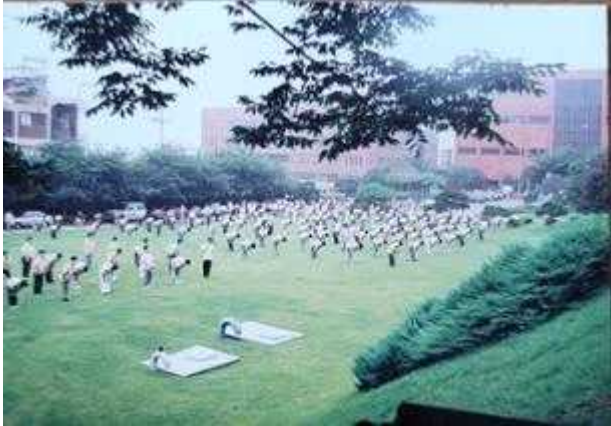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삼성반도체 부천공장 사진		
자료 번호	반-007~012	저 장 형 태	jpg
자료 제공	온세미컨덕터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07	제작 연도	1983년
			
번호	008	제작 연도	1983년
			
번호	009	제작 연도	미상
			
번호	010	제작 연도	1994년
			
번호	011	제작 연도	1994년
			
번호	012	제작 연도	1995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삼성반도체 부천공장 사진						
자료 번호	반-013~014			저 장 형 태	jpg		
자료 제공	온세미컨덕터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13	제작 연도	1996년	번호	014	제작 연도	1996년
제 목	페어차일드코리아 및 온세미컨덕터코리아 사진						
자료 번호	반-015~016			저 장 형 태	jpg		
자료 제공	온세미컨덕터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15	제작 연도	2014년	번호	016	제작 연도	2022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삼성반도체 사진		
자료번호	반-017~022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개인 제공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17	제작 연도	1985년
			
번호	018	제작 연도	1990년대
			
번호	019	제작 연도	1990년대
			
번호	020	제작 연도	1990년대
			
번호	021	제작 연도	1990년대
			
번호	022	제작 연도	1990년대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삼성반도체 사진		
자료번호	반-023~028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개인 제공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23	제작 연도	1990년대
			
번호	024	제작 연도	1990년대
			
번호	025	제작 연도	1990년대
			
번호	026	제작 연도	1990년대
			
번호	027	제작 연도	1990년대
			
번호	028	제작 연도	1990년대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삼성반도체 사진		
자료번호	반-029~034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개인 제공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29	제작 연도	1990년대
			
번호	030	제작 연도	1990년대
			
번호	031	제작 연도	1990년대
			
번호	032	제작 연도	1992년
			
번호	033	제작 연도	1993년
			
번호	034	제작 연도	1994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삼성반도체 사진		
자료번호	반-035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개인 제공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35	제작 연도	1994년
제 목	페어차일드코리아 사진		
자료번호	반-036~038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개인 제공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36	제작 연도	2000년
번호	037	제작 연도	2001년
			
번호	038	제작 연도	2005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온세미컨덕터 사진		
자료 번호	반-039~044	저 장 형 태	jpg
자료 제공	개인 제공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39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040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041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042 제작 연도 2023년
	<p>History ON Semiconductor was founded in 1999. The company was originally a spinoff of Motorola's Semiconductor Products Sector. It continues to manufacture Motorola's <u>Discrete</u>, standard <u>Analog</u>, and <u>Standard Logic</u> devices.</p>  <p>Acquisitions In November 2013, ON Semiconductor announced the acquisition of <u>Fairchild Semiconductor</u>. In August 2016, ON Semiconductor has entered into a definitive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divestiture of the Ignition IGBT business to Littelfuse and has also entered into a separate definitive agreement with Littelfuse to sell its transient voltage suppression ("TVS") diode and switching thyristor product lines, for a combined \$104 million in cash. In September 2016, ON Semiconductor completed the acquisition of <u>Diodes Semiconductor</u>.</p>
번호 043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044 제작 연도 2023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온세미컨덕터 사진		
자료 번호	반-045~050	저 장 형 태	jpg
자료 제공	개인 제공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45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047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049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050	제작 연도	2023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온세미컨덕터 사진		
자료번호	반-051~056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개인 제공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51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053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055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056	제작 연도	2023년
비 고			
관련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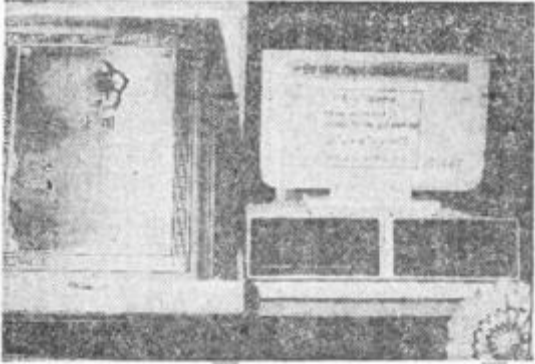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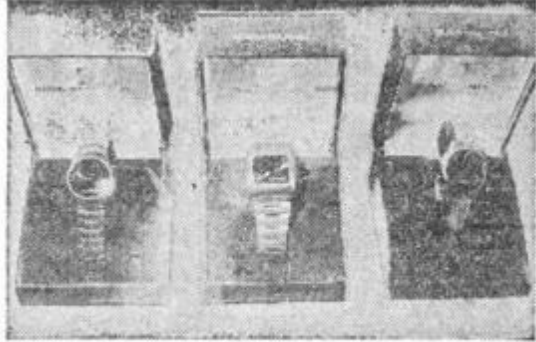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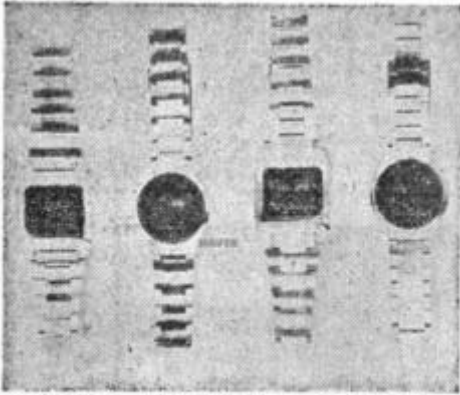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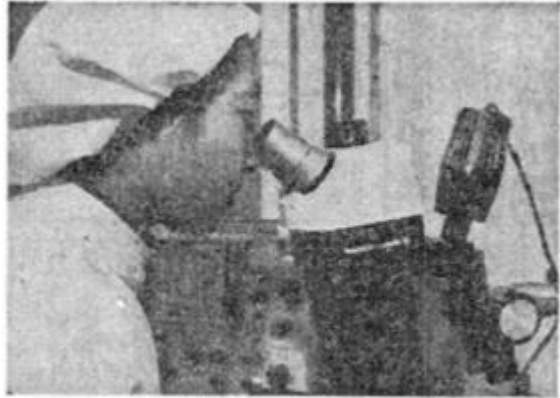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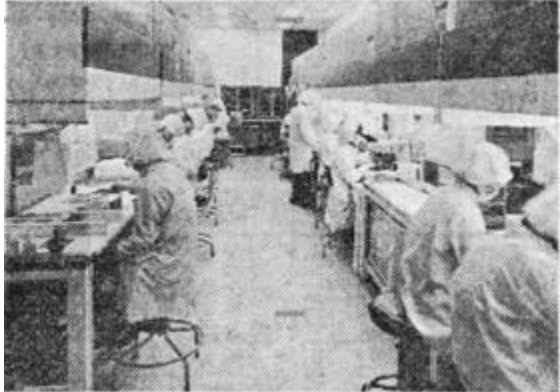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온세미컨덕터 사진			저 장 형 태	jpg		
자료 번호	반-057~058			활용 동의 여부	동의		
자료 제공	개인 제공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57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058	제작 연도	2023년
제 목	삼성반도체 관련 문서			저 장 형 태	pdf		
자료 번호	반-059~062			활용 동의 여부	비동의		
자료 제공	개인/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활용 동의 여부	비동의		
							
번호	059	제작 연도	미상	번호	060	제작 연도	2008년
							
번호	061	제작 연도	2009년	번호	062	제작 연도	2015년
비 고							
관련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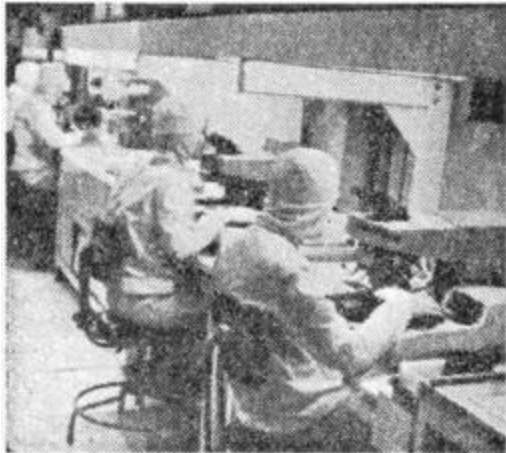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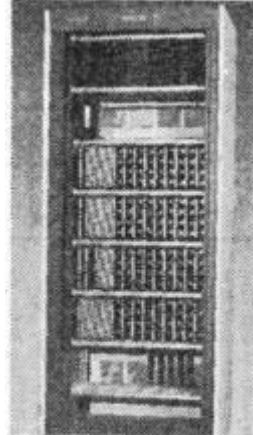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삼성반도체 관련 문서			저 장 형 태	pdf		
자료번호	반-063~064			활용 동의 여부	비동의/동의		
자료제공	개인 제공			활용 동의 여부	비동의/동의		
							
번호	063	제작 연도	2018년	번호	064	제작 연도	2023년
제 목	삼성반도체 신문 기사 사진			저 장 형 태	jpg		
자료번호	반-065~068			활용 동의 여부	비동의		
자료제공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활용 동의 여부	비동의		
							
번호	065	제작 연도	1975년	번호	066	제작 연도	1975년
							
번호	067	제작 연도	1975년	번호	068	제작 연도	1975년
비 고							
관련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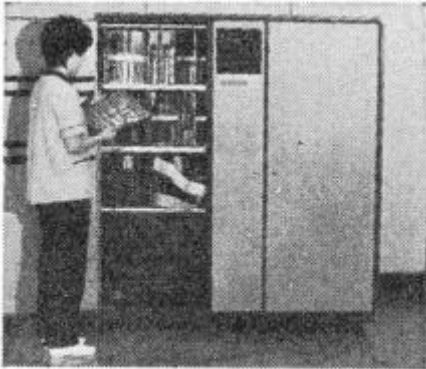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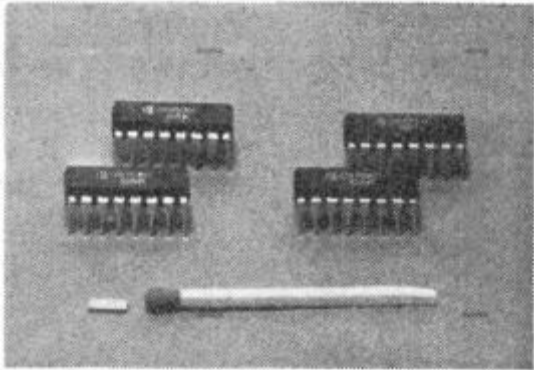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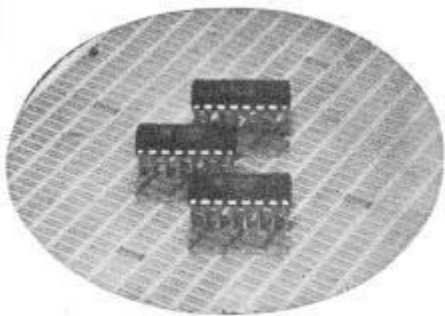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삼성반도체 신문 기사 사진		
자료번호	반-069~074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활용 동의 여부	비동의
 <p>◇수출을 향한 뉴모임. 올해 뉴모임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디지털시계.</p>		 <p>◇市販을 앞둔 電子腕時計. 가장 核心이 되는 칩이 국내에서 개발되어 지난해보다 한 단계 발전했다.</p>	
번호	069	제작 연도	1975년
 <p>◇분견적인 市販단계에 이른 國產電子腕時計. 價格은 개당 4만 4천원내지 6만 5천원으로 기존시계보다高價이다.</p>		 <p>◇電子技術의 最尖端—C-MOS 칩이 국내에서 量產되고 半導體산업이 開拓단계에 이르렀다.</p>	
번호	071	제작 연도	1976년
		 <p>◇半導體제품이 생산되는 工程은 가운을 입은 技術工의 精細한 손재주가 특징<사진은 웨이퍼에 回路를 찍는 韓國半導體공장>.</p>	
번호	073	제작 연도	1977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삼성반도체 신문 기사 사진		
자료번호	반-075~080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활용 동의 여부	비동의
		 <p>◇프롤론 美G E환등과 기술제휴로 고도의 기술을 집약하는 리드 프레임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사진은 프롤론 반도체부원공장></p>	
번호	075	제작 연도	1977년
 <p>◇三星電자의 반도체사업이 급성장, 연 2천만달러의 輸入代替효과를 거두게되었다.</p>		 <p>◇삼성반도체통신(주)이 개발한 중간용량 전자식 구내교환기.</p>	
번호	077	제작 연도	1980년
 <p>◇三星半導體의 전자식 구내교환기</p>		 <p>◇三星半導體의 반도체 생산설비 중 하나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p>	
번호	079	제작 연도	1983년
번호	080	제작 연도	1983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삼성반도체 신문 기사 사진		
자료번호	반-081~086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활용 동의 여부	비동의
			
번호	081	제작 연도	1983년
			
번호	082	제작 연도	1983년
			
번호	083	제작 연도	1983년
			
번호	084	제작 연도	1983년
			
번호	085	제작 연도	1983년
번호	086	제작 연도	1983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삼성반도체 신문 기사 사진		
자료번호	반-087~092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활용 동의 여부	비동의
 <p>◇호텔新羅에서 열린 리셉션장에서 陳德鍾국무총리(中央), 蔡鏞鎬상공부장관이 三星半導體通信관계자로부터 64K D램 반도체에 대해 설명을 듣고있다.</p>			
번호	087	제작 연도	1983년
 <p>1983년 12월 17일, 삼성전자 64K D램 생산라인에서 작업 중인 여성 직원이 생산된 반도체 칩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p>			
번호	088	제작 연도	1984년
 <p>◇삼성반도체통신 64K D램 생산라인에서 작업 중인 직원이 64K D램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p>			
번호	089	제작 연도	1984년
 <p>◇삼성반도체가 14일 富川에 준공한 대단위 광성유생산공장.</p>			
번호	091	제작 연도	1984년
비 고			
관련 자료			
번호	092	제작 연도	1984년
			

수집자료 카드

제 목	삼성반도체 신문 기사 사진						
자료번호	반-093~096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활용 동의 여부	비동의		
 <p>半導體 웨이퍼처리工場 준공 三星반도체통신은 15일 5백억원을 투자한 5 인치 웨이퍼 처리공장을 富川公장에서 준공했 다. 이공장은 5인치 웨이퍼 2만장을 처리할 수있는 능력을 갖추고있다.</p>				 <p>◇三星半導體通信이 개발한 일명 먼지트 랜지스터로 불리는 S O T 23패키지. 기 존제품(하단)에 비해 크기와 부피가 대폭 줄었다.</p>			
번호	093	제작 연도	1985년	번호	094	제작 연도	1986년
 <p>△三星반도체 富川工場 준공식 三星반도체 富川工場 준공식 三星반도체 富川工場 준공식 三星반도체 富川工場 준공식 三星반도체 富川工場 준공식 三星반도체 富川工場 준공식 三星반도체 富川工場 준공식 三星반도체 富川工場 준공식 三星반도체 富川工場 준공식 三星반도체 富川工場 준공식</p>				 <p>三星반도체 富川工場 준공식 三星반도체 富川工場 준공식 三星반도체 富川工場 준공식 三星반도체 富川工場 준공식 三星반도체 富川工場 준공식 三星반도체 富川工場 준공식 三星반도체 富川工場 준공식 三星반도체 富川工場 준공식 三星반도체 富川工場 준공식 三星반도체 富川工場 준공식</p>			
번호	095	제작 연도	1987년	번호	096	제작 연도	1993년
제 목	삼성반도체 근무자 인터뷰 사진						
자료번호	반-097~098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내부 자료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97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098	제작 연도	2023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사진		
자료번호	한-001~006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개인 제공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01	제작 연도	미상
			
번호	003	제작 연도	미상
			
번호	005	제작 연도	2023년
비 고			
관련 자료			
번호	002	제작 연도	1971년
번호	004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006	제작 연도	2023년

수집자료 카드

제 목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사진		
자료번호	한-007~012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개인 제공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07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008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009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010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011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012	제작 연도	2023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사진		
자료번호	한-013~018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개인 제공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13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014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015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016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017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018	제작 연도	2023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사진					저 장 형 태	jpg
자료 번호	한-019~024					활용 동의 여부	동의
자료 제공	개인 제공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19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020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021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022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023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024	제작 연도	2023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한미재단 및 소사4-H훈련농장 사진		
자료번호	한-025~030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개인 제공, 국가기록원 자료(28~30)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25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026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027	제작 연도	2023년
			
번호	028	제작 연도	1953년
			
번호	029	제작 연도	1954년
			
번호	030	제작 연도	1955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한미재단 사진		
자료번호	한-031~036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국가기록원 자료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31	제작 연도	1956년
			
번호	032	제작 연도	1959년
			
번호	033	제작 연도	1959년
			
번호	034	제작 연도	1960년
			
번호	035	제작 연도	1964년
			
번호	036	제작 연도	1964년
비 고			
관련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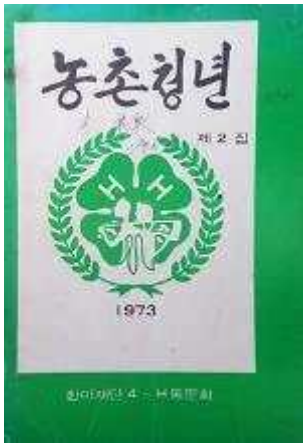

수집자료 카드

제 목	한미재단 및 소사4-H훈련농장 사진		
자료번호	한-037~042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국가기록원 자료(37~38) 개인 제공(39~)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37	제작 연도	1965년
			
번호	038	제작 연도	1965년
			
번호	039	제작 연도	1978년
			
번호	040	제작 연도	미상
			
번호	041	제작 연도	1978년
			
번호	042	제작 연도	1973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사진			저 장 형 태	jpg		
자료 번호	한-043~048			활용 동의 여부	동의		
자료 제공	국가기록원 자료(43~37) 개인 제공(48)						
							
번호	043	제작 연도	1967년	번호	044	제작 연도	1967년
							
번호	045	제작 연도	1967년	번호	046	제작 연도	1967년
							
번호	047	제작 연도	1967년	번호	048	제작 연도	1964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사진		
자료 번호	한-049~054	저 장 형 태	jpg
자료 제공	개인 제공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49	제작 연도	1971년
			
번호	050	제작 연도	1971년
			
번호	051	제작 연도	1971년
			
번호	052	제작 연도	1971년
			
번호	053	제작 연도	1973년
			
번호	054	제작 연도	1973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사진		
자료번호	한-055~060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개인 제공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55	제작 연도	미상
			
번호	056	제작 연도	미상
			
번호	057	제작 연도	미상
			
번호	058	제작 연도	1977년
			
번호	059	제작 연도	1977년
			
번호	060	제작 연도	1978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사진		
자료번호	한-061~066	저 장 형 태	jpg
자료제공	개인 제공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61	제작 연도	미상
			
번호	062	제작 연도	미상
			
번호	063	제작 연도	미상
			
번호	064	제작 연도	미상
			
번호	065	제작 연도	미상
			
번호	066	제작 연도	2023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관련 문서						
자료번호	한-067~068			저 장 형 태	pdf		
자료제공	개인 제공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67	제작 연도	미상	번호	068	제작 연도	1977년
제 목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사진						
자료번호	한-069~072			저 장 형 태	pdf		
자료제공	국가기록원 자료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69	제작 연도	1967년	번호	070	제작 연도	1967년
							
번호	071	제작 연도	1967년	번호	072	제작 연도	1967년
비 고							
관련 자료							

수집자료 카드

제 목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사진						
자료 번호	한-073~076			저 장 형 태	pdf		
자료 제공	국가가록원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73	제작 연도	1967년	번호	074	제작 연도	1967년
							
번호	075	제작 연도	1967년	번호	076	제작 연도	1967년

수집자료 카드

제 목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신문 기사						
자료번호	한-077			저 장 형 태	pdf		
자료제공	부천문화원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77	제작 연도	1975년				
제 목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관련 문서						
자료번호	한-078~080			저 장 형 태	pdf		
자료제공	부천문화원			활용 동의 여부	동의		
							
번호	078	제작 연도	1969년	번호	079	제작 연도	2018년
							
번호	080	제작 연도	2020년				
비 고							
관련 자료							

부록 2. 관계자 인터뷰 녹취록

1. 유한양행 관계자 인터뷰 - 최영화

1. 일시 : 2023년 11월 29일 11시 30분 ~ 13시
2. 장소 : 부천문화원 스튜디오
3. 인터뷰 대상자 : 전 유한양행 소사공장 근무 최영화 선생님
4. 인터뷰 진행자
 장정규 : 선임연구원, 부천학연구소 연구위원
 신재훈 : 외부집필자, 부천문화원 역사기획팀장
5. 채록문 작성 : 장정규
6. 주요 인터뷰 내용
 - 유한양행 소사공장 관련 인터뷰(연혁 위치) 및
 - 유한양행 소사공장의 생산품 및 역할
 - 유한양행 소사공장 건물의 위치 및 사용처
 - 유한양행 소사공장 터가 펄벅기념재단에 매도되는 과정
 - 일제강점기 유한양행의 입지와 해방 후 변화 과정(부천에서의 입지)
 - 유한양행 소사공장 연구소의 역할
 - 유한양행이 소사공장에서 대방동 영등포 공장으로 이전하게 된 이유
 - 개인의 유한양행 입사 및 이전 과정에서 겪은 일화
 - 유일한 박사에 대한 기억과 펄벅 여사와의 관계 등



유한양행 장기근속 근로자 인터뷰

7. 녹취록

장 : 안녕하세요. 부천시(문화재단)에서 발주한 부천 근현대기업 조사연구를 위해 오늘 최영화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되고 영상도 촬영됩니다. 결과물은 추후 아카이브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고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내용은 책자에 수록될 수 있고 발간되는 책자는 배포될 수 있습니다. 녹음과 영상 촬영에 동의하시면 녹음과 영상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최 : 예 동의합니다.

장 : 예 감사합니다. 먼저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유한양행에 얼마나 근무하셨고, 재직 당시의 직함, 직책, 그리고 담당하는 업무는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 : 제가 유한에 있었던 것은 1970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1998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정년퇴직을 했죠. 약 한 18년 동안 유한에 몸담아 있었습니다.

장 : 담당하고 있던 업무는 어떤 것이었죠?

최 : 주로 유한에서 만드는 약품을 만들었죠.

장 : 아! 약품을 제조하시는데.

최 : 그렇죠.

장 : 그러면 부천 소사공장에도 근무를 하셨나요?

최 : 네.

장 : 그러면 얼마나 근무를 하셨었죠?

최 : 소사공장에서는 얼마 안 있었어요. 몇 년 안 있다가 대방동으로 이전하게 됐죠.

장 : 소사공장에도 근무를 했다가 대방동으로 이전해 가면서 대방동으로 직장이 위치가 바뀐거네요?

최 : 그렇지요.

장 : 아 네. 고맙습니다. 그럼 유한양행 소사공장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소사에다 공장을 설립하고 항생제를 만들면서 본격적인 제약회사로 각광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혹시 유한양행 소사공장의 연혁이나 이런거에 대하여 들으시거나 아시고 있는게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최 : 글썄, 그런건 잘 모르겠어요.

장 : 그러면, 유한양행에서, 당시 소사공장이죠. 그때 근무하셨을 때 소사공장에서 근무하던 인원이라든지 공장의 규모라든지 생산품 등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최 : 그 당시는 부천에서는, 아! 소사, 소사에서는 제일 큰 기업, 공장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인원도 많을뿐더러 그 당시의 기억으로는 인원도 많았죠.

장 :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었죠?

최 : 글썄요. 한 2, 3백 명. 그전에는, 그전에는 직장이 없었기 때문에 참 회사에 입사하기가 힘들었을뿐더러, 일할 자리가 없었으니까. 인원이 거의 2, 3백 명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장 : 소사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안티프라민같은 유명한 약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사공장에서 이런 안티프라민이 생산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 외에 다른 약품들도 소사공장에서 만들었었나요?

최 : 그렇죠. 많이 만들었죠. 영양제로서는 그로우민이라고 약이 있었습니다. 그로우민

장 : 아, 예. 그로우민.

최 : 그리고 액체로 된 물약으로서는 한약 위주로 되어 있는 레오톤 이라고 있었습니다.

장 : 아, 예. 레오톤.

최 : 각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감기약으로서 종합감기약으로다, 아마 지금도 생산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프시럽

장 : 아, 예. 코프시럽.

최 : 또한 코데나, 감기의 특효약이라고 각광을 받았습니다.

장 : 혹시 유한양행에, 나중에 70년도에 입사를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소사공장이 6.25때 인민군의 사령부도 있었고, 나중에 수복 과정에서 유엔군의 사령부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전쟁의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쟁 이후의 복구과정 같은 거에 대해서 들으신 게 있나요?

최 : 글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 : 아. 예.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1958년도에 초지공장이 건립됐다고 합니다. 이 초지공장을 보면 사진으로 보면 꽤 규모가 큰데 이 초지공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 : 초지공장은 제가 알기로서는 주사약, 주사약 담는 용기가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 : 일종의 초지라는게 유리, 그러니까 주사약을 담기 위한 유리, 그걸 담을 수 있어야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유리와 관련된 용기를 제조하는 공장이었었군요.

최 : 네.

장 : 혹시 그 유한양행에 굉장히 큰 연구실이, 연구 실험실이 있었거든요. 그것 기억하고 계시나요?

최 : 기억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세부적으로 무엇을 연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인체 내에, 약을 생산하는데 인체 내에 복용함으로서의 장단점 그 무슨

위험성이라고 할까. 약에 대해서, 약에 대해서 저항성이라든가 각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렇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 : 그럼 혹시 창립자인 유일한 박사님은 만나신 적이 있나요?

최 : 네. 언젠가 한번, 조희 석상에서 뵈었습니다.

장 : 직접 대화를 하신 적은 없구요?

최 : 네. 대화한 적은 없습니다.

장 : 혹시, 유일한 박사님께서 유한양행 소사공장 부지를 펄벌 여사에게 매도했다고도 하고 기증했다고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 혹시 아시는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 : 뭐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 제가 선배님들께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은 부천시, 부천에서 약을 제조하거나 하려면은 물이 필요해서 물 부족으로 수도를 서울에서부터 부천까지 오는데 그 공사비를 과도하게 요구해서 아마 그것 때문에 과도하게 요구해서 이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장 : 그 소사공장에서 제약하기 위한 용수, 용수가 필요한데 소사공장에서 계속 하기 위해서는 수도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최 : 수도를, 수도를 부천에 끌고 오는데 공사비가 과도해서, 그것을 유한양행에 과중하게 부담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사를 가지 않았나.

장 : 대방동으로 이사를 갔다는 말씀이죠?

최 : 제가 있을 때 여기서 물이 부족해가지고 물을 차로 공급을 했었어요.

장 : 아. 선생님이 소사공장에 근무할 당시에는 물이 부족해서 물차로 물을 공급했다. 이것은 굉장히 부천을 떠나게 된 이유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물론 이게 말씀으로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장 : 그럼 펄벌 여사한테 기증이나 매도한 것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최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장 : 이사 간 것은 그렇고. 혹시 유한양행 소사공장과 관련된 에피소드?

최 : 제가 거기서 근무를 해 봤지만 서도, 참 그 당시에는 일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랄까 모든 사람이 성심성의껏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회사가 아니라 내 일처럼, 내 일처럼 꾸준하게 근무를 하지 않았나. 또한 회사에서도 사원들한테 그 당시에 복지라든가 사원들한테 급여 같은, 급여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서운하지 않고 신경을 아주 많이 쓴 편에 속하고, 다른데 다른 회사에 비하면 조그만 중소기업에 비하면 급여 날이 일요일이나 토요일이 될 것 같으면 소급해서, 소급해서 금요일에 지급했다는 것이, 그리고 일 년에 상여금, 상여금을 600% 인가 그걸 받았고, 고정적으로 각 사원들한테 지급했고, 또한 하기휴가, 그 당시에 하기휴가도 일년에 일주일씩 올스톱, 본사가 됐든, 공장이 됐든, 영업사원이 됐든 올 스톱이 되어 일주일간 실시해 주고 하기 휴가비도

추가로 지급해 주는.

장 :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하자면, 유일한 박사님이 공장의 종사자들을 가족같이 생각한 거네요.

최 : 또 저도 들인 이야기인데, 선배님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언제가 하루에 회사 정문을 폐쇄해서 막고, 퇴근 시간에 사원들이 못 나가게 하고 자기가 직접 사원들이 못 나가게 지시하고, 잔디밭에다 전부 사원들을 앉혀놓고 저녁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다 먹은 다음 직원들이 만족할 때까지 먹여서 문을 열어서 퇴근을 했다. 왜? 오늘 너무 고생하고 수고해다. 사원들한테 배려를 많이 생각을 한거죠.

장 : 아까 그 유한양행 소사공장이 서울로 이전 해간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물, 용수 문제라 했는데, 그때 혹시 소사공장에 물차로 물을 배달을 할 정도의 시기가 언제였었죠?

최 : 취업한 전부터 아마

장 : 70년 전부터.

최 : 생산량이 많아지고, 생산량이 많아지고 회사가 확장되니까 물 수요량도 증가되니까 그렇습니다.

장 : 그러니까 70년 이전부터 물 수요량, 물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물 공급이 수월한 대방동 영등포 쪽으로 이전해 갔다는 말씀 이시네요.

최 : 네.

장 : 제가 아까 선생님한테 도면을 한 장 드렸거든요. 그 도면에서 보이는 유한양행의 위치 한번 검토해 보아주시죠. 부천역에서 아래쪽, 남쪽으로 쪽 내려오다 보면 펄벅기념관이 있고 펄벅기념관에서 위쪽으로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던 소사공장에 남아있는 건물의 위치하고 그 중간을 제가 추정했을 뿐입니다. 거기가, 보면 현재 지번으로서는 600번지, 700번지거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도면에 의하면 거기도 600번지가 되는데, 유한양행 쪽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당시 심곡리 25번지, 24번지 일원의 2만 평의 대지에다 공장을 졌다고 하거든요, 그것에 대하여 혹시 들으신 것이나 아시는 것이 있나요? 일단 위치부터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 : 네 위치를 보니까 위치를 추정해서 주셨는데 지금은 많이 변천되었지만 위치적으로 보면 아주 흡사합니다. 부천역하고 유한양행 위치가 아주 흡사합니다.

장 : 그러면, 심곡리 25번지 라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들으신 것은 없나요. 거기가 624, 625 이런 번지수로 나가고 그게 일제강점기에 토지정리를 할 때, 토지조사를 할 때 한번 지번이 정해지고 지금까지 크게 바뀐 적이 없는데 왜 심곡리 25번지에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선생님이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 해서요.

최 : 글쎄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 : 그럼, 그 유한양행이 서울시 대방동으로 이사 가고도 한동안 남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펄벅 여사에게 기증한 것 이외도 남아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있나 해서요.

최 : 네 없습니다.

장 : 그럼, 유한양행 소사공장이든지 유한양행 영등포공장에서 근무하시면서 참고로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최 : 우리가 유한에 대해서, 제약을 만드는 회사로서 규정이라든가 엄격하게 국민을 위해서 신경이라고 할까. 세심한 것까지 회사에서 배려를 너무 많이 해주고 또한, 약으로 개선되는 유효기간이라든지, 약은 다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가차 없이 하루라도 지난 것은 전량을 폐기처분 한다는 것 그걸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너무너무 잘 지켜주고 세계의 으뜸가는 제약회사로서 영예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 : 네. 고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주 의미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 : 내가 아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아마 좀 모순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장 : 오늘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서 우리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 삼양중기 관계자 인터뷰 - 신길용, 유갑종

1. 일시 : 2023년 10월 29일 오후 15시 30분 ~ 18시
2. 장소 : 부천시립박물관 세미나실
3. 인터뷰 대상자
 신길용(신) : 전 이천중기(1973.7.2. 입사), 삼양중기(2017.6.30. 일 퇴사) 장기근속자
 유갑종(유) : 전 삼양중기(1984.4.16. 입사, 2023.9.10. 퇴사)
4. 인터뷰 진행자
 장정규(장) : 부천학연구소 연구위원
 신재훈(재) : 부천문화원 역사기획팀장
5. 채록문 작성 : 정희석
6. 주요내용
 - 이천중기, 삼양중기에 취직하게 된 동기
 - 이천중기, 삼양중기에 근무 기간, 근무 당시 직책 및 담당 업무
 - 삼양중기에서 퇴직한 이유
 - 이천중기 삼양중기에서 제작했던 기계
 - 이천중기 최초 설립된 배경
 - 이천중기에서 삼양중기로 매도되는 과정
 - 1980년대 삼양중기의 가장 주력 제품
 - 주물공장의 변천 과정
 - 삼양중기의 구조조정과 소사장제 과정
 - 삼양엔텍, 삼양홀딩스로 변경되는 과정
 - 삼양홀딩스 소사영업소로 전략 되는 과정
 - 삼양홀딩스 소사영업소의 폐쇄 과정



삼양중기 장기근속 근로자 인터뷰 (신길용, 유갑종)

7. 녹취록

재 : 녹음과 영상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간단한 자기소개를 1분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길용 선생님부터.

신 : 저는 경상북도에서 부천으로 그전에는 우리 아버님은 이제 농사를 지으시고 농사꾼 아들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동네 같은 데서는 기차 같은 것도 한번 못 타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난을 좀 탈피해보자. 이래서 비행기에 제가 서울을 올라왔죠. 서울을 이제 올라 와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아는 것도 없지, 기술도 없지, 학벌이나 높은 것도 아니잖아. 중학교 나와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니깐 서울에 아현동에 전철이 있었는데 그걸 철거 하더라고. 땅바닥에 기차 내부가 남아져 있는데 그때 올라왔었어요. 우리 집 할머니가 그 아들이 삼촌 되죠 나한테,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두 번째 결혼을 해서 가지고 그 할머니 아들이 있는데 중국집에서 구로동에서 ‘공화원’ 이라고 하는데 중국집에 그 기술자라 쓰지. 이제 그 주방장이 있는데 거기 가지고 가서 이제 일을 배우려고 그래서 갔었는데 그때 가다 보니까 구로 공단이라고 하는 게 한참 활성화가 되더라고 그래서 거기 있다 보니까 중국집에 별 저기 하는 게 없어요. 거기 있다가 이제 아현동으로 덕문사라 하는데 인채소를 또 갔었죠. 옮겼죠. 거기에서 있다가 이제 일요일이 있었죠. 덕문사에서 그것도 또 가보니까 뭐 [해석불가]하고 이렇게 구청에서 고지서 나오면 그걸 지금 같으면 오토바이로 했지만 옛날에 리어카로 했어. 그 종이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거 하다가 그래 해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이제 그분들이 인천 송도 옛날에 송도가 거기가 좋았어요. 지금은 신도시에 다 있지만 그래서 송도에 이제 놀러 간다고 해가지고 따라갔죠. 가다가 보니까 경인 삼양중기 앞에 그게 옛날에는 경기도에 그 도로법이 없었어요. 우리 회사 앞 걸로 치료가 받을까 모집 공고가 붙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으로 하면 모집 공고가 그렇지만 옛날에 베리다 었잖아요. 베리다에 이렇게 크게 붙여놨더라고. 저기 버스가 서니까 옛날에 그 밑에 신앙촌 입구에 검문소가 있었어요. 소사삼거리도 검문소가 있었고. 그래 가지고 그 버스가 이제 하는데 보니까 모시고 온 거라. 그래 가지고 그걸 내가 해가지고 오는 날 나왔죠. 와가지고 여기 사람 쓰냐고 물었게 췌간한 사람이 시골 사람이 와가 얘기하니까 뭐 하려고 그러냐고 물어요. 나 기술 좀 배우고 저것 좀 해달라고 그 경비실장이 강기화라고 있었어요. 강기화 그분한테 아저씨라 했지만 형님이라 하면서 좀 나 좀 저것 좀 해달라고 난 시골 왔는데 기술 배우러 왔다고. 이력서를 써가지고 오라 하면 나는 이력서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를 좀 해달라고 하면서 총무과로 올라가더라고. 올라가 내 총무과 가니까 이력서를 가져 와가지고 아버지 이름 이제 뭐 쓰라 하고 내 승인을 거기다 눌렀지, 이제 자기가

쓰더라고. 써가지고 제출 해가지고 하더라고. 옛날에는 호적 등본을 가져오
 라 했어요. 지금은 주민등록증이지만. 그래서 이제 시골에다 연락을 했지. 호
 적 등본이 필요하다고, 지금은 뭐 하면 다 되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했는데
 한 일주일 있으니까 나오라고 얘기가 왔어요. 연락이. 그래 가지고 여기 삼
 양 여기에 딱 들어오니깐 그때는 건물이 지금은 두 개 있었지만 옛날에 건물
 이 주조 공장이라 하나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들어 와가지고 취
 직을 하니까 시키는 대로 다 했죠. 지금 같으면 애들 그런 거 안 합니다. 그
 래서 이제 용접하는 데도 가서 조금 하다가 또 거기서 용접에서 이렇게 하면
 보수 공사하고 이런 데 가면 또 따라가 용접도 하고 여러 가지 쿠사이드 많
 이 먹었죠. 옛날에는 뭐 그냥 뭐 쌍육 먹고 나가고 이러는 거는 한쪽 귀로
 듣고 흘러야지. 그래가지고 기술 배우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이제 삼
 성기계 공장으로 들어가게 됐죠. 이제 보수 공사하다가 크레인을 쿠프라가
 옛날에는 한 1.5톤인가 얼마밖에 못 했어요. 용광로가. 그걸 이제 작아 가지
 고 큰 용광로를 전기로를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걸 크레인을 30톤을, 그전
 에 한 10톤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물을 덜려면 크레인을 교체해 해야 되니
 까 이제 그걸 30톤으로 교체를 하려고 그 작업을 하다가 다 마무리해 모터를
 교체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전기를 내리고 올라 갔는데 전기를 넣었어.
 감전 돼가지 떨어졌죠. 떨어져가지고 병원에서 옛날에는 여기가 병원이 없었
 어요 성모병원, 순천향병원 없었습니다. 심곡동이라고 하는데 성요셉 병원이
 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필벽재단 올라가는 곳에. 한 4개월 있었어요.
 기브스를 해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이제 나오니까 회사에 가서 나 이제 다른
 거 못한다. 편안대로 보내달라. 그런데 경비로 가라 하네. 경비 가서 뭐 할
 겁니까? 젊은 사람이. 그래서 기계 공장을 보내달라 이래 가지고 기계 공장
 으로 갔죠. 거기서 이제 있다가 뭐 애들 결혼도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이래
 가지고 이제 2008년도 6월 30일까지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해가지고 정리를 했
 죠.

진 : 그러면 평생직장이셨던 거네요.

신 : 평생직장이었죠. 그걸로 벌어서 아들다 대학도 시키고

재 : 더 상세한 내용은 이따가 이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갑중 선생님도 자기
 소개 해 주십시오.

유 : 저도 고향 경남 거창군 위천면이라고 덕유산 바로 아래에 있는 아주 시골 촌
 동네 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시골 농부의 아들 태어 나가지고 그렇게 지내
 다가 저는 75년도에 서울에 올라왔어요. 75년 6월에 군복무 마치고 75년 6월
 달에 올라와가지고 국제통신이라는 그걸 군납하는 회사에서 한 몇 년간 다니
 다가 도저히 거기서는 무슨 비전이 없고 그렇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또 우

리 고향 친구가 기술을 배워 가지고 사우디 이런 중동 쪽에 나갔다 왔더라고 그래서 권유를 들어가지고 78년도 초인가 현대건설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직업훈련하는 거 있어요. 전기를 배워 가지고 78년도에 포항제철에 가서 1고로 2고로 공사하는 데 한 1년간 근무하다가 79년도에 해외 나가서 주베일 산업항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수주한 그 당시에 제일 세계에서 제일 큰 공사였어요. 그 공사에 가서 1년 있다가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은 나이도 제일 어리고 그러니까 시급이 아주 적었어요. 거기서 선배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나름대로 국내에 들어 갔다가 다른 회사로 나가면 취급을 많이 받을 거다. 해가지고 들어왔다가 동화건설에 가서 내가 전기 회사에 리아드 렉스라 그러면 우리나라에 한국전력이지. 그 전력회사로서 한 1년 6개월 했다가 근무하다가 들어 와가지고 조그마한 회사에 전업사라는 회사에 다니다가 삼양중기에 84년도 4월 16일날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거기서 변전실에 전기 설비 보수 같은 거 하는 거 그걸로 입사해 가지고 있다가 크레인 위에 올라가 있으면서 이제 2인 1조로 작업을 하는데 그 밑에서 한 사람이 봐주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그만 나 놓고 화장실 가는 바람에 다른 크레인 몰고 와서 제 발을 다쳤어요.

재 : 다 한번씩 큰 사고가 있으셨네요.

유 :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있는데 엄마도 저도 마찬가지로 경비실로 가라고 마침 그때 공구실이 자리가 날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공구실로 가서 저는 공구실에 있으면서 이제 사무실 업무도 하고 내 전기 일도 하고 제가 여러 가지를 다 하면서 지금 23년도 9월 10일자로 그만뒀습니다. 40년 조금 못됐지.

재 : 퇴직하시기 직전에는 어디에 계셨던거죠?

유 : 5년 동안 경비실에 있었죠. 2017년 11월 1일부로 경비실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2023년 9월 10일부로.

재 : 그러면 이쪽 소사동 경비실에 계셨던건가요? 완전 철거되기 전까지 책임지고 계셨던 건가요?

유 : 저 있을 때는 완전히 다 건물이 다 철거되고 바닥까지 다 공사 끝나고 삼양중기 이전이 롯데로 넘어가면서 없어지면서 그만 둔거죠.

재 : 그러면 연결해서, 이제 선생님들 각자 삼양 중기 혹은 삼양엔텍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이 회사에서 얼마나 재직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입사일이랑 이제 퇴직 말씀하셨는데 퇴직일까지 해서 이제 얼마나 근무하셨는지 그리고 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거를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 : 저는 73년도. 원래 내가 들어오기는 이천중기때 내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69년도인가 68년도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들어간 데는 이력서는 1973년도 7월 2일날로 돼 있어요. 그때 중간에 또 총무과에서 뭘 어떻게 하려는지

또 봐달라고 다시 써내라 하더라고. 그걸 써냈는데 거기 입사 삼양엔텍에 해가지고 거기 있을 때는 삼양중기 그래서 인천물산에서 이제 인천중기, 삼양중기, 삼양엔텍에서 많이 나갔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나는 기계를. 이제 다치고 나서 재강반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기술 용접도 좀 하라고 하면 해요. 그렇게 베테랑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써먹을 마치 대문 같은 거 이 정도로 만들어요. 그럼 이제 작업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내가 다쳐 가지고 이제 공무과에서 일하는데 모터 하는데 옛날에는 그 공무과 보수하면 거기 가서 일을 도와줘야 하고, 기계고장이라 하면 거기 가서도 일을 도와줘야 되고 지금 애들 같으면 안 갈 겁니다. 가서 OT를 달아두니까 “너 집에 일찍 가면 총각이 뭐 할 거여 거기 가서 일 좀 도와줘.” 이장록이라고 과장 있잖아. “저 총무과 가가지고 일하는 데 가서 좀 도와줘.”, “예 알았어요.” 가서 도와주면 시간지를 달아주잖아요. 버티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8시 반에 근무를 시작 해가지고 5시 반이면 8시간이 끝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출하를 한다든지 OT를 3시간씩은 해요. 8시 반에 나가는 거지. 그렇게 하니까 옛날에 월급도 뭐 별거 없었잖아요. 막 올라오니깐 여기가 전철이 결혼 해가지고 하니까 육경숙 여사 죽었을 때인가 전철 기본료가 30원 했어요. 육경숙 여사가 그날 인천 지하철 그거 할때 아마 돌아가셨을 거라고요. 그래서 기계를 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돈이라 하는 건 그 짓 다 했어요.

재 : 그러면 주로 주조 일을 하셨나요?

신 : 주조 일은 안 했어요. 그냥 기계 쪽으로.

재 : 다른공장 가서도 수리도 해주시고 그런 건가요?

신 : 그거는 이제 기계 찾기 전에는 해줬죠. 기계 자기들은 뭐 공구과 갔다가 주저부에 갔다가 일해주고 그런 걸 했어요. 허드렛 일이지. 그렇게 이제 사람이 거기도 하면 이제 기술자들 있잖아요. 뭐하라 하면 하고, 뭐 갖다 주고 그렇게 하다가 다쳐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기계과로 가겠다고 이제 해서 기계로 간 거야. 그리고 기계로 가니까 편해요. 기계를 잡으니까 그거 이제 기계를 잘못 잡으면 손도 나가요. 쇠를 깎아봐야 철사같이 나옵니다. 할 때 원래 선반을 배우면요 나사 내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인치를 많이 썼어요. 지금 미리를 쓰지만은 1인치는 만 8살이다. 요부 리브 만화보 로보부 이래. 일본 용어로 옛날에 기계 용어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사 매고 이제 배우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 하니까 그것도 또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롤선반 있잖아. 롤선반 가면 인천제철에서 철근을 빼려면 롤이 거기 있습니다. 기장이 한 8,00 정도 되고 파이가,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회사에서 주문을 부어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가공을 해서 납품을 시키는 거야. 인천제철에. 그거 하다가 또 우리 회사에 또 같은 회사 인천제강이라고 구로동에 인천제강

이 있었어요. 거기도 또 납품을 시키고 그러면 이제 그 공장을 한번 가봐야 되잖아. 가보니까 쇳물이 나오는데, 철골이 나오는데 별글 이런 게 막 툭 빠져나오더라고. 거기에 걸리는 데 그 사람들 한테 장화 같은 거 이만한 거 신고 탁 찍어 가지고 쪽 달려도 가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 이거는 위험하구나 이랬는데 그래 우리 회사 그러면 이제 만들고 우리 회사 기계가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서요. 큰 이제 조그마한 선반 이런 거 있다가 12자도 있다가 6자도 있다가 24자도 있다가 그렇게 컸어요. 한 50m 되는 것도 놀랩스라고 있었어요. 그런거는 올라가는 게 한 15톤 25톤씩 올라가요. 중량이. 하다 보니까 우리 기계부 부장이 재재현 부장 사장님이시. 지금 사장 돼가지 나왔지. “꼬부리, 야 너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기계 이거해봐” 그래서 이제 기계를 좋은 기계를 자꾸 옮기게 됐죠. 이렇게 이제 트럭 하다가 뭐 하다가 자가용하다 뭐 하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다 보니까 한 평생을 뭐 다 보냈지.

재 : 그럼 제지 기계 이런 것도 만드시고.

신 : 만드는 거는 안 했지만 가공을 했죠. 만들어서 조립하는 거는 조립 파트가 따로 있어요. 조립 1반이 있고 2반이 있고 이래서 2반은 프레스를 만들고 1반은 산업기계를 조립을 했어요. 우리가 깎아놓으면 베아링 같은 거 깎 때 끼고 이래 가지고 이제 납품을 하죠.

재 : 그럼 유갑중 선생님도.

유 : 저는 84년도에 변전실에 있었어요. 변전실에 입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24시간 돌아가야 돼. 전기실은. 그 당시에 보수가 3명, 전기가 4명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갔고 이제 24일에 돌아가니까 주간에 일주일간 주관하고 2주간 주관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전 공장을 다 다니면서 기계 고장 나는 그 크레인 고장 나는 거 그런 걸 다 보수를 했죠. 사무실에서 가서 다 형광등 교체하고 다 하고 이제 현장에 가서 기계 고장나는 거 다 손봐주고 모든 작업을 저희들이 다 했죠. 용해 같은 데 가서 이제 단지 이 기계 하면서 어려웠던 거는 주물공장으로 가면 트렌 위에 올라가면 여름에는 샘물을 보면 그 열기가 다 위로 올라 갑니다. 그러면 거기는 올라가면 아마 느끼는 온도는 5~6정도 될 거예요. 그런 데서 일을 하면서 조금 힘들었죠. 이제 주물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무슨 고장이 나갔고 기계공장이나 재가공장으로 왔으면 아주 활랑하죠. 주물공장에는 주물을 부어 가지고 이제 형태로 만들었고 나중에 탈사를 하면 그 모래가 먼지가 엄청 납니다. 그러면 기계 위에 올라가면 한 2~3개월만 올라가면 문제가 이렇게 쌓입니다. 그런 데서 이렇게 일을 하려다 보니까 엄청 좀 힘들었고 주물공장이 깨끗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88년도까지 이제 고전반에 있었고 그전에 이제 앞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사고 나

가지고 경비실로 갔다 이제 공구실로 와갔고 현장에 있는 모든 공구 관리를 현장만 아니라 사무실 것까지 다 저희가 관리를 했죠. 모든 구입 같은 거 이 친구들이 하는 기계 공장에 아마 금액적으로 한 80~90%가 거기서 다 사용하는 거예요. 기계 공장에서 tv니 드릴이니 이런 게 다 거기서 소모 되니까 그런 작업을 주로 하다가 이제 90년대인가 삼양에서 인원이 이탈이 돼도 모집을 못하게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구매과에서 사람이 하나 빠져나가는데 그 자리에 제가 올라갔다가, 한 1년 반 하다가 현장에 다른 사람을 제 자리에 배치 했는데, 그 사람이 일을 처리를 못해서 다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내려 와가지고 계속하면서 그리고 또 IMF가 터지면서 인원이 축소 되면서 사무실 인력을 줄여, 그러면 사무실에서 개인이 각자가 일보를 씁니다. 그 일부를 저 위에서 전산을 다 입력을 해야 돼요. 입력을 못하니까 제가 올라가서 이제 그때는 공구체를 잠깐씩 초인종만 올려놓고 비워놓고 올라가서 작업을 해주고, 그러 사무 업무도 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층에 사무 건물을 일반인 혼자서 하는 사무 업무를 제가 다 도맡아서 하게 됐어요. 사무업무를 그걸 무슨 2015년도 까지 그 작업을 다 하면서 2004년도인가 그게 나가면서 변전실이 없어졌어요. 없어져갔고 모든 그게 고장이 나면 사람을 불러오든지 그리고 사소한 거는 또 제가 다 전등 검사 같은 거 사소한 거 선박도 고장나면 제가 다 하고, 이렇게 양쪽을 다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저는 몇 가지를 다 했죠. 혼자서. 그렇게 해서 이제 2017년도에 경비실로 와서 경비 업무를 하다가 2017년도 올 때 세명전기 개발이 빨리 된다고 한 1년만, 1년 정도만 하면 될 거라고 그러는데 한 5년 있었습니다.

재 : 신길용 선생님은 몇 년도까지 일을 하신거예요?

신 : 저거 했는지가 2008년 6월 30일까지 했어요. 그래 가지고 축적으로 들어갔지.

재 : 2008년에 정년퇴직을 하시고 축적으로 17년까지 하신거고 선생님도 2017년에 정년하시고.

유 : 아니요. 우리는 정년은 그대로였죠. 그 당시에 57세가 정년이었나 56세가 정년이었어.

신 : 생일이 20일 같으면 말일로 끝났어요.

재 : 그럼 선생님도 정년은 되셨는데, 계속 축적으로 계셨던 거네요?

유 : 저도 이제 직원으로 있다가 축적으로 있다가 이제 뭐 저기서 삼양중기 관리자가 한 사람을 선택을 하라고 그랬어요. 저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현장 관리를 하려면 전기 업무가 필요하니까 저를 선택 한 겁니다. 전기도 하고 컴퓨터 조금 하니까 그래 갖고 제가 아마 그렇게 남게 된 겁니다.

재 : 그러면 신길용 선생님은 주로 기계 분야 쪽이시고, 유갑중 선생님은 주로 전

기분야 셴던거죠?

유 : 관리쥬 며. 다했으닌깐.

신 : 인원이 축소되니까 구조조정하고 이러니까 그때 업무가 관리 쪽이지.

장 : 이천물산에서 삼양으로 넘어갔다고 하셨고, 또 이천물산 이천중기 삼양중기로 넘어갔다고 하셨고 또 이제 주물회사는 또 어디로 넘어갔다고 하셨잖아요?

신 : 케이스코.

장 : 관련해서 이제 회사가 계속 바뀌잖아요. 이름도 바뀌고 주력사업도 계속 변화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기억나시는 내용을 방금 말씀하신 케이스코로 몇 년도에 가고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신 : 케이스코로 간 게 2003년인가 2004년인가 그렇게 되서 그걸 명확하게 우리가 연대를 잘 모르지.

장 : 주물공장은 그럼 아예 그 정도에 다 넘겨 버리신거네요?

재 : 그 시기에 전전실이 없어진 거네요. 케이스코에 주물공장을 넘기면서 여기에는 주물 관련된 업종은 싹 없어지고 변전실도 없어지는 거네.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네요.

신 : 2005년도인가 6년도부터 그냥 그 공장을 다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해서 임대 업체가 23개가 됐어요.

장 : 주물공장 넘기고 이제 주력하게 된 게 제지 공장인가요?

신 : 아니 주물공장이 있을 때 제지를 했쥬. 이게 제지를 내가 원래 나는 조그만 선발하다가 요만한 거 뭐 선발 한 600짜리 이런 거 하다가 큰거 8m짜리 하다가 15m짜리 하다가 30자 선발하다가. 그거는 한 40m 대 기장이 이런 걸 내가 자꾸 나는 올라갔쥬. 자동기계로 자꾸 이제 옛날에는 그 벨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제 자동 기계 nc라고 하는 기계 해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진화하니까 나는 걸로 자꾸 빠져나갔쥬.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서 이제 나이가 내 위에 선배들이 있었어요. 양키 드라이깁는 사람 이태용이라 하는 분하고 김성호 내가 알기로는 장무길 씨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실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나이가 좀 이제 드니까 젊은 사람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잖아요. 이거 보면 이제 나는 가공에 대해서는 밑에 하면 다 기초는 다 나왔잖아. 이거 보면 이렇게 하면은 이게 더 잘 될 건데. 그 기술자들은 옛날에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파이터도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있지, 삼클 그거 갖다가 꾸부리 붙어 가지고 이 기업자리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이래요. 이거되면 이거 만약 그거 부딪히면 또 깨지면 또 단가로 해서 실제로 해다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나 이제 이러니까 이제 위에서 사무실에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서울대

출신에 우리 제재원 부사장이 머리가 그 양반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할머니께 저놈이 저거 나한테 한번 일본 한번 갔다 와라. 그래서 일본을 왜 가요? 아니 나 안 간다고 그러니까 터닝이 덜 오니까 터닝을 보라고 저 김종대 보내라고 나 안 간다고 한 사람이 터닝씩 범용터이랑 그게 수직 선반이죠. 높이는 이만한 선반이고 이렇게 싸 놓으니까 터닝이죠.

재 : 터닝이라는 게 뭐죠?

신 : 밑에서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돌아가고 위에서 이렇게 가공이 되는 거. 그게 터닝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달라고 하니까 그 양반이 내가 “야 종도야 너 가라. 일본은 한번 가봐라. 그러면 일본 가는 것도 좋아야. 너 기술 좋잖아”, 내가. 그러니까 “아이고 안 갈란다. 머리 아프고 그거 말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왜 가냐고” 이게 김종배한테 아마 얘기했는 거야. 부사장이 얘기하니까 안 가려고 하니까 나한테 자꾸 가라고 하니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일본 갔었죠. 가가지고 그거 가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기사하고 가니까 통역해주고 하는데 그게 머리 들어가요? 그때 일본을 가니까 일본 사람들은 기계를 하는데 한국 사람 온다고 하니까 갖바를 다 샀어요. 못 보게 참 나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딱 감염되면 가야지 다른 데 못 봐. 여기 오면은 자동라인을 해놔는데 보니까 희한하더라고. 그때 그 한국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와 가지고 일주일간 갔다가 와서 오니까 그래도 잘 안 돼요. 이게 그 nc라 하는 게 cnc라 게 숫자 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화면에 이런 걸 넣어야 돼요. 쳐가지고 컨트롤 그걸 넣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이제 하는 사람이 기사가 이제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대학교 나왔으니까 이제 그거 보고 이제 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갈 때마다 현장은 내가 머리가 더 나빠. 현장에 일하니까, 그 사람은 짜증도 났는데 다시 안 돼가지고 옛날에 인천 한국기계라고 있었어요. 인천에 거기 있는 분을 nc가 거기가 한국 기계가 들어서 있다가 강사를 초빙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사무실에서 오후 교육을 받았어요. 가서 받고 이제 여러 사람들 이제 가서 이제 관리자들도 받고 이러니까 나는 이제 그걸 하면서 기계를 하면서 가서 물어보고 이게 안 되던데 에러가 나오던데요? 하니까 이게 뭐가 빠져서 점이 안 찍어서 그렇다. 이제 이런 걸 읽으면 아 그렇구나, 점을 안 찍으면 제로로 읽어요. 가서 비상[해석불가] 서 있지를 안 넣으면 가서들이 받아버려요. 그렇게 이제 그런 걸 아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배웠지. 배워가지고 이제 터닝을 이제 했죠. 법령 터닝도 하다가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이제 나가니까 양키 드라이라고 거기 가서 이제 하니까 보니까 이미 많은 녹감 같은 게 그거 드는데 보니까 한 35도인데요. 30톤이 그냥 막 줄줄 내려와요. 그거 하나도. 그래서 그걸 하라 하니

내가 덩치 키도 작은데 그걸 하려고 보니까 처음에는 저거 안 하더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 해가지고 그걸 하게 됐죠. 그게 추천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들어올 때는 많아요. 한 3개 4개 들어오면 그거 하나 그 당시만 들어왔으면 1억 5천씩 갔어요. 그 당시에.

장 : 그게 몇 년도 쯤이예요?

신 : 그게 아마 올림픽 1988년쯤 됐어요.

재 : 양키 드라이라는 게 제지공장이나 화장지 공장에 들어가는 기계죠? 그게 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삼양의 역사를 보니까 삼양중기에 그 때 당시에 매출의 한 60% 이상이 제지공장에 납품하는 기계 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물공장에 있을 때 화장 제지공장 화장지공장에 들어가는 기계들을 많이 납품하셨는데 그때가 가장 양키드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신 : 양키드라이 만들어놓고 노라 있잖아요. 시도 노라라고 그게 제기 공장에 내가 가봤어요. 제 집을 대한제지도 가보고 유한김벌리도 가고 유한김벌리 저대전 있는데 거기도 가보고 또 일본에서도 갔다와 봤구요.

유 : 우리 회사에서 일본도 많이 가고 폴란드도 많이 가고 폴란드에는 폴라스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폴라스 1500톤인가 그런 것만 들어가 보면서 한 2년째 근무하고 왔습니다.

신 : 처음으로 이제 프레스가 옛날에 프레스가요 썰매끼리 여자들 머리 핀 같은 거 얇은 거 있잖아요. 0. 몇티짜리 이런 거 철판을 땀어요. 이거 로얄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데 그런데 조그마한 걸 이제 납품을 하다 보니까 회사가 우리 회사는 규모가 크잖아요. 주물공장이 있지 제강공장이 있지 가공공장이 있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지공장에 들어가는 거 그게 양키드라이를 이제 만들면 그 밑에 들어가는 게 부품이 프레임 제강공장에서 프레임 기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이제 만들고 또 베어링도 이런 거 캐스는 아까 베어링은 사가지고 오지만 베어링 커버 같은 거는 이제 우리 주물공장에서 가공을 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지니까 제지 공장 가보니까 종이를 저쪽에 펄프라고 하데요? 펄프로 하면 이만한 믹서기가 큰 게 있어요. 이방 반만한 게 거기서 막 갈아요. 보니까 플라스틱 통에다 표백제라고 뭘 넣더라고 약품을 그걸 막 넣어 그러면 그걸 뜨끈뜨끈해야 이 김이 나와. 거기서 막 갈아 가지고 내 집에 보니까 이쪽에 네 발이 탁 뺏기니까 그게 콤비아 있잖아요. 고무 콤비아 같은게 타고 나가더라고요. 나가가 저쪽 볼게. 제일 마지막에 볼게 양키드라가 그게 파이가 얼마야 3600이라고요. 파이가. 그래서 3600짜리 그게 한 바퀴 나오면 그 안에

스팀이 들어가요. 양키드라이 안에 스팀이 들어가면 한 바퀴 도는 사이에 말라요. 종이가. 거기 쪽 말라면 어떻게 하나면 앞에서 또 기계가 카팩이라고 이렇게 딱 오면 딱 빼주면 양키드라이 딱 빼주면 종이가 딱 나와요. 노라 하면 그러면 중량이 어느 정도 딱 되면 딱 떨어져요. 자동으로 보면 지게차가 딱 와가지고 딱 빼가지고 저절로 빼고 그래 가지고 희한하다 이랬죠. 이걸 해가지고 뭐 하는가 내가 물어봤어요. 공장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을 가져가서 화장지 만드는 데 또 화장지를 만들고 또 휴지 있잖아요. 휴지 만들면 휴지로 만들고 ft 컴퓨터 용기 있잖아요. ft용기 그게 제일 비싸대요. 그거 만드는 데도 나가고 종이 질이 다 다르더구먼. 종이 막 파지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막 그런 데 나오면 잘 안 감기면 딱 끊어가고 다 떠가 막 살해가 저리 버려버려. 그리고 이제 잘 나온 걸 잘 감기가 해가 해놓고 이런 데 종이가 이렇게 많네.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납품을 시키니까 전부 전적으로 이제 다 하지. 그러면 이제 조립반에서 출장을 가요. 출장을 가서 그걸 설치를 해 주는 거지. 이제 설치까지 다 해주고 나면 뭐가 안 된다 그걸 오래 쓰면요. 양키 드라이어가 달아요. fc거든요. 주물 이거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회사도 발전을 하니까 이것을 강도를 높여 가지고 위에다가 메기를 하면 어떻겠나? 위에다 단단한 거 금속을 입히는 거요. 금속을. 코팅을 한거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도 그걸 메테라이즈 라고 해가지고 불로 이렇게 철사를 집어 넣어가지고 막 나오는 걸 갖다 드라이 입히려고 도금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성공을 못 했어. 그래가지고 군데군데 이제 요마참 해보고 또 요만참 해보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시운전 정도를 또 정도기가 있어. 찍어봐요. 여기 이제 얼마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찍어 보는데 그런데 그걸 했는데 다른 데는 어때? 하면 중국 같은 데서 이놈들이 안 하니까 뭘 하나면 제강밭에 그 철판으로 있잖아요. 주물로 안하고 철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양키 드라이를 철판드라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양길 이더라고. 철판드레는 거기 도금이 잘 된대. 강하게 근데 그 주물에는 그게 잘 입히려 하면 그게 주물하고 여기에다 도금을 입혀놓으면 잘하고 그게 성질이 잘 안 맞는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하다가 회사도 그게 잘 됐으면 기계 공장이 좀 오래 쪽 가길 바랐는데 가지 못하고 IMF가 그거 와가지고 구조조정하지 뭐 하지 뭐 이러다 보니까 회사가 그만 도산 한거죠.

장 : 그러면 주물공장이랑 제지 기계 만드는 거랑. 한꺼번에 사양길로 간 거겠네요.

신 : 이제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 한 걸 이제 보면은 그랬어요. 프레스를 만들었고 2반 에서는 프레스를 만들었어요. 1반에서 산업기계를 조립을 했고. 그러면 프레스를 또 하니까 그 밑에 있던 기술자들이 도용을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공장을 차리는 거예요. 지금 나가가지고 했는데도 내가 “애 이 사람 말이야 회사 거 가지고 하면 도면도 유출되지” 도면 같은 건데 이제 이렇게 하면 도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도면이고 뭐고 다 갖춰진 거예요. 작업자가 이제 하다 보니까 기술자라고 와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래 가지고 자기가 나와 가지고 뭐 어디 가냐고 이렇게 관둔다고 다른 데서 돈 더 받고 내 집 나가서 날 보니까 가좌동 인천에 가가지고 공장을 마치 꼬박 하나가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만약에 100만 원을 내면 한 70만 원을 팔아, 이렇게 하는 경쟁률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프레스 갖고 자꾸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거는 sd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30톤, 60톤, 80톤, 120톤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 그러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큰 거를 1500톤 이제 이거를 하면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본넷을 찍으려면은 이제 그걸 해가지고 크게 하다가 그것도 별 성공을 못 거뒀어요. 그래 하다가 프레스는 이제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산업기계 재지 기계 하다 보면 제지기가 주창 있으면 괜찮은데 고정적으로 생산량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보수하는 거 있잖아요. 해태제과 같은 데는 껌, 양평동 있는 해태자가 같은 금 제조하는 기계가 이제 오래 쓰면 닳잖아요. 그런 거 이제 가져와서 발주해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도 하고 수리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 : 제지같은게 잘 안들어오게 되게 혹시 언제쯤일까요?

신 : 회사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2006년 정도부터 될 거야.

유 : 2005년에 주물공장이 다 이사 가면서 같이 넘어갔어요.

재 : 양키드라이어가 사양길에 접어가니까 계속 수주가 들어오면은 주물공장도 있을 거고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 같은 데에서 철판으로 만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수주가 안 들어오니까 사양기에 접어드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한 게 이제 그러면은 주물 공장에 이사 가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만들었죠?

장 : 그다음에 엔텍으로 넘어간건가요?

신 : 아니죠. 중국 공장 이제 사양길에 하면서 내가 거기서 2008년도에 있으면서 백두산이라고 하청 들어가가지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기계가 있으니까 기계 어지간한 기계는 회한하고 터닝이라고 보링 이런 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 용접해가지고 뭘 하게 만들면 가공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내가 관둘라 하니까 내가 일당 주니까 월급 주니까 나한테 와서 좀 같이 있자. 이래 가지고 거기서 10년정도 에서 내가 오래 있었어요.

재 : 그러면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005년도에 주물공장이 이제 정읍으로 케스코로 넘어갔어요. 케스코로 주물 공장이 넘어가면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양은 이제 뭐 소사장제 각 분야별로 별도의 대표자들을 만들고 분사해서 소

사장제로 운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삼양 본사에서는 세일즈 같은 거를 하고 물건을 어디서 수주받아 오고 그다음에 나머지 거는 각 소사장제들의 분업화된 데에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삼양해서 납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2005년도 이후에는 대부분의 어떤 기계별로다가 프레스는 굉장히 큰 프레스 하나는 예를 들어서 누가 이거 맡아서 운영을 해. 그다음에 그걸 누가 맡아서 운영을 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사장제로 운영이 됐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다 계열사이기는 하지만은 사업자 등록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05년도 이후에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운영이 해왔던 걸로.

유 : 그게 아마 소사장제가 2001년부터 됐을 거예요. 2001년부터 회사를 좀 정리를 하면서 2001년부터 기계 공장 기계공장에 가공하는 건 강면기계라고 했었고 그 또 조립반 그렇게 했었고 또 저희 조립반에 또 동양[해석불가]라고 그래갖고 한 3개 업체가 하다가 강명기계라는 데가 없어지고 백두산이라는 들어오는 데가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2016년도까지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일찍 사라졌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업체에서 조금씩 들어오면서 큰 기계는 그래도 이제 소자재로 하다가 나중에 임대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2015년도 까지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2015년도 이후로 그냥 쓴물처럼 다 거의 빠져나갔지.

재 : 그러니까 이제 삼양중기가 워낙 기계들을 제작 공작용 기계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소사장제를 운영할 때는 기계의 소유주는 삼양이었었죠? 기계의 소유주는 삼양 이었었고 단지 각각 대표자를 별도로 두고 세금 계산을 한 거죠.

장 : 구조조정하고 노동자들이 많으면 이제 힘드니까 기계만 유지 하면서 이제 소사장들한테 일을 나눠주고 이제 임대료 같은 걸 받는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한거네요?

유 : 임대를 그리고 회사에서 또 수주를 해갖고 와서 대부분이 이제 거기서 가능하면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다 주고 제가 공장한테 넘겨주고 그런 식으로.

재 : 워낙 분야도 많고 기계들이 전체적으로 많고. 주물이 이제 나중에 이사를 갔지만 주물부터 해가지고 모든 기계들을 다 만들 수 있는 공작 기계들이 많으니까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장 :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큰 기계가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그 기계 중에 저는 모르겠어 가지고 그 기계 중에 기억나는 뭐 기계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유 : 양키드라이 가공하는 거 하고 롤렉스하고.

장 : 롤렉스요? 사진이 있으면 참 이해하기 쉬울텐데.

신 : 그래서 사진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 할 때 2002년도 이광수 대표이사가 그게

맨 처음에 할 때요. 그걸 할 때 구조조정을 하는데 엄청나게 노동조합에서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나도 말년에 와서는 이제 노동조합에 내가 일을 했어요. 하다가 부위원장을 내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그걸 기계부에 있는 사람을 주조부로 보내고 이렇게 조립하는 사람들 있잖아. 가공하는 사람들은 선반을 하니까 괜찮은데 그걸 맨 처음에 줄 때는 어떻게 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나가라 하니까 영업을 뭘로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기술부 부장이라 하는 사람이 이광수가 “너 나가서 거기 가서 사장질 해. 그러면 니가 지금 영업부에서 일감 따라오는 걸 내가 넣어줄게.” 넣어주겠고 그러니까 이광수 부장을 기술부 부장을 믿고 너들 따라가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못 믿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회의를 막 자기네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 맞대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도 불안하다 이거요. 이광수를 어떻게 믿고 그 사람은 설계실에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믿고 가느냐? 그러니까 우리 대표이사께서 “그러면 월급을 너들 기본급을 회사에서 만들어 주겠다.”

재 : 그러니까 그게 노동조합하고의 협상 과정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삼양이라는 큰 회사에 소속돼 있다가 소사장제로 가니까 채권 회사로 다 직원들이 가야 되는데 반발이 심하죠. 그런 어떤 노동쟁의 과정에서 월급을 어느 정도 보존해 주겠다. 이런 절충안이 나와서 소사장제가 확장이 된거죠.

신 :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가 있다 보니까 강명재이 이려고 있고 제가 봐도 이렇게 해가 나가고 전부 다 다 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알기로는 이 사람한테 가서는 내가 일당을 얼마 줄 테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해도 여기 가서 돈을 얼마 주면서 내가 더 넣었어 봉투에. 이제 회사에서는 키로수로 물건을 달아 가지고 돈을 지급하잖아요. 주물 같은 거는 그 주문을 하면 그 해가지고 사무실에 올라가서 이번에 한 달 일한게 몇 톤을 가공을 했어, 했으니까 이제 얼마 나온다고 이러면 사장이 소사장이 그전에 그 반장 하던 사람들이 쭈물쭈물하는 거예요. 개주머니 다 넣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속닥속닥하고 또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지 말까 서로 이제 입을 다물라는 거여. 같은 친구라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제 회식하다가 그게 터진 거예요. 이번 달에 내가 저거 보니까 이제 머리가 돌아간 사람은 프레브 뭐 가공하고 엔진 뭐 가공을 하고 했는데 이게 왜 몇 톤이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빵꾸가 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싸움이 붙어가지고 노동조합에서 이것 좀 해결해달라. 노동조합에서 해야지 그걸 불러놓고 사장 불러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하대. 그런 걸로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게 회사가 그만 내 쪽에 가니까 **[해석불가]** 다 거쳐버렸어요.

재 : 그러면은 소사장제도 운영할 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거의 다 삼양 본사에서 어떤 영업 이런 것만 하고 직접 한 거는 별로 없었잖아요?

신 : 그러니까 여기서 영업부가 있었어요. 이제 결제는 본사 가서 말했죠. 말하는데 여기서 영업부가 이제 영업부장도 있고 이제 영업부 이사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영업을 가져 오는데 이게 옛날같이 그렇게 호황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내가 회사에서 여기 댕길 때는요. 1980년도는 회사 작업복을 입고 나가면요. 부천 자유시장 여기 나가면요 아저씨! 이래요. 왜요? 이카니까. 내 동생들 시집 좀 봐. 그러니까 왜요? 그거 제일교포가 하는데 회사가 좋다며, 제일교포 초대 2층 중개 한 사람 초대할 때 서상록 씨라고 회장이 제일교포가 했어요. 이천물산일때는 제일교포가 했어요. 처음에 이천물산 할때 제일교포였어. 이천제강하고 저 이천전기라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 무슨 무슨 중기로 바뀌었어. 그거 저쪽에 나가들이 있었어요. 무슨 전기 홀딩스가 뭘로 바뀌었더라고. 그거하고 회사를 세개까지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저기 신앙촌 있잖아요? 저 성신고가서부터 여기 소사삼거리 여기 있잖아요. 전부 우리 회사 땅이라 썼어요. 그 고아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실까 모르겠어요. 산 밑에 삼양이 지금 아무래도 푸르지요 맞은편에 지금 뭐야 어울마당인가 소사 그거 하나 있잖아요. 그 밑에 고아원이 있었어.

장 : 이천중기가 다른데도 있었어요?

신 : 서상록씨하고 같은 계열사로 구로동을 제일 먼저 맡았고 그 다음에 이거 만 들었고. 그 사람이 이천서씨래요.

장 : 서희장군 후손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천서씨인데 공장은 여기다 지은 건가 했는데 이천에도 있었던 거네요.

신 : 이천 전기라고 있어서 거기는 모터 만드는 거예요. 지금 무슨 홀딩스를 바꿨다고 하던데 그것도 다 팔고 넘어가고.

재 : 이천 제강이라고도 있었나요?

신 : 구로동에 있었어요.

재 : 제일교포 서상록 씨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이천물산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삼양에 넘겨진 거죠? 그중에 하나 서상록 씨가 가지고 있던 지분회사 중에 하나를 한양이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주조 공장만 있었죠?

신 : 그때 당시에는 주조공장 한 3분의 2 정도는 주조 공장이고 기계공장 요 위에 쪽으로 있었어요.

재 : 이천중기에도 주조공장하고 기계공장이 같이 있던거네요?

신 : 그쵸 한 건물 안에. 건물 안에. 그래서 다시 이제 기계 공장을 앞으로 하나 지어가지고 기계 공장을 뺐지. 그 자재가 에치빈 같은 게 전부 다 일본도 싣고 들어온 겁니다. 옛날에 지금 경비실이 있는 데가 아니고 그 중간에 앞에

보면 그 고물상 하나 있을 거라, 그게 도로 옆에 고리에 정문이 있었어요.

장 : 그러면 삼양엔텍으로 넘어갈 때는 이미 소사장제로 다 이렇게 분업화가 다 된 상태였겠네요. 그럼 삼양엔텍은 주로 환경 관련된 기계 만들고 뭐 이런 거였다는데?

신 : 이게 왜냐하면 하청을 주잖아요. 내가 사장이라고 하면 철판 같은 거 해서 환경 오염수 같은 거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탱크를 만들어서 서텐으로 이렇게 좀 화학약품도 만드는 건 서텐으로 만들고 하청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공장 터 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재 : 여러 가지 기계들을 외국에 납품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폴란드도 납품을 하고 일본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 달씩 근무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중에 또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걸 납품을 해서 몇 년 동안 폴란드라든지 어디 갔다 오신 그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유 : 그거 갔을 때 저기 유승민이하고 정관진하고 그 사람들은 한 1년 반 2년 있는데 그 급여 같은 걸 내가 사무실에서 다 계산했거든요. 그 당시에 오티 타임으로 해서 내가 정관진이하고 유승민이가 몇백만 원 그 당시에 그렇게 내가 결제를 해준 거야. 양키드라이 같은거 나가는 거는 보통 한 보름 20일 길게는, 근데 이거 플레스 1500인가 톤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일 큰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지붕을 뜯고 우리가 공장이 원래 있었던데 세 칸인가 네 칸 늘린 걸 그 공사 때문에 늘리는 거 안에 그걸 위에서는 조립을 해갖고 무슨 크레인을 들 수가 없으니까 밑으로 큰 걸 파고 그 안에서 조립을 해갖고 지붕을 뜯고 이걸 드러내고 내서.

재 : 그걸 어떻게 외부로 옮겨요?

유 : 3단으로 분리를 했어요. 그 정도로 컸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나가면서 1년 반인가 몇 명 있어요. 그것도 한 사람은 오래 못 두고 교대로 한 8명이 이렇게 교대로 갔었어요. 온천도 갔다오고 그랬어요.

장 : 기계만 팔면 안 되니까 가서 이제 조립해주고 설치해주고, 그때 폴란드 가고 이랬을 때가 90년대 넘어서겠네요. 동구권하고 된게 90년도 아닌가요?

신 : 90년도에 다 됐지.

재 : 아까 그런얘기를 하셨잖아요? 자유시장에 가면 삼양 올리브 취직시켜달라는 그런 얘기도 많았었고 혹시 지금의 삼양 중기가 있던 자리에 거기에 여러 가지 주문과 관련된 철판과 관련된 회사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신안주철, 서울주철 그 주변에 혹시 그거와 관련된 무슨 특별한 업종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있었다던가 그런 건 없나요?

신 : 아니 없죠. 유대관계는 없었고요. 서울 주철은요. 드라이버로 멘홀 뚜껑 있죠? 채시부라든지 하수 뭐 해가지고 그게 주방용품이거든. 그거 만들고 신한

주철은 엘브를 만들었어요. 수도꼭지 엘브 여자들이 아줌마들이 많았어요. 거기엔 구봉식이가 그 신한주철 출신이거든.

재 : 그러니까 진짜 기계와 관련된 거는 삼양주철이 제일 많이 한 거네요.

신 : 벤츠 타는 사람하고 에쿠스 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장 : 제가 듣기로는 이제 68년도에 이제 이천물산이 들어왔고 73년 정도에 삼양중기가 된 건가요? 그러면?

신 : 그정도 됐죠.

장 : 73년도에 부천이 시가 됐잖아요? 별로 상관은 없겠죠?

재 : 시승격하고 삼양중기가 이천물산을 인수한거하고 똑같아요.

신 : 그거는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서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장 : 이제 삼양중기 정도면 꽤 규모가 큰 사업체고 부천에 그렇게 큰 공장이 잘 없잖아요. 작은 공장들은 많은데.

신 : 여기 내동에 가면 경인세기라고 경원세기 사장이 강성입니다. 노조위원장. 지금 부천시 김정협이를 내가 잘 알아요. 내 사무실에도 몇 번 찾아와서 내가 잘 아는데 노조할 때 내가 잘 왔다 갔다 했어요. 높은 건물 있잖아요. 왜 거기 공원 내에 가면 부천시 시지부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시지부 의장하다가 국회의원 나가 국회의원 된 거예요. 장성 출신이예요 그사람이.

장 : 그럼 기계 회사가 부천에 자리 잡은 이유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신 : 부천에 옛날에는 지금은 여기 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쪽으로 소사동 쪽으로 소사초등학교 이런 데 있으면 하천이 소사역으로 짝 흘러내렸어요. 소사역 남부역 쪽으로가 지금 현대힐스테이트인가 짓는다고 건물 짓는데 거기가 고아원 자리예요. 그 밑으로는 그냥 산이고 논이었었어요. 여기 소사역까지 논이었었는데 집을 짓다 보니까 단독도 짓고 자꾸 도로가 이제 이거 폐쇄돼 버리고 신도로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저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는 이 회사가 여기 오다 보면 오류동 부산파이프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동부제강인가? 거기 나 회사 저거 할 때는 그 오류동 다리를 건너가지 나오면 그거 회사가 좋았는데 우리 회사가 더 낫았어요. 내가 그걸 알아가지고 그 직원한테 내가 이제 기술도 좀 느끼고 이러니까 가서 물어봤어. 요 일당이 얼마 셔야 됩니까? 이렇게 일단 싸다고 빨리빨리 고정직이라서 싸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한눈을 안 팔았죠. 그래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그래서 나는 회사를 쪽 하게 이렇게 회사를 여기서 하나 해서 말뚝을 박은거지.

장 : 그러면 이천중기에서 삼양중기 되면서 급여도 좀 오르고 대우도 좋아지고.

신 : 대우 좋았죠. 지금 내가 뭐 이런 얘기 내가 나는 우리 어디 가서 삼양이라고는 욕 안 한다고 내가 맨날 그래. 나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 또 직원들이 퇴사하는 사람들 좀 홀대받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회사가 월급 제때 주

지. 7일 날이 월급인데 은행입니다.

유 : 40년 동안 한번도 안 밀렸습니다. 전산 처리로 금요일날 줘야 되는데 못 줘서 하루 늦은 적이 있어. 정산이 잘못돼서 한 번 딱 넣어줬어요. 그리고 맨날 일요일날 그러면 금요일날 주고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재 : 그러면 1970년도 75년도, 선생님은 1960몇 년부터 이천중기 있을 때부터 계셨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1974년도인가요? 당시에는 역곡역부터 소사역까지 별로 없었죠? 아무것도?

신 : 역곡역이요. 간이역입니다. 역곡역에서 인천으로 가는 열차가 전철에 올라오면 역이 없었어요. 그냥 요만한 배대기만 하나 해놓고 열차가 오면 철철철 서지 않고 천천히 가면 젊은 사람은 그냥 가면서 뛰어 내려요. 서지를 안 했어.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나고 뭐 다리 부러졌다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정차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여기게 된 거야. 옛날에 거기가 역곡역 그게 뭐냐면 앞동네라고 누에 뽕나무 있죠 누에 시험장도 있었고 경인냉동이라고 냉동기 있었죠.

재 : 그러면 그 당시 풍경이 경인국도하고 경인철도하고 카톨릭대도 그땐 없었지 않나? 카톨릭대 그러면 거의 삼양이나 이런 공장들 외에는 별로 없었겠네요.

장 : 공장 부지가 들어서기 좋았겠네요. 그러면.

신 : 이게 옛날에는요 공장 부지하기가 좋았죠. 그때는 뭐 제약 조건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있다 보니까 뒤에 우리 회사들 신안주철이 나가더라고. 아니 나가지는 얼마나 있을까 뭐 아파트 짓다 공사한다고 또 그래. 그랬더니 또 얼마 있다가 서울주철이 또 나가더라고. 그래 나갔더니 괜찮은가 보다 했지. 그리고 있으니까 여자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뭐 뭐 분질 난다고 대모 갖고 정문에 와서 자꾸 이렇게 자꾸 이러더라고요. 김상희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공약이 뭐 어떤 거라고 뭐 이런 말도 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그 뒤로부터 그만 회사가.

재 : 그때쯤 되면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들어서고 또 이 기계 쪽에 사양산업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리한거죠 사실.

신 : 회사가 자꾸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신제품 전자제품도 신제품으로 자꾸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하니까 우리 회사가 그렇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청년이 이제 어렵고 이렇게 있으니까 회사에서 누릴 거는 다 누렸어요.

장 : 그리고 선생님 그 최종 직함이 어디까지 올라가셨어요?

신 : 나는 쪽 사원으로 있었죠. 처음에는 쪽 사원으로 있다가 노동조합에 와서 이제 부위원장으로 일을 하다가 촉탁으로 와 가지고 그나마 반장으로 또 책임자는 돈 몇십만 원.

유 : 현장의 기술자들은 직책이 없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반을 운영하면 반장이 최고직이고 그 외에는 직책이 없이 그런거고. 이제 사무직에는 이제 무슨 주임에서 대리 이렇게 올라가지 현장에서는 직책이 없어요. 노동조합하면 노동조합의 위원장 또 호봉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계속 올라가는 거고.

재 : 그러면은 가장 이제 삼양중기가 활발하게 운영이 될 때가 저희가 보기에는 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정도가 가장 좋았던 시기였었는데 그때 그 전체 사원이 몇 명 정도가 됐어요?

신 : 한 300명 됐어요. 300명.

유 : 제가 들을 때 300 몇 명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신 : 그래 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떨어져 나와서 한 200명 이렇게 하고 옛날에는 1개월 반만 해도 한 20명씩 막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10명씩 뭐 되다가.

장 : 그러면 이제 거의 2천년대 초중반부터는 이제 점점 분사하고 그때는 거의 몇 십 명 정도밖에 없으셨겠네요.

신 : 별 의미가 없죠. 회사 마크만 삼양엔텔이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붙여가 있지 별로 다 소사장들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대료 다 받으니까 회사는 얼마 이래 받으니까.

장 : 그러면 이제 영업이나 관리직 정도만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로.

유 : 삼양본사는 그런 거지.

장 :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궁금한 게. 기계 아까 말씀하셨는데 롤렉스랑 직접 운영하신 기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기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신 : 그 롤렉스가 일본으로 들어왔어요. 시다. 근데 일본으로 들어 와가지고 그게 비싼 거 썼어요. nc라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숫자를 그런데 100% 올세트를 다 들어와야 되는데 비싸니까 좀 빼놓고 들어왔어. 가공만 하게끔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이제 양키드라이어를 3600짜리도 만들었지만 5자라고 1500짜리도 만들어요. 5자 드라이도 깎고 6자도 깎고 또 놀 있잖아요. 3100짜리 기장에 둘레가 한 500파이이제 깎아놓으니까 그 기계에 올라가야 돼요. 그럼 이제 그걸 다 가져오면 비싸니까 우리 사장님이 이제 이런 것만 해가지고 가져오면 가공만 할 수 있겠다 해도 그것만 들어간 거예요. 총기장이 한 15m가 넘지 한 20m.

유 : 기계가 엄청 깎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뭐라고 그러지? 방진구라고. 제품이 길면 이렇게 회전을 하면 휘청휘청하니까 가운데다가 이렇게 또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래 갖고 가공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런 걸 다 가공을 한 거야. 그게 지금 기장이 그게 한 20m?

신 : 그래서 신고하면 여기 아까 폴란드 외국걸로 프레스 할 때 그게 크랭크가 있

어요. 그게 돌아가려면 더블 크랭크가 돼야 돼요. 크랭크가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이 동심이 이렇게 이렇게 어긋나면 안 돼. 그 롤렉스로. 드라이도 째고 노라도 째고 거진 큰 거는 다 째았어요. fc로 또 축 박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째고.

재 : 그러니까 결국은 롤렉스라는 기계가 철을 째는 기계네요.

장 : 그거는 언제까지 있었을까요?

유 : 그게 2021년도인가.

신 : 나는 그리고 2008년인가 거기서 있다가 2017년인가 내가 남동공단으로 갔잖아. 17년인가 남동공단 으로 가가지고 있었는데 기계 다 팔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저기 보니까 뭘 쳐넣고 일어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기계 뭐 뜯어 가지고 왔다 하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장 : 그런 기계 없어질 때마다 좀 느낌이 이상하시겠어요

유 : 그걸 항상 이제 기계 같은 걸 빼낼 때 제일 아쉬운 게 이제 저기 양키드라이 가공하는 거 그게 아주 제일 크죠.

재 : 양지 드라이어 가공하는 게 뭐죠?

유 : 선반이요. 대형선반입니다. 4,500까지였나 양키드라이 크기가.

재 : 4,500파이라는 거는 이게 4m 5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거를 선반에 4m 50으로 선반에다 집어넣고 가공을 했다는 건가요?

신 : 그걸 하면 안에 기계가 있어요. 4,500 기계가 팔이 큰 드라이는요. 일반 이런 거는 한 3600짜리는 발이 4개라 중간에다가 하나 치워야 돼. 또 그걸 채워야지 드라이가 쳐준다.

재 : 사진을 봤으면 좋겠는데. 사진을 갖고 계시면 혹시 우리 카톡으로다가 단체 카톡으로 올려주시면은 그래야 우리도 그 사진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장 : 저 같은 경우는 기계 쪽이 완전 문외한이어갔고. 근데 그게 엄청 경관이었겠네요.

장 : 그러면은 우리가 양키드라이어를 만들었는데 주물로만 만들고 그 철판으로 만든 적이 없나요?

신 : 철판으로 내가 딱 한번 했어요. 다른 데서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하청 줘가지고 들어. 주물공장이 저기 케이스코로 해서 저기 정읍으로 내려가고 나서 2개가 3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부어 아니면 댄 데서 부어가지고 온걸 가져왔어요.

재 : 워낙 제지 산업용 드라이어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으니 주물 공장이 없더라도 댄 데서 주물을 만들어 와서 또 그렇게 할 수는 있겠네요.

장 : 양키 드라이어 만드는 거는 언제까지 있었을까요?

유 : 2007년이나 2008년까지인가 정도까지는 했을 거예요.

장 : 그때까지 있었고요. 그럼 그것도 그냥 다 고철로 그냥 다.

신 : 그걸 옛날에 내가 회사 다닐 때 그 인천에 거기가 김서동인가 거기서 경용기 계라고 그 기계를 사 가져가라 했어요. 나한테 와서 이거 기계 사가지고 와서 일을 하는가 물어요. 어떻게 팔지 우리 회사 일이 저건데 어떻게 그걸 팔란지 하나고 이러고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거기 나가면 매출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했지.

재 :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삼양 쪽에 한 300명 정도 인원이 되셨으면은 그 안에 식당 같은 게 있나요? 별도로?

유 : 구내 식당이 있었습시다. 있었어요 구내 식당.

신 : 우리 회사가 구내식당 있죠 목욕탕 있지. 옛날에는 그냥 요만한 공장 옆에다가 이렇게 손만 닦고 세수만 고양이 세수만 갔는데 노동조합에서 이정희 전 대표 이사께서 오셔서 가지고 이것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막 휴게실이 있지 아주 뭐 매점 있었지 복지 시설은 좋았어요.

재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삼양중기가 있으면서 그 안에서 전부 대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니까 그 주변에 이렇게 하청이나 그런 거 받던 그런 외부 업체들이 소사동에는 없었나요?

신 : 바로 그 조그마한 회사들은 뭐 돈 많은 회사 이런 거 지금 어디 하면은 저기 신양촌이라고 그 아파트 짓잖아요. 저 시온고등학교 있는 데. 지금 하면은 거기 한신아파트라고 고개 넘어가는 데 있어요. 그 빈다리 거기가 전부 다 소금 파는 데가 뭐 그릇 유기그릇도 만들고 뭐 조그마한 거 주물공장에서 바가지로 이렇게 떠가지고 들고 붓고 이런다더라고. 그런 공장이 거기 많았어요. 조그마한 게 많았는데 이제 그게 뭐 다 뜯어가지고 다 나가버리고.

재 : 그게 그런 회사들이 삼양중기에서 무슨 하청을 줘서 만든 거는 아니잖아요. 삼양중기가 필요해서 이렇게 그 근처에 하청을 줘가지고 뭘 만드는 회사들은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신 : 그렇죠 안에서 다 해결했으니까.

장 : 직원분들은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사셨어요? 그 근처에 사셨어요?

신 : 아니요. 인천서 땡기고 통근버스가 두 대 있었어요. 하나는 인천으로 다니는 거는 관광버스를 임대해 가지고 썼고 하나는 서울 가는 우리 회사에서 사 가지고 운행을 했고.

유 : 거기 노동조합이 생기고 나서 86년도인가부터인가

장 : 그전에는 지하철 타고 다니시고 그러신 거예요?

신 : 그렇지. 버스 타고 다니고 옛날에 인성역객이라고 신천로타리까지 가는 인천

버스가 있었어요.

장: 거기 근처에 술집 같은 것도 많았겠네요.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 되었고요.

신 : 앞에 돌집이라고 그 앞에 지금 고물상인가 뭐 고물상 지금 하나 있대. 거기 보면 대포집 있잖아요. 그 아줌마가 우리 회사에 맨 처음에 이제 야간 하면 밥 해다가 주고 이랬어요. 그래 그거 하다가 우리 회사에서 이제 그게 야간 하고 나가는 사람들 거기 가서 대포집에 와서 막걸리 한 잔 먹고 가고 버스 타고 가고 이제 이랬는데 그 아줌마가 처음에는 우리 회사에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꾸 이제 범위가 커지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이제 부식이나 뿌리고, 하니 사람이 또 그렇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이제 교체하고 이래가지고 거기 식당이 이제 교체가 됐지.

장 : 그때 주로 이렇게 회식 같은 거 하실 때는 어떤 거 드셨어요? 삼겹살이나 이런 거 드셨어요?

신 : 회식할 때마다 소사삼거리를 갑니다. 여기 나와야 술집들 많았어요. 소사삼거리 술집에 대포집이 많았어요. 대포집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그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면은 일주일치를 일주일 치를 돈을 내야 돼. 회식비로 나가는 거예요. 직원들 하니까 한 20명 18명 되니까 먹으려면 일주일치는 돈을 내야지 그게 충당이 돼요. 올라 와가지고 일주일째 그냥 헛버렸네 하고 이랬더니 지금 같으면 야단나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거기 수습기간이라고 또 있어요. 이 사람이 능력이 되나 안 되나 3개월 동안 봐요. 회사에 일을 잘하나. 일 못하면 캔스이요. 어떤 사람은 회식하라 하면 안 해.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걸 한다고 그러면 그게 끝난 뒤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누구 생일이다 이사 온다 이러면요 초대하면 다 갔어요. 나도 집들이 많이 땄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니는데 누구 돌집이라 하면 또 가고 집에 이사 왔다 하면 또 가고 이랬어요. 거기 정시에 나오거든요. 5시 반에 나와 가지고 이제 가고 쪽 가지.

재 : 그럼 회사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일하는 거 말고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것도 하나요?

신 : 했어요. 중앙공원 그거 빌려가지고 거기서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 가고 또 관광버스가 저 구인사도 가고 관광버스 불러 가지고 놀러도 가고 괜찮았어요. 내가 보너스를 740%를 받고 관뒀거든요. 740% 받는데 그 당시에는 대학교를 50%밖에 안 줬어.

재 : 지금 대학교 학비 대주는 회사 별로 없어요. 좋은 회사들 외에는.

신 : 그래서 50% 주고 200만 원 나오면 100만 원 주고.

재 : 그거 뭐 이렇게 특별하게 삼양에 계시면서 재미있었던 얘기 같은 건 없나요? 사진좀 보내주십쇼.

유 : 사진 아니 저게 찾아보니까 별로 없네. 거기 저 기계가 있는 건데 다 이걸 다 사진이 아니고 다 축소를 해서 그렇게 해놨더라는 보기가 조금 힘드네. 거기 대연기가 롤 선반입니다. 다 묶어놔가지고 뭐 제대로 보기가 그거 한 장으로 축소돼서 묶어버렸어. 포트 월드를 만들어버려가지고. 롤렉스 팔아먹을 때 저기 삼양사 본사에서 기계명을 다 기록을 해달라고 해서 만들었던 건데 일부가 지워졌네요. 그리고 잠깐 양키드라이도 나간 거 찍어놨는데 안 보이네. 양키드라이도 출하할 때 우리가 사진을 다 찍어서 사양을 그걸 사진을 보내줬거든. 근데 지금 안 보입니다.

재 : 사실은 내가 보기에선 부천에서 이제 삼양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때가 활발하게 영업이 공장이 돌아갈 때가 그런 어떤 제지용 기계를 만들 때가 가장 활발한게 그때 매출의 60% 70%가 그걸로 다 나갔다 하니 가장 회사가 잘 돌아갈 때 매출의 60 70%는 그럼 사양 준비에서 대표적인 거는 제지용 그것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양키드라이이다.

유 : 양키드라이가 그 당시에 10억 하나 10억인가 맞습니다.

신 : 회사에서 매출을 많이 차지했지. 1년에 우리 회사에서 그거 3개인가 만들면 우리 회사가 달고 운영 안 해도 된다 했어.

장 : 주로 어디로 수출도 하셨죠?

유 : 수출 되죠. 중국으로 중국으로 들고 나갔죠.

장 : 중국 어느지역인진 생각은 안 나시고요?

신 : 어느 지역은 내가 모르겠어. 지역은 모르지. 청도로 많이갔어.

장 : 그러면 그 양키드라이어 같은 경우는 원래 이름이 미국에서 들어와 갖고 양키드라이어인가요?

신 : 그렇죠. 원래 양키드라이 서상록 씨가 맨 처음에 그거를 제일 대표 출신인데 기술자요. 다 그 사람이 창립자가 그런데 이 손가락이 이게 잘렸어요.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그 양반한테 돈도 옛날에 한 번 받았어. 그 사람은 회장인데 다리도 키가 좀 조만 땅땅한테 전라도 사람이라요. 호남 사람. 근데 와가지고 일하는 거는 안 마땅해요. 근데 기계 주의를 깨끗하게 해야 돼.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기계 옛날에는 그게 포장이 현장 안에도 안됐었어. 그 기둥 있는데 봉골이 쳐다 흠이라 썼어요. 그러면 기름구가 이렇게 떨어지면 사포로 기름구를 자꾸 퍼내면 그게 엉영하게 된다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흠을 가져 와가지고 그걸 메고 그걸 메꾸면은 그게 금방 금방 안 되잖아. 그러면 기름 구하고 물하고 붙여 가지고 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다가 해가지고 묻어놓으면 그게 공구리보다 더 단단해. 이모노칼 있잖아. fc 깎는 거. 그걸 가지고 흠하고 섞어 가지고 물 부어. 해가 토요일날 이제 딱 해가 딱 발라 놔더라. 일요일 월요일날 출근해가지고 보면 땅땅하게 굳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 보고 쪽 봐요. 부장 총무부장한테 물어보러 가더라고 그러더만. 총무부장이 회장이 말을 잘 안 해요. 일본말이라도 좀 얻으니. 그런데 하더는 자기 집 앞에서 꺼내 가지고 가서 밥 사 먹으라고 그거 주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내 집으로 가서 물으니까 다른 사람은 특 통가 막 이렇게 파졌는데 안 파져. 탄탄하게 이렇게 해놔서 이렇게 정리를 잘 뒀다고 식사하라고 그러고 돈 한 푼 받았지.

장 : 그러면 그 서상록 회장 때부터 양키드라이어는 했어요?

신 : 했어요. 내 선배들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나도 그 양반들한테 했는데 김성호 씨 이태용 씨 장무길 이런 사람들이 했었거든. 그래 한 걸 내가 이제 가지고 현장에 그때는 이제 다른 선발을 했지. 그걸 하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고 해가지고 봐서 하라 해가지고.

장 : 양키드라이 만드는 회사는 거의 삼양중기가 유일했나요?

신 : 없어요. 유일했죠.

장 : 그러면 지금 저기 다른 제제 회사는 중국에서 양키드라이어 살 일 있으면 사다가 쓰는 건가요?

신 : 그럴수도있지.

재 : 양키드라이어라는 명칭이 있네. 정식으로 양키드라이어야. 이게 제지 공장에서 양키드라이어인데 왜 직경 22m 이상의 큰 원통을 가진 건조기.

장 : 아무튼,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 삼성반도체 관계자 인터뷰 - 천우영

1. 일시 : 2023년 11월 17일 오후 2시 30분 ~ 3시 30분
2. 장소 : 부천대학교 융합지원센터
3. 인터뷰 대상자(천) : 전 삼성반도체, 페어차일드코리아, 온세미컨덕터
장기근속 근무자 천우영(1985년 삼성반도체 입사, 2022년
온세미컨덕터 정년퇴직)
4. 인터뷰 진행자
장정규(장) : 선임연구원, 부천학연구소 연구위원
박신영(박) : 연구원, 한국국학연구소 연구위원
5. 채록문 작성 : 장정규
6. 내용 :
 - 한국반도체 건립 및 삼성반도체 부천공장 연혁 인터뷰
 - 삼성반도체 규모 및 주요 업무
 - 삼성반도체 변화과정과 부천의 연관성
 - 삼성반도체→페어차일드코리아→온세미컨덕터 변화과정
 - 한국의 반도체 산업 근간이 된 부천의 반도체 공장의 의미와 특징
 - 삼성반도체 공장 직원의 삶과 부천 지역에 끼친 영향 등



삼성반도체 → 페어차일드 코리아 → 온세미컨덕터 장기근속 근로자 인터뷰

7. 녹취록

장 :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 근현대기업 연구를 위해 오늘 천우영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인터뷰의 대담은 장정규 연구원과 박신영 연구원이 배석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되고 영상도 촬영하고자 합니다. 결과물은 추후 아카이브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고 인터뷰 내용 중 일부는 책자에 수록될 수 있습니다. 발간되는 책자는 배포될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천 : 네 동의합니다.

장 : 그럼, 먼저 선생님이 언제부터 삼성반도체 부천공장에 근무하셨는지 궁금하고요, 한국반도체조 한국반도체주식회사를 삼성반도체가 인수하고 본격적으로 부천공장에서 반도체가 생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반도체의 설립 과정과 삼성반도체의 설립 경위에 대하여 아시는 것이 있거나 들으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천 : 예. 안녕하세요. 우선 이 자리에 제가 와서 사실 선배님들도 계신 데 아무튼 저를 추천해 주셔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말씀드리고요. 삼성반도체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초창기 때 트랜지스터 만드는 한국반도체를 1978년도에 삼성 이병철 회장님께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처음 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64KD램부터 시작해서, 생산하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 : 반도체, 한국반도체하고 삼성반도체가 어떻게 인수되고 그런 과정들은 잘 모르시는 거죠?

천 : 그런 과정은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그때 당시에 삼성에서도 국가적인 사업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우리나라는 그때 반도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고, 저도 전자를 전공했지만, 그때 당시는 트랜지스터 진공관 이런 것들을 많이 썼는데 반도체라는 사업을 삼성에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찾다 보니까, 한국반도체 특히 부천에는 많은 공장이 많은데 그런 조그만 공장 중에서도 반도체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반도체를 찾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 : 선생님은 삼성반도체에 언제부터 근무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재직 당시의 직책이나 담당업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천 : 저는 1985년 뭐 지금 기억도 생생한데, 8월 29일 그룹 공채로 입사해서 사실 저는 엔지니어로 일을 하려고 했었지만, 그 당시에는 제조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입사하자마자 반도체 라인에 들어가서 그 5인치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장 : 웨이퍼라는 게 반도체를 이식할 수 있는 어떤 동그란 것을 말하는 건가요?

천 : 그렇죠. 원래 반도체라는 게 실리콘 4가 원소를 말하는데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물질을 말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를, 웨이퍼라 하는 것이 ‘실리콘 인곳’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긴 실리콘을 자릅니다. 우리 먹는 과자 웨이퍼처럼, 아 웨하스처럼 그래서 우리가 웨이퍼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그 웨이퍼 5인치 라인에서 제가 일을 시작했고 처음 만들어진 거는 AB라인이라고 4인치 라인이 있습니다. 83년도에 64KD램이 만들어진 데고, 저는 5인치 라인에서 반도체 생산 업무를 감독하는 관리 업무를 시작했고요, 그때는 제가 생산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시계 칩, 전자시계 칩, 그때는 시계가 굉장히 귀했죠. 전자시계 칩이 나오고부터 시계가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보편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 : 그때 그 웨이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74년도에는 4인치 웨이퍼를 만들었다고 하셨고, 85년에 5인치 웨이퍼를 담당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들이 삼성 말고도 또 있었나요? 당시에.

천 : 아 지금 83년부터라고 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74년도에는 트랜지스터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본격적으로는 삼성에서 인수해서 78년도부터인가 64KD램 그때 최초로 나왔을 때니까, 그리고 이 원재료라는 게, 국내에 실리콘이라는 것이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많이씩 발굴되지 않아요.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외국에 있는 그런 회사에서 수입해서, 원재료는 수입해서 많이 쓰고 있고, 지금은 인제 국내에서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 LG(시프롱), 이라든지, SK인가 아무튼 그런 데서 생산하고 있어서 원재료를 많이 공급해 주고 있고요, 기본이 아무튼 웨이퍼를 갖다가 생산을, 반도체 회로를 입히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 : 그 당시에 그러면 생산라인 5인치 웨이퍼를 생산하는 라인을 직접 관리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85년 당시에, 처음에 입사하셨을 당시에 삼성반도체, 도당동에 있는 삼성반도체에서 만들어 냈던 주 제품이라고 할까요, 가장 핵심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천 :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단 핵심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시계 칩, 가장 흔한 게 시계 칩 이어서 수출도 하고, 수출이 많이 되었으니까, 그 당시에 중국이라든지 이런데 수출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모세브이티 라고 해서 반도체 일종의 파워 TR이죠,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는데, 그때 당시는 고도화된 기술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기술에 비하면 많이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무튼 국내에서는 획기적인 그러한 생산 업무를 하고 있던 거죠.

장 : 그러면 이제 삼성반도체가 삼성, 나중에는 삼성반도체통신으로 되고 삼성전

자로 되었다가 이렇게 전환과정을 거치면서도, 그래도 삼성에서 어떤 반도체 산업의 주력으로 도당동에서 했었는데, 그다음에는 기흥인가에 공장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건 언제 세워진 거죠?

천 : 제가 입사해서 한 1, 2년 전부터 기흥공장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천이 일단은 지금 도당동, 온세미가 있는 자리가 도심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 당 제재가 입사해서 84년 85년 86년 이럴 때 기흥 공장으로 그때 많이 갔죠. 그래서 뒤에 공장에서 1라인이 들어서면서 부천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최근에 보면 많이 성장도 하였고 기업을 이끄는 데 많은 중추적인 역할을,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이끄는 데 많은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 기억이 됩니다.

장 : 그러면 이제 삼성반도체가 바뀌잖아요. 왜 주인이 바뀐 거죠, 그렇죠, 페어차일드코리아라는 주인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 바뀌기 전에, 예를 들어서 기흥에도 공장이 있고, 도당동에도 공장 있으면 차별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페어차일드코리아가 전력용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삼성반도체가 그러면 삼성반도체가 기흥에 어느 정도 설비를 가지고 부천 도당동에는 전력용 반도체를 만든다든지, 기흥에는 비메모리용 반도체를 만든다든지 그런 어떤 차별화가 있었었나요?

천 : 예 일단은 우리가 알다시피 반도체는 메모리하고 비메모리식으로 크게 분류가 되죠, 최근에는 자동차 파워 반도체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메모리 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이런데 많이 들어가서 저장도 하고 이런 제품이 많이 쓰이고, 비메모리는 우리가 파워 제품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가전제품, 전기 어떤 그런 우리가 쓰는 용품들, 모든 가전제품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비메모리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산업용 반도체, 크게 나누면 기흥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부천은 비메모리 파워를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가 미국 회사하고 또 연관되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파워 제품을. 그래서 넘어가는 과정이 미국 회사에서 좀 그렇게 해서 매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장 : 그러면 이제 삼성반도체가 도당동에서 세워지면서, 결국은 이제 페어차일드코리아라는 회사로 이전되는 과정이 되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알려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되었겠죠,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인가? 삼성반도체통신인가? 이전할 당시에.

천 : 삼성전자.

장 : 삼성전자였는데 삼성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파워 쪽 인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도당동에서 하다가 메모리 쪽으로 중점을 두면서, 이쪽을 이제 이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그다음에 페어차일드코리아에서 온세미로 가는 과정 요런 것들을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 : 제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그렇다기보다는, 그동안 제가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상황을 제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혹시 보시는 분들 오해 없었으면 합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아무튼 제가 아는 한에서만 그동안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때 IMF 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금 모으기도 했고, 달러가 굉장히 많이 부족했었죠. 그래서 그때 정부에서도 많은 기업들을 외국에 많이 팔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중에서도 삼성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 부천에 있는 도당동 공장이 굉장히 알짜 공장인데, 그때 사실은 파워 제품을 매각했어요. 페어차일드 반도체 미국인 미국 회사에 반도체 회사를 매각했는데, 조건은 좋으니까, 인수했겠죠. 페어차일드에서도, 그래서 그 인원 그대로 기술 인력 그대로, 어떻게 보면 큰 재산을 가져간 거죠. 가져갔다기보다는 인수했겠죠. 거기서는 그래서 페어차일드는 그 이후로도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부천공장이 작지만, 어떻게 보면 알토란 같은 회사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으면서 느꼈던 게 제품이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알토란 같은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페어차일드에서 온세미로 바뀌었죠. 같은 미국 회사인데, 2016년, 17년 그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온세미란 회사에서 모토로라가 전신인데, 온세미라는 회사에서 거기도 파워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저전력, 고전력 제품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제품이 비슷하고 중첩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회사의 강점이 또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온세미에서 인수해서 지금 보면 아주 잘 되었죠. 부천에서도 크지만, 세계적으로 온세미를 대표하는 어떤 기업이 부천의 온세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글로벌 회사거든요. 유럽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데, 아무튼 투자도 최근에서 보면 제가 지금 퇴직을 해서 은퇴를 하고 나와서 그런 애기도 보면 우선 적으로 우리 한국에 한국이 정치적으로나, 어떤 분단된 국가지만 그래도 투자를 많이 하는 거를 보면 한국에 대해 어떤 인정하지 않았나?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원가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본사에서 그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

각을 해요.

장 : 지금 온세미컨덕터죠, 온세미컨덕터가 부천에서는 그래도 진짜 외자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도 부천에서 큰 행사가 있었죠? 온세미컨덕터에서. 그게 어떤 라인을 증설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그런 건가요?

천 : 저는 저도 들인 이야기고 인쇄물을 통해서 봤지마는 금방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온세미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애리조나 피닉스에 있는데, 뭐 미국보다도, 요즘에는 미국에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다 투자를 해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데로 한국의 어떤 원가 측면이라든지, 생산성 측면을 봤을 때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큰돈을 투자해서 한국에 새로운 공장을 추가로 라인을 확장, 제가 듣기로 S5-라인이라고 들었는데 아무튼, 확장을 해서 지금 시대에 맞추는 자동차용품에 들어가는 실리콘 카바이드 고전압, 고전력의 반도체인데 이것을 생산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것은 나중에 혹시 온세미의 반도체 기술자들이 있으면 한번 또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 :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삼성반도체부터 시작 해가지고 페어차일드코리아, 그다음에 온세미컨덕터까지 쪽 계시다가 온세미컨덕터에서 정년퇴직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부천에서 삼성반도체나 이런데 다닌다고 그러면 어떤 자부심이랄까? 외부에서 뭐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뭐 그런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천 : 에피소드는 많았지요. 뭐 그냥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사실 부천에는 작은 공장도 많았지만, 큰 공장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신에 부천이 금형회사라든지 아니면 화장품회사라든지 일부 큰 회사도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저의 회사도 제가 다닐 당시에 대표적인 회사였었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나가서 음식점 같은 데 가서도 그냥 명함만 주면 식사도 그냥 많이 외상으로 많이 먹고,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지금은 반도체는 폐비, 제조를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엔, 조립을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이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인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 3, 4천명이 나가서 지역사회에 많이 도움을 줬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들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산에 있는 벚꽃들 필 때는 벚꽃축제 어떤 실리콘축제라고 해서 사원들이 주관을 하지만 외부에 있는 연예인이라든지 모시고 지역 주민들과 가족들하고 같이 그런 행사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장 : 사실은 이제 부천에서 삼성반도체의 다니는 누구 이제 동생들 친구의 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당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생산라인에 생산직으로 여자 직원들이 취직하거나 그 경우에는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에서 가전제품을 거의 반값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런 혜택도 많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나요? 뭐 삼성 제품 같은 것들을

천 : 요즘에는 그룹 간의 어떤 경영 경쟁 차원에서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삼성에 다니면 삼성에버랜드 티켓 같은 게 보너스로 나오고 제품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자녀를 둘을, 삼성에 입사해서 둘을 키웠지만 사실 저는 다른데 다니는 것보다는 에버랜드 프리-티켓을 가지고 아주 진짜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주말만 되면 다른 데 다니는 것보다는 애들하고 같이 다닐 때는 에버랜드 가서 같이 놀고 하던 기억이 나고, 어떤 직원들한테는 그런 혜택들을 가전제품도 있고 통신도 있기 때문에 혜택들은 좀 많이 주어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 : 그 인제 우리가 강기동 박사 이야기는 좀 들으셨겠죠, 원래는 인제 전자를 전공하셨으니까 강기동 박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시고 하고 혹시 강기동 박사에게 대해서 들으신 이야기라든가 그런 게 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천 : 예.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며칠 전에 그 새로운 우리 온세미에 반도체 라인 준공식 할 때 회사에서 초청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문도 하시고 당시에 초창기 때도 한번 생각도 했겠죠. 그분도 열정을 가지고 한국의 어떤 그러한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분은 처음에 그런 노력을 했으니까 이 반도체 우리나라에 또 삼성에서 또 시작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또 쉽게도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장 :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강기동 박사님이 쓴 책을 보면, 강기동 박사님이 삼성에 지분을 50% 넘기고 그다음에 몇 년 있다 50% 넘기고 완전히 삼성반도체로 되기도 전까지만 해도, 강기동 박사님의 생각이 좀 뭐라고 할까. 실리콘 밸리의 진취적인 막 그런 것을 생각했었는데, 삼성 측은 자기네 회사에서 필요한 부품만 공급하는 공장으로만 여기더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강기동 박사님이 그래서 삼성과 한국반도체하고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고 그만두셨다고 하는데, 요즘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자꾸만 그 옛날에 한국반도체의 그런 향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마, 지난 1월에 방문하셨나요? 방문 이야기 조금.

천 :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굉장히 감회가 새롭겠죠. 그리고 그 당시 때는 이 반도체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큰 산업이 될 수 있을지는. 그렇게 몇 명이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삼성에서는 크게 많이,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놨잖아요. 그 당시에는 저는 강기동 박사님에 대해서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하시는 분께서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그건 나중에 그분이 쓴 저서라든지 통해서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장 : 그래도, 선생님은 85년도니까, 85년도에서 지금 온세미까지 거의 30년, 40년 가까이 반도체 근무를 하신 거네요? 뭐 40년 가까이 부천에서 삼성, 페어차일드, 온세미까지 이어오면서 부천에서 진짜 반도체 산업회사, 산업과 관련된 아주 굉장히 큰 맥을 타고 오셨는데, 혹시 부천에 이 반도체가 부천에 세워지게 된 이유 같은 거나, 아니면 또 입지적인 거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른데 보다 좋았던 점이 이런 게 있나요?

천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인데요. 일단은 부천에 그 당시는 조그만 공장들도 많았었고, 그다음에 트랜지스터라든지 다이오드를 만드는 그러한 한국반도체 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부천에 적을 두지 않았나, 지금 또 생각하면 부천이 이런 공항도 가깝고, 서울도 가깝고, 또 당시에는 지역에 내려가는 것보다는. 이쪽 지역에서 생산하는 게 공업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인력 수급도 지방에 있는 것보다는 고급 기술 인력을 가지고 오는 데는 그게 지방에 있는 것보다 도심에 있는 게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 : 사실 반도체가 삼성, 그러니까 한국반도체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로 처음 시작됐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도 60년도에 반도체라는 그런 회사들이 몇 개 있었더라고요.

천 : 트랜지스터, 진공관, 다이오드 통 털어서 반도체라 하니까. 증폭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장 : 그래서 60년대에 ‘고마’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전에 또 페어차일드가 66년도에 한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천 :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쪽, 어디야. 유한양행 옆에 있는 신길동인가요? 정확하개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지금같이 이렇게 제대로 된 회로 반도체 칩을 만드는,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조립, 어셈블리, 패키징.

장 : 패키징만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웨이퍼 생산부터 반도체까지 만들 수 있는 건 그래도 삼성이 처음인 거죠?

천 :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처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65KD램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작은 소자거든요. 지금은 뭐 지금 8나노, 6나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하고 비교하면 진짜 지금 진공관 회로 같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 당시 때는, 지금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장 : 그러면 이제 그 최종적으로는 온세미에서 정년을 하신게 되나요? (예) 그러면 최종적인 선생님 직함은 어떻게 됐었죠?

천 : 저는 뭐 삼성에 있을 때는 대리, 과장으로 근무했었고요, 제트가 됐으면 저는

성능이었을 때 대리 과장으로서 근무했었고요, 마지막에는 수석까지 하다가 생산 공정 관리하고, 설비도 같이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줬고요, 페어차일드, 온세미에 다닐 때는 환경안전, 보안, 총무, 시설관리, 이런 데에 있어서 마지막으로는 저는 인제 상무로서, 임원으로서 일을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장 : 그래도 한 40년 가까이, 37년을 부천에서 반도체 산업에 종사 하셨는데, 부천에 왜 여기 말고도 반도체 회사들이 몇 개 있었지 않았나요?

천 : 몇 개라고 보다는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DB하이텍, DB하이텍이 있고, 거기서는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DB하이텍도 반도체 쪽이죠?). 그다음엔, SP반도체라고, 이진 조립을 하는 회사로, 조립을 하는 회사들은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라고 해서 전자제품의 기판을 만든다든지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들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를 온세미처럼 직접 생산하는 데는 DB하이텍이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 : DB하이텍이 옛날 아남?(예. 아남반도체) 아남반도체였다 DB로 간 거네요.

천 : 지금 진천으로 확장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 : 지금 보면 그래도 여기는 삼성에서 온세미까지의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그래도 쪽 이어오고는 있습니다. 반도체는 워낙 기술집약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또 그런 사항이기는 한데, 다른 회사들이 틀리거든요. 이게 큰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부천에서 어느 정도 회사가 규모가 되면 부천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천 : 저도 예전에 예비군훈련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 부천에 있던 큰 회사들 뭐, 유성기업이라든지 한국화장품이라든지 이런 큰 또 금형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축구도 하고 이러면서 많이 사람도 알게 되고 했었는데, 사실 큰 기업이 있으면 좋죠. 뭐 세수도 좋을 텐데, 기업이 부천에 지역 특성상 또 인구 과밀지역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는 것 같고, 그런데 다행히 지금 대장도신도시가 들어서면서 SK라든지 뭐 이런 여러 곳에서, 또 대기업에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 대기업들이 뭐 투자를 좀 부천에다 많이 하면은 부천도 또 더 건강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 : 사실은 그 수도권 규제가 지금 어렵게, 기업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화학 같은 경우는 부천에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천 : 반도체도 이런 수도권 지역이라는 이런 데서 금지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경기도라든지 부천시라든지 이런 데와, 환경이나 안전 측면에서 그런 규제 물질들, 그런 것들

을 잘 서로 협의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크게 된 것은 외국인 투자도 하고, 또 반도체가 또 이런 지역에서 크려면 지역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확장해서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 부천시도,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협력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고도 협의도 잘 돼 있고. 아무튼, 앞으로도 부천시하고 큰 기업들 특히 그런 데서 규제 물질 같은 것이 인체에 크게 영향 미치지 않게 기업에서 잘 처리해서 발전하는 그런 협약이 됐으면 좋겠어요.

장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년대의 조립 단계, 외국계 미국이나 이런데 선진국에서 들여온 부품을 조립하는 그런 반도체, 그러니까 뭐 트랜지스터나 이런 걸 조립하던 회사들은 있었지만, 본격적인 웨이퍼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웨이퍼에 칩을 놓고 반도체를 생산한 것은 부천이 처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천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 : 아니면 그게 맞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패키징 그러니까 조립하는 쪽이었다면 진짜 반도체를 생산한 것은 부천이 처음이었고, 부천이 그러면서 반도체, 한국 반도체 산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표지석을 그 세웠잖아요. 부천 도당동에다가. 그게 이제 한국 반도체의 산실이다. 이런 식의. 그럼 그런 어떤 의미를 지키기 위한 부천시나, 이런 쪽에서 이런 의미를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천 : 저도 뭐 이런 자리도 그렇고 부천에 진짜 사시는 우리 시민들이 부천에 최초의 반도체를 만든 공장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같이 친구분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물어보면, 뭐 그런 데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도 부천에서 인제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가 됐잖아요. 그걸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발점이 부천이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시민이 어떤 자부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이 또 발전하는 데 많은 또 역할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면 좋겠고, 부천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이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 : 마지막으로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죠.

천 : 저는 아무튼 이 자리를 이렇게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부천시하고 우리 온세미나 딱 큰 기업들이 같이 상생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저도 여러 언론을 통해서 듣고 보는 걸로 봐서는 기존의 우리 삼성에서 페어차일드가 되고 온세

미로 됐지만 온세미가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성장을 많이 할 것 같고. 새로운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현대 세대에 맞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까 공급을 하고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이 사회도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고용된다든지, 또 우리 일하는 직원들이 밖에 나와서 또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는 또 항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번영을 하고, 직원들도 많은 복지 속에서 부천시하고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장 : 오늘 여기까지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4.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교육 수료생 인터뷰 이창호, 김육진, 박철은

1. 일시 : 2023년 11월 29일 11시 30분 ~ 13시
2. 장소 : 소재마을역사관
3. 인터뷰 대상자 :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 수료생
 이창호 : 1978년 장기교육생 27기 수료
 김육진 : 1969년 단기교육생 36기 수료
 박철은 : 1975년 단기교육생 71기 수료
4. 인터뷰 진행자
 장정규 : 선임연구원, 부천학연구소 연구위원
 양경직 : 외부집필자, 계남역사문화연구소장
5. 채록문 작성 : 양경직
6. 내용 :
 - 한미재단 4-H훈련농장 입소 당시 고향과 나이
 - 한미재단 4-H훈련농장의 교육생 선발과정
 - 한미재단 4-H훈련농장의 교육 과정 및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
 - 교육 수료 후 인생에 끼친 영향과 변화
 - 한미재단 주한단장 보니 캐롤 비 하지스와의 기억
 - 훈련농장의 주요시설과 문화재 등록에 관한 의견
 - 한미재단 4-H훈련농장 동문회의 결성 및 운영



한미재단 4-H훈련농장 수료생 인터뷰

7. 녹취록

▶양경직 : 안녕하세요? 계남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양경직입니다. 부천 근대기업 연구를 위해 오늘 이창호 · 김육진 · 박철은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되고, 영상도 촬영하고자 합니다. 결과물은 추후 아카이브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고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내용은 책자에 수록될 수 있고, 발간되는 책자로 배포될 수 있습니다. 녹음과 영상 촬영에 동의하시는지요?

모두 동의하신다면 녹음과 영상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1956), 김육진(1953), 박철은(1957) 세분을 모시고 동일한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만 이창호 선생님의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별도로 개인 질문을 드렸다. 참고하기 바란다.

▶양경직 : 1. 선생님은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에 몇 년도에 입소하셨나요?

이창호 : 1978년 장기교육생 27기로 입소했습니다.

김육진 : 1969년 4월 한미재단 36기로 입교했습니다.

박철은 : 저는 명확히 기억은 안 나도 1975~6년도로 기억합니다. 71기입니다.

▶양경직 : 2. 입소할 당시 선생님의 고향은 어디였으며, 당시 나이는 어떻게 되셨나요?

▶이창호 : 저는 서울에 이대 입구에 살었구요, 그 당시는 나이는 스물세 살이고 저희 부모님 고향이 경기도 안성이라 안성농촌지도소를 통해갔고 일루(이리로) 온 거예요. 서울 농촌지도소하고는 잘 몰랐기 때문에.

▶김육진 : 예, 나는 전라북도. 나이는 20세. 군산4-H연합회 회장을 했어요. 나이는 고등학교 막 졸업하자마자 왔으니까 만 19세. 우리 나이로 20세. 고등학교 졸업하자 바로 왔어요.

▶박철은 : 저는 19세에서 한 20세 정도로 이렇게 기억이 돼요. 명확한 것은 제가 군에 가기 전전년도라고 기억이 돼요. 저는 여기가 4~5대가 부천이 고향이라. 조마루. 원미동.

▶양경직 : 3. 4-H훈련농장은 어떤 동기로 알게 되었으며 그리고 어떤 선발 과정을 거쳐서 입소했는지요?

▶이창호 : 제가 1977년 역곡에 농촌진흥원이 있었거든요. 거기 4-H 농기계반에 교육을 갔어요. 제가 농촌에 가서 축산을 하려면 아무래도 농기계를 알아야 하니까. 근데 거기서 한미재단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안성을 자주 왔다갔다 다니다 보니 안성농촌지도소를 알게 됐고, 그런 연유로 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위장 전입은 아니고. 거기를 통해서 한미재단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저는 4-H회원은 아니었지만 제가 직접 특별히 얘기를

해서, 4-H 농기계반도 여기 역곡 경기도농촌진흥원에 농민교육원이 있었거덩요. 거기 갈 때도 안성농촌지도소에서 추천을 해서. 나는 그냥 자발적으로 갔기 때문에 4-H는 몰랐고.

▶ 김육진 : 저는 전라북도 군산. 그 당시 군산시4-H연합회 회장을 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추천을 했어요. 회장을 하면 우선 순위로 그러니까 의무적은 아니었는데 갔다 와라 하니까 명령으로 알고 와서 뭣도 모르고 교육을 받았어요. 군산시 송풍동4-H연합회장을 했어요.

▶ 박철은 : 저는 한미재단은 특별한 동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 우리 청소년들한테 정식으로 교양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하던 그런 단체는 기독교에서 비롯된 YMCA가 있다면, 농촌근대화를 부르짖으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농업의 전반적인 현대화 기술을 접목시키는 이런 교육 시스템은 결국 4-H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 당시 획기적으로 용인의 김용기 장로님이 운영하던 가나안농군학교를 동경을 했었는데, 오류동 쪽에 임업시험장이 있었는데 약대에도 있었어요. 제가 당시 부천시4-H연합회 4대회장을 했었고, 경기도 4-H 임원을 하면서 24개 시군 구락부 순회 활동을 많이 했어요. 거기서 교육 프로도 같이 공유하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지도자 선생님을 모시고 영사기로 농업근대화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했어요. 저는 단기 교육을 받았고, 여기서 먹고 자고 그 당시 때는 청운의 꿈이 있었죠. 한미재단은 말 그대로 우리 여유롭지 못한 환경에 태어난 우리 농어민 학생 또는 청소년들한테는 꿈의 전당이였어요. 저는 여기를 가고 싶어서 선생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게 된 거예요. 저는 별막4-H로 시작을 해서 심곡4-H · 신진4-H로 계속 파생해서 4-H를 육성한 거예요. 신진은 당아래4-H가 있었어요.

▶ 양경직 : 4. 선생님은 장기교육생 27기로 알고 있는데 장기교육생은 어떻게 선발했나요? 또한 장기교육생으로서 특혜는 있었나요?

▶ 이창호 :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이지만. 본래는 여기 가축이 있잖아요. 홀스타인이 있고 두록저지가 있고 산란계가 있다고. 그 전에는 토끼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는 못 봤구. 계속하니까 단기생들은 일정기간 4주 끝나면 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연속되는 게 아니니까 가축이 있으니까 전담할 수 있는 교육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또 실전 교육을 받는 거죠. 그냥 뭐 잠깐 보고 배운 게 아니고 착유도 하고 관찰도 하고 돼지 새끼도 낳고 이런 거를 6개월 동안 하면 어느 몸배고 어느 정도 기본이 될 수 있걸렁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육을 4주 받고 나중에 장기생으로 오는 분들도 계세요. 다는 아니지만 또 인원이 한정되어서. 그런 분도 계시고.

특혜라는 거는 그런 교육을 오랫동안 받다 보면 실습보다는 체험을 하면서 그런 거를 알고, 전에는 뭐 가축을 한 마리 송아지를 줬다고. 장기생들이나 특별한 뭐 상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게 가축은행 역할도 했어요. 우리 때는 그러지 않고. 실습비 비슷하게 돈도 줬는데 우리 때는 월 만 원 정도 받은 거 같애.

▶박철은 : (이때 박철은 선생이 말을 받아서 말을 함)

소 분양한 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한미재단 그 당시 때 박정희 시대 땐데 우리나라 축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미재단에서 뭘 주로 육성했냐면, 젖소 우유 생산 빈국이었잖아요. 낙농업 중흥의 꿈이 지대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미재단을 나와서 외국에 유학 프로그램,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취업 이민이나 마찬가지로. 노동 이민을 가서 5년인가 일정 기간을 수료하고 나면 젖소 5백마리씩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4-H에 정말 열정이었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 사례로 지금 부천시 신상리 쪽에도 서재진이라는 우리 회원이 호주에 유학가서 5년을 하고 와서 축산일 이거를 한, 실예의 사례도 있었어요. 정말 엄청난 프로그램이었죠.

▶이창호 : (다시 이창호 선생이 말을 받아서 말을 함)

미국에 1971년도인가 1970년도부터 3년간 미국에 연구생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교환생으로 미국에서 몇 사람이 왔는데 다비드 보이드가 왔어요.

▶양경직 : 5. 당시 전국에서 선발된 교육생들은 기숙사에서 침식하며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루의 일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관련하여 소사동마을 분들에 의하면 아침마다 소새삼거리까지 구보를 했다고 하던데 맞나요?

▶이창호 : 저희는 장기생이니까,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네 명이서 조를 짜 갖고 홀스타인 젖소도 있지 양돈도 있지 닭도 있으니까, 아마 그때 젖소 쪽에 먼저 착유(搾乳)를 해야 서울우유가 오니까. 젖 짜서 이래서 우유 받아서 위에 다 올려다 놓으면 서울우유 차가 오걸령요. 그 다음에 아마 닭 사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넷이서 하니까 돼지 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이제 교육생들이 올 때, 교육생들이 없으면 우리 넷만 있고 농장에 두 분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셨걸령요. 근데 이제 교육생들이 오면 또 이렇게 네 명이서 할 걸 세 명이서 하고 한 사람은 또 같이 합류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구보는 우리 때는 안 했어요. 우리 때 영화는 내가 잘 모르겠고 아마 거기 탁구는 있었던 거 같았어요. 우리도 치고 교육생도 치고 그랬던 거 같아요. 영화도 아마도 어떤 면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몰라도. 우리는 뭐 열외니까.

목욕탕은 어쩌다가. 우리는 이제 축사 쪽에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까. 거기 침대도 있고 젖소를 돌봐야 하니까. 홀스타인 젖소 있는 데 같아요. 축사 출입구에 들어가면 숙소 쪼그만 거 있고, 한쪽에 사료 쌓아 두고.

▶김육진 : 지금 생각하면 영화 같은 거는 없었고 아예 없었어요, 탁구장은 조금 있었던 같애. 그거는 개인적이 아니라 취미 있는 사람들만 친 걸로 기억하고. 구보는 정기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신천리 가는 거.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한미재단에서 고개 넘어서 시장 가까이까지 가지 않았나.

▶박철은 : 아마 선배님은 아랫대야리 거기까지 가셨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때 교육이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할까, 홍보 영화 같은 것도 분명히 영상이 있었고, 그 당시 때 많이 했던 게 영사기를 돌려서 우리나라 수출 프로그램도 있었고, 근대화에 대한 농업 교육 프로그램도 있었고, 어쨌든 새벽에 일어나서 일과가 빠듯하게. 보통 동트기 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홀스타인 젖소 맛사지를 하면서 젖소 착유(搾乳)하고. 우리 때는 품목이 많았어요. 이를테면 젖소, 돼지, 다음에 양계 있었지만 또 식용개구리도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다단계 복숭아밭을 만들어서 복숭아밭 전지서부터 과수하는 육성 재배하는 일련의 과정 프로그램들이 짝꿍이었어요.

▶이창호 : (여자 교육생들은 어떤 교육을 했냐고 했더니, 이때 이창호 선생님이 말을 이어받아서 말을 함)

거기가 실습장이 적으니까 여자 교육생들이 오면 경기도농촌진흥원으로 가요. 실습하러 가. 그래서 병조림 같은 거를 해. 오이 피클 같은 거를. 이렇게 끓이고 해서 병을 깨끗이 씻어서 이걸 뒤집어 놓으면 뭐 30일이고 두 달이면 익어요 그게. 공기 다 빠지고. 그러면 개네들은 끝나고 그 거를 우리가 먹지. 경기도농촌진흥원에 같이도 가고 했다고.

▶양경직 : 6. 훈련농장 내에서 교육생들끼리의 교류는 어떠했나요?

▶이창호 : 훈련농장 내에서 어디 나갈 때는 같이 이동하고, 내부에서 시간 남을 때는 같이 활동하고 그랬어요.

▶김육진 : 교류가 기억이 남는 게, 4-H끼리 연애를 많이 했어. 왜냐면 내가 아니라도 우리 동네에 4-H부녀회에 누가 있다, 내가 소개시켜 줄게. 전국적으로 전라도가 경상도로 시집가고, 남자고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강원도 그다음에 경상 동쪽. 다 하는 게 아니라, 세 개 도지. 거기서 이제 주소가 있을 거 아냐. 친한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 이쁘면 느그 동네 누구 하나 소개시켜 줘. 이러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4-H를 하다 보면 그 동네에서 장가 시집도 많이 갔고. 한 둘이 간 게 아니라, 4-H가

연애 비슷하게. 그 당시 아주 그 4-H회장 정도 되면은 중신으로 잘 보이
면 좀 이쁜 거 좀 차지하고, 아주 독점이죠. 그러니까 모여 해가지고 아
주 그때는 교회는 저리 가라여. 4-H가 최고의 큰 조직이거든. 전국적으
로. 그래서 그게 그 영향이 4-H회원들끼리 시집 장가간 사람이 무자게
많아요.

▶박철은 : 그 당시 때 4-H 생활을 하는 리더라고 하면 거의 젊은 사람들의 어쨌든
바른 생활의 일종의 표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나 개혁하고 뭔가
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 동네에서 그 구락부에서 단연코 선두적이었거
든요. 그래서 아마 선을 보든 중신을 하든 아마 그런 게 하나의 징표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락을 어떻게 하나. 그 당
시는 지금처럼 오프라인이 발전한 입장도 아니었고, 주로 편지로 래터로
주고받은 건데. 보통 그래요, 교육장에서 만나서 시군으로 들어가면 시
행사에서 또 만나게 되고, 도 행사에서 만나고, 전국 중앙단위에서 만나
는 시스템이 그 당시 때 YMCA를 뺀 나머지는 4-H 조직이 굉장히 버라
이어티했고, 실지 그게 매치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바른 사람 눈에는
바른 사람만 보이는 듯이, 항상 4-H 출신끼리 많이 맺어졌다는 부분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양경직 : 7. 교양교육 밑바탕에 깔고 있는데 다 민주주의 교육인데 그걸 느끼셨나
요? -(예정에 없던 질문을 했음)-

▶이창호 : 회의 진행법을 했기 때문에. 회의 진행법이 곧 민주 시민의 양성이예요
사실 회의 진행법은 4-H에서 나온거예요.

▶김육진 : 그리고 어렵פות이 기억하기에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왔다 간 목적이 뭐냐.
중앙경진대회에 가기 위해서. 중앙경진대회가 뭐냐면 서울에서 큰 잔치
인데, 새마을 뉴스 첫 화면에 중앙경진대회에.

▶박철은 : 민주주의는 회의 진행, 거기서 시작이 된 거지요. 가장 비근한 예로 일단
여러 명이 모이게 되면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 민주주
의식 회의를 진행하는 거를 학습 효과를 우리가 받은 거지요. 합리적인
의견 도출을 노력했던 거고, 그런 방식 옳다는 것도 느꼈던 거고. 더하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 4-H라는 것이 단순히 사교의 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각 품목별 종류별 개량하
고, 경진대회 품평회를 하거든요. 그 과정이 당해 연도 이듬해에 출품을
하기 위해서 무자게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요. 그게 경진대회 꽃인데 사
실은 그게 우리나라 하나의 농민의 장을 여는 지평을 여는 획기적인 그
런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돌이켜 보면 그런 거 같아요.

▶양경직 : 8. 훈련 과목 중에는 젓소 · 돼지 · 닭 키우는 교육이 있던데 선생님

은 주로 무엇을 배우셨나요?

▶이창호 : 장기생으로 다 한거죠.

▶김육진 : 돼지하고 젓소 두 가지.

▶박철은 : 젓소하고 닭에 관심이 많았어요. 배운 거는 과정에 아이템 별로 일정 주기로 교육을 받았어요.

▶양경직 : 9. 교육을 수료하고 난 이후, 선생님 인생에 끼친 영향과 변화가 있다면 무엇이 있었나요?

▶이창호 : 농촌의 관계 속을 많이 좀 넓혔다. 그거 하나는 있어요.

▶김육진 : 사람 관계, 조직 관계, 인연 관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시됐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하고의 관계가 발전된 거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농촌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박철은 : 4-H의 모토가 ‘좋은 것은 더욱 좋게’ 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이게 생활에 정말 모토가 됐고. 그 다음에 유소년기에 가장 바람직한 교육을 받은 게 아닌가 지금 돌이켜보면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때도 대마초에 히피니 굉장히 유행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한 점 정말 부끄럼 없이 4-H에 올인해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좌우 둘러볼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바르고 올곧게 생활한 그 환경이 지금 생각하면 감사하죠. 인생 영향에 지대했죠. 제 가치관이 거기서 구축이 됐으니까.

▶양경직 : 10. 사진을 보니 캐롤 비 · 하지스 한미재단 주한단장과 선생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던데, 기억하시기로 이분은 어떤 분이었나요?

▶이창호 : 그분이 올 때 보니까 6기통을 타고 오더라고. 운전기사도 생각이 나는데. 그분은 호텔에 장기 투숙을 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미 육군 대령 출신으로 미8군 주한 미군사령관 고문 역할도 했다고. 한두 번 보고 이랬기 때문에 이거는 뭐....(성품은 잘 모르고). 이분이 하지스 사모님이 82년도인가 레이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 하지스 사모님이 심장병 어린이를 데리고 미국에 갔어요. 그동안 약 3천 명을 데리고 갔어요. 세종병원이 아마 그래서 동기 유발이 돼서 빨리 만들어지지 않았나 제 생각이예요.

▶양경직 : 11. 사진을 보면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던데, 훈련농장 어디 쯤에 있었나요? 그리고 국기 게양식이나 하강식은 어떻게 했나요?

▶이창호 : 농장 들어가자마자 바로 왼쪽에 있었는데, 우리 때는 하지 않았어요.

▶김육진 : 그거만큼은 내가 탄거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강식 할 때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정확하게 군대식으로 했다고. 정확하게. 그때 하강식 할 때는 학생장하고 동기생 중에서 키 큰 학생을 뽑아서 아주 그거는 엄격하게 철저하게 하기식만큼은 정확하게 했어 정확하게. 아주 군대식으로 탁!

훈련을 받아서 그거하기 위해서 훈련받아서. 사진을 보면 도지사도 딱! 그때와서 같이 찍은 거 있는데.

▶박철은 : 농장 들어가자마자 바로 왼쪽에 있었어요.

▶양경직 : 12. 현재 한미재단4-H동문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데 동문회는 언제 재결성을 하게 되었나요?

▶이창호 : 한미재단 동문회가 197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구 한 십 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0년인데 이제 동문회도 한미재단이 한국이 성장하니까 한국을 도울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쇠퇴하면서 동문회도 또 흐지부지된 거예요. 또 선배님들이 잘했으면 되는데 잘 못해가지구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덧 전임 회장님이 우리 집도 아니까 니네 집에 다 좀 잘 뒤라해서 우리 집에 뒀고, 2013년도인가 무주에서 4-H 세계인가 아시아 행사할 때 한번 현수막을 걸고 동문회 열 분이 사진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또 84년도인가 이때 클로바 동기 간사를 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선배님들을 알게 되고, 그때 나 보고 니가 좀 해봐! 그런데 나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콩나물신문』 본지가 십 년이 됐다고. 거기서 등록문화재 2021년 봄에 예고 된다. 이런 거 알고, 그래서 인제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인제 하게 된 거예요. 계기가. 그래서 지금 한 100여 명이 넘게 들어와 있어요.

▶양경직 : 13. 현재 4-H훈련농장 ‘사일로’만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이창호 : 거기가 우선 현존되어 있는 그게 노후화가 되었더라도 파손된 게 아니니까 존치하는 쪽으로.

▶김육진 : 아니 정말 유산인데, 그러구 이걸 우리나라 농촌근대화에서 큰 역할을 한, 농촌의 혁명이라고. 농촌의 혁명이거든. 이걸 갖다가 없는 것도 찾아서 국가에서 해야될 일을, 우리가 밑에서 하고 있다고. 이걸 우리가 할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서서 이걸 정말로 이 전통과 이 좋은 이런 관습들, 모든 것들을 다 우리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할 유산이라구. 이걸 대통령이 나서서 것도 모자라지. 온 국민이 다 나서야지. 그렇게 중요한 농촌의 근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된 게 4-H거든. 지덕노체라고 해서. 이 근간의 발판이 다 없어져 버리구, 지금 그것조차 다 잊어버리고 있다고. 그 정신을 다시 되새겨서 우리가 지금도 소환시켜가지구 좋은 걸 기억하고 실천하고 요런 거를 해야 하는데 어마 무시한 이런 추억들이 다 없어져 버려. 그런 생 교육들이. 정말 이거는 안타깝고 정말 슬픈 이야기지.

- ▶박철은 : 저도 뭐 선배님(김육진)하고 맥락은 같은 맥락인데, 단지 이것이 일선 시군에서 단순히 그냥 어떤 상징적인 문화재로 특정 건물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전승 유지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재고되어야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일 먼저 사실은 현대 교육의 가장 시스템 교육의 시발점이 한미재단의 교육프로그램이었고. 두 번째는 한미 원조의 교두보 창구역할도 이 한미재단을 통해서 비롯되었고, 새마을운동의 근간도 한미재단의 교육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되었다 치더라도 근간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아쉽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역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봐도 존치 여부 내지는 교육적 프로그램을 같이 수반하는 그런 개발 계획이 되어야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 ▶양경직 : 14. 현재 한미재단4-H역사공원추진위원회가 결성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 ▶이창호 : 전에서부터 사실은 올초나 작년서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 하려다가 못했는데, 요번에 인제 급물살을 타서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주로 부천 시민들이 많겠죠. 부천 시민들의 목소리로 이게 무슨 누구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역사 그대로 해서 공원에 공원보다 스토리텔링이 있는 역사로 하면, 역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미재단 로고가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사과 상자로 세 상자나 어머어마하게 있고, 그러니까 아주 그 자료만 없다고 해도 인터넷으로 끝나겠지만. 자료가 있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게 되면,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8군이 언젠가는 그분들이 언젠가는 떠난다고. 1년이고 2년이고 본국으로 갈 때 그 사람들을 이리로 초빙하고 여기 펄벅재단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미국 가서 나 여기 갔다가 왔다. 어 그래! 또 서울에서 소사(부천)가 한 시간이면 와요. 무슨 뭐 강원도 홍천 3시간 4시간도 아니고. 그리고 또 김포공항에서는 또 이리로 오는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역사문화관광으로서 매우 아주 중요한 자원이고. 그 다음에 공원에 그냥 뭐 새로 지을 수 있어요. 새로 지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거를 잘 활용하면 어차피 거기 뭐 관리동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걸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내부에다 벽돌 쌓고 천장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존치하면 되는 거예요.
- ▶김육진 : 내가 거기에 덧붙일게요. 지금 현재 어디만큼 와 있냐면, 한 너댓 개라도 그대로 놔두자. 그런데 부천시나 시장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러냐고 난테 묻더라고. 그래서 그대로 좀 놔두자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하더라고. 그건 왜 안 되냐? 했더니 우범지역이

라 그대로 보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뜻으로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사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 위치에다 안내판하고. 그러면 사무총장이나 나나 한미재단 인으로서 그건 바라지 않거든. 역사 유물로서 그대로 간직하고 싶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막혔는데. 도와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는 시장하고 직접 알아본 걸로 난테 이야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려냐고 물어 보니까 우리는 그게 싫다. 그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분이 난처했나 그냥 바로 발을 빼더라고. 거기까지는 안 된다 하고 그래서 바로 그냥 접어버렸더라고. 그리고 그 뒤로 이야기를 안 했어요.

▶박철은 : 이번 우리 양경직 위원님을 뵙고 소정의 아웃소싱으로의 프로그램으로 끝날 게 아니고, 정말로 한미재단의 역사적인 현장의 터를 보존 유치할 수 있다면, 우리 총장님이 비치하고 계시는 어머어마한 자료, 사실 자료를 보면 가슴이 막 뛰고 심장이 벌렁거리는 엄청난 스릴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휘호서부터 엄청난 자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총장님으로 하여금 확신이 분명히 선다면 공개적으로 동문회 전체 의견을 들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우리가 말로만 외쳐서 용두사미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학술적인 고증과 자료를 확보해서, 이것을 현직 시스템에 근거한 정책 입안으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쾌거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그런 바램을 부탁드립니다.

▶장정규 : (이때 장정규 부천문화원 연구위원이 질문을 함)

제가 한가지만. 이창호 선생님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사과 박스로 한 세 박스가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박물관이나 시에서 한미재단과 관련된 어떤 아카이브 자료를 가지고 온라인 상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아카이브를 만들고자 하면 혹시 자료를 제공해주실 수 있나 하고 여쭙보고 싶습니다.

▶이창호 : 현재 우선 저희가 70년사를 만들거예요. 만든 다음에는 다 공개할 거예요. 만들기 전에는 공개를 안하고.

▶장정규 : 사실은 시에서도 요런 자료들이 있으면 좀 더, 이게 가장 중요한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자, 소사대공원을 만든다고 시의 원리는 다 철거하겠다는 얘깁니다. 시민들이 거기가 역사적인 그런 어떤 산실인데. 우리 농촌 계몽의 산실, 새마을운동의 산실인데, 이것을 시민들이 모르면 그냥 시 입장에서는 다 철거하고 말겁니다. 시민들이 알고 시민들이 지켜야 지켜낼 수가 있거든요. 시민들이 원하면 시에서도 못 철거하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시민들이 한미재단 소사4-H훈련농장에서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시민들 입장에서 의견 표현해주어야만 정책하는 시에서도 그걸 다른 방향으로 바꿀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70년사가 언제 나오는 거죠?

▶이창호 : 내년 한 1~2월 정도에는 만들려고 그래요.

▶양경직 :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5. 한국반도체 주식회사 설립자 강기동 박사 인터뷰

1. 일시 : 2023년 12월 13일 15시 00분 ~ 17시 00분
2. 장소 :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공간대여 GATHER’
3. 인터뷰 대상자

1974년 한국반도체주식회사 설립자 강기동 박사

4. 인터뷰 진행자

오형민 : 책임연구원, 부천대학교 교수

장정규 : 선임연구원 부천문화원 부천학연구소 연구위원

5. 채록문 작성 : 장정규

6. 내용 (사전 질문 내용)

- ① 한국에 반도체공장을 설립하기 전에 켈코(KEMCO)와 협력하여 미국 서니베일에 ‘ICII’ 라는 반도체 기술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 ICII가 한국에서 반도체공장을 설립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 ② 한국의 켈코와 미국의 ICII가 50대 50으로 투자해서 한국에 반도체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하는데 그 공장을 부천에 설립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③ 한국반도체가 삼성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박사님과 삼성 측의 설명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박사님은 ‘삼성이 풍전등화인 상태의 한국반도체를 치밀한 작전 하에 무혈점령하다시피 한 것.’ 이라고 한 반면, 삼성은 ‘매각처를 찾지 못한 한국반도체 측에서 먼저 삼성에게 인수를 타진하였다.’ 라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 대한 박사님의 의견은?
- ④ 197년 1월 26일에 한국반도체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그해 10월 4일에 부천공장이 준공되었다고 한다. 준공 당시 이미 박사님의 의지와는 달리 이상규 회장이 삼성 측과 매각 협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 ⑤ 부천에 한국반도체를 설립하였고, 그로 인해 삼성반도체(삼성전자), 페어차일드코리아, 온세미컨덕터 등으로 이어지면서 호암의 표지석처럼 부천이 ‘한국 반도체 기술의 산실’ 이 되었다. 부천이나 현재의 온세미컨덕터 등에서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해 보인다. 박사님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한국반도체주식회사 설립자 강기동 박사 인터뷰

7. 인터뷰 내용

※ 인터뷰는 약 2시간가량 진행되었으나 강기동 박사의 한국 반도체산업 전반에 걸친 의견을 폭넓게 진술하여, 본 과제와 관련된 내용만 작성자가 정리하여 기술함.

[한국반도체가 부천에 설립된 이유]

오형민 : 우리가 (박사님을 뵈게 되어서) 반갑고 기쁘고 궁금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부천이 반도체의 메카 역할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박사님이 70년대에 한국반도체를 부천에 설립해 주셔서 그게 결국은 이어져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거기서 출발한 것이잖아요? 그건 맞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부천으

로 오실 생각을 하셨나 하는 것이 전 궁금합니다.

강기동 : 나도 잘 몰라. 그건 김규한(한국반도체 한국 측 동업자) 씨가 가지고 있던 땅이에요.

오형민 : 아! 개인이, 그분이 소유한 땅이에요? 그럼, 그분이 거기에다 공장을 짓자고 하니까?

강기동 : 그렇죠. 나는 조건을 딱 냈어요. 서울에서 가까운데 여야 한다. 이거야. 그랬더니 가까운 데는 다 그린벨트에 묶여서 안 된 데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나 했더니 찾아보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지, 이상규 씨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이 부천에 있다. 이거야. 그래서 가 봤죠. 비가 오는 날 가 봤는데 질퍽질퍽하고, 그건 뭐 논바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뭐 언덕이 있고,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언덕인데, 좋네요. 뒤에 산도 있고요. 그래서 좋다고 했더니 그럼, 여기에 짓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오형민 : 그럼, 거기서 지으면서 사업을 처음 시작했잖아요? 하시면서 어려운 점.

강기동 : 어려운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형민 : 부천에 있으면서 어렵거나 한 것이?

강기동 : 아니요. 부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날 내쫓으려고 했잖아요. 그걸 말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거기까지. 그 얘기를 하죠. 처음 것. 직접 관련이 되는 것.

[한국반도체 설립과 어려움]

강기동 : 제가 반도체를 하려고, 저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보호하고 있는 기술이에요. 이것을 정말 내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가져오는데 한국에서 반도체를 한다고 하면 크게 환영을 받을 줄 알았다고. 들어오니까 환영이 아니야, 내쫓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스케줄 대로하자, 해가지고 공장은 집 짓는 허가를 냈습니다. 반도체가 아니고, 그래서 땅 파고, 편을 박고 그것을 시작했는데, 상공부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냈는데 제일 처음에 가서, 저는 (미국) ICII의 임원으로 한국에 와 가지고 한국의 챔코라는 회사하고 합작하는 형식으로 회사(한국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대표이사가 이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일은 자기네가 할 테니까, 강 박사는 테크놀러지만 해 달라. 그래서, 제 조건이 그랬어요. 난 뭐 한국의 판 것은 관련을 안 할 테니까, 반도체 칩 만드는 것에만 나는 컨센트레이트(집중)하겠다. 나머지는 네가 다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게 되지 않아요. 그 약속이 이행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술 사장이고, 한국의 대표이사라고 전무라

고 해서 이훈이 와 있는데 이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나가서 일을 안 해요. 난 제일 처음에 왜 그런지 몰랐죠. 그런데, 정일권이라는 사람 알아요? 상당히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른 여자하고 아들 낳은 거 알아요? 그게 내 발목을 잡았어요, 이훈이가 정일권의 사위예요. 바고 그때 소문이 잔뜩 났을 때인데 이훈이 어딜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고 해요. 자기가 창피해서 나가질 못 해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형민 : 원래 그분이 활동해야 하는데.

강기동 : 그렇죠. 그런데 나는 누가 아들을 낳는지 딸을 낳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누가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래서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이훈이가 문제가 있으면 뛰어다녀야 했는데, 그때 알게 되었어요. 이훈이가 나가게 되면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될 일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OK, 알겠다. 그때 그래서 내가 뛰기 시작했잖아요. 내가 길을 알거나 해요 뭘 압니까. 그래서 그때 조그만 회의, 조그만지 큰지도 몰라요, 반도체 관련 회의가 있었어요. 그건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도체협회**가 하는 일이었어요.

오형민 : 협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요.

강기동 : 상당히 컸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회사가, 미국 회사가 페어차일드 뭐 뭐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회사로 제일 큰 게 아남산업이었어요. 그래서 **반도체협회**가 생겼어요. 반도체협회의 이사장인지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미팅은 아니지만 거기 가서 내 사정을 이야기하려고 했다고. 내가 하는 게 진짜 반도체사업인데 도와주십시오. 반도체협회 아십니까? 그래서 갔더니 스무 명 정도 모였어요. 그래서 가서 저 강기동입니다. 해 봤자 강기동이 누군지 압니까? 그때 제가 서른아홉 살인가 그랬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다 늙은이들이예요. 지금은 내가 늙은이가 됐지만. 하여튼 가서 당장 내가 급하니까 이야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설명했어요. 당신네가 하는 것은 진짜 반도체가 아니다. 여자들 모아놓고 조립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진짜 이거 웨이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을 짓는데 잘되지 않는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설명했더니, 봤더니, 반도체협회라고 해서 뭐 크게 하는 것 같이, 자기네들이 수출실적이 얼마고 다 뺨 튀겨가지고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하는 반도체는 숫자만 키워놨지, 실제로는 여자들 임금 뜯어 먹는 거라고.

오형민 : 임가공 수준이죠.

강기동 : 그래서 거기서 그걸 갔다가 너희들이 하는 건 엉터리다 이거야. 그랬더니 늙은이 한 명이 제가 누구냐? 이거야. 그래서 좀 앉으라고 해서 앉았더니 제 내 보내라 이거야. 그래서 쫓겨났잖아. 그래서 일이 안 되니까 상공부

에다 서류를 접수 시켜놓고 허가가 않나요.

오형민 : 그것을 원래는 이훈 씨가 다 뛰어다니면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데 안 하시니까 강 박사님이 개발 기술 쪽을 맡기로 하신 분이 그것까지 다 뛰어다니셨던 거네요?

강기동 : 그래서 내가 회의에서도 내쫓겼더라. 이거라. 그러니 내가 어디 가서 이것을.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삼성반도체(삼성전자)와의 갈등]

오형민 : 어찌 됐든, 부천에 오셔서 사업 초기 단계에 많은 고생을 하셔서 회사를 이렇게, 시계에 들어가는 반도체 때문에 매출도 많이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경영을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시다가 경영권이 삼성에서 들어오면서 넘어가죠?

강기동 : 삼성이 들어와서 첫 일 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삼 년 있었어요. 첫째는, 삼성이 반도체를 전혀 모르잖아요. 삼성이.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때 회사 내부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면요, 시계 칩이 막 팔리니까, 조그만 거 팔아가지고 돈이 막 들어오잖아요. 거기 사람들이(삼성) 반도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다들 놀랐습니다. 요만큼 가져다가 팔았는데 돈은 이만큼 들어오잖아요.

오형민 : 그럼 삼성의 강진구 회장이 그때 같이 있었나요?

강기동 : 강진구는 전자 사장이고, 나는 반도체 사장으로 있었어요. 같은 사장의 위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반도체) 막 올라가니까, 회사 분위기가 전자 산업을 강기동에게 줘야겠다. 이거야.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전자 쪽이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때부터는 협조가 아니라 내 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일 년은 좋았는데. 그때부터 ‘강기동이는 삼성이 필요한 트랜지스터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강기동이 하는 것은 C-MOS라는 시계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 만들어 내는 재주뿐이어서, 삼성이 원하는 전자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못 된다.’ 라고 찍혀서. 이거예요. 내가 쫓겨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녹취 20:36) 한국 반도체 산업 50년 기념

오형민 : 어찌 됐든, 박사님이 미국에서 좋은 조건을 내려놓고 한국에 와서 부천에 사업체를 만들어서 씨앗을 뿌리셨는데, 그게 지나고 보니 내년이 50주년이 되더라고요. 내년이 한국에 반도체 산업이 시작된 지 강기동 박사님 때문에 50주년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하여 저희도 의견을 내려고 하는데요. 50주년에 대해서 혹시 하실 의견이 있는지요?

강기동 : 50주년 행사를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으면 국가 차원에서 했으면 해요. 그런데, 50주년인데 정부에서는 40주년으로 알고 있어요. 삼성이 40주년이라서요. 50주년이 법인설립 인가 날로 잡았어요. 1974년 1월 26일. 설립이라는 것이 인가가 나와 설립이지 내가 설립했다고 누가 알아줘요?

오형민 : 공장을 준공한 것은 10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준공부터 생산을 가동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요?

강기동 : 준공은 10월에 했어요. 그것도 가짜예요, 준공도. 제대로 준공이 아닙니다. 준공이라는 게 없어요. 그때가 급해져서 이상규 씨가 공장을 빨리 팔아먹으려고 기계들 있지요, 걸으로 사진만 찍게 나열해서 준공식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나한테는 의미가 없지만, 공장을 매각하기 위해서 의미가 있게 만든 거죠.

[부천에서의 사업 운영]

오형민 : 부천에서 사업하실 때는 부천이라는 곳을 어떻게 보셨어요?

강기동 : 나는 부천인지, 부산인지 상관없었어요. 자동차 타고 가서 일하고 나오고 그랬지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비 오는 날이면 질퍽질퍽하고 회사에 가면 회사 정문 앞에서부터는 포장이 되어 있어요. 회사 문까지는 포장 안 되어 있다고

오형민 : 그때 세실 때에는 직원이 몇 명이었나요?

강기동 : 시작은 열 명이예요. 그리고 끝날 때는 300명 정도 됐지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나 혼자죠.

오형민 : 부천에서 그 당시에 300명 정도면 굉장히 큰 기업 아닌가요? 70년도에.

강기동 : 크고 작고는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비교할 근거는 없습니다. 난 내가 하는 것만 했지, 다른 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걸 키우려고 무척 애를 썼지, 남이 볼 때는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작다고 할 수도 있고.

오형민 : 그러면 종업원들이 주로 부천에 사셨던 분들인가요?

강기동 : 부천 근처에서 내가 픽업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광고해서 뽑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뽑고, 엔지니어들은 내가 서울대학에 가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뽑았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는 상관 안 했습니다. 어디 살든 실력 있으면 오라고 했습니다.

오형민 : 부천시(당시 김포군)가 도움을 주거나 사업하는데 그런 것은 없었나요?

강기동 : 부천시가 방해한 것은 없어요. 그렇다고 또 도와준 것도 없어요. 도와줬다면 뭐 포장이라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오형민 : 그때, 물이 좀, 용수가 좀 부족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강기동 : 반도체는 어디를 가든지 물을 많이 씁니다. 여기만 용수가 부족한 것이 아

나라, 내가 한강 옆에다 만들어 놔도 항상 용수 문제는 나와요. 그러니까 그 용수라는 것이 아무 물이 아니라 순수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원이 있어야겠고, 그걸 정제하는 정제시설이 있어야 해요.

[한국에 반도체 기술을 들여오기 위한 미국에서 노력]

오형민 : 그런 것은 힘들지 않으셨어요? 물 문제 이런 것은?

강기동 : 한국이라 데가 그 당시에는 별판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반도체 산업은 미국에서도 최첨단이에요. 요구조건이, 어떤 것이 반도체 산업에서 필요하면, 전기, 물, 거기에 부수되는 소위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무어라고 하죠? (기반 시설) 그게 없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고도로 발달한 지역에서만 가능한 산업이 반도체 산업입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 산업을 한국에 가져오려고 하니깐, 이게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 할 수도 없는 데 이걸 반도체 산업을 거기 가서 합니까? 제가 두 가지를 거기서(미국에서) 제일 힘들게 한 것이 반도체 공정 자체, 뭐 기계 사다 놓고, 공장 짓고, 그거는 반도체 공정은 내가 전문이라서 그건 쉽게 할 수 있는데, 물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인프라스트럭처는 내가 해 봐야지요. 미국에서 물은 수도관에 연결하면 물을 공급받고, 가스 역시 연결하면 되지만 한국은 그게 없잖아요. 그걸 만들어야겠다. 이거야. 전기라면 전깃줄 연결하면 전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깃줄 연결해도 조금 있으면 나가요. 그러면, 정전이 되지 않는 전기, 또한 정전이 안 되더라도 안정된 전압을 유지하는 전기가 필요하단 이거예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당장. 그래서 공정은 내가 미국 사람 하나를 채용해서 그 사람한테 공정을 3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 사람 이름이 테리마틴이라는 사람이에요. 테리마틴에게 공정은 다 맡기고, 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었다고요. 그걸 공부했다고. 반도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물은 어떻게 만드냐? 가스, 나이트로젠가스는 어떻게 만드냐?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회사에 앉아서, 내가 한국에 가져갈 공정은 회사가 반도체 회사이니까 필요한 공정은 회사에 앉아서 연구해도 남이 몰라요. 그런데 물, 전기를 회사에 앉아서 그런 일을 하면 금방 들통나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된 겁니다. 아무나 이걸 할 수 있는 공정이 아닙니다.

장정규 : 그럼 선생님께서는 한국에 반도체 산업을 들여오기 위해서 미국의 반도체 회사에 가서 배우셨다는 것인가요?

강기동 : 배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다 개발한 거예요. 내 자신이 개발한 것이

지.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면 삼성이라는 것이 크지 않습니까? 거기서 최고의 기술자라고 칩시다. 그 친구가 새로운 것을 만들게 되면 어디서 베껴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가 다른 데는 없으니까. 제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오형민 : 삼성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전에 학습을 빨리하고, 경험을 빨리, 노하우를 빨리 획득하게 되었네요.

강기동 : 그런데 이 회사(미국의 회사)에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이 회사에서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조직을 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에서 조직을 했고, 인프라스트럭처는 여기에 물 공급하고, 전기 공급하고,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이 회사에 있던 것을 그대로 베껴왔어요. 그래서 한국반도체에 여기서 나온, 여기 있던 시설이지요. 그것을 그대로 베껴서 부천에다 옮긴 것이예요. 그걸 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오형민 : 그러면 반도체 산업이 자리 잡는데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절감시켰네요?

강기동 : 그렇죠. 내가 전부 직접 했어요.

오형민 : 직접 다 하고 오셨으니까.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만든 것을 부천공장에 세팅해 놓으니까, 삼성에서도 그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빨리 노하우를 흡수한 것이네요. 그리고 나서는 흔적을 들어내지 않으려고 자꾸 지우고 감추려고 하네요. 자기들이 다 했다고.

강기동 : 그렇죠. 자기네 집 안에 있는 거니까 이제는.

[반도체 기술의 선구자 강기동]

오형민 : 그러면 삼성 말고, 현대나 하이닉스하고도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이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문을 해 주셨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주영 회장과 인연이 있으신가요?

강기동 : 아니, 정주영이는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닌데, 자기가 찾아왔어요.

오형민 : 그러면 같이하자고?

강기동 : 같이 하자가 아니고, 나를 사장으로 시키겠다고 그런 것이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노 했죠,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데려다 쓰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는 손을 떼었다고.

오형민 : 그럼 제품 개발이나 생산에는 직접 관여는 안 하시고?

강기동 : 관여 안 했죠.

장정규 : 선생님께서 C-MOS라는 반도체 기술을 처음 개척하셨다고 하나, 아니면 만드셨다고 하나,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C-MOS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유리한데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강기동 : 사실은 새로운, 옛날부터, 개념 자체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반도체의 MOS라는 트랜지스터가 생기면서 페어차일드에 있던 연구원들이 와이퍼에 있던 아이디어를 MOS에 패턴 트리를 적용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남이 안 하는 것을 가지고 패턴 트리를 했어요. 기술적으로 볼 때는 그전에 있던 개념이에요. 그런데, 저는 반도체 엔지니어로 모토로라에서, 모토로라는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 아닙니까? 거기에 초기에 내가 그 회사로 갔어요. 엔지니어로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5천 명이 있는 미국에서는 제일 큰 반도체 회사예요. 내가 반도체 박사학위를 받고 엔지니어로 들어갔어요. 그 회사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시고, 두 번째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나를 뽑은 연구소장이에요. 내가 세 번째예요. 그래서 그 큰 공장에, 반도체 하게 되면 기술회사 아닙니까? 거기서 반도체로 제대로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제가 혼자입니다.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내 위에 두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반도체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땀어요. 그때 회사 사장이 호관(Hogan)이고 연구소장이 레스크(Lesk)였어요. 이렇게 세 사람 중에 진짜 반도체를 할 줄 아는 건 나 혼자뿐이에요.

오형민 :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랬었고, 한국에서도 어셈블리 수준이 아닌 진짜 반도체를 공장을 만드는 것은, 인프라부터 처음 하신 분이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처음이신 거네요. 사실 한국 정부가 박사님 같은 보물을 예우하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장정규 : 우리가 사실 연구용역이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책자라든지 선생님 녹취한 기록 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몇 가지 우리가 선생님께서 직접 듣고 싶었던 점들은 오늘 다 여쭙겠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50주년 기념]

오형민 : 우리는 욕심이 이 50주년 기념을 누군가가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 정부나, 부천시가 서로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50년 행사를 서울 한복판이 아니라 부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부천시 산자부 등 여러 기관이나 기업이 함께 하면, 그래야 또 국민이나, 시민들이 관심을 두잖아요.

강기동 : 지금 우리 반도체의 역사가 50년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역사는 70년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큰소리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국이 반도체 가지고 세계 일등 했잖아요. 그러니 세계적으로 떠들 만한 것, 집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 끌어들이고, 한국이 이 정도 됐다. 이거야. 국가 차원의 행사를 하려면, 우리는 50년, 미국은 70년이니까 우리는 꿀릴 게 하나도 없다 이거야. 일본도 끌어들이고, 일본보다도 우리가 낫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강기동이가 만든 부천의 테크놀러지를 자기네 들은 일본에서 받았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50년이다. 하고 일본 대사로 불러라 이거야, 내가 거짓말하는 것 아니다. 이거예요. 부천공장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건 사실이니까. 생기기만 한 것이 아니예요. 그동안에 반도체로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이거예요. 삼성 이견희가 가진 돈 사실 다 내가 벌어들인 돈 이거예요. 반도체가 커졌기 때문에, 반도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세계 탑이 아닙니까? 그동안에 벌어들인 돈 다 합하면 어마어마한 돈 이라고요. 그 돈이 지금 한국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50년 행사를 미국한테 꿀릴 것 없다. 해서 국내에서 행사라기보다는 세계적인 행사로 승격을 시켜서, 타당성이 있다면 부천시장님에게 세계를 대상으로 큰 사업을 하자. 이거예요. 부천시에서 대통령도 데려오면 돼요. 그런데 대통령은 40년으로 알고 있다고요.

오형민 : 그래서 내가 노종호(한국 반도체 산업사 전문가) 교수한테 여쭙어봤어요. 혹시 이런 50주년을 누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데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 데도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강기동 : 그런데 지금 문제를 내가 이야기할게요. 삼성은 강기동이가 나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는 이유가, 다 지나간 일 인데.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 십 퍼센트밖에 못 했어요.

장정규 : 공식적으로 이거 한 가지만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나, 영상이나 이것을 책으로 내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리 작성된 동의서) 여기에 성함하고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영상과 녹취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선생님이 주신 자료를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서입니다.

강기동 : (동의서에 서명)

끝.

12월 13일 강기동 박사와 인터뷰를 끝내고, 이틀 후에 강기동 박사가 우리 연구진 (오형민 교수)에게 전화를 주셨으며, 그 통화 내용은 부천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각 별한 관심과 (미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부천을 꼭 방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으며, 추후, 부천시청 · 부천대학교 · 부천문화재단 등과 가능한 일정을 협의할 예정임.

